

너른 고을 · 廣州 인물전



우리나라 어느 지방을 가도 각 지방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기도 하였으며 사대부(士大夫)의 지조(志操)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일신의 영화를 버린 절신(節臣)이 있는가 하면 학문을 탐구하여 크게 공을 세운 분들도 있다. 그 지역에서 탄생한 인물도 있으며 탄생하지는 않았어도 그곳에서 성장하여 입신양명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그 고읍의 목민관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역대 부민(府民)에게 추앙을 받은 인물도 있다. 이처럼 광주에도 여러 가지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후세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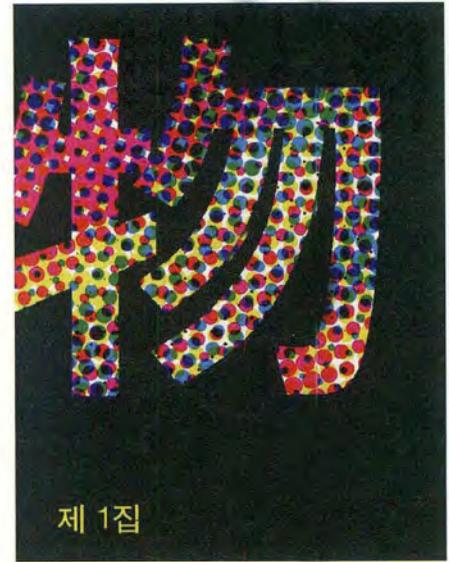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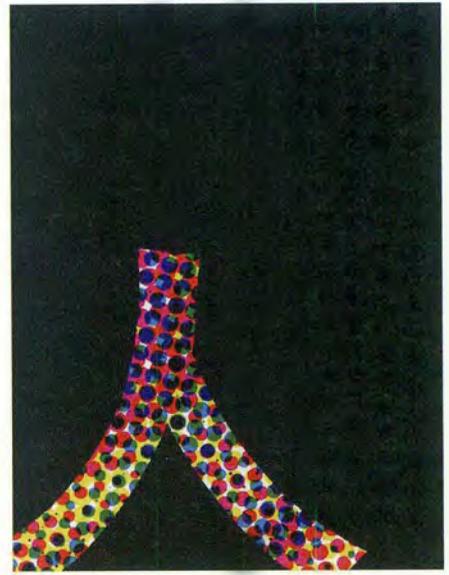
광주문화원

너른 고을·廣州
인물전

발행인	남재호_광주문화원장
편집인	박광운_광주시 향토문화연구소장
발행처	광주문화원 www.gjcc.or.kr
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57-26
전화	031-764-0686 팩스031-761-0315
인쇄일	2013. 12. 20
발행일	2013. 12. 30
디자인제작	홍익문화사 www.hongeeg.com
전화	02-2274-8110

너른 고을  廣州
너른 인물전

너른 고을 · 廣州 인물전



광주문화원

우리고장의
위대한 역사인물들의
궤적을 살펴보고
광주시민이
온고지신의 소양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역사는 인륜(人倫)의 거울이란 말이 있다. 따라서 역사 속 훌륭한 인물들의 행장(行狀)이나 업적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여 그 속에서 새로운 인생여정(人生旅程)을 다시 꾸며 보게 되기도 하고 그들의 위국충절(爲國忠節)이나 모범적인 행실, 또는 학문탐구에 쏟은 결실로 후세에게 남겨준 학구열 등을 귀감(龜鑑)으로 삼고자 인물전(人物傳)을 편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어느 지방을 가도 각 지방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기도 하였으며, 사대부(士大夫)의 지조(志操)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일신의 영화를 버린 절신(節臣)이 있는가 하면, 학문을 탐구하여 크게 공을 세운 분들도 있다. 그 지역에서 탄생한 인물도 있으며, 탄생하지는 않았어도 그곳에서 성장하여 입신양명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그 고을의 목민관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역내 부민(府民)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도 있다. 이처럼 광주에도 여러 가지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후세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금번 시대별로 광주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열네 분을 골라



광주문화위원장 남재호

『너른고을 인물전』 제1집을 간행하게 되었다.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수절신(守節臣)인 석탄(石灘) 이양중(李養中) 선생을 비롯하여 조선 전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에 활약한 정치가, 학자 등 명현들과 조선조가 몰락하면서 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할 때 분연히 일어나 항일운동을 전개한 애국지사들을 망라하여 광주의 대표적인 현인(賢人)들을 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발굴 집필하여 이 책을 발간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 책을 광주 시민들이 탐독함으로써 우리고장의 위대한 역사 인물들의 궤적을 살펴보고 광주시민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소양(素養)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집필하신 여러 선생들의 노고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편집과 교정으로 수고하신 향토문화연구소의 박광운 소장을 비롯한 여러 연구위원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 드리는 바이다.

차례

너를 고을 사람전

제1집



□ 고려 말의 수절신, 이양중 8

고려 말 이양중의 행장과 조선의 건국 9 / 고려의 절신들이 고승정에서 시회를 열다 11 / 변계량과 이양중 12 / 광주로 낙향한 이양중과 왕숙천 14 / 조선조가 평가한 이양중의 충절 17

□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 최항^{崔恒} 21

세종시대 문화의 꽃을 피운 최항 21 / 최항의 관계 진출과 집현전 22 / 훈민정음과 최항 24 / 관직 생활과 업적 27 / 최항의 인품과 사후의 평가 30

□ 대쪽같은 청백리 재상, 구치관 32

충렬공의 가계와 생애 32 / 충렬공 이야기 40

□ 북방을 지킨 용장, 신립 49

신립의 가계 49 / 신립의 생애 51 / 신립이 치른 주요 전투 53 / 관련 문화재 61 / 관련 설화와 전설 65 / 관련 문헌 자료 66

□ 올곧은 선비 정신, 정홍익^{鄭弘翼} 75

정홍익의 가계와 성장, 그리고 출사 75 / 출사 후의 행장 76 / 영창대군의 증살과 인목대비의 폐출 79 / 조선 선비의 표본으로 살다 간 생애 84

□ 심양에 핀 충의 忠義, 정뇌경 鄭雷卿 88

병자호란 이전의 생애와 행적 88 / 남한산성의 전시 조정과 정뇌경 92 / 심양에서의 세자 교육과 정명수 제거 계획 94 / 정뇌경 순국의 날 97 / 정뇌경 순국의 평가와 교훈 99

□ 선비 정신의 표본, 오달제 102

오달제의 가계와 출사 103 / 조선의 정세와 조정의 갈라진 공론 104 / 병자호란의 발발 110 / 남한산성의 한을 품고 복행하는 오달제 114 / 심양에서의 최후 118 / 오달제의 인품과 사상 119 / 인고의 세월을 살다 간 부인 의령 남 씨 120 / 현절사와 오달제 122

□ 비운의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헌 126

허난설헌의 가계 126 / 허난설헌의 생애 128 / 허난설헌의 문학세계 132 / 허난설헌의 주요 작품 134 / 관련 문화재 137 / 관련 문헌 자료 138

□ 역사 고증에 철저한 실학자, 안정복 142

안정복이 살아온 길과 인간상 142 / 성호문인 안정복과 성호학과 146 /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150 / 광주와 실학자 안정복 156

□ 시대의 격랑과 운양 김윤식의 삶 158

탄생지 제설(諸說)에 대한 관견(管見) 159 / 유년기의 학업 162 / 학문과 교유 163 / 운양 선생 연보 166 / 경술국치 당시의 행적과 「대일본장서」를 통한 독립청원 169 / 결론 179

□ 애국지사, 구연영 182

구연영의 가계와 생애 182 / 의병장 구연영의 의병 항쟁 183 / 선각자 구연영의 전도 활동 189

□ 정암 이종훈의 생애와 민족운동 194

실촌면 유여리에서 출생하다 194 / 동학에 입도하다 195 / 반봉건 반외세 동학혁명에 참가하다 197 / 피산 권아를 점령하다 198 / 중군장으로 우금치 전투에 참가하다 199 / 근대문명운동을 주도하다 200 / 신생활운동을 전개하다 202 / 3·1운동 민족대표로 서명하다 203 /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다 205 / 천도교 혁신운동을 이끌다 206 / 고려혁명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다 208

□ 민주주의의 큰 별, 신익희 211

여는 글 211 / 금강산과 무갑산, 그리고 남한산의 정기를 받다 211 / 시대적 사명, 민족독립운동 215 / 해방과 대한민국의 건국 218 / 해공의 정치철학 220 / 맺으면서 223

□ 한결 김윤경 선생의 삶과 학문 225

가풍과 유년기의 한문 공부 225 / 주시경과의 만남, 신학문에의 개안(開眼) 227 / 동경의 입교 대학교 시절 229 / 『조선문자급어학사』 간행 231 / 일제 강점기와 6·25 동안, 혹독했던 수난의 세월 234



고려 말의 수절신, 이양중

이양중(李養中)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자정(子精). 호는 석탄(石灘). 그는 고려가 멸망하고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조선이 개국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킨 고려 말 두문동(杜門洞) 72현의 한 사람으로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두들기 마을에 영면(永眠)하고 있는 고려 말의 충신이다.

『동사찬요(東史纂要)』(1606년 간행, 吳澐 저) 열전(列傳)에 길재(吉再), 이양중, 서견(徐甄), 김주(金澍)를 고려 말에 절의(節義)를 지킨 사군자(四君子)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양중이 이처럼 고려 말 수절신(守節臣)으로 평가 받는 것은 그의 절조(節操)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고려 말의 정국은 극히 혼란스러웠다. 북에서는 홍건적(紅巾賊)이 창궐하여 고려를 침입하니 공민왕(恭愍王)이 도성인 개성을 버리고 안동(安東)으로 파천(播遷)하는 일이 벌어졌고, 남으로는 왜구(倭寇)의 잦은 침입과 약탈로 백성들은 노략질을 당하고, 조정은 그들을 토벌하기에 국력을 소모하여야 했다. 이양중(李養中)은 이러한 혼란기에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쓰러져가는 고려의 사직(社稷)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고려의 멸망을 막지는 못하였다.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5남인 이방원(李芳遠, 훗날의 태종)과 절친하였으며, 어려서 원천석(元天錫) 문하에서 동문수학(同門修學) 하면서 의형제를 맺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방원 보다는 나이가 위로 1350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방원이 문과에 급제한 것이 1382년(우왕 8)이니 아마도 이양중의 급제시기도 이 무렵일 것으로 보인다. 이양중의 21대 종손인 이창희 광주문화원 부원장의 말에 의하면, 종택(宗宅)이 있던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는 1950년 6·25 전쟁 때 중부전선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포화(砲火)에 종택이 전소되고 족보와 선조들의 교지·문집·서책들이 모두 소실되면서 한 권의 서책도 전해오는 것이 없어 안타깝지만 정확한 생몰년 시기는 확인 할 길이 없다. 이 글에서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연려

실기술』 등을 비롯하여 이양중과 절친하였던 인물들의 문집 등을 중심으로 그의 행장을 더듬어 살펴보았다.

고려 말 이양중의 행장과 조선의 건국

이양중은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원천석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을 좋아했는데, 고려 말에 시국이 어지러워지자 개경(開京)에서 후진들을 교육시키며 살다가 고향인 강원도 원주로 낙향하여 치악산 밑에 은거하며 학문 탐구와 후진 교육에 전념하였다.

원천석이 개경에서 이방원을 비롯하여 이양중, 길재 등 유수의 젊은 재사(才士)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학문은 매우 뛰어나 당대의 유명한 학자로 평판이 자자했고, 후일 두문동 72현에 등재되었다. 이양중과 이방원은 그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다.

이양중이 출사하여 여러 관직을 담당하던 시기는 공민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하여 수구주의자(守舊主義者)와 개혁주의자(改革主義者)로 나뉘어 제각기 세력을 다투던 시기였다. 대표적인 수구주의자로는 문관 이인임(李仁任)과 무관 최영(崔瑩)이 있었고, 개혁주의자로는 온건적인 정몽주(鄭夢周)와 급진 개혁주의자인 정도전(鄭道傳)이 있었다. 청렴한 최영(崔瑩)은 자신의 신념을 다해 기울어져가는 고려 조정을 붙들고 일으키려 했으며, 이인임은 자신의 배경과 힘을 이용해 고려를 주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인임의 권력 농단이 심해짐에 따라 우왕은 큰 위협을 느꼈고, 최영에게 명하여 이인임을 제거하도록 했는데, 이때 최영이 끌어들이는 인물이 바로 이성계(李成桂)였다. 이인임은 평소에 이성계의 야심을 경계하여 최영에게 '이성계는 왕이 되려 할 자'라며 경고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성계와 함께 전장(戰場)을 누빈 최영에게 있어서 그는 전우이며 동지였다. 비리의 온상이나 다름없었던 이인임에 비해 청렴하고 인망(人望)이 있던 이성계는 훨씬 믿음직한 동맹자였던 것이다. 이에 최영은 이성계로 하여금 이인임을 몰아내게 하고 자신이 고려의 정권을 잡은 후 과거의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개혁하려고 했다.

최영은 이성계로 하여금 입자 없는 땅인 요동을 정벌하려고 출병을 서둘렀다. 반면 문관인 이양중은 나라의 형편이 요동을 정벌할만한 여유가 없으며,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우왕에게 올려 최영의 노여움을 샀고 귀양에 처해졌다. 이때 이양중뿐만 아니라 그와 뜻을 같이 하던 몇 사람도 함께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최영의 요동 공격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무산되었다. 오히려 회군한 이성계는 조민수와 힘을 합쳐 개성에서 일전을 벌여 최영을 죽인다.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정몽주(鄭夢周)와 정도전(鄭道傳)이었다. 그들은 고려의 사직을 구하고자 이성계와 함께 세력을 구축하였다. 한편, 이양중은 귀양에서 풀려나 다시 조정에 들어가 형조좌참의(刑曹左參議)에 올랐고, 정몽주와 뜻을 함께하며 이방원과도 더욱 가까워졌다. 시국은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기 시작하였고, 혼란 속에서 고려의 정권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양중은 이색(李穡), 정몽주, 김자수(金自粹), 길재, 이승인(李崇仁), 이집(李集), 서견, 원천석, 이방원 등 당대의 뛰어난 유학자이자 명현들과 교류하였다. 정도전은 이성계와 가까워지면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였고, 정몽주는 사직(社稷)을 지키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도로는 숭유정책(崇儒政策)을 확고히 국시(國是)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무관인 이성계가 수상으로 있는 것을 불만스러워했다. 그는 중국에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전통 유교사상이 무르익었고, 고려와 명나라가 호흡이 잘 맞았기에 시들어가는 고려의 사직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려의 왕통(王統)을 이어갈 왕재(王才)가 없다는 이유로 정도전과 이성계, 그리고 이방원이 주축이 되어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드디어 선죽교(善竹橋)에서 정몽주를 시해(弑害)하였다. 이로 인해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세력은 구심점이 없어 힘을 잃었다. 정몽주를 따르던 세력의 일부는 제거되었고, 일부는 이성계의 세력에 투항하였으며, 일부는 조정을 버리고 낙향하여 지조를 지켰다. 결국 정도전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개혁을 성공하였다. 1392년(임신) 6월 17일에 이성계는 육조(六曹)의 재신들과 백관들이 수창궁(壽昌宮)에 모여 영접하는 가운데 조선을 건국하고 왕위에 오른 것이다.

고려의 절신들이 고송정에서 시회를 열다

이방원에 의해 정몽주가 시해되고 급기야 조선이 개국되자 정몽주를 따르던 고려 말의 절신들은 망국의 슬픔을 달래며 고송정(孤松亭)이라는 정자에 모여 시회(詩會)를 열었고 연구(聯句) 하나씩을 읊었는데, 『상촌문집(桑村文集)』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故國三盃酒 愍慙共合簪	옛 나라의 석잔 술에 은근 하게 머리를 맞댔네 - 윤곡(耘谷) 원천석(元天錫)
疲篋迎雪慙 晚菊傲霜蕪	수척한 대나무는 눈 속에도 의젓하고 늦게 핀 국화는 서리 무시하고 향기롭네 - 고송(孤松) 허견(許絹)
天日元無二 人生眞有三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고 사람에겐 당초 셋 ¹ 이 있다네 - 아은(治隱) 길재(吉再)
剛微澄肺腑 禿柳織藍衫	억센 고사리로는 폐부를 맑게 하고 모지랑 버들가지로 푸른 옷감을 짜네 -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
珍重無瑕玉 浮沈不染藍	진귀하고 흠 없는 옥들은 세상이 부침(浮沈)해도 물들지 않는다네 - 둔촌(遁村) 이집(李集)
孤臣餘故舊 良友盡西南	외로운 신하에게도 옛 친구 남아 어진 벗들 사망으로 흩어졌네 - 석탄(石灘) 이양중(李養中)
袞鉞春秋義 農桑日夕談	나랏일은 춘추의 대의이고 농상은 일석의 이야기이지 -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
愴懷憑落照 轉蟄掩松菴	서글픈 회포 낙조에 의지하고 자취 감추고 송암(松菴)에 숨었네 - 여와(麗窩) 서견(徐甄)

길재는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득세할 것을 미리 짐작하여 부모를 봉양하며 고향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후학 선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하루는

¹ 군(君), 사(師), 부(父)를 말함인 듯함.

이색(李穡)이 귀양에서 풀려 밤에 적소(謫所)로부터 이양중의 집으로 왔다. 서견(徐甄)은 이미 와 있었고,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국사(國事)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동시에 사직하고 농촌에 가서 농부가 되어 이런 변을 안 볼 것을 그랬다”고 하면서 길재의 말을 따르지 못하였음을 한탄하였다.

태조가 역성혁명(易姓革命)을 하면서 고려의 명현들을 다시 등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고려조에서 명성을 떨치던 관료들 대부분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태조가 이양중을 불러 벼슬을 받지 않으면 치죄(治罪) 하겠다고 했으나 이천우(李天祐) 등이 태조에게 “이양중은 고려조 때의 수절 대신이요 고집이 대단해 벼슬로도 달랠 수 없고 죽여도 항복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할 정도로 이양중의 지조와 의리는 높았다. 실제로 이양중은 원천석, 김약시(金若時), 최청(崔淸), 범세동(范世東) 등의 동지와 함께 봄가을로 고려 태조와 공민왕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변계량과 이양중



춘정집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은 고려 말에 이양중과 함께 벼슬했던 절친한 선후배 사이였다. 조선 개국 후 벼슬을 하사받고 출사하라고 하였으나 처음에는 나가지 않았다. 그는 문장력이 뛰어나고, 시문(詩文)에 밝았으며, 학문이 깊어 정도전에 버금가는 학자로 훗날 출사하여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과 의정부 찬성(贊成)을 지냈다.

변계량이 조선 조정에 나가면서 이양중에게 함께 출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양중이 조선조의 벼슬을 하사받을 리가 없었다. 이양중이 조선 초에 일본에 사신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고려 말에 왜구의 침노가 횡행하여 이 때문에 왕명으로 간 것인지 확실한 자료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으나, 변계량의 문집인 『춘정집(春亭集)』에는 다음과 같이 일본으로 떠나는 친구 이양중을 송별하며 지어준 글이 실려 있다.

「送李養中奉使日本」 「사명(使命)을 띠고 일본으로 가는 이양중(李養中)을 송별하며

六月暑方熾	유월의 더위가 바야흐로 한창인데
問君將何之	그대는 어디로 떠나려고 하는가
主上重鄰好	주상께서 이웃 나라 우호를 중시하니
奉使安敢辭	사절의 임무를 사양할 수 있겠는가
聞昔阿每氏	들은 바에 의하면 옛날에 아매(阿每) 씨가
建國扶桑湄	부상의 물가에다 나라를 세웠다고
其俗固知方	그 나라 풍속이 나갈 길을 아는지라
慕義競來馳	의리를 사모하여 앞 다투어 찾아왔지
報聘禮則然	예절 상 그들에게 답례를 해야 하니
專對子所期	그대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게
告別一何遽	어쩌면 그렇게도 서둘러 고별인가
水道天之涯	천에에 해로를 건너기 때문일 테지
修陸禁草竊	우호를 닦아서 해구를 금지하고
喻德敦懷綏	덕으로 타일러 회수를 잘 하게나
誠心互來往	성심으로 서로가 왕래를 해야지
永世無改移	영원히 변함없이 유지가 될 걸세
贈行復何言	송별 임해 또다시 무슨 말을 해주겠나
勗君其念茲	이 점을 유의하길 그대에게 권면할 뿐 — 『春亭集(卞季良文集)』 4卷

이양중이 일본에 사명을 띠고 갔었다는 기사는 『태종실록』에서도 보이는데 언제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다.

『太宗實錄』 8년 9월 19일

소복(素服)으로 정전(正殿)에 좌기(坐起)하여 일본 국왕의 사자(使者)를 인견하고, 사자에게 명하여
전(殿)에 오르게 하고 말하기를, “어제 왔을 때는 내가 마침 혼전(魂殿)에 나가 있었으므로, 명(命)을
전하는 소환(小宦)이 내게 알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였다. 이웃 나라 사신이 오랫동안 객관(客館)에
머물러 있는데 마침 국가에 일이 많아서 후하게 위로하지 못하였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하였다.
사자가 아뢰기를, “한번 청광(淸光)을 뵈기를 원한 지가 오래였는데, 지금 뵈옵게 되니 무엇이 이토
록 기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 임금이 끊이지 않고 사자를 보내고, 또 이양중(李養中)이 갔을 때에 대
우를 심히 후하게 하였는데, 내가 국상(國喪)으로 인하여 마음 같이 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시(內
侍)를 명하여 서상(西廂)에서 대접하게 하였다.²

2 원문(原文) 以素服御正殿, 引見日本國王使者, 命升殿語之曰: “昨日之來, 予適詣魂殿, 小宦將命, 不使我知, 是以不見隣國之使, 久淹客館. 適值國家多事, 未能厚慰, 負愧多矣.” 使者啓云: “願一望淸光久矣, 今乃得見, 何喜如之!” 上曰: “汝國王遣使不絕, 且於李養中之行, 待遇甚厚, 予因國喪, 未獲如心.” 命內侍饋于西廂.

광주로 낙향한 이양중과 왕숙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이양중은 광주(廣州)로 낙향하였다. 한강 기슭인 석탄(石灘, 돌여울)으로 지금의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이다. 그의 호를 '석탄(石灘)'으로 지은 것도 이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한강이 문턱에 있어 낚시로 소일 할 수 있고, 언덕이 높지 않아 왕래하기가 힘들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이곳에 은거하고 있을 때도 조정으로부터 몇 차례 사람이 와서 출사를 권유받았다. 한성 판윤(漢城判尹)을 제수하였으나 미동도 하지 않고 응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니, 조선의 제3대 임금인 태종이다. 어려서부터 절친한 친구요, 공부도 함께 하고 과거에도 같이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관직 생활도 함께한 친구 이양중이 그의 머리에서 떠날 수는 없었다. 이에 태종이 근시(近侍)를 보내 재차 출사를 권유했으나 역시 헛수고였다. 임금이 부르는데 이유 없이 가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것인데, 이양중은 병을 핑계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태종은 변복을 하고 직접 이양중의 처소인 광주의 한강변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태종이 이양중의 집에 도착하여 보니 그는 한강에 낚시하러 나가고 없었다. 종자가 급히 이양중을 불러 두 사람이 대좌하게 되었다. 이양중은 야인(野人)의 복장으로 다만 거문고를 들고 와서 왕을 배알 하고 술과 손수 잡은 물고기 안주를 함께 드리고, 그 옆에서 말없이 거문고를 켜며 술을 권하였다. 태종도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며 젊어서 함께 즐기던 추억만을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꺼냈다. 태종은 이양중에게 출사(出仕)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양중도 출사를 안 한 것에 대하여 불충(不忠)을 용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어도 두 사람은 의기가 통할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양중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개만큼은 추호도 굽힘이 없었다. 태종도 절친한 친구이나 군왕으로서 억지로 그의 출사를 권유한다는 것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고 사적(史蹟)은 기록하고 있다.

태종이 석탄을 광주(廣州)로 찾아와 가로되,

故人能忘昔日之情乎 / 그대가 어찌 옛날 우정을 잊었는가?

在昔光武嚴光之故人 / 옛적에 광무(光武) 황제와 엄자능(嚴子陵)의 우의(友誼)를 보라³

석탄이 답하기를,

非嚴光則無以光武之光 / 엄자능이 아니면 어찌 광무 황제의 이름이 높았으며
非光武則無以光嚴光之終使 / 광무 황제가 아니면 어찌 엄자능의 굳은 뜻을 알았으리오.

태종이 또 이르기를,

漢鼎重者豈非光友光而有光也 / 한나라 왕도 정치는 모두 우정에 있지 아니 했는가

석탄이 한참 후 답해 올리기를,

當非故情則安得今日之酬酌乎 / 옛날 우정이 아니면 어찌 오늘의 대작이 있으리오!

이런 대화를 통해 젊었을 때의 옛 추억을 더듬으며 두 사람은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 결국 태종은 이양중의 지조를 굴복시키기 어려움을 깨닫고, 다음날 일찍 환궁하고 말았다. 이에 대신(臺臣, 사헌부 관료)들이 이양중을 탄핵(彈劾)하기를, ‘일개 필부(匹夫)로서 군주(君主)를 무시하고 감히 사복(私服)으로 군주와 같이 무릎을 맞대었으니, 그 죄가 가장 크다’고 하면서 당장 참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태종이 답하기를, “무릎을 맞대고 앉음은 우정이 두터움을 의미함이라. 경들은 어찌 옛날 광무 황제 배 위에 엄자능이 발을 얹은 일을 모르는가. 자고로 왕에게 신하 노릇 안하는 친구가 있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대신들은 감히 석탄을 헐뜯지 못하였다고 한다. 태종은 이양중의 출사는 불가능함으로 그의 아들 이우생(李遇生)을 등용하기로 하고, 즉시 사섬서(司贐署)의 주부(主簿)로 임명하였다.

환궁(還宮)한 태종은 거듭 탄식하며 좋은 거문고를 하나 가져 오게 하여 친필로 글을 새겨 이양중에게 하사했는데, 이런 사실로 인하여 고덕리(高德里)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고, 왕숙천(王宿川)이라는 개울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즉 덕이 높은 분이 사는 마을과 군왕이 자고 간 개울이라는 뜻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白酒三盃 彈琴一曲	술 석 잔에 거문고 한 곡조를 타니
富春千載 嚴瀨高節	부춘산 천년에 엄자능 같은 굳은 지조를
終不能屈	종래 굴복시키기 어렵도다.

3 엄자능(嚴子陵)은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와 동문수학한 친구로서 광무제가 즉위한 후에 재덕(才德)이 뛰어난 옛 친구 엄자능에게 중책을 맡기고자했다. 고향의 부춘산(富春山) 근처 강에서 낚시하던 그를 궁중으로 모셔오게 해서 정치적인 협력을 요청했으나, 정치 같은데 관심이 없는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옛날처럼 방바닥에서 함께 덩굴며 잤는데, 엄자능이 잠결에 그의 발을 황제의 배 위에 올려놓았었다. 다음날 황실의 담당자가 어젯밤 객성(客星)(떠돌이 별)이 황제 어좌(御座)에 침범해서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고 상주(上奏)했더니, 황제가 이르기를, ‘어젯밤에는 짐이 옛 친구와 함께 잠을 잤을 뿐이니 아무소리 말라’고 했단다.



이양중 묘



이양중 묘갈

고려 말 이양중의 아우 이양몽(李養蒙)은 형보다 벼슬이 높았다. 동생은 판서를 역임하였지만 형은 형조 좌참의(刑曹左參議)였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형제가 함께 광주(廣州)로 낙향하였다. 태종이 즉위하면서 이양중을 한성판윤(漢城判尹)으로 임명하여 부른다는 소식에 그는 다시 원적산(圓寂山) 밑으로 이거(移居)하였다. 지금의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이다. 그곳에 은거하면서 후손들에게 조선 왕조에서는 절대로 출사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따라 이양몽의 후손들은 조선조에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고 출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한편, 태종이 승하한 후 그가 묻힌 헌릉(獻陵)에는 백발에 흰 옷차림을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능 앞에 꿇어 앉아 슬프게 호곡(號哭)하면서 술잔을 드리고 정성껏 제를 올렸다고 한다. 그는 바로 이양중이었다. 이방원의 죽음이 죽마고우(竹馬故友) 이양중에게는 건디기 어려운 슬픔이었고, 둘은 사사로이는 떨 수 없는 깊은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의 신하로서는 불사이군(不事二君) 함으로써 공과 사, 충절과 우정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양중의 고매한 인품을 엿볼 수 있다.

후세에 이양중을 고려의 충절신(忠節臣)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고려 말의 신료들 중 조선조에 출사하여 영화를 누리고 출세하면서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 추앙받은 인물이 많았는데, 이양중은 한성 판윤이라는 높은 지위를 주면서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일편단심 고려의 신하로서, 또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초야에 묻혀 생을 마

감한 사실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충절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조가 평가한 이양중의 충절

조선 후기에는 고려의 절신(節臣)들 중에서 두문동(杜門洞) 72현을 숭양(崇仰)하게 되었다. 이양중도 72현 중 1인이다. 두문동 72현은 고려 조정 신료들 중에서 조선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며 살아간 충신들을 일컫는데, 그들 모두가 두문동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두문동으로 들어갔고, 어떤 이는 시골에 묻혀 농사를 짓고 살다가 생을 마친 것도 했다. 정몽주를 비롯한 고려 절신들의 명단이 『전고대방(典故大方)』에 수록 되어 있다.



이양중 영정

1751년(영조 27) 『기우집(騎牛集, 李行文集)』 2권에 실린 「두문동 72현 어제추감문(御製追感文)」 비문은 다음과 같다.

「英祖朝 杜門洞碑表」

勝國忠臣今焉在/ 特豎其洞表其節

御製崇禎紀元後百二十四年辛未季秋/ 追感杜門洞前朝忠臣七十二人節/ 命錄用其孫/

豎碑洞中/ 寔予卽阼之二十七年也

「영조조 두문동비표」

전조(고려) 충신들의 혼 지금도 존재하니 두문동에 그 충절을 기려 특별히 비를 세우노라.

신미년 가을에 임금의 친히 글을 지어 추모하는 마음 있어 두문동 고려 충신 72인의 충절을 기리고 그 자손들을 녹용하도록 하고 동네에 비를 세우다. 영조 27년이다.

한편, 1760년 9월에 영조가 후릉(厚陵, 정종의 능) 참배 차 개성으로 가다가 '부조현(不朝峴)'이라는 고개를 넘을 때 고개 이름의 유래를 신하에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신하가 대답하기를, 조선 태조가 개국 할 때에 고려의 유신(遺臣)들이 출사(出仕)

를 거부하고, 이 고개를 넘으면서 조복(朝服)을 벗어던지고 넘어 갔다는데서 유래하며, 고개를 넘으면 두문동이 나온다고 하였다. 이에 영조는 이곳에 「부조현비(不朝峴碑)」를 세우도록하고 치제(致祭)하였다고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이 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서 『동사강목(東史綱目)』에도 이양중에 대한 다음의 기사가 실려 있다.

혁명(조선 개국을 뜻함)이 일어날 즈음에 절의(節義)를 지킨 이들은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서견(徐甄) 등 여러 사람 외에, 이양중(李養中)·김주(金澍)·원천석(元天錫) 등 몇 사람이 있는데, 모두 지조를 지켜 굴하지 않았으니 우뚝하게 뛰어났다 할 만하다. 이양중은 호를 석탄(石灘)이라 하는데, 광주인(廣州人)으로 벼슬이 참의(參議)에 이르렀으며, 혁명 후에 시골 농장에 숨어살면서 징소(徵召)의 명을 받지 않았다. 태종이 잠저(潛邸, 평민으로 있을 때) 때의 친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제배(除拜)하였으나 역시 받지 않았다. 상(上)이 언젠가 광주(廣州)에 행행(行幸)하여 불러 보니 양중은 야인(野人)의 복장으로 거문고를 끼고 물고기 안주에 술을 올리니 상이 매우 기뻐하였으나 끝내 그 지조를 빼앗지는 못하고 그 아들에게 특별히 관직을 주어 그 충절을 장려하였다.

조선 중기 불세출의 문장이라고 하는 부사(浮查) 성여신(成汝信)의 문집인 『부사집(浮查集)』의 「동방제현찬(東方諸賢贊)」에는 신라의 최치원(崔致遠)을 비롯하여 고려 조 6명, 조선조 13명 등 총 20명의 명현(名賢)을 찬(贊)하였는데, 이양중이 포함되어 있다. 『부사집』은 모두 8권 4책으로 제4권에 실려 있으며, 이들 20명은 신라의 최치원(崔致遠), 려말선초(麗末鮮初)의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서견(徐甄)·이양중(李養中)·김주(金澍)·원천석(元天錫) 등 6명, 조선의 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김안국(金安國)·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김일손(金駙孫)·서경덕(徐敬德)·정희량(鄭希亮)·김정(金淨)·성수침(成守琛)·송린수(宋麟秀) 등 13명이며, 도학(道學)과 강상(綱常)에 대한 저자 나름대로의 평가가 게재(掲載)된 것이다.

1667년(현종 8) 정미년에는 이양중이 살던 광주(廣州)에 귀암서원(龜岩書院)을 세웠고, 1697년(숙종 23) 정축년에 사액(賜額)하였다. 이 서원에는 둔촌 이집과 석탄 이양중을 주벽으로 하여 오윤겸(吳允謙)·정성근(鄭誠謹)·정엽(鄭曄)·임숙영(任叔英) 등을 배향(配享)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毀撤)되었고, 6·25 전쟁으로 소실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이양중의 초장지(初葬地)는 동부면 덕풍리였으나, 도시개발로 인하여 초월읍 신월리 무갑산 아래로 천장(遷葬)하여 고덕재(高德齋)라는 사당을 묘하에 신축하였다. 묘



광주이씨 재실 고덕재

지 아래로는 그의 증손 한산군(漢山君) 이손(李蓀)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이손은 정국공신(靖國功臣)으로 중종반정에 참여하였고, 의정부 좌찬성을 역임하였다. 비문은 당대의 석학(碩學)으로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화를 입은 기묘명현(己卯名賢) 김안국(金安國)이 지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公志之貞凌冬松柏
公節之高橫空喬嶽
周隆漢昌俯翼攀麟
冥冥鴻鵠終難可馴
聖量之大非公孰成
高風嚴瀨萬古爭聲
惟忠惟孝以永其貽
雲仍勿墜敬懷刻辭

공의 곧은 지조는 겨울의 송백(松柏)과 같고
공의 높은 절의는 태산(泰山) 교악(喬嶽)과 같도다
주나라 같이 융숭하고 한나라 같이 창성함에 많은 사람이 분주히 오가건만
저 멀리 나는 기러기는 마침내 어찌 할 수 없구나
성군(聖君)의 도량이 아니었다면 공을 뉘가 이루리
저 높은 바람 엄지능과 더불어 만고에 명성 떨치네
오직 충효로써 자손에게 길이 끼쳐 떨어뜨림이 없도다.
공경히 이 글을 새기노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양중처럼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가 살던 시기는 지금부터 약 600년 전이다. 그 당시에 정몽주와 같은 일편단심 고려의 충신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양중·길재·서견·원천석·김자수

와 같은 절신(節臣)들도 있었다. 더구나 이양중은 태종의 절친한 친구였기에 조선 조정에 출사하였다면, 평생 영화(榮華)를 보장받고 고관대작(高官大爵)으로 지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출사를 거부하고 광주(廣州)의 한강 가에서 여생을 구차하게 살면서 생을 마감하였으니, 이보다 귀한 삶은 없었다. 태종이 승하한 후 그의 묘소를 찾아 잔을 올리며 호곡(號哭)하던 모습에서 태종에 대한 그의 깊은 우정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도 고려에 대한 지조를 지키며 살아간 그의 일생은 아무리 낮게 평가하려 해도 쉽지 않다. 그의 음덕(蔭德)이라고 할까. 그의 자손들은 영달하여 증손(曾孫) 한산군 이손이 정국공신에 훈록(勳錄)되었고, 의정부 좌찬성에까지 벼슬이 올랐으며, 20여 대를 이어오면서도 후손들에게 흠결(欠缺)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선조(先祖)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은 결과라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상촌문집』, 『동사강목』, 『연려실기술』, 『중정남한지』, 『광주이씨석탄공파족보』, 『춘정집』, 『야은집』, 『동사찬요』

박광운 | 광주시향토문화연구소 소장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 최항(崔恒)

세종시대 문화의 꽃을 피운 최항

최항(崔恒, 1409~1474)의 본관(本貫)은 삭녕(朔寧). 자(字)는 정보(眞父). 호(號)는 태허정(太虛亭) 또는 동량(幢梁).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이다. 아버지는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를 지낸 최사유(崔士柔), 어머니는 종부시사(宗簿寺事) 오혁충(吳奕忠)의 따님으로 1409년(태종 9) 12월에 4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부친의 사랑을 받으며 공부에 열중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늘 어른들의 칭찬을 받아오며 자랐다. 부친 최사유는 성균관 사예를 끝으로 조선이 개국하는 시기에 혼란한 정치 속에서 벼슬을 단념하고 향리로 돌아가 자식들을 훈육하고 주위의 후진을 모아 양성하며 살았다.



최항은 조선 초기의 문신(文臣)이자 대학자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조선이 개국하여 세종시대의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에 학문의 전당인 집현전(集賢殿)에서 벼슬을 시작하였다. 조선 왕조는 개국 초부터 유교 정치를 표방했으나 정치·제도·문화면에서 유교적 기틀이 잡힌 것은 세종시대부터였다. 태조대에는 개국 초기여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였고, 태종대에는 명분과 정통성에 하자가 있는 왕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왕권 강화와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급급하였으므로 유교 정치의 구현과 유교 문화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 태종은 정치·경제·사회적 안정 기반을 만들어 놓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따라

서 세종시대는 태종이 마련한 안정 기반 위에서 유교 정치와 민족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다.

1434년(세종 16) 26세에 알성시(謁聖試)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세종의 총애를 받아 정6품에 해당하는 집현전 부수찬(副修撰)에 바로 제수(除授)되었다. 아울러 경연(經筵)의 사경(司經)을 겸임하여, 세종과 더불어 경연에 참석하였다. 경연은 조선시대 임금이 학문을 강론(講論)하고 연마하기 위하여 왕실에 설치한 기구이다.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의론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문과에 장원급제한 최항의 학문을 시험해 본 세종은 거리낌 없이 경연에 참석시켰던 것이다.

최항의 관계 진출과 집현전



집현전학사도

1434년 세종은 천하의 인재를 뽑기 위하여 알성시를 세상에 공포하고 과시(科試) 전날 잠깐 오수(午睡)에 잠기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과장(科場)인 성균관 대성전(大成殿) 서편의 잣나무에 큰 황룡(黃龍) 한 마리가 서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깨어난 후, 꿈이 하도 이상하여 내관을 보내 잣나무를 살펴보게 한즉 한 젊은 선비가 괴나리봇짐을 베게삼아 그 잣나무 아래 기대어 낮잠을 자고 있다고 복명하였다. 드디어 과시 일을 맞아 세종이 친림(親臨)한 가운데 알성문과(謁聖文科)의 시험을 치루고, 장원 급제자를 친견(親見)하여 보니, 다름 아닌 그 선비였다. 세종은 꿈에 황룡으로 현몽하였던 것이 생각나 물어보니, 그날

잠시 피곤하여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세종은 신기하고 반가워 칭찬하고는 즉시 집현전 부수찬으로 제수하니 그 젊은 선비가 바로 최항이었다.

최항의 관직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집현전에 들자마자 세종은 그의 학문적 지식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여 즉시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 편찬에 참여시켰다. 이어서 박팽년(朴彭年),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등과 같이 훈민정음 창제에 온 정성을 다 할 것을 지시하였다.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자(漢字)의 발음이 중국과 다르지만 당시에 사용하던 이두(吏讀) 문자로는 표현이 어려워 완벽한 우리말 발음을 표기 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조정 신료와 집현전의 학자들이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학문은 위정자(爲政者)들이나 양반(兩班)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배워서 익히면 되는 것이지 일반 백성들이 모두 글을 알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만리(崔萬理)였다. 그는 집현전의 실무 책임자로 있으면서 훈민정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명나라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였고, 그의 반대 상소문과 세종의 반박 답변 내용이 『세종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훈민정음 반포 당시 집현전의 8학사는 대제학 정인지(鄭麟趾), 응교(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동녕부 주부(主簿) 강희맹(姜希孟), 부수찬(副修撰) 이개(李垿)·이선로(李善老) 등이다.

최항은 집현전으로 들어가 편찬 사업에 전념하여 수많은 운서(韻書)를 편찬하였다. 『운회언역(韻會諺譯)』, 『동국정운(東國正韻)』,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사서언해(四書諺解)』,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초학자회언주(初學字會諺注)』, 『잠서언해(蠶書諺解)』 등이 있는데, 세종은 여러 집현전 학사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집필하게 하고, 왕 자신이 직접 감수(監修)하여 편찬하였다. 세종은 참으로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였고, 학문적인 면에서 어느 신하나 학자들에게 뒤지는 것이 없었다.

최항은 성품이 겸손하고 공경스러우며, 맑고 깨끗하여 평소 집에 있을 때에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도 의관을 바로하고, 몸을 바르게 앉아 조금도 흐트러진 자세가 없었으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였다. 또한 청백하여 뇌물을 받지 않았고, 성색(聲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재산을 탐하지 않았고, 집안일은 모두 부인 달성서씨(達城徐氏)에게 맡겨 간섭하지 않았다. 말이 적고,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이런 그의 주변에는 늘 '삼사일행(三思一行) 삼사일언(三思一言)'의 좌우명

(座右銘)이 붙어있었다. 그의 부인은 달천부원군(達川府院君) 서미성(徐彌性)의 여식으로 서거정(徐居正)의 누이이다. 일찍이 서거정이 부모를 여의어 최항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다. 서거정은 광주(廣州)에서 태어났으며, 관직 생활을 할 때에는 서울에 거주하였으나 본가는 광주(廣州)에 있었다.

훈민정음과 최항

훈민정음의 창제는 보통의 문학작품이나 시문(時文)처럼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일이었다. 이는 세종의 영명한 착상(着想)과 주도면밀한 계획,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 위주로 혼연일체가 되어 완성한 우리민족 최고의 금자탑이라고 볼 수가 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목적으로 최항과 박팽년(朴彭年)으로 하여금 훈민정음이 완성 될 때까지 16년 동안을 오직 학문 연구에 전념하게 하였다. 한걸음 늦게 참여한 신숙주와 성삼문은 선배 학자인 최항의 밑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였다. 세종은 학식이 깊고 높은 원로 학자들을 배제하고, 소장 음운학자(音韻學者)의 선임관인 최항에게 특지(特旨)를 내려 훈민정음 창제에 전력하고 자신을 보필하도록 하였다. 그만큼 세종은 최항의 학식과 덕망, 그리고 인품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1441년(세종 23) 12월에는 안질(眼疾)을 앓고 있는 최항을 위해 전의감(典醫監)으로 하여금

황해도 평산 온천의 물이 안질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니,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¹ 이때는 훈민정음 창제에 몰두하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을 때였는데, 최항이 주야로 독서하며 노심초사(勞心焦思) 하였으니 안질이 생길만도 하였다.



훈민정음해례본

드디어 1443년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

1 『세종실록』 92권, 정미조.

다. 그러나 원로 대신들의 반대 상소로 인하여 즉시 반포되지는 못하였다. 세종이 아끼던 신하인 부제학 최만리가 가장 심하게 반대하였는데, 그의 상소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들이 언문 제작함을 엿드려 뵈옵건대 대단히 신묘하여 사리를 밝히고 지혜를 나타냄이 저 멀리 아득한 예로부터 나온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신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아직도 의심할만한 점이 있습니다. 감히 근심되는 바를 나타내어 다음과 같이 삼가 상소하오니 재결하여 주시옵소서.

1. 우리나라는 조정 이래로 지성껏 중국 문화를 섬기어, 오로지 중국 제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중국과 문물제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때를 맞이하여, 언문을 창제하시면 이를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히 여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혹시 대답으로 말씀하시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새 글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곧 자형은 비록 옛날의 고전 글자와 유사합니다만, 소리로서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어긋나는 것이며, 실로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하오니, 혹시 언문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를 그르다고 말하는 이가 있으면, 중국 문화를 섬김에 있어 어찌 부끄럽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1. 옛부터 9개 지역으로 나누인 중국 안에서 기후나 지리가 비록 다르더라도 아직 방언으로 인해서 따로 글자를 만든 일이 없고, 오직 몽골, 서하, 여진, 일본, 서번과 같은 무리들만이 각각 제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오랑캐들만의 일이라 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전해오는 고전에 의하면, 중국(夏)의 영향을 입어서 오랑캐(夷)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오랑캐의 영향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역대 중국이 모두 우리나라가 기자의 유풍을 지니고 있고, 문물제도가 중국과 견줄 만 하다고 했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들어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진다면 이것이 이른바 소합향을 버리고 쇠통구리의 환약을 취하는 것이니, 어찌 문명의 큰 해가 아니겠습니까?

1. 신라 때 실총이 만든 이두가 비록 거칠고 촘스러우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서, 어조사로 쓰기 때문에 한자와 애당초부터 아무상관이 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비록 서리나 하인들의 무리까지도 꼭 이를 익히려고만 한다면 먼저 한문책 몇 권을 읽어서 약간 한자를 안 다음에 곧 이두를 쓰니,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한자를 의지해야만 뜻을 달할 수 있으므로, 이두로 인해서 한자를 아는 사람이 자못 많아, 역시 학문을 진흥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원래 우리 글자를 몰라서 결승문자(結繩文字)를 쓰는 시대 같다면 아직 언문을 빌어서, 잠시의 변통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옳습니다만, 옳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저 언문을 써서 잠시 변통하기보다는 차라리 천천히 저 중국에서 통행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겠거늘, 허물며 이두는 수 천년동안 써 오면서, 관청의 문서기록과 약속, 계약 등으로 쓰이어서 아무 탈이 없는 것이거늘, 어째서 예부터 써온 폐단이 없는 글자를 고쳐서 따로 속되고 이로움이 없는 글자를 만드신나 이까? 만일에 언문(言文)이 통용되면 관리(官吏)가 될 사람이 오로지 언문만 배우고 학문을 돌보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한자(漢字)와 관리가 갈리어 들이 될 것이며, 진실로 관리된 자들이 언문으로서만 모든 일을 하고 또 벼슬길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뒷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이 됨을 보고 27자 언문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입신(立身)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오매, 무엇 때문에 모름지기 고삼하고 마음을 써서 성리(性理)의 학문을 닦겠나이까? 이렇게 나가면 수십 년 뒤에는 한자를 아는 사람이 반드시 적어질 것이오매, 비록 언문으로서 관공서 일을 수행할 수 있더라도 성현(聖賢)의 한자를 알지 못하면 배우지 않아 답에 얼굴을 댄 것 같아서, 사리(事理)의 시비(是非)를 가리기에 어둡고, 다만 언문에만 공을 들일 것이니 장차 어디에 쓰겠나이까?

이처럼 시작 된 원로 신하들과의 다툼은 한참동안 계속 되었다. 세종은 그들의 불가 상소를 물리치면 그만이었지만 어떻게 하던지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 세종은 “너희가 언문(諺文)에 대해 아느냐?”라고 하면서 반박한다. 당시 최만리는 학문의 절정인 부제학의 자리(대제학 다음 자리)인데 그에게까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학문적 자신이 있었고, 실력이 대단했다. 세종의 최만리의 상소에 대한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대들이 말하기를 음을 써 글자를 합하는 것이, 모두 옛 것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도 역시 음을 달리한 것이 아니냐? 또 이두를 만든 근본 취지가 곧 백성을 편안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언문도 역시 백성을 편안케 함이 아니냐? 그대들이 설총이 한 일은 옳다고 하고, 그대들의 임금의 한 일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또 그대들이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四聲)과 칠음(七音)을 알며, 자모(字母)가 몇인지 아느냐? 만 일에 내가 저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를 바로잡겠느냐? 또 상소문에서 말하기를, 새롭고 신기한 하나의 재주라 하였는데, 내가 늘그막에 소일(消日) 하기가 어려워 책으로 벗 삼고 있을 뿐이지, 어찌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겠느냐? 그리고 사냥하는 일들과는 다를 터인데, 그대들의 말은, 자못 지나친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내가 나이 들어 국가의 서무(庶務)는 세자가 도맡아서,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당 마땅히 참여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언문은 말하여 무엇 하겠느냐! 만일에 세자로 하여금 늘 동궁(東宮)에만 있도록 한다면 환관(宦官)이 이 일을 맡아서 해야겠느냐! 그대들은 나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신하들로서, 내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인데도 이런 말을 하니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최만리는 가볍게 처벌을 받고 풀어주었다. 1446년 훈민정음은 세상에 반포되었다.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를 합한 28자로 조합하여 사용할 표음문자(表音文字)가 역사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당시 집현전 대제학 정인지는 그 의의와 감동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28자로써 전환(轉換)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의 울음 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臣)이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행 집현전 부수찬(行集賢殿副修撰) 이개(李埏)·이선로(李善老)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凡例)를 지어 그 경개(梗概)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연원(淵源)의 정밀한 뜻의 오묘(奧妙)한 것은 신 등이 능히 발휘할 수 없는 바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聖人)으로서 제도와 시설(施設)이 백대(百代)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正音)의 제작은 전대(前代)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私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는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것을 실지로 시행하여 성공시키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저.

훈민정음의 우수성이기도 하지만 ‘백성이 막힘없이 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그대로 배어 나온다. 훈민정음으로 송사(訟事)를 판단하게 하여 각종 행정 조치나 형벌에서 글을 몰라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려 하였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인지는 서문에서 집현전 학사들의 공을 모두 임금인 왕에게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당시의 최항은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도 선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관직 생활과 업적

최항은 18년 동안 집현전 학사로 있으면서 경연관(經筵官), 지제교(知題敎)로서 뿐만 아니라, 유교적인 의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각종 편찬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후 이듬해에 최항은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차상(次上)으로 합격하였으니 그때 연치(年齒)가 39세였다. 세종은 최항의 실력과 학문의 고매(高邁)함을 재삼 인정하여,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우보덕(輔德)에 임명 하였고, 「대학연의주석(大學衍義註釋)」, 「동방어음(東方語音)」 등의 저서(著書)에 힘쓰게 했다. 또한 그때부터 세종은 세자(훗날의 문종)에게 서정(庶政)을 처리하게 하였는데, 최항에게는 첨사원(詹事院) 첨사(詹事)를 겸하게 하면서 세자의 정치를 보좌(補佐)시켰다.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선위사(宣慰使)로 명나라 사신(使臣)을 맞았으며,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듬해에는 수사관(修史官)을 겸임하면서, 정인지 등과 함께 『고려사』를 개찬(改撰)하였으며, 부제학으로 있으면서 『통감훈의』를 편찬한 공로(功勞)로 가자(加資)되었고, 문종이 일찍 승하(昇遐)하자 『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때부터 최항은 벼슬이 진계(進階)되어 정치에 관여하면서도 탁월한 문장력과 깊은 학문으로 많은 저서를 남겼고, 외교관으로서도 남다른 활약을 하였으니, 당시 외교 문서의 대부분을 최항이 작성하였다고 한다.

단종이 즉위하자 도승지(都承旨)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난을 일으키니 계유정란(癸酉靖亂)이다. 최항은 당시 입직(入直) 승지(承旨)로서 수양대군이 밤중에 황급히 단종을 배알(拜謁)할 것을 요구하자, 잠자고 있던 단종을 깨워 수양대군을 맞아드려 반역을 미리 막느라고 사전에 왕에게 보고할 겨를도 없이 김종서(金宗瑞) 일당을 처형하였다고 고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로 정란공신(靖亂功臣) 1등에 책록(冊錄)되었는데, 최항은 후에 자기는 정란(靖亂)에 공(功)이 하나도 없어 공신(功臣)의 칭호를 받을 수 없다고 극구 사양하기를 여러 번 주청(奏請)하였으나 수양대군이 그대로 받으라고 하여 공신(功臣)에 책록(冊錄) 되었다.

1454년(단종 2)에 이조참판으로 영성군(寧城君)에 봉해졌는데, 그해 「공신연곡(功臣宴曲)」 4장을 만들어 바쳤고, 『세종실록』의 편찬도 마쳤다. 이듬해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이 되었고, 8월에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였다.

한편,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篡奪)하였고, 이듬해 단종 복위운동(復位運動)이 벌어졌다. 결국 사육신(死六臣)이 세조에 의하여 참살(慘殺)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최항의 모친이 사망해 여막(廬幕)을 짓고 3년간 시묘(侍墓)살이를 하던 중이었다. 세조는 시묘살이를 중지하고 현직에 복귀할 것을 명했으나, 세 번에 걸쳐 상소를 올려 3년 상을 마치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3년 상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최항이 현직에 복귀하자, 세조는 그에게 예문관 대제학과 성균관 대사성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아무튼 이러한 사유로 그는 사육신 사건에서 화(禍)를 면할 수 있었다.

최항의 인품과 사후의 평가

최항은 평생의 좌우명을 '삼사일언(三思一言), 삼사일행(三思一行)'으로 삼고 살았다. 모든 언행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라는 것이었다. 그의 인품은 강희맹(姜希孟)이 지은 「묘지문(墓誌文)」과 『필원잡기(筆苑雜記)』,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강희맹이 「묘지문」에서 기술한 그의 인품에 관한 내용과 『조선왕조실록』의 줄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은 성품이 겸손하고 공순(恭順)하며, 간이(簡易)하고 고요하며 단정하고 개결(介潔)하여 변화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아가 처신함에 있어 항상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평상시에 비록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라도 온종일 의관(衣冠)을 정돈하고 단정히 않아서 조금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었고, 공사(公事)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근심하기를 내 집과 같이 하였다.

두 번 정승이 되었으나, 정무(政務)가 관대하여 고치거나 새롭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말할 때는 항상 먼저 겸손함을 보이고 스스로를 곁에 드러내지 않았으며, 또 모나게 자기 주장을 아니 했으나, 조정논의(朝廷論議)에 있어서 대사를 결정 할 때에는 확고하여 범할 수가 없었다. 집에 있을 때에는 청백하여 뇌물로 청탁하는 일이 행해지지 않았고, 성색(聲色)을 가까이하지 않았으며, 집 안일은 하나같이 부인에게 맡겨 두고 털끝만큼도 간섭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 일을 당해서는 항상 세 번 생각하여 처리했다. 조정에 출사한지 40년이 넘었으나 한 번도 탄핵(彈劾)을 받지 않았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영의정(領議政)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외직(外職)으로 나간 일이 없었다. 사도(斯道)를 자기의 책임으로 삼아 후학(後學)들을 권장하여 이끌어 올렸으며, 문장을 지을 때는 스스로 구성하는 솜씨를 발휘, 크게 뜻을 방출하여 편에, 내용이 옹호(雄豪)하고 풍부하여 대하(大河)처럼 형세가 그칠 수 없는 것과 같았다. - 「묘지문(墓誌文)」 -

최항의 사람됨은 겸손하고 조심성 있고 말이 적은데다가, 비록 한 더위라도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고 무릎을 모으고 꿇어 앉아 온종일 게으른 표정이 없었으며, 학문(學問)을 좋아하고 기억력이 좋았다. 문장(文章)으로는 대우(對偶)에 능하여 한때의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래서 중국(中國) 조정(朝廷)에서까지도 정절(精切)하다고 평을 하였으며, 세조(世祖)·예종(睿宗)의 실록(實錄)과 『무정보감(武定寶鑑)』·『경국대전(經國大典)』은 모두 그가 찬정(撰定)한 것이다. 그의 호(號)는 태허정(太虛亭)이며, 유집(遺集)이 세상에 전(傳)한다. - 『조선왕조실록』 -

최항은 세종시대의 정치와 문화가 막 꽃필 무렵,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급제하여 학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여섯 왕조에서 관직을 수행한 당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에게는 문정(文靖)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으며, 왕실에서는 부음(訃音)을 접하자 조회(朝會)를 열지 않고 추모하였으며, 승지(承旨)를 빈소에 보내

조문하고, 장례물품을 하사하여 예장(禮葬)하도록 배려하였다. 유고(遺稿)로는 『태허정집(太虛亭集)』이 있다.

최항의 묘소는 경기도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거정이 찬한 신도비가 서 있고, 600년 전의 석물이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있다.

2005년에는 사단법인 태허정최항선생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그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더욱 정진하게 되었으며, 매년 한글날인 10월 9일에 광주문화원이 주관하여 추모제향을 봉헌하고 있고, 여러 차례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연려실기술』, 『필원잡기』, 『태허정집』, 『해동명신록』, 『국조인물고』.

박광운 | 광주시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대쪽같은 청백리 재상, 구치관

충렬공의 가계와 생애

능성구씨 가계

구치관(具治寬, 1406~1470)의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이율(而栗)·경율(景栗). 시호는 충렬(忠烈)로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조부 구성로(具成老)는 조선왕조 개국원종공신으로 개성부윤과 강원도 도원수를 지냈으며, 할머니는 정경부인에 추증된 김해송씨(金海宋氏)로 고려조에서 밀직제학(密直提學)을 지낸 문정공(文貞公) 송천봉(宋天逢)의 따님이다. 아버지는 목사를 지낸 구양(具揚)으로,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助功臣) 의정부 영의정 능원부원군에 증직되었으며, 어머니는 정경부인에 추증된 해평윤씨(海平尹氏)로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윤사영(尹思永)의 따님이다. 곤지암읍 열미리 문중 묘역에는 구양을 비롯해 충의위(忠義衛) 구이연, 효자정문을 하사받은 구척,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 구장손, 진사 구경·구원지를 비롯한 크고 작은 벼슬을 한 인물들의 묘소가 산재해 있다. 구치관의 형제로 중추부 동지사를 역임하고 호양(胡襄)이란 시호를 받은 인물이 구치홍(具致洪)이며, 조선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구사맹·구굉·구인후·구인기 등이 그의 후손이다.

현대에 이르러 능성구씨 문중에서 호양공 후손의 유명한 인물로는 우리나라 경제계의 큰 동맥인 LG 그룹이 있다. LG 그룹의 연암 구자경 명예 회장은 가문의 명예를 신조처럼 지키며 기업 정신을 대대로 승계하는 대한민국 4대 재벌로 성장시켰다. 또한 현대 미술계 최초의 표현파 천재 화가로 불리는 구본웅(1906~1953)도 구치관의 후손이다.

청백리 재상 구치관은 조선 초기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정

치·행정가이자 군사·국방 문제 전문가로 문화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재상으로 광주가 낳은 위대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공의 탄신 600주년을 맞이하여 충렬공 기념사업회에서는 2006년 11월 광주문화원에서 충렬공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백리재상 충렬공 구치관전기』를 후손인 한학자 구자청이 펴낸 바 있다.

구치관 생애 요약

구치관은 좌의정 구양(具楊)의 아들로 곤지암읍 열미리 마을의 능성구씨 문중을 번창시킨 조상으로 알려졌다 능성구씨 9세조로 1406년(태종 6) 광주 몽촌(지금의 송파구 오금동)에서 4남 4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목사공은 정주·공주·광주 목사를 지냈으나 청백한 수령으로 이름이 높았으므로 집안 살림은 넉넉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엄격함과 어머니의 자애로운 가풍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4형제 모두 우애가 깊었다. 성장기에는 학문에 전념하여 과거 준비를 착실히 해나간 결과 공은 일국의 영의정에 올랐고, 둘째 구치명(具致明)은 상주 목사와 훈련원 도정을 지냈으며, 셋째 구치평(具致平)은 공주 목사를 지냈다. 그리고 막내인 구치홍(具致洪)은 정헌대부 지중추원사를 지내고 호양(胡襄)이란 시호를 받았으니, 조선 전기에 공의 가문이 명문가로 자리 잡았다고 하겠다.

1429년(세종 11)에 시마과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1434년(세종 16)에 일성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때 최항(崔恒)과 박원형(朴元亨)이 함께 급제하였는데 세 사람이 모두 영의정에 올랐으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라 할 것이다. 공은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등 여섯 임금의 모시며 진사 시험 합격과 알성문과 급제로 시작한 관료의 정치에서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까지 제수 받은 후 사후 충렬이란 시호를 받고 후세에 청백리 재상에 꼽힌 인물이다.

공이 잠든 유택이 있는 이 마을에 능안이라고 불리는 낮은 산역에 충렬공(忠烈公)의 묘가 있다. 일설에는 세종대왕의 능으로 정해졌던 곳이었다고 한다. 세종대왕 사후 여주 영릉으로 가는 바람에 당시 광주 목사인 공의 부친 구양이 이 마을 능안에 자신의 묘를 쓰도록 했다. 공의 사후에 나라에서 하사하는 사패지로 지정되었다. 그 후 후손들이 오늘까지 거주해 오고 있다.

약 600여 년 전부터 세거한 능성구씨들이 지금도 70여 호 거주 하며, 광주시 최대의 집성촌 문중을 이룬 마을이다. 영의정까지 역임한 당대의 재상이면서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산 그의 공로를 치하하여 나라에서 하사한 사패지가 이 마을이기도 하다.

세조 때 재상의 반열에 오른 정승 중에 유일하게 청백리 재상으로 천거되고 추앙 받는 근본에는 엄격한 가정교육과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 전통이 있으며, 지금도 답습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거 급제와 전문 행정 관료의 길

4남 5녀를 둔 구치관의 부모는 글공부는 물론 무예를 비롯해 양반가의 가문을 빛낼 여러 가지 덕목을 가르치는 등 자녀 교육에 남달리 힘썼다. 공의 나이 24세에 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세종 16년에 알성문과 을과에 급제해 비로소 벼슬길에 나가게 된다. 장남인 공에 이어 나머지 세 아들도 벼슬길에 들어 가문은 더없이 영예롭고 번창하였다.

반상의 제도가 극명하던 시대 벼슬길에 들어 나라의 녹을 받는 세력가의 문전에는 크든 작든 잘 보이려고 하는 하급 관리들이 뇌물을 들고 줄을 서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의 부친이나 조부는 사사로운 욕심으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지극히 미워하는 청렴함을 가문의 가훈처럼 지켜가길 바라는 명문가문이었다.

당시는 고려왕조의 멸망으로 새로 나라를 세운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가 되면서 나라 안팎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던 시대였다. 권력을 쥔 정승이라도 임금의 명이라면 적이 출몰하는 변방으로 나아가 싸워야 하는 게 신하의 도리였다.

능성구씨는 시조부터 무예가 뛰어난 장수 집안이었다. 또한 백성의 일이라면 지극한 애정으로 보살피는 애민 정신을 신조로 여기는 집안이었다. 이런 가문의 영향으로 문중의 영웅 기질을 다분히 이어받은 조부와 부친에 이어 구치관 역시 무예가 출중했고 문무에 능통한 관료였다. 이때 집현전의 박사로 있던 서거정(徐居正)이 공을 처음으로 만난 느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내가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가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관복을 입은 공을 뵈오니 기품이 뛰어나 위엄스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얼마 후 나는 집현전의 박사가 되고 공은 병조좌랑이 되었는데 집현전의 여러 선생들이 공과 더불어 사귀는 분이 많았다. 나도 공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대화를 해보니 공은 뜻하는 바와 절개가 굳고 학식 또한 매우 높아서 때때로 논의를 함에 있어 대범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으며, 바르고 곧았다. 또한 당시의 풍속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뛰어난 공경심이 일게 하였다. 그러나 공은 성품이 곧고 바르며 청렴하여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도 추천하고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으니, 하급관료에서만 10년 이상을 옮겨 다녔다. 사람들이 공의 지위가 낮음을 말하니, 공이 말하기를 '나는 높은 곳을 향해 당당하게 갈 뿐이다.' 라고 하였다. 여러 선생들이 말하기를 '구공은 그릇이 큰 사람인데 어찌 남의 밑에 오래 있으리오.' 라고 하였다.

1446년(세종 28)에 어머니 해평윤씨가 별세하여 삼년상을 치루고, 1450년에 병조정랑으로 복직하였으며, 이어서 의정부의 검사를 지냈다. 그해에 평안도 도체찰사 김종서(金宗瑞)의 종사관이 되어 평안도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451년(문종 1)에 정4품관인 성균관 사예가 되었는데, 이때 다시 평안·함길도 도체찰사 황보인(皇甫仁)의 종사관이 되어 북방 변경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453년(단종 1)에 종3품관인 사복시 소윤이 되었으며, 그해 10월에 수양대군이 주도하는 계유정난(癸酉靖難)이 일어났다. 계유정난 직후에 함길도에서 정난에 반발하는 소요가 발생하였으나, 공이 함길도에 보내져서 이를 진정시켰으며, 그 공로로 품계가 올라 보공대장군(保功大將軍)에 제수되었고, 중외병마도통사(수양대군)의 종사관이 되었다. 실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간 지 20여 년 동안 하급관료로서 문무를 넘나들며 행정실무의 역량을 축적하였다.

국정 운영의 중추적 역할

구치관은 1453년 중외병마도통사로 임명받은 수양대군의 종사관으로 처음으로 세조와 만나게 된다. 승정원 동부승지·우부승지(정3품, 통정대부)에 이어 승정원 우승지·좌승지를 역임한 공에게 계유정난 직후 정권을 잡은 세조가 왕위에 오르고 난후 "그대를 이제야 만나게 된 것이 한스럽도다."고 할 정도로 신임은 대단하였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에 책록되고 능성군(綾城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종2품 가선대부로 승진하여 이조 참판과 병조 참판을 지냈다. 병조 참판 때에는 세조가 정치 분야에 전념하기 위하여 군사 행정을 공에게 맡기니 사리를 통찰함이 법도가 있고 계획하는 바가 매우 밝아 세조가 감탄하여 말하기를 "능성군은 문무의 재질을 모두 갖추었으니 내가 어찌 장수와 재상을 맡을 만한 인재가 없음을 근심하리오."라고 하였다. 또한 하삼도(경상·전라·충청도)의 순찰부사로 나가서 울산에 돌로 만든 작은 성인 '유포석보(柳浦石堡)'를, 진해에는 '웅천읍성'을 축조토록 하였다. 1457년에 가정대부로 승진하여 예조 참판과 호조 참판을 지냈으며, 해양대군(후일의 예종)의 세자 책봉을 주청하는 사신으로 북경에 다녀왔다.

1459년 정헌대부로 승진하여 이조 판서에 임명되어 공정 인사와 청탁 배격을 몸소 실천하여 공직 풍토를 맑게 하였으며, 조선 왕조 최초로 행정 개혁을 실시하여 정부 기구를 통폐합하고 잉여 인력 수백 명을 감축하는 등 조직·인사 체계를 개혁하여, 그 공로로 승정대부로 올라갔다. 이어 1461년에 승록대부로 승진될 때 세조가 말하기를 “구치관은 수년간 국정을 잡았으나 사람들의 이간하는 말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의정부 우찬성에 임명되어 중의 신분증인 ‘승인호패법’을 제정하였으며, 간경도감(刊經都監)의 제조가 되어 불경(佛經) 등 각종 서적 간행에 심혈을 기울였다. 1462년에 정1품 보국승록대부로 승진시키면서 세조가 다시 말하기를 “제장들이여! 부지런하고 삼가 나랏일을 한다면 내가 역시 구치관과 같은 대우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463년에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에 제수하려 할 때 당시 영의정인 신숙주가 반대를 하자 세조가 말하기를 “구치관은 군국의 중대한 일을 알지 못함이 없으므로 삼공에 승진시킨 것이다.”라고 하였다. 1464년에 좌의정에 제수되어 『동국통감』을 발행하고, 원각사(圓覺寺) 건립 제조가 되었다. 그 해에 곤지암을 열미리에 있는 부모의 묘소에 제사를 봉행함에 있어 세조가 경기도 관찰사를 보내 제사를 주관토록 하고 위로의 잔치를 열어주었다.

실사구시의 실천과 청렴함

구치관은 삼남지방 순찰부사로 임명을 받고 지방 관아의 행정을 직접 조사하며 현실에 맞게 개혁을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경상도 울산에 ‘유포석보’ 조성을 건의해서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하라는 조치를 내리고 또한 적의 침략에 대비해 경상도 진해에 ‘웅천읍성’을 축조하도록 지시했다. 나라를 위하여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임금에게 건의하고 실시하도록 힘썼다. 가축을 기르게 하고 관리가 권력으로 백성의 재산을 빼앗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특히 엄단하였다.

당시 국경인 평안도 변방에는 오랑캐가 자주 출몰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재산을 강탈해 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에 세조는 공에게 평안도 절도사를 제수하고 “평안도는 북방의 중요한 관문인데 주로 무신(武臣)들만 절도사로 보내 이지경이 됐다. 이제 문무를 겸비한 능성군을 보내니 국경을 사수하고 민심을 잘 다스릴 것을 기대하노라.” 하고 왕의 밀지를 내리며 격려하였다. 또 “내가 경을 내 곁에서 떠나보내고 싶지 않으나 변방을 지키는 장수의 임무 또한 매우 중요하여 경을 번거롭게 하였소. 이번

에 경이 가면 내가 다시는 서쪽 변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소.” 하며 전적인 신뢰를 보였다.

구치관은 휘하의 장수들을 다스리며 간단 엄숙하게 군령을 정비하고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위해 나라에 바치는 물자와 세금을 면제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군수물자를 비축하여 적들이 함부로 국경을 넘보지 못하도록 시찰을 돌며 장수들을 독려하였다. 또한 평안도의 군사·조세·공물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혁하는 대대적인 민심 동화 정책을 구현했다.

세조는 다시 구치관을 이조 판서에 임명하고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려 서울로 불러들였다. 조정에서는 이조 판서로 임명된 그를 보며 “올바른 사람이 인사 행정의 책임을 맡았으니 이제 공정한 인사 제도가 실현될 것이다.” 하며 신뢰를 보였다.

의정부 삼정승에 이어 육조의 수장인 이조 판서는 조정의 모든 관직을 임명하거나 다스리는 직책이다. 전례대로라면 판서와 참판이 의논하여 관직을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그런 폐단을 몹시 싫어했던 구치관은 해당 부서의 여러 관원들로부터 합당한 후보를 추천받아 인물의 장단점을 알아 본 후 임명안을 올렸으며, 관리를 해임할 때도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 본 후 심사숙고 하는 등 작은 벼슬자리라도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다.

청렴하기가 대쪽 같았던 구치관은 사사로운 은혜로 친척이나 벗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사 청탁을 위하여 찾아올 때 단 한건도 들어 주지 않았다. 혹시라도 뇌물을 쓰거나 부탁이라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임명 초안인데 귀공의 이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권도를 찾아 일신의 영달을 구하는 귀공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나라를 위하는 큰 사람이 아닌 것 같소. 안타깝지만 내가 귀공의 이름을 지우니 내 처사를 너무 차갑다고만 나무라지 마시오.” 하며 찾아온 사람의 이름을 지워 버릴 정도로 냉정하게 인사 처리를 하는 청렴한 관료였다.

그는 관직에서도 별로 하는 일이 없거나 녹봉만 축내는 관료들은 과감히 퇴출시켰다. 자신에게 엄정하였고 공사가 분명한 처신으로 일관하였다. 당시는 정승택 문지기에게도 뇌물을 주어야 통한다는 시절로, 충청도 관찰사(觀察使)와 도사(都事)가 백성들에게 함부로 거둬들인 재물로 지방으로 출장을 나오는 의정부와 육조(이조, 병조, 형조, 공조, 예조, 호조), 승정원의 2품 이상 관료들에게 차례로 뇌물을 바친 것이 임금에게 알려졌다. 임금은 두 사람을 곤장을 때려 옥에 가두고 지방 관아의 문서를 다 가져오게 한 후 수사에 들었다. 그러자 조정 대신들이 대궐 문밖에서 “신들은 그들이

복부(하인)에게 몰래 준 것을 미처 알지 못 하고 있다가 늦게야 죄를 아뢰오니 대죄를 내려 주옵소서.” 하며 죄를 청했다. 임금은 모두 내전으로 들라 이르며 “경들이 지방 출장을 가서 친척이나 옛 친구가 주는 물건을 누가 받지 않으리오. 하물며 하인이 받고서 말하지 않았다면 어찌 뇌물을 받고서도 스스로 알리오. 뇌물을 바친 자만 죄가 있을 뿐이다.” 하니 모든 대신들이 일제히 엎드려 죄를 청하는데 뇌물을 받지 않은 공만 홀로 서있는지라 임금은 물론 대신들이 그의 청렴함에 탄복하였다고 『세조실록』에서 기록하고 있다. 공의 몸가짐과 행정가로의 처신이 얼마나 공명하고 청백했는지 역대 왕조 중 재상으로는 열여섯 명이 청백리로 제정됐는데 세조 때 조정에서 청백리에 오른 재상은 오로지 구치관뿐이었다.

세조가 집권하던 시대의 난맥상은 밖으로는 북쪽의 야인들이 호시탐탐 국경을 넘어 양민을 괴롭히고, 안으로는 계유정난의 부당성을 들어 유생들이 은밀히 항명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세조는 뛰어난 안목으로 정치도반을 거느린 군주였다. 구치관·신숙주·한명회 등의 재상과 최항·김국광·노사신·박중손·서거정·강희맹·황수신 등 당대의 명 신하들을 거느리고 조선 왕조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며 문화의 르네상스를 여는 새 시대를 갈망했다.

이렇게 훌륭한 많은 신하들 중에서도 공에 대한 세조의 신임은 특히 두터웠다. “구치관은 수년간을 나라 일을 보면서도 한결같은 일처리로 여러 군신들이 한마디의 간언도 없었다.”, “제장들이여, 그대들이 구치관과 같이 부지런하고 삼가 나랏일을 힘써 한다면 내가 역시 구치관과 같이 대접하겠다.”고 할 정도였던 것이다.

구치관은 권력에 편승해 법을 어기는 임금의 친족에게도 엄격했다. 원상(院相) 시절 임금의 후궁인 소훈(昭訓) 윤씨의 친족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자 “법은 모름지기 귀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대신의 동생이라고 하여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대신의 친족이 되는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며 사헌부를 지원하는 법적용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재상이었다. 너무 옳으면 시기하는 무리가 생길 법인데 진정한 충성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구치관에게 조정 중신들도 무고한 간언이나 청탁이 없이 청렴한 재상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보였다.

그러나 공의 집안 살림은 그야말로 고달프기 짝이 없는 선비의 삶이어서 명절이나 세속의 문화에도 전혀 풍요로운 법이 없었다. 그는 개인 생활을 남에게 일언반구도 알리지 않았으며 시대의 풍속을 따르는 여러 가지 폐단을 싫어했다. 그가 능성부원군에 봉해졌을 때 가족이 가문의 경사라며 축하잔치를 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집안이 조용하고 몸가짐을 반듯이 하여 이웃에 모범이 되어야 할 텐데 웬 잔치인가?”라며 나무라니, 임금에게 지극히 신임 받는 귀한 몸이면서도 자신을 위한 어떤 영화도 바라지 않는 청빈한 생활로 일생을 품미한 청백리 관료였다. 그렇다보니 살림은 가난하여 서책만 쌓여있는게 고작이었다. 부모의 제사를 봉양할 때 광주 목사가 그 사정을 미리 알고 임금께 알려 경기 관찰사를 보내어 제수물목을 내려 주곤 했다.

국경지대에서 출몰하여 관과 백성을 괴롭히는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 세조는 다시 공을 함길도 도체찰사로 임명하며 갑옷과 말을 하사했다. 국경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되자 공은 승정대부(崇政大夫) 직위와 우찬성 지성균관사(右贊成知成均館事), 세자이사(世子貳師)로 승진되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보국숭록대부 능성부원군(輔國崇祿大夫綾城府院君)으로 발탁되어 의정부 우의정이 되었다가 영의정(領議政) 겸 영오위도총부 도총관(領五衛都總府都總管)에 올랐다. 세조가 야심차게 추진한 조선 최초의 법전 『경국대전』 간행의 책임과 감수를 맡으며 과전제를 폐지하고 직전제를 신설하였다.

구치관은 1466년에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에 올랐다. 이듬해 세조는 다시 공에게 명나라 황제가 여진족의 토벌을 위해 파병을 요청한 국경 함길도의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으로 삼고서 좌우 대신들에게 “능성부원군은 나의 만리장성이라!” 하며 전별연을 베풀어 위로 하고 노장군의 출정식을 성대히 치러주었다.

세조는 또 자신의 사후에 세자를 받들어 왕권을 든든히 강화할 중신으로 구치관·한명회·신숙주를 원상(院相)으로 임명했다. 원상은 날마다 승정원에 나와 모든 대신들의 직무를 왕을 대신해 살펴보는 섭정의 일종이었다.

청렴을 최대의 덕목으로 여기는 공은 권세를 빙자해 나라의 녹을 받으며 백성을 괴롭히는 관료에게는 엄벌을 내렸고, 가난한 백성의 권익과 보호를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현이 그의 정치이념이었으며, 나라를 위한 충심이었다. 후에 공을 청백리 재상으로 천거한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하다. 그는 직책의 과분함을 들어 사임을 요청하니 61세 되던 해였다.

충렬공 이야기

세조 임금의 두 정승에게 벌주 먹인 이야기 - 전해 오는 일화

세조가 신숙주와 구치관을 특별히 아꼈던 일화가 있다. 신숙주가 영의정이고 구치관이 새로 우의정이 된 시기였다. 역대 왕 중에서도 술을 좋아하는 세조 임금은 술상을 차려놓고 급히 내전으로 신숙주와 구치관을 불렀다.

“오늘 내가 경들에게 물을 것이 있으니 능히 대답을 하면 그만이지만 대답을 못하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인데 경들의 생각은 어땠소?” 하고 물었다.

“전하, 삼가 신들은 힘을 다하여 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승은 공손히 대답하고 세조의 하문을 기다렸다. 잠시 후에 세조가,

“신 정승?” 하고 불렀다. 신숙주가 얼른 대답을 하자 임금은,

“나는 신(新) 정승을 부른 것인데 그대는 대답을 잘못하였다.” 하고 큰 술잔으로 벌주(罰酒) 한잔을 주었다. 다시 세조가,

“구 정승?” 하고 부르자 구치관이 대답하므로 임금은,

“나는 구(舊) 정승을 불렀는데 그대가 잘못 대답하였다.” 하고 큰 술잔에 벌주를 주었다. 또 임금이 부르기를,

“구 정승?”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므로 임금은,

“내가 구(具) 정승을 불렀는데 그대가 잘못 대답하였다.” 하며 벌주를 또 주었다. 또 부르기를,

“신 정승?” 하니 구치관이 대답하므로 임금은 또 다시,

“내가 신(申) 정승을 불렀는데 구 정승이 잘못 대답하였다.” 하며 벌주를 구치관에게 주었다. 이어서 또,

“구 정승?” 하고 불러도 구치관과 신숙주가 대답하지 않으므로 임금은,

“임금이 부르는데 신하가 대답하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다. 두 정승은 벌주를 사양하지 말라.” 하고 똑 같이 큰 잔에 넘치도록 벌주를 부었다. 이와 같이 진퇴양난에 빠진 두 정승이 웃으며 한 잔, 난처해서 한 잔, 별 수 없이 한 잔 마시다보니 흥건히 취해서 그간의 어색함도 풀어지고 임금과 파안대소하며 하루를 즐겼다고 한다.

이 일화는 세조가 구치관에게 정승을 제수하는 것에 대하여 신숙주의 반대가 있었으므로, 두 정승의 서먹한 관계를 풀어주려고 일부러 별주를 먹였다는 이야기이다.

손자를 노사신의 딸과 혼인 시키다

구치관의 하나뿐인 아들 구경(具慶)은 18세의 나이에 요절했다. 그나마 다행으로 아들 구경은 진주 목사를 지낸 양연(楊淵)의 딸과 결혼을 해 아들 구장손(具長孫)을 낳은 후였다. 당시는 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후손을 이어야만 조상님께 죄를 짓지 않던 시대였다. 구치관은 대를 이어야 하는 귀한 손자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는 한편 직접 훈육하고 가르쳤다. 자신은 평생을 관직에 바쳤고, 냉혹한 권력의 세계에서 자신의 청렴 강직함을 믿어주는 군주를 만나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뿐인 손자만은 양반의 후손으로 평범한 삶을 살면서 대를 잇기만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했다.

권력과 재상의 길은 백척간두나 풍전등화와도 같았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당파 싸움을 벌였다.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정치가들은 후세의 역사가 기록하는 올바른 판단이 마땅하다고 하여도 당장에는 상대방을 향해 비수를 꽂는 당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군주의 통치하에서 대를 잇기 위해 몸조심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던 시대였다. 구치관 자신도 임금이 적통을 이어 순항하는 시대가 아닌 정난과 부닥치며 가문의 보존을 위해 몸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였기에 손자에 대한 보호는 더 각별했다. 공은 손자를 향한 지극한 마음으로 시 한 편을 썼다. 이 시는 손자 구장손이 15세가 되어 가례를 치르고 성년이 되자 가문의 후사를 맡기는 내용이다. 구치관의 자애로움과 엄격함이 담겨 있는 시로, 『명가필보(名家筆譜)』에 수록되어 있다.

「貽孫詩」

「이손시」

樓齡踰志學	어리던 네가 자라서 이제
嘉禮如加冠	가례를 치르고 성년이 되었구나
重厚天之賦	하늘로부터 받은 자질을 소중히 여겨
詩書教以寬	시서를 가르치되 너그럽게 하라
蓬門期遠大	우리 가문의 먼 미래를 기약하려면
林壑涉艱難	깊은 골짜기를 건너듯 조심하여라

三世勤傳業 삼대 동안 부지런히 가업을 전하되
從今肯構完 지금처럼 집안을 온전히 이어가거라

손자 구장손과 혼인한 규수는 당대의 명문가인 교하노씨(交河盧氏) 인물로 영의정을 지낸 노사신(盧思愼)의 딸이었다. 노사신은 어머니가 세종의 비인 소현왕후의 동생이고, 아버지 노물재는 동지돈녕부사를 지냈으며, 태종이 이모부가 되는 왕실과의 인척 관계를 형성한 집안이었다.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안 환경과 양반 가문의 규범을 익히며 자란 규수로 당시는 세도가 문중끼리 정략적 결혼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청빈한 시댁의 살림을 맡으면서도 엄정하고 절제 있는 기품은 온 마을 문중이 머리 숙여 공경할 정도였으며, 1남 3녀를 두고 남편이 별세하자 추후 자신의 임종은 여제관들이 맡아서 입관하고 묘소도 남편과의 합장이 아니라 따로 써 달라는 유언을 했다. 문중에서는 훗날 부인의 유언을 따라 여상제들이 입관을 하도록 했으며 묘소도 별도로 썼다.

구장손의 아들 구원지는 아들 셋을 두었다. 구치관의 고손으로 각각 구순(具循, 사포서 별좌), 구징(具徵, 봉직랑 직장) 구휘(具徽, 사헌부 지평·예조 좌랑)이다. 이들은 충렬공 문중을 대표하는 별좌공·직장공·지평공파로 나뉘었으며,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 문중이 분포되어있다.

충렬공을 시(詩)로 말하다

학문의 깊이를 문장으로 말하던 시대 어느 자리건 시를 짓고 화답하는 일상이 다반사였다. 공은 정치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명재상으로 추앙을 받는 청백리이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구치관이 지은 「이손시」와 「응제시」 두 편이 전해지고 있다. 타 문중에서 보관 중인 기록에서 더 많은 자료가 발굴되어 명재상의 진정한 면모가 제대로 알려지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구치관의 시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의 명사들이 공을 위하여 쓴 시를 살펴보면 공에 대한 학식과 인품, 치적을 알 수 있다. 문헌상으로 기록된 열 아홉수에서 신숙주가 8수, 최항 3수, 정국인 2수, 김수온·김시습·박중손 등이 각 1수씩 생전의 구치관과 교류하던 명사들이 시를 지어 공을 칭송하였다.

조선왕조 500년사에 있어 최고의 청류 인사인 매월당 김시습이 관서 지방을 유람할 때 마침 평안도 절제사로 영변에 순찰을 나온 공을 만나게 됐다. 김시습은 세조의

집권에 반발해 생육신을 자처하며 전국을 유랑하고 있었다. 김시습이 만난 공은 문무를 갖춘 53세의 기골이 장대한 대장부였다. 그곳에서 사기가 충천한 늙은 군사들을 보고 김시습은 공에게 다음의 시를 지어 올렸다.

「上具節制詩」

鷹揚尙父鎮關西
十萬貔貅劍戟齊
千里清風沙塞靜
一聲長嘯海天低
胸中花陣韜文武
匣裏龍泉瑩鸞鷁
定遠成功歸上國
綠鬃牡馬仰雲嘶

「상구절제시」

상보(아버지)가 위용을 떨치며 관서를 진압하니
십만의 용맹한 군사 창검이 가지런하다
천 리의 맑은 바람에 변방은 조용하고
한 번의 긴 휘파람에 높은 파도 가라앉네
가슴 속의 진법은 문무를 간직했고
갑옷 속의 용천검은 벽제 문양 찬란하다
변경을 안정시키고 돌아가는 길엔
갈기 푸른 숫말의 울음소리 드높으리 -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신숙주는 공을 향한 남다른 우정으로 멀리 파견나간 그에게 편지 형식의 시문을 통해 만날 날을 고대하며 안부를 묻는 시와 임금이 그를 그리워하는 내용 등을 알리는 여러 수의 시를 지었다. 다음은 신숙주가 공의 별세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쓴 시다.

「곡구능성(哭具綾城)」

하나의 기운은 모이고 흩어짐이 있듯이 죽고 사는 것은 낮과 밤 같아라
하늘의 이치가 원래 이런 것이니 공연히 탄식할 것 없어라
이러한 이치는 본래 아는 것이지만 생각이 얽혀 버리지 못한다
그대는 나의 스승이며 너그러운 도량이 조화에 가깝다
넓고 깊은 만경의 물결 그 끝을 누가 능히 알리오
때를 만나 밝은 시대를 도와 큰 집에 기둥과 초석 노릇을 했다
기뻐하는 입들이 시비를 논하나 그대에게는 조그만 틈도 없었지
덕이 있으면 반드시 장수하고 배플면 반드시 거둠이 있을 것이라
백세를 누리리라 생각했더니 갑자기 화가 닥쳤도다
사감을 맺은 지 수 십년에 옷깃과 수레를 나란히 했었지
사람의 일을 어찌 믿으리 하루 저녁에 홀연히 세상을 떠났도다
잠을 못 이루고 옛날을 생각하니 슬픈 두 줄기 눈물이 쏟아지누나
성안 가득히 풍우는 험악한데 외로운 등불 아래 초혼사를 쓰노라
분명히 오경이 되었는데 홀로 앉아 잠을 못 이루면서……- 희현당(希賢堂) 신숙주(申叔舟)

동시대의 문신이자 집현전 학사 최항은 시 3수에서 구치관을 나라를 고치는 의사로 표현하며 중국 고대의 의성(醫聖)인 창공과 편작에 비유하였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구치관의 치적을 찬양하는 시와 임금을 모시고 함께 온양온천으로 나들이를 가며 풍류와 술과 우정을 나누는 시를 지어 『동문선(東文選)』에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 문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상춘곡(賞春曲)」을 지은 정극인(丁克仁)도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동향 친구인 공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관직에는 별로 인연이 없어 일생을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으로 일관하면서도 문무를 겸비한 벼 구치관이 영의정으로 있을 때 박중손(朴仲孫)이 사망하자 각별하던 세 사람의 우정을 그리며 쓴 시가 『불우헌집(不憂軒集)』에 실려 있다.

수많은 업적과 시호 '충렬'

구치관의 업적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갈래로 꼽을 수 있다. 그는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나라의 녹봉만 축내는 쓸모없는 관료를 가려내어 파직시키는 인사 행정의 개혁을 이뤄냈다. 관할 부서의 관사를 합할 것은 합하고 없앨 것은 혁파하는 의견을 올려 임금의 재가를 받고 시행한 것이다. 현실에 맞는 제도 혁신을 통하여 관료의 실질적인 근무 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맞는 제도를 수립하는 정책을 세웠다. 종친과 양반의 후손들이 특별히 임용되는 것을 폐지하도록 했으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하급직으로 강등시켰다.

이조 판서는 조정의 인사권을 쥐는 최고의 자리였다. 관례대로 판서와 참판이 인사권을 전행해도 무방한 시대였지만 구치관은 이조에 소속된 모든 관리는 물론 임명할 부서의 여론까지 듣고서야 말단직이라도 임명하는 신중한 인사권을 행했다. 모든 관료들이 더 높은 고위직을 바라고 아부와 뇌물로 이조의 문턱을 드나들수록 그는 더 냉정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진행해 그가 이조 판서로 재직하는 동안은 인사에 관한 상소나 구설수가 전혀 없었고 정부를 신임하게 되었다.

연이은 가뭄에 백성들의 기근이 심해지자 세금을 면제해주었다. 또한 균량에 해당되는 곡식을 심는 둔전(屯田)을 해당 관리가 바뀔 때면 사사로이 나눠주고 백성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던 폐단을 바로잡아 다시 환원하도록 했다. 당시는 직전(職田)과 과전(科田) 제도를 두고 벼슬하는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직전은 현직 관료에게만 해당하는 반면, 과전은 퇴직자는 물론 사후에 후손에게 세습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공은 세조와 상의하여 직전제로 바꾸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조선은 학문과 법령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문치(文治) 위주의 국가였다.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리게 된 까닭도 전란에 대비한 무(武)에 능한 훌륭한 영웅이 부재했던 원인도 있다. 즉 문(文)을 숭상하는 만큼 학문에 뛰어난 인재를 선호했고, 결국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내는 무인(武人) 영웅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국왕 중 세조는 문무의 균형을 갖춰 국방을 튼튼히 하고 무인도 조정에 고루 중용해 행정적으로도 통달한 신하를 둔 임금이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문무를 겸비한 구치관은 정승의 반열에 오른 후에도 평안도 도절제사, 함길도 도체찰사, 총리사, 진서대장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북쪽 국경 문제의 전문가이자 장수로서 큰 활약을 하며 공을 세웠다.

구치관은 문화 분야에서도 큰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을 놓은 재상이다. 그는 세조 당시 조선 왕조의 법을 집대성한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에 신숙주·한명회 등과 참여하여 초본을 완성하였다. 이에 교정청을 두어 교정관으로 임명된 후 면밀한 교정 후에 초간본을 발행하였다. 또한 당나라 시성 두보의 칠언율시 『우주두율(虞主杜律)』집을 영의정 시절 청주 목사에게 부탁하여 발간했다. 이 책은 현재 희귀본으로 국가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문헌 정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세조가 왕실에서 발간하는 전집과 불경의 간행을 보급하고자 설치한 간경도감(刊經都監)의 책임자가 되어 많은 도서를 보급하며 관장하는 일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구치관은 다방면에 박식한 관료였다. 그는 경상·전라·충청도 부사로 있을 때 울산 유포에 설치된 성곽이 목책으로만 되어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석재로 다시 쌓도록 했다. 이렇게 축성된 것이 울산시 기념물로 지정된 ‘유포석보’이다. 또한 웅천읍성의 협소함을 건의해 새롭게 조성하였다. 이것이 경상남도 기념물 웅천읍성이다.

한편, 세조는 자신이 죽고 나면 어린 세자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원로 정승인 구치관·한명회·신숙주를 원상(院相)으로 지목하였다. 원상은 항시 승정원에 출근하여 국정상의 모든 서무를 의결하고 왕은 형식적인 결재만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직 의정부 대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정무를 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였다. 이윽고 모든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세자(훗날의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튿날 세조가 승하하니 운명을 장악하여 역사를 바꾼 위



구치관 신도비



충렬묘

인도 하늘의 부름은 거역할 수가 없는 사필귀정이었다. 1469년(예종 1) 예종은 즉위 1년 만에 승하하였다. 이어 성종이 즉위하여 경연을 열어 구치관을 영경연사 겸 이조판서에 임명하였다. 성종은 오래된 대신을 매우 공경하고 중하게 여겼다.

1470년(성종 1) 9월 구치관은 자택에서 생을 마감하니 그의 나이 65세였다. 공의 별세가 보고되자 성종은 3일간 조회(朝會)를 정지하고 시장(市場)을 열지 않도록 하였으며, 태상시(太常侍)에 명하여 충렬(忠烈)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임금이 생전의 공을 기리어 어진 신하에게 내리는 시호에서 청렴하고 방정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것이 '충(忠)' 이고, 공훈이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것이 '렬(烈)' 이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공은 별세한 지 3개월만인 11월에 곧지암을 열미리 부모의 묘하에 안장되었다. 신도비명은 조선 전기의 최고 문장가인 서거정이 지었으며, 비문의 글씨는 당시의 명필인 박효원이 썼다. 공이 운명한지 1년 후에 나라에서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으로 책록함으로써 그 영화로움이 사후에까지 이어졌다.

집성촌 마을, 열미리

열미리 능성구씨 문중은 오랜 전통인 조상 숭조 정신을 이어 받아 나라에서 불천위로 지정된 충렬공의 제사와 봄가을 향사를 지낸다. 마을 뒤로는 충렬공 묘소와 가문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광주시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는 충렬공 신도비가 공의



구치관 묘



구치관 묘표



구치관 신도비

묘소를 오르는 산기슭에 있다. 신도비는 500년이 넘는 오랜 풍상에 마멸되어 글씨는 알아 볼 수 없으나 그 위용은 가히 신비롭다. 글씨의 판독이 불가능해지자 후손들이 1983년 개수한 귀부이수(龜趺螭首)의 새 신도비를 원래의 신도비 옆에 세웠다.

묘역에는 공의 부모인 능원부원군 양위분의 묘소가 상하 봉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에 공과 배위인 정경부인 청주이씨의 묘소가 쌍분으로 나란히 모셔져있다. 조선조 벼슬을 한 후손들의 묘소 여러 기가 산재해 있어 마을 이름을 열모리로 부르다가 열미리로 변음 되었다고 한다.

충렬공의 종택에는 21대 직계 종손 구교운(具教雲, 69세 전 광주시 농협지부장)이 거주하고 있고, 종택 경내에 공의 불천위(영원히 제사를 모시는 신주)를 모신 충렬묘(忠烈廟)가 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공의 양위분 기일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후손들이 모여 기제사를 봉행하고 있으며, 종택 앞에는 악천후에도 묘사를 모실 수 있는 재실인 추원재(追遠齋)가 건립되어 있다. 근래까지 반상(班常)의 제도가 남아있어서 충렬공 묘소를 관리하며 상민(常民)이 살던 묘막이 남아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문중끼리는 대로 이어지는 향렬에 따른 호칭으로 아직도 집성촌의 풍습을 답습하는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마을 입구에 수령을 알 수 없는 고색창연한 느티나무가 있는데, 전해오는 이야기는 충렬공이 부모님 묘소에 제사를 모신 후 심었다고 한다. 이 느티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로 인식되어, 지금도 열미리 마을과 충렬공 종중이 공

동으로 '마을제'를 지내오고 있다. 느티나무 옆에는 이 마을 효자로 알려진 구덕회 효자비(孝子碑)와 구연식 실촌면장의 송덕비(頌德碑)가 나란히 서있기도 하다.

마을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100여 호가 넘는 충렬공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반촌(班村)으로 광주 일원에서 알아주는 마을이었다. 오늘날은 후손들의 삶의 근거지가 흩어져 구씨 문중보다 더 많은 각성 주민들이 주거하는 각성바지 마을이라 능성구씨 집성촌으로 부르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아직도 약 70여 호의 후손들이 충렬공이 남긴 역사의 향기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느티나무 제례를 함께 올리며 노거수에 대한 경의를 다하고 있다. 마을 앞산 기슭에는 오래 전에 구씨 문중에서 세운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제2호 백인대 정자가 있다.

조선조 최고의 벼슬을 한 영의정 충렬공의 음덕을 누리는 문중 혈연에 대해 주민들은 경이로움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능성구씨 대종회와 각분파별 문중은 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장학제도와 강연회, 선조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혈연의 결속을 다지는 아름다운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 참고문헌

「구치관 신도비명」

능성구씨종중, 『능성구씨문헌록』, 2002.

구자청, 『청백리재상 충렬공 具致寬전기』, 민서출판사, 2006.

광주문화원, 『廣州金石文大觀』, 2005.

글 허정분 | 시인
감수 구자청

북방을 지킨 용장, 신립

신립의 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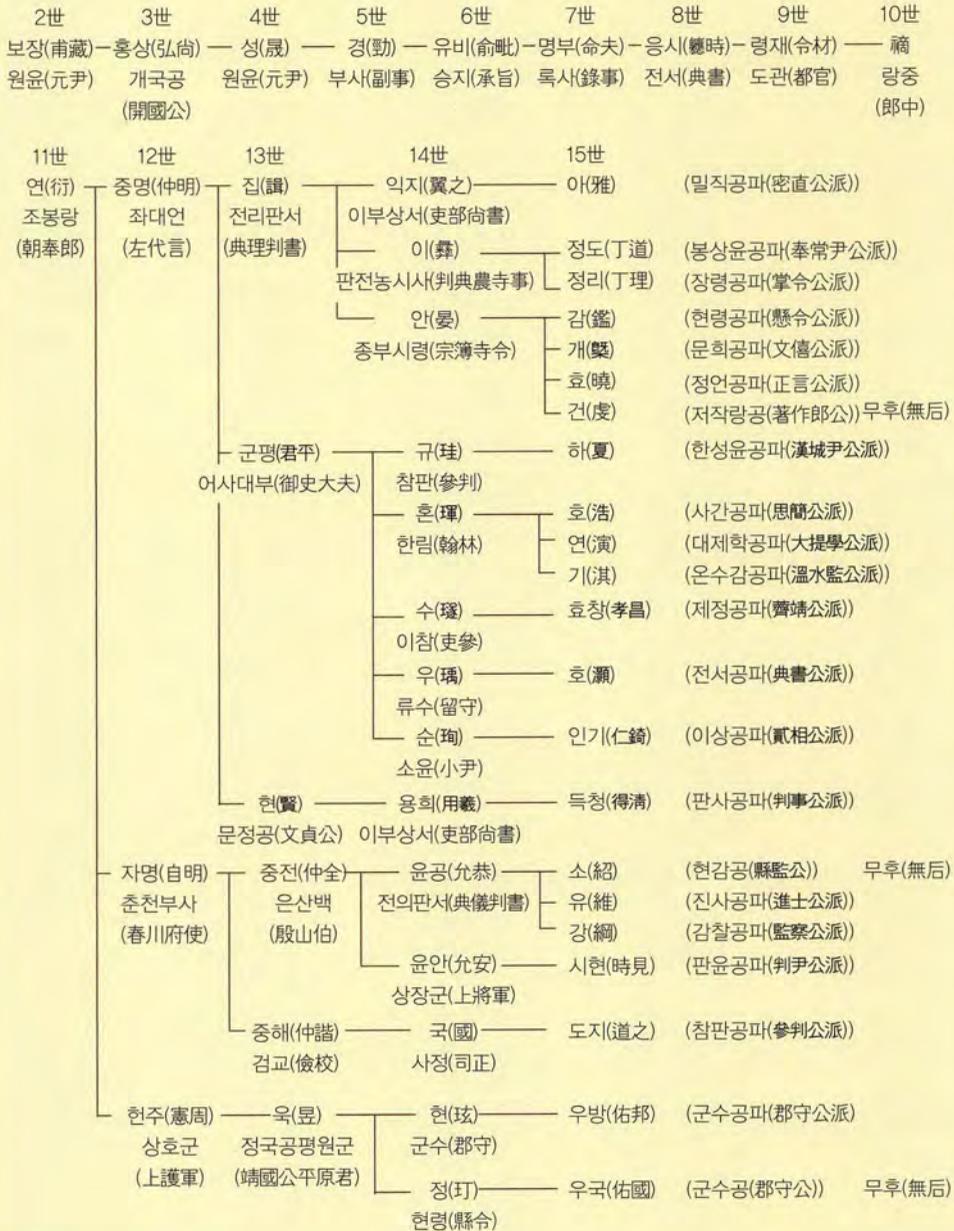
신립(申碩, 1546~1592)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입지(立之). 시호는 충장(忠壯)으로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그의 가문인 평산신씨는 고려의 개국 공신 신숭겸(申崇謙, ?~927)을 시조로 하며, 대대로 높은 관직을 역임했다. 조선시대에 상신(相臣) 11명, 대제학 5명, 판서 20명을 비롯하여, 문과 급제자만도 302명을 배출하는 등 대표적인 문신 집안이면서 동시에 신립으로 대표되는 '무신 집안'이기도 하다. 파계는 20여 개로 갈리는데 그 중 문희공파·정언공파·사간공파에서 많은 인물이 나왔으며, 신립은 문희공파이다. 경기 광주 지역에서 평산신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도척면 진우 3리 부채골이 있으며, 곤지암을 신대리에 신립 묘역을 포함한 평산신씨 세장지가 조성되어 있다.

신립의 5대조 할아버지이자 문희공파(文僖公派)의 중시조인 신개(申槩, 1374~1446)는 세종 때 예문관 대제학과 좌찬성을 거쳐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하였으며, 훗날 세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고조할아버지 신자준(申自準)은 관찰사를 역임하고 좌찬성에 증직되었으며, 증조할아버지 신말평(申未平)은 사헌부 감찰, 할아버지 신상(申鎰)은 중종 때 호당(湖堂)을 거쳐 이조 판서와 예조 판서를 지냈다. 아버지 신화국(申華國, 1517~1578)은 성균 생원으로 벼슬길에 나가지는 않았으나 아들 신잡(申礪, 1541~1609)과 신립이 현달한 덕에 훗날 평주부원군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어머니는 첨정 윤회정(尹懷貞)의 딸이다. 형 신잡은 호성공신 2등으로 평천부원군에 책봉되었으며, 아들 신경진(申景禎)·신경유(申景裕)·신경인(申景禎) 3형제는 모두 무과 출신으로 인

1 평산 신씨(<http://www.pyeongsan.com>).

평산신씨의 세계도(平山申氏 世系圖)

시조(始祖) 장절공(壯節公) 신승겸(申崇謙)



조반정에 가담하여 정국공신이 되는 등 의절의 무맥(武脈)을 이었다.

특히 정사일등공신에 책록된 신경진은 공조 참의와 병조의 참판을 거쳐 판서에 올라 훈련(訓練)·호위(扈衛)·포도(捕盜)의 3대장을 겸하였고,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 수비를 담당했다.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평성부원군에 봉해지고 무과 출신으로는 드물게 영의정까지 올랐다. 한편 신경진은 아버지 신립이 투신해서 죽은 강의 물고기를 어찌 먹을 수 있겠느냐며 평생 물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신립의 현손 신완(申琬)도 숙종 때 영의정을 지냈는데, 장희빈(張禧嬪)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서인(西人)의 소론(少論)에 속하여 온건론을 주장하였다. 그 밖에도 문희공파의 알려진 인물로는 여류 문인이며 서화가이고, 현모양처의 귀감으로 추앙받는 신사임당(申師任堂), 조선 후기 서화가인 신위(申緯)·신명연(申命衍) 부자가 있다. 특히 신위는 한시(漢詩)의 대가로 대사간과 도승지를 지냈다.

신립의 생애

신립은 어릴 때부터 글 읽기보다 무예 익히기를 좋아했다. 1567년(선조 즉위) 22세의 나이로 식년시 병과에 14위로 급제²한 뒤 선전관(宣傳官)과 도총부 도사(都總府都事), 경력(經歷)을 거쳐 진주 판관이 되었다. 이때 문장가로 이름난 진주 목사 양응정(梁應鼎, 1519~1581)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기도 하였다.

1583년(선조 16) 온성 부사(穩城府使) 때 북변에 침입해 온 여진족을 격퇴하고 두만강을 건너가 그들의 소굴을 소탕하였다. 또 경원부(慶源府)와 안원보(安原堡)에 침입한 야인들과 그해 5월 종성에 쳐들어온 니탕개(尼湯介)의 1만 여 군대를 물리쳤다. 이는 신립이 평상시에 철기(鐵騎) 500여 명을 정병으로 훈련시킨 덕분이었으며, 그러한 준비 덕에 북방의 육진(六鎭)을 지킬 수 있었다.

신립이 니탕개의 난을 평정한 후인 1583년 8월 신립의 중형 신급(申礮)이 삼사의 간특함을 극론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선조가 답하기를 “너의 상소문을 보니 참으로 충성이 대단하다.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다. …… 네 아우 신립이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고 있어 그가 변성(邊城)을 지키면 오랑캐들이 감히 가까이 못하여 옛 양장(良

2 『용경 1년 정묘 식년문무과방목』(하버드연칭도서관[TK 2291.7 1748 (1567)]).

將)의 품모가 있다. 그런데 네가 또 이렇게 몸을 돌보지 않고 사(邪)를 물리치기 위해 항소(抗疏)를 하는 기절(奇節)이 있으니 어찌면 너희 한 집안에 충(忠)과 의(義)가 함께 있어 나라 위해 정성을 바치기를 이렇게까지 하는가. 내 매우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³고 하는 내용의 비답(批答)을 내렸다. 이를 통해 선조가 신립을 어진 장군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방에서의 전승이 보고되자 조정에서는 1584년 3월에 신립을 함경도 북병사로 임명하고, 남철릭(무관 제복)·환도(環刀, 군사용 칼)·수은갑(水銀甲)·두구(頭口) 등을 하사하였다. 또한 그의 노모에게는 매일 고기와 술을 보냈으며, 병이 나면 의원을 보내 치료해 주었다.

1587년 2월에는 전라도 흥양(興陽, 현 고흥 지역)에 왜구가 선박 18척을 이끌고 침입하자 우방어사(右防禦使)가 되어 군관 30명과 군사를 인솔하여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왜구들이 철수했으므로 다시 돌아오던 중 양가의 처녀를 첩으로 삼았다는 삼사(三司)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가 곧 함경도 남병사로 임명되었다. 1588년 고미포(古未浦)의 야인 부락에 출정하여 적병 20명의 목을 베고 말 세 필을 빼앗는 등 공을 세웠으나 그해 10월 갈파지보(架波知堡)를 지키는 군졸이 수장을 모욕했다 하여 목을 베어 죽였고, 이로 인해 대간의 탄핵을 받아 동지중추부사의 한직으로 전보되었다. 이는 하급 병사라 하여도 싸움에 임하여 적과 맞선 시기가 아니면 함부로 참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였기 때문이다.

1590년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보직되고 이듬해 한성부 판윤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 도순변사(三道都巡邊使)가 되어 출전하였다. 이때 선조는 상방검(尙方劍)을 하사하면서 격려해 주었으며, 신립의 간청에 따라 김여물(金汝物)을 종사관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한편, 신립이 도성을 떠날 때 “도성 사람들이 모두 저자를 파하고 나와서 구경하였다.”⁴고 한다. 이는 신립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과 기대가 어찌했나를 짐작케 해 준다.

그러나 신립은 충주의 탄금대(彈琴臺)에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대결했으나 참패하였고, 부하들에게 “전하를 뵈올 면목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는 김여물과 함께 강물에 투신 자결했다. 훗날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다.

3 『선조실록』 17권, 1583년 8월 11일 기사.

4 『선조실록』 26권, 1592년 4월 17일 기사.

1986년 5월 7일 경기도 기념물 제95호로 지정된 신립장군 묘에는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글을 짓고, 성재 신익상(申翼相, 1634~1697)이 글씨를 쓴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대석(大石, 곧지암)의 무덤은 의리(衣履, 옷과 신)의 소장(所藏, 간직하여둔 물건)이다. 남한산(南漢山)은 뒤에 솟고, 한강물 곁을 도는데, 천추만세(千秋萬世)에 분(憤)과 한(恨)이 함께 길도다. 후승(後承)이 창대(昌大)하니, 여경(餘慶)은 끝이 없도다.

신립이 치른 주요 전투

여진족 변호 니탕개의 난

조선시대 육진(六鎭)의 북쪽 두만강 건너편에 살던 여진족 중에는 조선과 무역을 하며 공물을 바치던 변호(藩胡)와 조선과 친하지 않아 때때로 침략을 하던 심처호(深處胡)가 있었다. 변호는 심처호가 변방에 들어오려고 할 때면 즉시 조선에 보고하고 이들을 막거나 구원을 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 초기 때부터 그들을 후하게 대해 주었다. 니탕개는 이들 변호 중 세력이 가장 컸는데, 1583년(선조 16)에 일어난 변호들에 의한 일련의 반란을 니탕개의 난이라 한다.

6진 개척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선조 때에 이르러서는 변방의 방어가 차츰 소홀해졌다. 그 결과 조선의 장수들 중에 적임자는 줄었고, 반면 여진족 변호는 차츰 강성해졌다. 그러던 차에 변호의 부락에 조금씩 피해를 끼치는 일이 생겼는데 이를 제대로 무마하지 못하면서 변호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경원부 아산보 변호의 추장인 우을지가 “전 만호 최몽린이 변호를 침학한다.”고 소문을 내면서 부근에 격문을 보냈다. 이어 조선의 토병을 잡아서 심처호에게 보낸 후 밤에 보성을 습격하면서 마침내 난이 일어난 것이다.

온성진과 신립

1593년(선조 16) 여진족은 함경도의 각지를 수차례 공격했다. 이때 온성 부사 신립

은 휘하의 병력을 이끌고 다른 진 병력과 함께 공격당하는 성을 후원해 여진족을 몰아내고 6진(六鎭)을 지켜냈다. 당시 6진의 하나인 온성진(穩城鎭)에는 직할 323명, 예하 진 포함 799명이 있었으며, 기병 숫자는 불분명하지만 평상시 철기 500여 명을 정병으로 훈련시켰다고 한다. 이일(李鎰, 1538년~1601)은 『증보제승방략』에서 온성진의 당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온성진의 위치와 시설

동쪽으로 미전진(美錢鎭)과의 거리가 28리(里)이고, 북쪽으로 유원보(柔遠堡)와의 거리가 18리이고, 서쪽으로 영건보(永建堡)와의 거리가 1식(息)이고, 동쪽으로 황자과보(黃坡堡)와의 거리가 25리이고, 남쪽으로 경원진(慶源鎭)과의 거리가 58리이고, 고을방 고개(古乙方古介)를 거쳐서 장충동(長忠洞)을 넘어서 종성진(鐘城鎭) 지경(地境)의 응곡(鷹谷)을 지나서 행영(行營)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4식 10리이고, 덕명역(德明驛)과의 거리가 6식이고, 서남쪽 사이에 종성부(鍾城府)까지의 거리가 63리이다. 성(城)의 둘레가 5,840척(尺)이다. 여장(女牆)이 484곳이고, 옹성(擁城)이 4곳이고, 곡성(曲城)이 12곳이다. 동문과 서문과 남문과 북문이 있다. 천정(泉井)이 25곳이다. 토병(土兵)이 323명이다. 궁자(弓子)가 1,046장(張)이고, 장전(長箭)이 1,577부(部) 4개(介)이고, 편전(片箭)이 1,975부 21개이다.

보유 군량미

창고에 있는 각각의 곡물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만 1,648석(石) 1두(斗) 3승(升) 2홉(合)이다. 군량미에 해당하는 각각의 곡물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6,898석 14두 3승 3홉 7석(夕)이다.

소속된 진과 군사

유원진은 토병(土兵)이 123명이고, 남쪽 지방에서 부방(赴防)하는 군사(軍士)가 44명이다. 영건보는 토병이 80명이고, 남쪽 지방에서 부방하는 군사가 49명이다. 황자과보는 토병이 56명이고, 남쪽 지방에서 부방하는 군사가 15명이다. 미전진은 토병이 81명이고, 남쪽 지방에서 부방하는 군사가 28명이다.

안원보 전투(1583년)

당시 여진족의 형세가 대단해 안원보 앞의 넓은 들판은 적군으로 가득 찼다. 반면 권관(權管) 이우춘(李遇春), 조전장(助戰將) 병사(兵使) 이제신(李濟臣), 그리고 군관(軍官) 우림위(羽林衛) 김진경(金震經)은 목숨을 걸고 성을 지키려는 뜻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토병 한 사람이 성을 넘어서 도망하였는데, 마침 신립이 아산보의 전투를 돕기 위해 가는 길에 도망치던 토병을 붙잡았다. 신립은 그 토병의 목을 베고 장대에 매달아 군사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 군사들을 성 위에 벌려 세웠다. 이어 북을

쳐 사기를 북돋우니, 적들은 후원 부대가 있음을 알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경원진 전투(1583년 봄)

경원 부사 김수(金璫)와 판관(判官) 양사의(梁士毅)는 아산보의 통사(通事) 한옥(韓玉) 등이 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현장으로 출격했다. 그러나 적들에게 포위된 채 일시에 역습을 받아 인마(人馬)와 군량미, 군수품을 모두 빼앗겼다. 자칫 목숨마저 잃을 뻔 했지만, 훈융진 내금위 백윤형(白允衡)이 온힘을 다해 싸워 겨우 목숨만은 보전할 수 있었다.

이튿날 여진족은 싸움의 여세를 몰아 1만여 기(騎)의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경원진의 본부를 포위하였다. 본부의 부사와 판관이 각각 나누어 성을 지켰는데, 서문장(西門將) 전(前) 만호 이봉수(李鳳壽)가 망을 보다가 도망을 쳤고, 서문을 거쳐 난입한 오랑캐에 의해 성은 함락되었다. 오랑캐의 살상으로 성 안은 유혈이 낭자했고 시체로 가득 찼다. 또한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납치하고, 가축과 관청의 물건을 노략질하였으며, 옥에 갇힌 오랑캐들을 모두 데리고 가버렸다. 군기(軍器)와 창고의 곡식, 관아만은 부사 김수가 온힘을 다해 활을 쏘며 저항한 데 힘입어서 겨우 지켜낼 수 있었다. 다음 날, 적들이 다시 본진(本鎭)을 동문에서 서문까지 세 겹으로 포위하였다.

한편, 신립은 온힘을 다해 활을 쏘았다. 이때 적진에서 백마를 탄 오랑캐 한 명이 의기양양하게 말을 달려서 돌격하였는데, 신립이 화살 한 대로 그를 쏘아 거꾸러뜨리니, 적병들이 흩어져 도망쳤다.

훈융진(1583년 봄)

적호(賊胡) 1만여 기가 마전동(麻田洞)에서부터 쳐들어와 본진을 포위하고 장성(長城)의 문을 깨뜨려 부셨으며, 충교(衝橋)를 만들어 성의 연대(煙臺)를 허물었다. 첨사 신상절(申尙節)과 조전장 종성 판관(鐘城判官) 원희(元熹)가 하루 종일 적과 맞싸웠는데, 화살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여 성을 지키기가 어려웠다. 이때 신립이 유원 첨사 이박(李璞)과 군관 차정(車貞)·김경유(金景裕) 등과 함께 황자파보에서부터 달려와서 적의 포위 가운데를 바로 돌파하면서 공격하였다. 그러자 오랑캐 중에 신립의 얼굴을 알고 있는 자가 있어, “온성(穩城)의 영공(令公)이 왔다.”고 하면서 정신없이 북쪽으로

로 후퇴하였다.

신상절 등은 구원병이 온 것을 알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적을 공격하였고, 신립도 달아나는 적을 쫓아 북쪽으로 추격하여 다수의 적들을 쏘아 죽이고 70여 급(級)을 베었다. 또한 적이 경유하는 안두리 부락(安豆里部落)을 습격하여 막사를 모두 불태워 군사들의 사기를 고무시켰다.

중성진(1583년 여름)

오랑캐의 거추(巨酋) 율보리(栗甫里)와 니탕개(尼湯介)가 군사를 모으고, 정예 기병 10여 명을 척후로 보내어 약탈과 정탐을 한 후 군사 2만여 기를 3부대로 나누어 쳐들어왔다. 그들은 조선 군사의 수가 적은 것을 가소롭게 여기고는 일제히 두만강을 건넜다. 깃발을 한 번 흔들면 장궁(長弓)을 쏘고 북을 울리면서 일제히 강을 건넜는데, 강물의 흐름이 막힐 정도였다. 장의현과 원희는 겨우 서문으로 후퇴했지만 권덕례는 적들에게 목을 베이고 몸이 찢기었다.

해가 질 무렵에 신립은 오랑캐의 침략 소식을 듣고 영건보에서 말을 달려와 소암(嘯巖)에 올라가서 관병(觀兵)하였는데, 적들은 지원군이 오는 줄로 알고 놀라 후퇴하였다. 신립은 적을 추격해 강가에서 적의 수급 2구를 베고 말 2필을 빼앗아서 왔다. 원희도 적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동문을 열고 달려 나가 휘하의 정병과 함께 적의 목 5급을 베고 말 2필을 빼앗아서 돌아왔다.

임진왜란 탄금대 전투

탄금대 전투 개관

1590년(선조 23) 신립은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보직되고 이듬해 한성부 판윤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 도순변사로 임명되었다. 선조는 신립이 싸움터로 떠날 때 검을 하사하면서 격려해 주었고, 특별히 신립이 요청한 김여물(金汝杖)을 부하 장수로 데리고 가도록 해 주었다. 신립은 도중에 군사를 모집해 충주에 도착했는데, 이때 순변사 이일(李鎰)이 상주에서 패하고 쫓겨 왔다. 신립은 그를 처형하려다

재주를 애석히 여겨 선봉에 나서 싸워 속죄하도록 용서해 주었다.

충주에 도착 후 김여물은 조령(鳥嶺)에 진지를 구축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신립은 “적은 이미 고개 밑에 당도하였으니 고개에서 서로 부딪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 더구나 우리 병정들은 아무 훈련도 받지 못한 장정들이니 사지(死地)에 갖다 놓기 전에는 용기를 내지 않을 것이다.”라며 탄금대 근처 달천(達川)을 뒤에 두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는 또한 신립이 기병전의 달인으로서 자신의 특기인 기병을 이용하여 왜구를 무찌름으로써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함이었다.

한편,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휘하는 적은 조령을 넘어왔는데, 그 위풍이 대단해 산과 들이 왜군으로 가득 찼다. 신립은 휘하의 여러 부대를 지휘하며 적진을 돌파하려 하였으나 진흙이 많아 말이 움직이는 데 불편하였고, 적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강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왜적은 우회 작전으로 아군의 우측에 진출하여 동서에서 압도적인 세력으로 협공하였다.

전황이 매우 불리함을 안 신립은 김여물더러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짓게 하여 그것을 부하에게 전달하고는 김여물과 함께 적진에 돌진해 10여 명을 죽이고, 함께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사료로 본 조선군과 왜군의 충주 이동

신립은 선조와 사돈 관계라는 막강한 권력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자원해서 출전, 안타깝지만 당당한 죽음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신립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조선 후기 문헌에선 오히려 무모한 지휘로 대군을 파멸케 한 우매한 인물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특히 그에게 쏟아진 비난의 대부분은 전장 선택 문제이다. 왜 천험의 요새인 조령을 포기하고 탄금대를 전장으로 선택했느냐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런데 전장 선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실록 등 대부분의 사료에는 왜군의 조령 통과 시점이 매우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조실록』의 경우 4월 17일자에 신립의 도순변사 임명 기록에서 패전 상황을 아울러 기록한 후, 신립이 단월역에서 결진한 시점은 27일이라고 설명한다. 이날 왜군이 근처에 왔다는 보고가 왔으나 신립이 이를 믿지 않았고, 포위당한 후 대패했다고 연이어 기록하고 있다. 이어 4월 28일자에 다시 “충주에서의 패보가 전해졌다”고 설

명한 후, 4월 30일자 기사에 가서야 “조정에서 순변사 신립을 보내 방어하게 했으나, 충주에서 패전하고 전군이 월락탄에서 전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4월 27일 단월역에서 결진하고, 연이어 패전 사실을 설명한 후 패전 보고가 4월 28일자에 전해졌다고만 했을 뿐 교전 시점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조선이 수도를 사실상 포기하고 국왕의 피난을 결정한 이유가 신립의 패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사건(전투)에 대해 애매하고 간략한 기록만을 남긴 것이다.

『선조수정실록』에는 신립의 충주 도착과 패전 시점을 4월 14일자 임진왜란 개전 기사에 모두 몰아서 기록하고 있다. 다만 왜군이 이미 4월 27일자에 조령을 넘어 단월역에 도착했지만 신립이 몰랐다고 기록하면서 왜군이 공격해서 전투가 벌어진 시점은 그 다음 날(28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 역시 신립의 충주 도달 시점이 애매하다.

『징비록』의 경우 『선조수정실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신립의 충주 도달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27일 초저녁에 왜군이 조령을 넘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신립이 이를 믿지 않았으며, 전투는 그 다음날 벌어졌다는 것이다.

『난중잡록』의 경우 “26일 조령에 진을 치려했으나 말 달리며 활을 쓰기에는 불편하다며 충주에 돌아와 달천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이어 “왜군이 조령을 넘어 달천으로 진격해와 신립이 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신립이 충주를 통과해 조령 부근에 도달한 시점을 26일이라고 기록해 눈길을 끈다.

『재조변방지』에도 신립이 충주에 도달한 시점을 26일이라고 명시하고, 왜군이 조령을 넘어와 전투가 벌어진 시점은 28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밖에 『국조보감』에는 충주 도달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왜군의 조령 통과 시점은 27일, 전투는 28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신립군의 충주 도달	왜군의 조령 통과	탄금대 전투
선조실록	27일 단월역 결진	? (27일 왜군 출현 보고)	? (28일 패전 보고)
선조수정실록	?	27일	28일
징비록	?	? (27일 왜군 출현 보고)	28일
난중잡록	26일	?	27일
재조변방지	26일	본대 통과는 28일	28일
국조보감	?	27일	28일

한편, 당시 탄금대 전투에 참전한 주요 인물들 중 생존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람은 고언백, 이일, 이빈, 신흘 등 4명이다. 이들 중 신흘을 제외하면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행장이나 신도비문에 교전 시점을 28일로 기록한 경우가 확인될 뿐이다. 신흘은 「제장사난초함패지(諸將士難初陷敗志)」에서 신립이 충주에 도착해 단일역 부근에서 진을 친 시점이 26일이며 전투가 벌어진 시점은 28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전투 현장에 있었던 신흘의 기록이기에 신립과 조선군이 충주에 도달한 시점은 26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기록에도 왜군이 조령을 통과한 시점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28일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왜군이 이미 조령을 넘었지만 그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어 28일 이전에 왜군이 넘어왔을 가능성만 시사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임진왜란 문헌인 『서정일기(西征日記)』⁵에는 왜군이 4월 24일 상주, 26일 문경을 점령한 후, 27일 새벽에 문경을 출발했고, 오후에 탄금대에 도착해 싸운 것으로 나온다. 일기 내용 중 관련 부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단, 일본력은 조선력과 하루 차이가 나며, 이를 수정 반영했다).

『서정일기』 기사

- 4월 25일 맑음. 오각에 상주에 돌입. 대강이옥(이일의 오류인 듯)을 패배시킴. 북으로 공격하여 전과 참수 300급
- 4월 28일 맑음. 인각에 문경 출발. 진각에 안보 통과. 오각에 충주 도착. 충주부 북쪽 반리 지점 송산에 신입석(신립의 오류) 장군이 수만의 병력을 이끌고 결진. 대주(중의지)와 섭주(소서행장) 병력이 공격하여 전과 참수 3,000급, 포로 수백 명, 적 대장 신입석 전사.

적어도 일본 기록에 따르면 4월 28일 새벽까지 왜군은 문경에 머무

廿四日晴、發村家、午刻入尙州城、城中之兵敗亡、城中大將李旭敗亡、李旭即李鑑之誤、從事官朴虎尹遷死、官軍逐北而斬首三百餘、太守陣于城中、余距城西半里許而宿、

廿五日晴、辰刻訪太守之陣、巳刻歸宿、

廿六日晴、寅刻發尙州宿處、午刻過威尙、酉刻到開慶、開慶之城自放火而亡、

廿七日晴、寅刻發開慶、而辰刻過安保、安保今延平豐也、午刻達忠州、自洛將軍來而率數萬之兵、府之北半里計險松山、官軍舉旌旗馳馬向松山之陣敗走、對州羅州之兵逐北、刎首三千餘級、虜數百人、大將申立石死、申石或作申石、先登者對州也、此夜太守去城五町許而陣、余在城中、

일본의 문헌 『서정일기』 중 탄금대 전투 기록

⁵ 『서정일기(西征日記)』는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문헌으로, 일본군 제1군에 속한 승려 덴케이(天薊)의 한문 일기이다.

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른 새벽 3~5시경(인시)에 문경을 출발해서 아침 7~9시(진시) 무렵 안보를 통과하고 오전 11시~오후 1시(오시) 사이에 신립군이 포진하고 있는 지점에 도착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왜군은 이미 4월 28일 오전에 조령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록은 교전이 벌어지기 전 28일 시점에 조령을 통과하는 왜군들의 칼 빛이 목격됐다는 『재조변방지』의 기록과 일치한다.

전투의 진행 과정

4월 28일 오후에 왜군이 충주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된 신립은 포진을 시작하고, 왜군도 포진을 한다. 왜군은 그때까지의 강행군으로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조선군도 훈련받은 정병의 수가 적어 전체적으로 사기가 높지 않았으며, 탄금대에 논과 수풀이 있는데다 비온 후라 진흙투성이어서 기동이 상당히 불리했을 것이다.

포르투갈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일본사』에서 조선군의 포진을 달 모양의 진이라고 했다. 반면, 왜군은 본대와 날개로 보통 설명하는데, 조선 측의 기록으로 볼 때, 산을 따라 내려온 본대와 강을 따라 내려온 날개로 설명하는 게 맞을 듯하다.

신립은 북방에서의 수많은 경험을 살려 기병 돌격을 명한다. 일본 측의 기록에 이 내용이 과장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기병의 돌격은 왜군에게도 상당한 부담이었던 듯하다.

하지만 왜군은 신립의 기병 돌격을 막고 반격을 시작한다. 본진이 모루가 되어 신립의 기병 돌격을 저지하는 동안 다른 부대가 망치가 되어 조선군의 측면(또는 후방)을 공격한다. 이때 망치를 맡은 부대는 조선 측 사료에 나오는 강을 따라 온 부대일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왜군의 망치와 모루작전에 가까운 포위작전으로 조선군은 전멸한다. 결국 신립에 대한 신뢰가 컸던 선조와 조정은 탄금대 전투의 참패로 말미암아 한성을 포기하고 파천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루이스 프로이스가 『일본사』에 기록한 탄금대 전투

충주 근처에는 수량이 풍부한 강이 흐르고 있다. 아고스띠뇨(小西行長)가 군대를 거느리고 그 마을에 도착하자, 역관(경응순)이 약속대로 와서 기다리기는커녕 조선 국왕의 회답 대신 최후의 운명을 걸고서 서울로부터 온 8만 명의 군대가 그들을 목표로 출진(出陣)해 왔던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기

마병으로서 일본군과의 야전을 치르기 위해 선발된 왕궁의 신분 있는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병력 수에서도 훨씬 우세하였고, 아고스띠뇨의 군대가 도중에 피로를 무릅쓰면서 무리해서 진격해 오기 때문에 승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인들도 피아의 병력 차가 너무 크고 불균형한 것을 보고 적잖게 당황하고 주저하였다. 그러나 아고스띠뇨는 용감한 지휘관으로서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를 들어 병사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후퇴는 비겁하다. 적들에게 사기를 올려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패배의 표시이다. 이미 우리는 커다란 명예와 위신을 걸고 조선인으로 부터 많은 땅을 탈취하였고, 국왕의 도시인 서울을 얼마 후에 함락시키려고 하는 지금에 이르러 이때 까지 승리해서 얻은 것을 모두 잃는 일은 용서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싸움과 마찬가지로 승리의 행운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가 이 같은 도리를 간결하게 말하자 병사 일동은 그의 설득으로 용기가 북돋았다. 그곳에서 아고스띠뇨는 병사들에게 전투 대열을 갖추도록 명령했다. 게다가 “막상 부딪쳐서는 조선인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아무 깃발도 울리지 말고 의기(意氣)를 잃은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진격시켜라. 추후에 깃발을 일제히 펴리라”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라고 명했다.

조선군도 진을 정비하고 달 모양으로 전투 대형을 펼쳤다. 그들은 적군이 소수인 것을 보자 적진의 중앙을 공격하면서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쪽 군대가 이미 접근하였을 때 조선군의 예상은 어긋났다. 깃발들이 펴리고 다수의 일본인 병사들이 모습을 나타내고서 조선군의 양쪽 끝을 노리고서 맹렬한 포화를 퍼부었다. 조선군은 그러한 공격에 견딜 수 없게 되어 조금 후퇴하였다가 이내 태세를 가다듬어 한두 번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매우 계획적으로 진격하면서 총포에 더해 대도의 위력으로써 맹렬하게 공격하였기 때문에, 조선군은 싸움터를 버리고서 발을 날개처럼 하여 앞 다투어 도망쳤다. 그들은 그곳을 흐르는 수량이 풍부한 강을 작은 배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강에는 얇은 여울이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조선 병사들은 익사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8,000명에 가까운 적병을 살육하였다.

관련 문화재

신립 장군 묘(申砮將軍墓)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95호

지정일 : 1986년 9월 7일

소재지 : 곤지암읍 신대리 산1-1

신립 장군 묘의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부인 전주 최씨와의 단분 합장묘이다. 봉



신립 묘 위에서 본 원경



신립 묘 봉분



총장공 재실

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그 앞에 장명등이 있으며, 좌우에 동자석과 망주석, 문인석이 각각 1쌍씩 갖추어져 있다. 봉분 왼쪽에는 사각의 받침과 뚜껑돌이 있는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의 묘갈이 있는데, 뚜껑돌인 옥개석(屋蓋石) 용마루 양쪽 끝에 용구를 설치한 평산 신씨 묘역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묘갈은 송시열이 비문을 짓고, 신익상이 글씨를 써서 1703년(숙종 29)에 세운 것이다.

좌우 양쪽의 문인석은 관복을 입은 모습인 금관조복(金冠朝服) 양식이다. 든중한 인상을 주며, 높이는 158cm 정도이다. 봉분과 상석을 중심으로 약간 앞쪽 좌우에는 높이 116cm의 동자석이 있고 봉분 앞에는 높이 159cm 규모의 망주석이 있다.

곤지암(昆池岩)

지정사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3호

지정일 : 1985년 6월 28일

소재지 :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20

곤지암은 신립 장군에 얽힌 전설이 있는 바위이다. 화강암으로 된 큰 바위와 작은 바위 두 개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큰 바위는 높이 3.6m에 폭 5.9m이고, 작은 바위는 높이 2m에 폭 4m 크기이다.

임진왜란 당시 신립은 탄금대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참패를 당하자 강물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장군의 시신을 수습해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으로 옮겨 장사를 지냈는데 묘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곳에는 고양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고, 누구든지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말발굽이 땅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았기에 하는 수 없이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어떤 선비가 신립 장군의 묘를 찾아가, “왜 오가는 행인을 괴롭히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뇌성과 함께 벼락이 바위를 내리쳐서 바위의 윗부분이 땅에 떨어지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 옆에 큰 연못이 생겼다. 그 후로는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며, 사람들은 이 바위를 ‘곤지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충주탄금대(忠州彈琴臺)

지정사항 : 명승 제42호

지정일 : 2008년 7월 9일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산1-1 등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명승지이다. 대문산(大門山)을 중심으로 남한강 상류와 달천(達川)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으며, 수려한 경관이 돋보이는 유서가 깊은 고적지이다. 탄금대라는 명칭은 가야국의 악성 우륵(于勒)이 가야금을 타던 곳이라는 데에서 유래한다. 우륵이 신라에 귀화하여 진흥왕에게 하림궁(河臨宮)에서 새 곡을 지어 연주하니, 왕이 감동하여 충주에서 살도록 하였다. 우륵은 그를 보호하던 계고(階古)에게는 가야금을, 법지(法知)에게는 노래를, 만덕(萬德)에게는 춤을 가르치며 여가 있을 때마다 바위에 앉아 가야금을 타며 살았다고 한다.

탄금대는 또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삼도 도순변사 신립이 배수진을 치고 왜군에 맞섰으나 패한 후 부장 김여물과 함께 전사한 전적지이기도 하다.

탄금대에는 1953년에 세운 「탄금대비」를 비롯하여 1977년에 세운 「악성 우륵 선생 추모비」, 1978년에 세운 「신립장군 순절비」, 1968년에 건립된 권태웅(權泰應)의 「감자



탄금대 팔천고훈위령탑

꽃 노래비」, 1970년에 세운 탄금정과 그 밖에 충혼탑·충주문화관·야외음악당 등이 있다. 또한 탄금대 부근에 '중원탑평리 칠층석탑'(국보 제6호)을 비롯하여 「중원 고구려비」(국보 제205호) 등 귀중한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탄금대는 1976년 12월 21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7월 9일 명승 제42호로 변경되었다.

관련 설화와 전설

자살한 처녀 이야기

신립은 젊은 시절에 요괴로부터 젊은 처녀를 지켜내었다. 처녀는 자신을 거둬주기를 청했지만 신립은 이를 거절하였고, 처녀는 자살했다. 훗날 임신왜란이 발발해 신립은 삼도 도순변사가 되어 왜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천험의 요새인 조령에서 맞서

싸우려 했다. 그런데 자살한 처녀의 혼령이 나타나 “탄금대에서 싸우세요.”라고 했고, 신립은 이 말을 듣고 탄금대에서 싸웠지만 패배하여 전사했다고 한다.

신립 묘와 곤지암에 얽힌 이야기

신립 장군의 묘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바위(곤지암)가 있는데 그 바위 근처를 통과하려는 행인들은 말을 타고 통과할 수가 없었다. 말을 타면 말발굽이 땅에 붙어 그 자리에서 멈춰 버렸기 때문에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이 상황에 화가 난 한 남자가 바위 앞에서 “패장이 어찌하여 행인을 괴롭히느냐?”라고 외쳤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쳐 바위에 맞았다. 그 여파로 바위는 갈라졌으며, 이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관련 문헌 자료

여진족 관련 문헌 기사

- 이이(李瑀)가 졸서(卒逝)하다

이때 적이 나와서 훈융진을 포위하자, 온성 부사 신립이 본진의 첨사 신상절(申尙節)과 함께 힘써 싸워 깨뜨리고 적의 머리 50여 급을 베었다. 『일성록』, 『연려실기술』

- 적호(賊胡)가 다시 경원부를 포위하였다. 온성 부사 신립이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앞장서서 구원하여 성에 들어가니, 적이 세 겹으로 포위하였다. 신립의 군사가 결사적으로 싸우자 적이 물러갔다. 『국조보감』

- 신립의 중형 신급의 상소에 대한 선조의 비답 중 일부

“너의 상소를 보니, 말이 지극히 충성되고 정성스럽고 곧구나. 이 사람이여! 지금 사기(士氣)가 이 같음은 조종(祖宗)에서 배양한 혜택으로 조정이나 변방 일을 근심할 것이 없게 되었다. 너의 아우 신립이 충성을 다해서 나라에 보답하여 몸소 변방을 지키니 적이 감히 가까이하지 못하여 옛날 훌륭한 장수의 기풍이 있고, 네가 또 의분으로 몸을 돌보지 않고 상소하여 간사한 무리를 배척하는 이런 기이

한 절조가 있으니 어찌 너의 한 집안에서 충의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나라를 위하여 정성 바치는 것이 이와 같으냐. 내가 가상히 여겨 감탄하노라.” 『계갑일록』

탄금대 전투 관련 문헌 기사

- 체찰사 유성룡·김응남이 중추부(中樞府)에서 한 자리에 앉아 떠날 준비를 하려고 군관에 응모한 자 80여 명의 명단을 써서 대궐에 들어가 아뢰려 하였다. 판윤 신립이 갑자기 밖에서 들어와 말하기를, “들으니 적병이 이미 밀양을 지나 곧 새재(鳥嶺) 밑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조정에는 이일만 홀로 고군(孤軍)으로 전방에 있게 하고 뒤에서 응원할 장수를 보낼 계획이 없으니 사세가 심히 위급하오. 체찰사는 비록 내려가더라도 싸움터의 장수는 아닙니다. 적세가 만일 급하지 않다면 뒤에서 모든 장수를 감독할 것이지만, 지금 적이 벌써 가까이 왔는데 어찌 맹장으로 하여금 밤낮없이 먼저 달려가서 이일의 군사를 응원하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였다. 성룡도 그렇게 여기고 답하기를, “공의 말은 옳으나 단지 갈만한 무장(武將)이 없는 것을 어찌 하랴.” 하였다. 신립이 말을 받아, “국사가 당장 위급한데 누가 못 가겠소. 비록 소인이라도 가라면 감히 어찌 사양하겠소?” 하였다. 유성룡이 탄식하면서, “공이 나라에 바친 충성은 남이 따르지 못하는 바이오. 이것은 큰일이니 즉시 들어가 아뢰겠소.” 하였다. 임금이 신립을 불러보고 순변사로 임명하였다.

신립이 궐문 밖에 나가 군관을 불러 모으다가 한참 만에 중추부에 들어와서 자못 노기를 띠고 뜰에 있는 군관들에게, “너희들은 어찌 수월한 것만 원하고 괴로운 것은 싫어하느냐. 나에게서는 왜 응모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하고 이내 성룡이 말하기를, “군관이 한 사람도 응모하지 않으니 껄뽀하다.” 하였다. 성룡이, “다 같은 나라 일에 피차가 있겠소? 내가 모집해 둔 사람을 공이 먼저 데리고 가면, 나는 뒤에 갈 것이니 다시 모집하여 가겠소.” 하고 군관의 명단을 그의 앞에 던졌다. 신립이 명단을 들고 나가고 김여물 또한 동행하였다. 『서애집』

- 신립이 떠날 때 임금이 불러보고 ‘적이 어떠냐.’ 하고 물으니 신립이 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변협(邊協)은 매양 왜인은 가장 대적하기 어렵다 하는데, 경은 어찌 쉽게 말하는가.” 하였다. 신립이 간 뒤에 임금은, “변협은 진실로 양장(良將)이라 내가 항상 이 사람을 잊지 못한다. 변협이 있었

던들 내가 어찌 왜적을 걱정할까?” 하였다. 이때 협이 죽은 지 겨우 3년이였다. 『명신록』, 『백사집』, 『변협비』

- 신립이 떠날 때 임금이 불러 보고 보검을 내리면서, “이일(李鎰) 이하 영(令)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 칼을 쓰라.” 하였다. 『조야기문』, 『징비록』
- 이때 군에 응모한 자는 모두 시정의 악동들이었는데, 나라가 태평무사한 지 오래 되어 군사에 관한 일은 알지 못했으므로 식자들이 그것을 걱정하였다. 신립이 용인에 이르러 적세가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적세가 심히 성해서 실로 막아낼 일이 어려우니 오늘의 일은 민망하고 딱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장계하였다. 이때 서울에서는 신립을 간성(干城)으로 믿었다가 이런 장계가 올라오니 모든 사람이 겁을 내어 인심이 흉흉하였다. 『일월록』
- 신립이 충주에 당도한 4월 26일에 적은 이미 새재(조령)를 넘었다. 군관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보고하니, 이튿날 아침에 신립은 군관이 여러 사람을 현혹시켰다 하여 목을 베어 군중(軍中)에 돌렸다.
- 척후장 김명원·안민(安敏) 등이, “적병이 이미 닳쳤다.” 하니, 신립이 홀연히 성 밖으로 뛰어나갔으므로 온 군중이 소란스러웠으며 신립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었다. 그는 밤에 객사로 돌아와, “군관이 망령된 말로 군중을 놀라게 했다.” 하고 목 베었다. 『조야기문』, 『일월록』
- 처음 김여물이 신립에게 말하기를, “적이 기세가 날래어 맞대고 싸우기 어려우니 새재를 지키는 것이 옳을 것 같소.” 하니 신립이, “적은 보병이고 우리는 기병이니 넓은 들판에서 맞아 기병으로 짓밟으면 이기지 못할 리가 없다.” 하고 듣지 않았다. 적은 벌써 은밀히 재를 넘어 28일에는 길을 나누어 크게 밀어 닳쳤다. 여물이 또, “먼저 고지를 점령해서 역습을 합시다.” 해도 듣지 않고 배수진을 쳤다. 적이 아군 뒤로 나와 겹으로 포위하였다. 전투가 처음 벌어지자 아군이 모두 흩어져 달아나고 장수와 졸병이 겹겹에 모두 달래강물에 뛰어들었다. 적이 칼로 마구 찍어 물에 뜬 시체가 강을 메웠다. 신립이 여물을 불러, “자네는 살려고 하는

가?” 하니 여물이 웃으면서, “어찌 내가 죽음을 아끼겠소?” 하고 같이 탄금대 밑에 가서 손수 적 수십을 죽이고 함께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일월록』, 『명신록』

- 신립이 새재(조령)를 막고 방어하려다가 길이 험해서 말달리고 활쏘기 불편하다고 물러와 충주에 진을 쳤다. 이일은 신립이 충주에 있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새재를 버리고 충주로 갔다. 신립이 적세(賊勢)를 물으니 이일은, “이번 왜적은 경오·을묘년과는 비교가 안 되며 또 북쪽 오랑캐 같이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소. 이미 험한 곳에 주둔하지 못하여 넓은 들판에서 싸움을 하게 되어 당해 낼 도리가 만무하니 차라리 물러가 서울을 지킵시다.” 하였다.

신립이 화를 내어 말하기를, “네가 패군(敗軍)하고 또 다시 군중을 놀라게 하여 요동시키니 군법에 의하여 마땅히 목을 벨 것이지만, 적이 이르거든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하라.” 하고 또, “바다를 건너온 적은 능히 달리지 못한다.” 하였다. 드디어 달래강(狹川)을 뒤에 두고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다. 군사가 겨우 수천 명이었다. 『일월록』

- 이내 군사를 거느리고 탄금대 앞 두 강물 사이에 나가 진을 쳤는데, 이곳은 왼쪽에 논이 있고 물과 풀이 서로 얽히어 말과 사람이 달리기에 불편한 곳이었다. 조금 후에 적군이 단월역으로부터 길을 나누어 쳐들어오는데 그 기세가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같았다. 한 길로는 산을 따라 동쪽으로 나오고, 또 한 길은 강을 따라 내려오니 총 소리는 땅을 진동시키고 먼지는 하늘에 가득하였다. 신립은 어쩔 줄을 모르고 말을 채찍질해서 몸소 적진에 돌진하고자 두 번이나 시도했으나, 쳐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와 강물에 뛰어들어 물에 빠져 죽었으며, 여러 군사들도 모두 강물에 뛰어들어 시체가 강물을 덮고서 떠내려갔다. 김여물도 또한 혼란한 군사 속에서 죽었으나, 이일은 동쪽 산골짜기로부터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이보다 앞서 조정에서는 적병이 매우 강성하다는 말을 듣고 이일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염려하였으나, 신립은 당대의 명장이므로 사졸(士卒)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터이니, 그로 하여금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해서 두 장수가 서로 세력을 합친다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그 계책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불행히도 본도(경상도)의

수군과 육군의 장수들이 모두 겁쟁이었던 것이다. 『징비록』

- 28일 신립이 장계하기를, “적병이 상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그는 적이 벌써 충주에서 6~7리 떨어진 단월역에 짝 차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대군을 크게 패하여 거꾸러지게 하였다. 『서애집』

- 28일에 적병이 충주에 들어갔다. 도순변사 신립과 종사관 김여물이 패하여 죽었다. 『연려실기술』

- 신립이 충주에서 패배하다

신립이 충주에 이르렀을 때 제장(諸將)들은 모두 새재의 험준함을 이용하여 적의 진격을 막자고 하였으나 입(砮)은 따르지 않고 들판에서 싸우려고 하였다. 27일 단월역 앞에 진을 쳤는데 군졸 가운데 ‘적이 벌써 충주로 들어왔다.’고 하는 자가 있자, 신립은 군사들이 놀랄까 염려하여 즉시 그 군졸을 목 베어서 엄한 군령을 보였다. 적이 복병(伏兵)을 설치하여 아군의 후방을 포위하였으므로 아군이 드디어 대패하였다. 입은 포위를 뚫고 달천(獺川) 월탄(月灘)가에 이르러 부하를 불러서는 ‘전하를 뵈을 면목이 없다.’고 하고 빠져 죽었다. 그의 종사관 김여물과 박안민도 함께 빠져 죽었다. 『선조실록』

- 적병이 충주에 침입하여 신립이 전사하다

적병이 충주에 침입하였는데 신립이 패하여 전사하였다. 처음에 신립이 군사를 단월역에 주둔시키고 몇 사람만 데리고 조령에 달려가서 형세를 살펴보았다. 얼마 있다가 이일이 이르러 꿰어앉아 부르짖으며 죽기를 청하자 신립이 손을 잡고 묻기를, “적의 형세가 어떠하였소?” 하니, 이일이 말하기를, “훈련도 받지 못한 백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적을 감당하러니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신립이 쓸쓸한 표정으로 의기가 저상되자 김여물이 말하기를,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그 예봉과 직접 맞부딪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의 험준한 요새를 지키면서 방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고, 또 높은 언덕을 점거하여 역습으로 공격하자고 하였으나 신립이 모두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 지역은 기마병을 활용할 수 없으니 들판에서 한바탕 싸우는 것이 적합하다.”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장계를 올려 이일을 용서하여 종군(從軍)하게 해서 공로를 세우도록 청하고 드디어 군사를 인솔하여 도로 충주성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여물은 틀림없이 패할 것을 알고 이에 종을 보내어 아들 김류(金瑬)에게 편지를 부치기를, “삼도(三道)의 군사를 징집하였으나 한 사람도 이르는 사람이 없다. 남아가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라의 수치를 씻지 못하고 웅대한 뜻이 재가 될 뿐이니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할 뿐이다.” 하고, 또 가족(家屬)에게 경계하기를, “나는 여기서 죽을 터이니 온 가족은 의당 행재(行在)로 달려가고 다른 곳으로는 피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신립과 친한 군관이 적이 벌써 조령을 넘었다고 몰래 보고하자, 신립은 망령된 말이라고 하여 참하였다. 그리고는 장계를 올려 적이 상주를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하고, 군사를 인솔하여 탄금대에 나가 주둔하여 배수진을 쳤는데, 앞에 눈이 많아 실제로 말을 달리기에는 불편하였다.

이달 27일에 적이 이미 조령을 넘어 단월역에 이르렀는데, 목사李宗長과 이일이 모두 척후로 전방에 있다가 적에게 차단당하여 정세 보고가 단절되었으므로 신립이 또 알지 못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적병이 길을 나누어 대진(大陣)은 곧바로 충주성으로 들어가고, 좌군(左軍)은 달천 강변을 따라 내려오고, 우군(右軍)은 산을 따라 동쪽으로 가서 상류를 따라 강을 건넜는데 병기가 햇빛에 번쩍이고 포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신립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곧장 말을 채찍질하여 주성(州城)으로 향하여 나아가니 군사들은 대열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고 숨어버렸다. 성중의 적이 호각 소리를 세 번 발하자 일시에 나와서 공격하니 신립의 군사가 크게 패하였으며, 적이 벌써 사면으로 포위하므로 신립이 도로 진을 친 곳으로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다투어 물에 빠져 흘러가는 시체가 강을 덮을 정도였다.

신립이 여물과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아 적 수십 명을 죽인 뒤에 모두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신립에게는 누이의 아들로 따라다닌 자가 있었는데, 도망하여 모면하려고 하자 신립이 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어찌 살려고 하느냐.’ 하며 머리를 붙잡고 함께 빠져 죽었다. 장사(壯士)로서 빠져나온 사람은 두서너 명에 불과했다. 이일은 셋길을 따라 산으로 들어갔다가 왜적 두세 명을 만나 한 명을 쏘아 죽여 수급(首級)을 가지고 강을 건너서 치계(馳啓)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처음으로 신립이 패하여 죽은 것을 알았는데, 병조에서는 마침내 이일의 죄를 용

서하고 바친 왜적의 머리를 남쪽 성문에 매달았다. 『선조수정실록』

- 28일, 적이 민가에 불을 질렀다. 그런 뒤에야 우리 군사들이 적이 이미 영(嶺)을 넘어온 것을 알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간담이 떨어지지 아니한 이가 없었다. 조금 있다가 적의 무리가 큰 길을 따라 산을 두루 내려오는데 칼이 햇빛에 번득 빛났다. 신립이 군사를 모아 나아가서 탄금대 앞에 진을 쳤다. 탄금대는 두 물 사이에 있는데 그 물은 이름이 달천(獺川)이었다. 군사가 모두 물을 등지고 진을 쳤다. 김여물이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편지를 써서 그의 아들 김류(金瑬)에게 부치기를, “삼도에 군사를 불렀으나 한 사람도 이르는 자가 없으니 우리들은 다만 맨 주먹으로 버티었다. 남아가 국사에 죽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지만 나라의 수치를 씻지 못하니 씩씩한 마음이 재[灰]가 되는구나. 하늘을 우러러 기운을 내뿜을 뿐 이로다.”

또 가족에게 부친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이미 나라에 죽기를 결정하였으니 가족은 마땅히 행재(行在)로 달려가고 다른 곳에 도망하여 피난하지 말 것이다.”

편지를 봉하여 종에게 주어서 돌아가 집에 전하게 하였는데, 이미 적이 사방에서 이르렀다. 그 지역은 촌락의 거리가 좁고 좌우에 눈이 많아서 물과 풀이 섞여서 말을 달리기에 불편하였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적이 우리 군사의 좌우를 포위해 나오는데 세력이 풍우(風雨)와 같았다. 한 길은 산을 따라 동쪽으로 오고 한 길은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포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탄환이 빗발 같고 먼지는 하늘을 덮었고 고탈치는 소리는 산을 흔들었다.

신립이 김여물에게 급히 장계를 초하게 하니 김여물이 갑옷투구를 갖추고 활과 화살을 허리에 차고 붓 놀리기를 물 흐르듯 하여 한 자도 잘못 쓰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다 장하게 여겼다. 왜적의 형세가 더욱 급하여 점점 둘러싸니 사방에 길이 없었다. 신립이 황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말을 채찍질하여 적진에 충돌하기를 두세 번 하였으나, 나아갈 수 없어 도로 강가로 달려오는데 김여물이 말을 타고 앞에 있어 거의 앞은 여울에 이르렀다. 신립이 김여물을 부르며, 영감은 살아나기를 원하는가? 하니, 김여물이 웃으며, “내가 어찌 목숨을 아낄 사람이겠소.” 하고, 도로 달려 탄금대 밑에 이르러 신립과 더불어 수십 명을 쳐 죽였다. 우리 군사가 크게 요란하여 쌓인 송장이 산과 같고 군자(軍資)와 기계(器械)

가 일시에 다 소진되었다. 적병이 신립을 더욱 급히 추격하니 두 사람이 강물에 뛰어가 죽었다. 모든 군사도 다 강 속으로 뛰어갔는데 흐르는 시체가 강을 덮어 내려갔다. 이일은 동쪽 산골을 거쳐 탈출하였다. 『재조변방지』

- 흉악한 왜적이 조령을 넘어 달천으로 달려 들어오니 신립은 패전하여 죽었다. 당초 적병은 두 재[嶺]의 넘기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당도하자 산길은 고요하고 사람의 발자취도 전연 없는지라 마침내 크게 기뻐하여 날뛰면서 곧장 충주를 범했다. 한편 신립은 여러 도의 정병(精兵)과 무관 2천 명, 종족(宗族) 1백여 명, 내시위(內侍衛)의 군졸 등 도합 6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령으로부터 다시 충주로 후퇴하였는데, 종사 김여물이 이일의 말에 따라 산길을 굳게 지키자고 요청하였으나, 신립은 듣지 않고, “바다를 건너온 왜적은 빨리 견지 못한다.” 하고는, 마침내 달천을 등지고 탄금대에 진을 쳤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척후장(斥候將) 김효원·안민 등이 달려와서, “왜적의 선봉이 이미 다가 왔습니다.” 하고 고하자, 신립은 그들이 군중을 놀라게 한 일에 노하여 당장 그 두 사람을 목 베고 이어 영을 내려 진의 대오를 바꾸게 하였다. 그러나 적병이 이미 아군의 뒤로 나와 천 겹으로 포위하자 장병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모두 달천의 물로 뛰어들었다. 왜적이 풀을 쳐내듯 칼을 휘둘러 마구 찍어대니 흘린 피가 들판에 가득 찼고 물에 뜬 시체가 강을 메웠으며, 신립과 김여물도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병은 충주와 상주 두 전투에서 다 섬멸되었다고 한다. 『난중잡록』

>> 신립 장군 연보

1546. 10. 23. 신화국의 제3남으로 출생
 1567. 23세의 나이로 무과에 합격, 선전관, 도총부도사, 경력, 진주 판관 역임
 1575. 11. 1. 맏아들 경진 출생
 1581. 8. 7. 둘째 아들 경유 출생
 1583. 온성 부사로 2~5월 니탕개의 난 진압
 1584. 변방의 일을 임금에게 아뢰고 모친에게 문안차 상경
 1587. 전라도 흥양에 왜구가 침범하자 우방어사가 되어 전라도로 출정, 우방어사에서 파직 후 12월에 남병사가 됨
 1588. 10. 남병사 파직되었다가 동지중추부사 제수
 1590. 2. 평안 병사 제수
 10. 28. 삼자 경인 출생
 1591. 2. 한성 판윤 제수
 1592. 2. 경기·해서지역 변비점검
 4. 임진왜란 발발하여 삼도 도순병사 제수
 4. 28.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순국
 증 영의정 평양부원군, 시호 충장

>> 참고문헌

『계갑일록』, 『국조보감』, 『난중잡록』, 『명신록』, 『백사집』, 『서애집』, 『서정일기(西征日記)』, 『선조수정실록』, 『선조실록』, 『연려실기술』, 『일본사』(루이스 프로이스), 『일성록』, 『일월록』, 『재조변방지』, 『조야기문』, 『증보제송방략』, 『징비록』, 『후광세첩(厚光世牒)』, 『변협비』, 『제장사난초함패지(諸將士難初陷敗志)』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 광주군)

『광주시사』(2010, 광주시사편찬위원회)

『광주금석문대관』(2005, 광주문화원)

『중정남한지』(2005, 광주문화원)

문화재청(<http://www.cha.go.kr>).

평산신씨 평산닷컴(<http://www.pyeongsan.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이성복 | 전 광주시사편찬위원회 상임 연구원
 현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상임 연구원

올곧은 선비 정신, 정홍익(鄭弘翼)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이 즉위하자 조정은 북인(北人)의 세상으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임사홍(任士洪)과 정인홍(鄭仁弘)이었다. 선왕인 선조에게는 적통의 왕자가 없다가 계비인 인목대비(仁穆大妃) 김 씨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영창대군(永昌大君)이다. 선조가 승하하기 전 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광해군을 영창대군으로 교체할 생각도 했으나 영창대군이 워낙 연소하여 불가능했고,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예정대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영창대군이 점점 성장하자 북인 정권은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드디어 불안의 잠재요소인 영창대군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정홍익(鄭弘翼, 1571~1626)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571년(선조 4)에 태어나 광해군의 비정(秕政)에 항거하여 인목대비를 폐출하여 서궁으로 유폐시키려는 광해군의 악정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였던 당시 조정의 세 신하 중 한 명이다. 나머지는 오리 정승이라 불리던 영의정 백사 이항복과 군기시정 김덕함이다. 이들 세 사람은 인목대비의 폐출에 극력 항변하다가 모두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귀양살이 6년 만에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풀려나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으나 오랜 귀양살이에서 얻은 풍토병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1626년(인조 4)에 별세한 조선의 대표적인 올곧은 선비 중 한 사람이었다.

정홍익의 가계와 성장, 그리고 출사

정홍익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익지(翼之). 호는 휴옹(休翁)이다. 1571년(선조 4)에 태어났다. 부친은 사삼시정(司瞻寺正, 정3품) 정사신(鄭思愼)이고 모친은 순흥(順

興) 안씨로 안혼(安渾)의 여식이다.

동래 정씨 직제학공파(直提學公派)는 조선 초기 세종 때에 집현전 직제학을 역임한 정사(鄭賜)를 파조(派祖)로 하고 있다. 정사는 5남을 두었는데, 정난손(鄭蘭孫)·정난수·정난중·정난원·정난무이다. 장남 정난손은 사헌부 집의(執義)를 역임하였고, 정난중은 성종조의 좌리공신(佐理功臣)이다. 정난손은 4남을 두었는데, 장남 정광세(鄭光世)가 판서를 역임하였다. 정광세의 장남 정충량(鄭忠樑)은 『기묘명현록(己卯名賢錄)』에 등재된 신진사류(新進士類)로서 조광조(趙光祖), 김안국(金安國)과 함께 중종(中宗) 때 사화(士禍)를 입었다. 정홍익은 정충량의 5세손이다. 그의 가문은 중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정광필(鄭光弼)을 비롯하여 조선조에서 상신(相臣)만 13명이나 배출한 명문가이다.

정홍익은 어려서부터 행동이 단아하고, 성품이 올곧았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품이었다. 소년 시절 한양에 거주하면서 그의 외종인 안절(安絕)과 함께 공부하였으며, 18세 되던 해인 1589년(선조 22) 사마시(司馬試)에 응시, 합격하여 성균관생원이 되었다. 대과(大科)를 준비하느라고 안절과 함께 묘향산에 들어가 수년 동안 학문에 매진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부친을 따라 선조를 호종하며 의주로 갔다.

1597년 임진왜란이 끝나자 조정에서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문과별시(文科別試)를 시행하였고, 26세이던 정홍익은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을 시작으로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글씨를 잘 썼으며, 문장력이 대단했고, 사리의 판단이 정확 명료하여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 즉 사관(史官)이 되어 임금과 신하들의 경연(經筵)이나 정무(政務)의 기록을 왕의 측근에서 담당하였던 것이다.

출사 후의 행장

정홍익이 문과에 급제하여 출사하였을 때는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5년이 지나서 왜군들이 남해안으로 물러갔을 때이다. 온 나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으며, 군사들도 사기(士氣)가 저하되어 싸울 능력도 없었고, 명나라의 원군(援軍)도 백방으로 속히 전쟁을 끝내려고 하던 시절이었다. 이듬해인 1598년 9월에 정홍익은 사간원(司諫

院) 정언(正言)에 특임되어 언관(言官)으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사간원의 정언은 비록 6품 벼슬이지만, 그 책임은 막중하여 정부의 고관대작은 물론 심지어 국왕의 경우에도 법도에 어긋나면 간언(諫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책무를 갖는 직위이다.

정홍익이 홍문관(弘文館) 교리로 있을 때에 다른 언관들과 함께 정인홍(鄭仁弘)·이이첨(李爾瞻)의 여러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 하였고, 잦은 충돌이 벌어지곤 하였다. 정홍익은 그 후 사간원의 헌납(獻納)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사서(司書)를 역임하면서 세자의 경사(經史)와 도의(道義) 교육을 맡아 충실히 가르쳤다. 1602년에는 사헌부로 옮겨 지평(持平)이 되었고, 이때에 이이첨 등이 조선 중기의 유명한 성리학자 우계(牛溪) 성혼(成渾)을 탄핵하는 상소가 임금에게 올라왔다. 성혼은 퇴계 이황에게 사숙하였으며, 율곡 이이와 더불어 성리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인물로 선비들의 추앙을 한 몸에 받던 위대한 학자였는데, 그의 사후에 정인홍이 탄핵하며 그에게서 모든 관작을 삭탈하여야한다는 상소를 임금에게 올렸다. 사헌부의 지평으로 있던 정홍익은 그의 그릇된 상소를 임금에게 아뢰기를 여러 번 하였다. 성혼은 나라의 선비들의 추앙을 받던 위대한 학자요, 정치가였는데, 탄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였다.

정홍익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여서 꺾내의 다른 신하들은 정인홍의 상소에 아무런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으나, 오직 정홍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논박하였다. 그의 상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평 정홍익(鄭弘翼)이 아뢰기를, "집의(執義) 이효원(李效元)이, 성혼(成渾)이 간당(奸黨, 동인)에 빌붙어 임금을 뒤로 한 죄를 논박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성혼은 정철(鄭澈)과 교분이 두터웠고, 또 대가(大駕)가 서수(西狩)할 때 즉시 호종(扈從)하지 않았으니 물의(物議)에 배척당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논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적중하게 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정철(鄭澈)과 함께 삭탈관직(削奪官職)의 벌을 받는다면 이는 실로 과중한 조치입니다. 신의 소견은 이와 같은데 시론(時論)은 신의 의견과 같지 않으니 결단코 직책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살피보건대, 정인홍이 성혼을 질시하여 기필코 이미 죽은 사람에게까지 죄를 가하려고 하였고 영의정 기자헌(奇自獻)은 그의 포악한 기세를 도와 힘써 그의 논을 주장하였다. 삼사(三司)의 관원으로는 집의 이효원, 장령 윤의립(尹義立), 대사간 정광적(鄭光績), 직제학 박이장(朴而章) 등이 모두 휩쓸려 성혼에게 죄주기를 청하면서 서로 날조하여 못하는 것이 없었다. 오직 홍익만이 홀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런 아뢰미 있었다.'

정홍익과 가까웠던 구당 박장원(朴長遠)의 『구당집(久堂集)』에는 이때의 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정홍익(鄭弘翼)이 신축년에 정언(正言)에 제수되어 부름을 받고 안주(安州)에서 달려올 때에 삼사(三司)에서 성우계(成牛溪, 성흔)를 매우 맹렬히 공격하였다. 혹자가 그에게 묻기를, “자네가 지금 조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이번에 올 적에 완평 이원익(完平李元翼)을 서경(西京, 평양)에서 찾아뵙고 이 일을 물었는데, 완평은 현재의 의논을 매우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어찌 옳지 않은 것을 이 노인이 말씀하였겠는가. 내 뜻은 결정되었다.” 하고는 사은숙배(謝恩肅拜)한 뒤에 즉시 홀로 아뢰어 이견(異見)을 주장하였다. 이에 의논이 떠들썩하게 일어나서 그를 단천(端川)의 채은관(採銀官)으로 축출하였다.²

성흔을 탄핵한 정인홍 등은 이를 이유로 상소하여 정홍익을 파직시키려고 하였으나, 선조는 정홍익의 올곧은 처사가 파직으로 이어진다면 이후에도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단천(端川) 채은관(採銀官)으로 축출하였다. 단천은 평안도에 있는 고장인데, 은(銀)이 많이 생산되어 당시에는 중앙에서 채은관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던 것이다. 이에 앞서 정홍익은 오리 정승으로 이름이 나 있는 이원익(李元翼)이 임진왜란 중인 1597년(선조 30) 10월 진주변무사(陳奏辨誣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었는데, 이때 그의 종사관으로 따라갔다가 1599년 1월에 돌아왔으며, 임진왜란 후 이원익이 체찰사(體察使)로 함경도와 평안도를 순칙(巡勅) 할 때도 종사관으로 뽑히는 등 그의 신임을 받았다. 이어 경기도사(京畿都事)에 임명된 바 있으며, 암행어사로 황해도를 염찰(廉察)하기도 하였다.

단천 채은사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자 이번에는 성천 부사(成川府使)로 내보내졌다. 이때 명나라에서 사신이 와 평양에서 영접을 하는데 정홍익이 영위사(迎慰使)에 뽑혀 영접하였다. 1612년(광해군 4) 2월에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필선(弼善)으로 뽑혀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렀고, 학문 실력을 인정받아 세자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였다. 그는 어디를 가서 무슨 직책을 맡든지 임무에 충실하여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청렴과 정직으로 백성을 섬긴 참 지도자였다.

한편, 1614년 갑인년에 연경(燕京)에 동지(冬至)의 하사절(賀使節)로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어 부모님의 상을 당하였다. 그는 지극 정성으로 시묘살이를 하

1 『선조실록』 35년 윤2월 1일.

2 『구당집(久堂集)』 기문(記聞).

며 4년 동안을 지내면서 몸이 몹시 상하기도 하였다.

영창대군의 증살과 인목대비의 폐출

정홍익이 부모상을 당하여 시묘한 후 다시 관직에 복귀한 것은 1617년으로, 지제교(知製敎)에 임명되어 국왕의 곁에서 왕의 교지를 작성하였다. 그가 시묘하는 동안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영창대군(永昌大君)이 죽은 것이다. 영창대군은 선조의 유일한 정비(正妃) 소생으로 이미 왕위에 올라있던 광해군(光海君)과의 계승권 분쟁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불안하게 여긴 대북(大北)의 이이첨(李爾瞻) 일파는 박응서(朴應犀) 등의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 영창대군을 추대하려는 모반이라고 거짓 고변하였다. 이어 영창대군의 외조부 김제남(金悌男)을 참살하고, 영창대군을 서인(庶人)으로 만들어 강화(江華)에 위리안치(圍籬安置)했는데, 부사(府使) 정항(鄭沆)이 방문을 모두 막아 못 나오게 한 뒤 온돌에 불을 계속 때서 타 죽게 만드는 증살(蒸殺)을 하였다.

이이첨과 정인홍 일파는 인목대비(仁穆大妃)마저 폐출(廢黜)시켜야 화근을 도려낼 수 있다고 하였고, 광해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3정승을 비롯한 조정의 신료들로 하여금 형식적이거나 수의(收議)하도록 명하였다. 그들은 유생(儒生)들을 시켜 상소문을 조정에 올리게 하여 폐출을 계획적으로 단행하였다.

유학(幼學) 박몽준(朴夢俊)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서궁(西宮, 인목대비를 칭함)은 국가의 화근(禍根)입니다. 속히 그를 처치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폐망하게 될 염려가 곧 닥쳐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신은 지난 가을 사이에 대략 중국에 정청(呈請)하는 일을 가지고 전하에게 진달하였으나, 성상(聖上)의 비답(批答)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지레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남도 지방에 있으면서 본도의 인심을 살펴보니, 모두 들뜬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정온(鄭蘊)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구(鄭逵)와 정경세(鄭經世) 등의 무리들이 유생의 상소가 올려졌다는 말을 얼핏 듣고서, 모두 말하기를 ‘인륜상의 변고는 극력 논쟁해서 그 논의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열읍(列邑)의 유생(儒生)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인심을 들뜨게 만들고 있으니, 그 형세가 마지막에는 변란을 불러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좌상(左相) 정인홍(鄭仁弘)이 비록 도내에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진압해 내지 못할 것 같아 신은 삼가 민망한 생각만 들 뿐입니다. 대체로 영남 지방의 인심이 변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는 것은 신이 눈으로 본 바이고, 서울 사람들이 의구에 차 있다는 것은 신이 귀로 들은 바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주상(主上)의 위급함은 마치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침묵만 지키고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계십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차

라리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마음이 각각 다릅니다. 소북(小北)은 서궁이 결국에 가서는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여 대북(大北)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인(南人)들은 모두 교활한 무리들로서 누가 성공하고 실패하는가를 알아서 바라보면서 은밀히 서인(西人)과 한 패가 되고 있으며, 서인들은 줄곧 서궁에게 마음을 돌려 기어코 그를 보호함으로써 후일의 부귀를 누릴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오늘 수의(收議)한 내용을 가지고 보건대, 이항복은 김제남(金悌男, 인목대비의 부친) 무리의 괴수로서 임금을 모욕하는 말을 가장 먼저 하였고, 정홍익(鄭弘翼)은 남인으로 서인에게 붙은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이한 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김권·오윤겸·김덕합 등의 무리들은 모두 서인으로서 그 논의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정상이 이미 드러나고 반역을 꾀한 정상이 분명한데, 이런 자들을 얽한 빌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인심을 감복시켜 국시(國是)를 결정하겠으며, 화변의 불씨를 막아 임금의 위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기자현이 가장 먼저 흉측한 차자를 올린 것은 서인들이 부추겨줄 것을 믿고 감히 임금을 저버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알맞은 대책으로는 이항복과 기자현 등을 참형에 처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왕법을 바로잡고 속히 대신을 불러들여 조정 신하들의 의견을 수합한 것을 보여 준 다음 즉시 서궁의 지위를 폄삭(貶削) 시킨다면, 정구와 정경세의 무리가 비록 변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더라도 화근이 이미 제거되면 흉계도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감히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신에게는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서궁의 일을 단지 폄삭만 가한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막된 무리들이 감히 부추기고 옹호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화근을 영원히 근절시킨다면 누가 감히 이론을 제기하여 여기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호씨(胡氏)는 무후(武后)를 논 의하면서 말하기를 '대신이 역적의 우두머리를 태묘(太廟)에서 수죄하고 참형에 처하되 중종(中宗)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였는데, 주자(朱子)는 이 말을 특별히 『강목(綱目)』에다 실었습니다. 지금 서궁의 악에 대해 성균관 유생이 수죄한 열 가지 죄는 무(武) 씨의 아홉 가지 죄악보다 더 심합니다. 만약 이에 근거하여 거행한다면 의리에 부합할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속히 신의 상소를 묘당에 내려서 변란을 대처하게 함으로써 화변의 불씨를 방지하소서." 하니, 의정부(議政府)에 보내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의 전체 관원이 아뢰기를,

"삼가 관학 유생 정기 등이 상소한 내용을 보건대, 대개는 '이항복과 정홍익은 기자현과 차이가 없으므로 삼사에서는 마땅히 아울러 청했어야 하는데 잡자코 날짜만 보내면서 아직도 처벌을 지연시키고 있으니 먼저 역적 토벌하는 일을 지연시킨 삼사의 책임을 다스리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날 수의(收議)할 때 이항복과 정홍익이 역적을 비호하는 논의에 편들었다는 말을 신들도 들었으므로 즉시 논핵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의한 내용이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알고 난 후에 그들의 죄를 청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생들이 역적 토벌하는 문제를 지연시켰다는 것으로 배척하였으니, 신들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가 큼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 신들의 관직을 파직(罷斥)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勿論)을 기다렸다.

정홍익은 그날의 수의하는 자리가 이미 군주와 이이첨, 정인홍, 임사홍이 주축이 되어 계획적으로 인목대비의 폐출을 결정 해 놓고 요식행위만을 시행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때에 극력 폐출을 반대한 신하는 이항복과 정홍익, 김덕함 세 사람 외에 기자헌이 있었다.

이날 정홍익은 집을 나서기 전, 조복(朝服)을 입고 사당(祠堂)에 들어가 절을 하려고 하니, 집안 식구들이 정홍익이 때도 아닌데 사당에 들러 절을 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겼으나, 그 모습을 엿보면서도 왜 그러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정홍익은 인목대비를 폐출시키자는 의론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다만 의리(義理)로서 결정을 하여 털끝만큼도 죽음에서 벗어날 생각을 두지 않았다. 드디어 조정(朝廷)에 나가 의론을 올렸는데, 이때에 대소신료(大小臣僚)들이 바른 의론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겨우 서넛 밖에 안 되었다.

그러나 의론이 분명하고 의롭고 엄하여 조금도 동요됨이 없는 사람은 오직 정홍익과 이항복이었다. 같은 장소에서 군기시정(軍器寺正) 김덕함(金德諫)은 의논드리기를, “일편단심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항복·정홍익과 같습니다.” 하였다. 백사 이항복은 당시 영부사(領府事)로 원로(元老)였는데, 이미 의정부 수의(收議)가 있기 전에 대비(大妣)의 폐출은 절대 불가하다는 상소를 광해군에게 올린 바 있다. 그해 12월 10일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사하여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들이 삼가 이항복과 정홍익 등의 수의(收議)한 내용을 보건대, 우순(虞舜)이 변란에 대처한 도리를 인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우순의 경우는 인륜상의 극치이므로 진실로 법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오늘날의 일과 비교한다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우순은 일개 개인이었으므로 비록 사나운 어머니에게 침해를 당했다더라도 이는 제왕이 한 몸이 그칠 뿐이었으며, 우순이 자식 된 직분을 다한 것도 우순이 우순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왕(帝王)은 종묘사직과 신민의 부탁을 받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화변을 만나게 되면 종묘사직과 신민에게 그 화변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제왕이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는 일개 개인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설령 순(舜)이 이미 왕위에 있는 상황에서 사나운 어머니가 순에게 이와 같이 침해 하였다면 순이야 비록 어머니로 대한다 하더라도 순의 신하들의 처지에서 순이 침해당하는 것을 뻔히 바라만 보고 사나운 어머니의 죄를 밝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인은 미미한 죄인데도 고요(皋陶)는 오히려 고수(瞽瞍)를 잡아 가둘 것이며, 그러는 고요를 순은 말리지 못하고 단지 몰래 엮고서 도망칠 계획만 세울 것이라고 하였으니,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로 처치하고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는 은혜로 대처하는 도리가 어찌 크게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고와 저주를 자행한 변고가 발각되었고 역모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일 흉악한 음모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더라면 성상께서는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되었겠으며 종묘사직과 신민들의 화는 어떠했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서궁을 몰래 엮고 도망갈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상의 신하 된 자들이 유독 고요가 집행한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묘당(廟堂, 의정부)에서 수의한 것은 단지 신하들이 대처해야 할 도리를 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절충할 논의를 물으려는 것뿐으로 성상은 그 사이에 조금도 간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항복과 정홍익 등은 묘당의 물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감히 위협하는 말로 마치 성상에게 헌의(獻議)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그 속셈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의리는 밝지 못하고 정론은 오랫동안 막혀 있었는데, 어찌다 다행스럽게도 재야에서 항의하는 상소를 올리고 모든 백성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 이는 신하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 대의를 밝히고 큰일을 결정해서 종묘사직을 안정시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항복과 정홍익은 뜻을 얻지 못하여 임금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회를 틈타 손뼉을 치면서 감히 역적을 편들 계획을 하면서 장황하게 비유를 끌어내고 참여한 바 없는 전하까지 언급하여서 기어이 대악(大惡)의 이름에 빠져들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적을 비호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수를 잊고 임금을 저버린 죄는 기자현보다 심합니다. 이항복이 수의한 내용 중에 이른바 '급(倂)의 처는 백(白)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에 있어서는 더욱 통분함을 느낍니다. 어찌 신하된 자가 임금에게 고하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던 말입니까. 임금이 모욕을 당하면 신하가 대신 죽는다는 옛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차마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덕함(金德諫)은 이항복·정홍익과 한뜻이라고 말해 그 마음이 같았고 보면 그 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니, 이항복·정홍익·김덕함 등을 아울러 절도(絶島)에 위리안치시켜서 신민들의 분한 마음을 씻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다. 윤택하지 않는다. 이항복은 관작만 삭탈하고 정홍익과 김덕함은 아뢰는 대로 하라." 하였다.

그해 12월 11일 이항복은 함경도 종성으로, 정홍익은 진도(珍島)에, 김덕함은 남해(南海)에 위리안치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8일 광해군은 정홍익을 함경도의 길주(吉州)로, 김덕함을 함경도의 명천으로 배소(配所)를 옮기라고 하였다. 진도로 떠난 지 열흘도 안 되었으니, 진도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발길을 돌려 함경북도 길주로 보내라는 전교였다. 이이첨 일파들이 그들을 참살하라고 건의한 것을 위리안치 시키는 것으로 끝내려 하였으나, 집요하게 괴롭혀서 귀양 가는 도중에 노독(路毒)으로 죽이려 한 것이다. 서울에서 진도를 걸어서 가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인데, 도착하자마자 다시 함경도 길주로 가려면 두 달은 걸렸을 것이다. 먼 길을 가다가 병이 들어 죽으라는 것이나 똑같은 악랄한 처사였다. 일 년 사이에 세 차례나 적소를 옮겼으니 말이다.

(광해 9년 12월 18일) 양사(兩司)가 합계(合啓)하기를, "기자현·이항복·정홍익·김덕함은 모두 나라를 저버리고 임금을 배반한 사람들로 하늘에 사무친 죄는 극형에 처하여도 오히려 가벼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북도에 귀양 보내는 것도 오히려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므로 의금부에서 귀양지를 정할 때에 응당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해야 할 것인데, 감히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 국법을 무시하고 모두 내지(內地)의 편리한 곳을 골라 정하였으므로 물정이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

에 참여한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郎廳)을 모두 파직(罷職)하고 네 역적을 먼 곳으로 귀양 보내서 역적을 토벌하는 법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금부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고 하라.”고 하여 기자현을 식주(朔州)로, 이항복을 창성(昌城)으로, 정홍익을 종성(鐘城)으로, 김덕함을 온성(穩城)으로 바꾸어 정배하였다. 다시 함경도 끝의 종성에서 전라도 광양으로 이배하여 일 년에 세 번이나 유배지를 옮겼으니, 참혹한 일이었다.

정홍익은 귀양지에서 참혹한 생활로 인하여 풍토병을 얻게 되었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갔다. 그의 외숙에게 칠언율시로 귀양 생활의 어려움을 적어 보낸 것을 보면 눈시울이 적셔진다.³

舅氏年命六十六	외숙의 연세 육십 육세 되셨군요.
孤臣性命一毫絲	외로운 신하의 운명은 실낱같습니다.
追思永訣寒江上	생각해 보니 추운 강가에서 헤어졌지요.
誰料重逢海湄	풍토병 걸렸으니 다시 만나길 뉘 짐작 하겠습니까?
頓覺死生如寤寐	정신을 가다듬어도 자나 깨나 죽고 사는 생각 뿐
休將聚散臨欣悲	쉴 때나 모이고 헤어질 때도 기쁨과 슬픔이 엇갈립니다.
遙知籬外春光早	멀리 있는 줄만 알았는데 울타리밖엔 이른 봄별이고
須寄梅花雪裏枝	매화꽃은 눈 속에서도 가지에 피었군요.

광해군의 폭정(暴政)이 도를 넘어서자, 서인(西人)을 비롯한 재야세력들은 거사할 것을 모의하고, 드디어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을 일으킨다. 광해군을 강화 교동에 위리안치 시키고, 이이첨·정인홍·임사홍 등 북인(北人)과 동인(東人)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모두 숙청시켰다. 이어 능양군(綾陽君)을 왕위에 앉히니, 조선 16대 왕 인조가 등극한 것이다. 광해군 때의 거두 세 사람은 모두 참살당하고, 서인 정권(西人政權)이 탄생하였다. 이때 정홍익은 귀양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니, 함경도 등의 적소(謫所)에서 신음한지 무려 6년만이다. 정홍익은 병든 몸이나마 이끌고 고향에 돌아왔으나, 함께 귀양 갔던 이항복은 나이가 많아 적소에서 별세하였으며, 김덕함은 비교적 젊어 건강을 유지하며 풀려났다.

인조가 즉위한 1623년 3월, 정홍익은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에 임명되었다. 원래 정홍익은 정밀 민첩하고 단아(端雅) 장중(莊重)하며 본래부터 지조가 있었다. 폐모(廢

³ 정홍익은 문장력도 좋아서 그의 문집인 『휴옹집(休翁集)』에는 여러 수의 시가 실려 있고, 많은 글이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모 두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를 구한다.

母)를 수의(收議)하던 날에는 윤리와 기강을 부지할 것을 항언(抗言)하여 사론(士論)이 훌륭하게 여겼는데, 광해의 간신들이 미워하여 절도에 위리안치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적소에서 고생하여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탓으로 건강을 속히 회복하지 못하여 직무에 나가기가 어려웠다. 그 후에도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으로 제수되었으나, 역시 건강 악화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결국 1626년(인조 4) 2월 15일 파란 많은 생을 마치고 졸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그의 졸기(卒記)는 다음과 같다.

전 행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정홍익(鄭弘翼)이 졸(卒)하였다. 홍익의 자(字)는 익지(翼之)이다. 인품이 단아하고 지조가 있었으며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글을 잘 지었다. 선조조(宣祖朝)에 과거에 급제하여 내직과 외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성대한 명성을 얻었다. 정인홍(鄭仁弘)이 성훈(成渾)을 무고하여 비난 할 적에 군소배(群小輩)가 일제히 일어나 마구 공격하였으나 홍익은 홀로正道(正道)를 지니고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로자(當路者)의 비위를 크게 거슬렀는데 사람들은 그의 강직함에 탄복하였다. 광해(光海) 때에 모후(母后)를 폐하기 위해 백료(百僚)들에게 수의(收議)할 때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면서 광해의 뜻을 받들어 따랐으나 홍익은 이항복(李恒福) 등 몇 사람과 함께 소장(疏章)을 올려 직간(直諫)함으로써 무너지는 이론(彝倫)을 부지시켰으나, 그가 목숨 바쳐 절조(節操)를 세운 것이 위대하다고 이를 만하다. 남쪽과 북쪽의 극변(極邊)에 유배되어 6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는데, 개해반정(癸亥反正, 인조반정)에 승지(承旨)로 부름을 받았다. 이어 간원(諫院)과 옥당(玉堂)의 장관에 차례로 임명되었으나 일찍이 장독(瘴毒)에 상하여 병이 이미 고질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배명(拜命)하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염빈(殮殮)을 할 수 없었는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차탄(嗟歎)하면서 애석해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귀장(歸葬)할 때에 이르러 상이 연로(沿路)에서 호송하도록 명을 내리고 또 군인(軍人)과 석회(石灰)를 지급하였다. 효종 9년에 시호(諡號)를 충정(忠貞)으로 내리고, 불천위(不遷位)를 허락하였다. 정(鄭弘翼)의 부인이 졸하자 신료들이 상소하여 장례 물품과 조묘군(造墓軍)을 특별히 넉넉하게 보내주라고 하였다.

조선 선비의 표본으로 살다 간 생애

정홍익은 조정(朝廷)의 여러 관직에 있을 적에 충직하고 강직한 뜻을 유지하여 털끝만큼도 사리를 취하지 않았다. 성품이 곧고 청아(清雅)하여 행동을 삼갔고, 남의 과실(過失)을 말하지 않았으며, 기쁘고 노여운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때때로 술을 마시고 해학적인 웃음을 하면서도 온화한 태도는 말과 모습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대각(臺閣)⁴에 처하여서는 남들의 말을 듣고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않았고, 남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경중(輕重)을 세우지 않았으니, 의로운 일이 아니면 절대로 굽히지 않았으며, 비록 화를 당해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가 평생 동안 스스로 세운 것은 일찍이 지조(志操)와 의리(義理)로써 기강이 문란한 세상에서도 과단성 있게 옳은 길만을 걸어온 일이었다.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출 사건 당시 정홍익은 가만히 있어도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고, 모든 신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의 경력을 보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성품과 성리학으로 다듬어진 올곧은 선비로서의 자세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며, 비록 목숨이 위태할 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는 전형적인 충직한 신하로서 살았던 것이다. 광해군에게 인목대비 폐출 불가 소장을 가지고 조정에 들어 갈 때에도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사당에 고하고 집을 나선 것은 참된 선비의 정신이었던 것이다. 사후에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고, 충정(忠貞)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또한 불천위(不遷位)⁵를 허락받아 가문의 큰 영광이 되었다. 문집으로 휴옹집(休翁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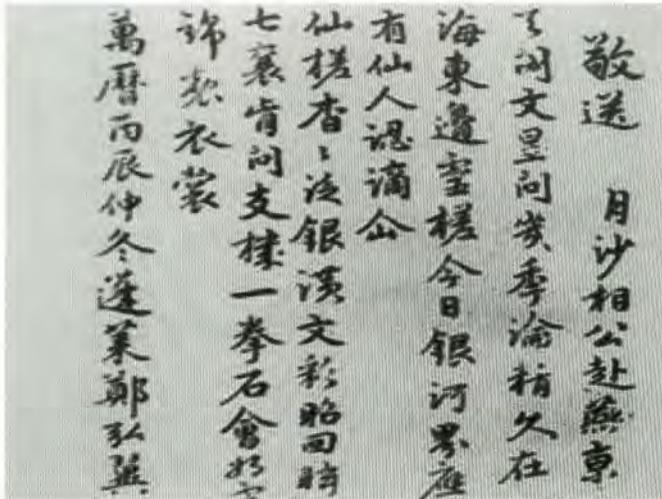
휴옹집 서문

묘는 광주시 장지동(뒷가지 마을) 선영에 소재한다. 묘하에는 계곡(谿谷) 장유(張維)가 지은 비문을 새긴 비석이 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광해(光海)가 장차 대비(大妃)를 폐(廢)하려 할 적에 백관을 모아 놓고 조정에서 의논하게 하면서 각종 형구(刑具)를 갖추어 놓고는 이견(異見)을 제기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렸다. 이때에 경사대부(卿士大夫)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겁에 질린 나머지 억지로 이론을 끌어다 붙이면서 광해의 뜻에 따랐는데, 가령 평소에 강직(剛直)하다는 평을 듣던 사람들마저 우물쭈물하며 감히 할 말을 다하지 못하였다.

4 사헌부와 사간원의 총칭 또는 정원(政院).

5 보통 4대조까지만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지만, 불천위는 말 그대로 4대 봉사가 끝난 뒤에도 없애지 않고 계속 봉사(奉祀)하는 신위를 뜻한다. 즉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과 학문이 높은 인물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祠堂)에 영구히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를 말한다. '불천지위(不遷之位)'의 줄임말이다. 불천지위를 나라에서 허락받은 인물을 배출한 가문은 크나큰 영광으로 삼았다.



정충의 친필



정충의 신도비

이러한 상황에서 바른 자세를 견지하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채 늠름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경우는 겨우 서너 사람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정공 홍익(鄭公弘翼)이 바로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공의 의논이 올라가자 광해가 크게 성을 내어 공을 진도(珍島)에 유배했다가 곧바로 종성(鍾城)에 이배(移配)하더니, 배소(配所)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또 광양(光陽)으로 옮기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1년 동안에 무려 3번이나 유배지가 바뀌었는데, 모두 남쪽과 북쪽 극변(極邊)의 원악지(遠惡地)로서 도로를 왕래한 거리만도 거의 6, 7천 리를 상회하였다. 게다가 광양으로 말하면 남쪽 해변 가로서 장독(瘴毒)이 창궐하는 지역이었는데, 공이 평소부터 허약한 체질에 결국 풍토병(風土病)에 걸려 고통의 신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유배 생활 6년 만인 천계(天啓) 계해년(1623, 인조 1)에 이르러 금상(今上)이 대위(大位)에 오르고 나서 맨 먼저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공을 부르고, 이어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으로 옮겨 주었는데 공의 병이 더욱 고질화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얼마 뒤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품계(品階)가 올라가면서 사간원(司諫院) 대사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홍문관 부제학 등에 차례로 임명되었으나 모두 숙배(肅拜)하지 못한 채 끝내 병인년 정월 15일에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향년 56세였다. 이해 3월 모일에 광주(廣州) 모지(某地)에 장례를 지냈다.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휴옹집』, 『승정원일기』, 『연려실기술』, 『국조인물고』, 『순암집』.

박광운 | 광주시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심양에 핀 충의(忠義), 정뇌경(鄭雷卿)

병자호란 이전의 생애와 행적

정뇌경(鄭雷卿, 1608~1639)의 본관은 온양(溫陽). 자(字)는 진백(震伯). 호는 운계(雲溪). 1608년(선조 41) 7월 4일 충청도 홍양(洪陽, 지금 홍성)에서 성균관 생원 정환(鄭煥)과 연산 서씨(連山徐氏) 사이에 태어났다. 그의 고조부는 명종 때 우의정을 지낸 온양부원군(溫陽府院君) 정순봉(鄭順朋)이고, 증조부는 경기도사를 역임한 십죽헌(十竹軒) 정담(鄭礪)이며, 조부는 성균관 진사 정지겸(鄭之謙)이다. 정뇌경이 두 살 때 아버지 정환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중 사망하여 정뇌경은 외가에서 자랐는데, 어린 나이에도 성인과 같은 기개와 도량이 드러났다. 성년이 되어서는 성품이 곧고 강직하기로 유명한 관료였던 이모부 충경공(忠景公) 기평군(杞平君) 유백증(兪伯曾) 밑에서 공부하였으며, 문장이 날로 발전하여 어린 나이에도 학자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충과 효가 남달랐으며, 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절조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품은 스승인 이모부 유백증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627년(인조 5) 19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성균관 생원이 되었고, 23세에 명(明) 황자(皇子) 탄생 기념 별시(別試) 문과에서 장원 급제하였다. 당시 시험관이던 북저(北渚) 김류(金瑬)와 계곡(谿谷) 장유(張維)는 뛰어난 인재를 얻었다며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 전례에 따라 장원 급제자에게 내리는 성균관 전적(典籍)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얼마 후 공조 좌랑을 거쳐 예조 좌랑으로 옮긴 뒤 상관이었던 예조 판서 김상헌(金尙憲)을 수행하여 함경도 감영에 출장하였다. 이때 정뇌경이 업무를 능란하게 처리하는 것을 본 관찰사 윤의립(尹毅立)이 나라를 다스릴만한 뛰어난 인재라고 칭찬할 정도로 유능함을 인정받았다. 25세에 병조 좌랑을 거쳐 홍문관 부수찬(副修撰)과 사간원 정언(正言)으로 승진되었다.

정뇌경은 관리로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진로를 막는 장애가 있었다. 그의 고조부 정순봉(鄭順朋)이 명종 때 윤원형(尹元衡)·이기(李沂) 등이 주모한 을사사화(乙巳士



윤계 정뇌경

禍)에 가담하여 그 공으로 우의정까지 올랐으나 선조가 즉위하여 역적의 죄를 묻게 된 것이다. 정순봉에게 주어진 훈공과 관직이 삭탈되면서 역적 후손의 등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되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뇌경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조상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파직시켜 달라고 청하였다.¹ 이에 그를 신임하였던 장유와 최명길(崔鳴吉) 등이 정뇌경과 그의 재종 형(再從兄) 정두경(鄭斗卿)의 재능을 안타깝게 여겨 인조에게 선처를 탄원하고, 사간원에서도 그의 재능을 아껴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청하자 왕도 그에 따랐다. 그해 정뇌경은 사간원 정언에서 홍문관 수찬이 되었다.

이듬해 1633년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승진하였고, 다시 수찬과 정언에 임명되어 언관(言官)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그의 사심 없는 엄격한 직무수행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일부 관료들은 여전히 정순봉의 과오를 들추어 물의를 일으키려 하였지만 정뇌경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조상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신의 직무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히면서 왕에게 누차 파직 요청을 하였다. 그때마다 사간원에서는 조상의 과오 때문에 그의 언관으로서의 바른 직무 수행이 구애받아서 안 된다 하면서 그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왕에게 간청하자 왕이 허락하였다. 이후 선대의 과오를 구실로 탄핵하는 일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모두 그의 곧고 바른 성품과 관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1635년에 홍문관 수찬과 교리를 역임하면서 왕의 학문과 정사에 대한 토론 기구인 경연(經筵)에 참여하여 시독관(侍讀官)·검토관(檢討官)의 임무를 맡았다. 그해 11월 4일 경연에서 정뇌경은 인조에게 “정치는 바로 잡는 것으로써 사람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릇되었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비록 정치를 하여도 정치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²라 하였다. 여기에서 올바른 인재를 선발하여 정치를 해야 정치가 바르게 된다는 그의 정치관을 엿볼 수 있다.

정뇌경이 관직에 들어선 1630년대는 국내외 정세가 매우 불안한 시기였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광해군이 축출되어 대북(大北) 정권이 물러나고 서인(西人)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만주에서 일어난 후금(後金)이 중국 본토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1627년 조선을 침략하고 정묘화약(丁卯和約)을 맺은 뒤, 조선에

1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16일.

2 『인조실록』 권31, 인조 13년 11월 4일 경술조. “夫政者 正也 正人之不正也 人之非也而不有以正之 則雖有政 與無政同.”

군사적 압박을 가하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였다. 즉 후금을 명과 동등하게 대우 할 것, 정묘화약에서 맺은 형제의 맹약을 군신(君臣)의 의(義)로 고쳐 신하의 예를 다할 것 등을 강요하면서 막대한 금품의 공납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에 조선 조정은 후금에 대한 감정이 점차 격화되었고, 군비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하들 사이에 갑론을박 하며 노선이 통일되지 못하였다.

1636년 2월, 후금에서 사신을 보내 청(淸) 황제가 등극한다는 사실과 조선은 신하의 예를 갖추라는 내용의 요구를 접하자, 종래 명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어 온 조선 조정은 후금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당시 홍문관 교리였던 정뇌경도 동료들과 함께 상소하여 후금 왕이 황제에 오르는 것을 비난하고 후금과 절교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³ 인조가 후금의 침입을 예견하고 국경 방비를 강화토록 하자 후금의 조선 침략에 대한 결심은 더욱 굳어져 갔으며, 그해 4월 청태종이 즉위하자 조선 침략을 노골화 하였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주화파(主和派)와 척화파(斥和派)로 나뉘어 혼란을 초래할 뿐 어떤 대책도 강구하지 못했다. 결국 11월 26일에 청은 조선을 침공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12월 2일에 청의 군대 10만 명이 국경을 넘어 침공하기에 이르렀다.

청의 공격을 받은 조선 조정은 우왕좌왕 하다가 12월 14일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다. 처음 청군이 침입한다는 급보를 받은 조정은 강화로 피난하기로 하고 세손(世孫)과 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 등 왕실 가족을 먼저 강화로 보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인조와 소현세자(昭顯世子)가 뒤따르려 하였으나 이미 적군에 의해 강화로 향하는 길이 차단되자 최명길(崔鳴吉)의 의견에 따라 서둘러 남한산성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때 마부가 도망치는 바람에 소현세자가 직접 채찍질하여 수행원 수십 명과 함께 밤늦게 산성에 도착하였다. 당시 홍문관 교리였던 정뇌경도 피난길에 왕을 수행하고 산성에 입성하여 군사들의 전투를 독려하는 독전어사(督戰御史)로 임명되었다.

3 『인조실록』 권32, 인조 14년 2월 21일.

남한산성의 전시 조정과 정뇌경

남한산성으로 긴급하게 피난한 전시 조정은 장기전을 대비하기에는 군사와 병기, 군량미 등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군사의 기동력도 기마병으로 무장한 청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였다. 추격해 온 청군은 성을 포위하고 왕이 성을 나와 화의에 응할 것을 강요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데, 조정 대신들은 청국과 화친을 반대하는 척화파와 화친을 해야 한다는 주화파로 분열되어 난국을 헤쳐 나갈 획기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정뇌경은 윤집(尹集) 등과 함께 척화의 편에 서 있었다. 인조는 손수 군사들을 독려하여 성을 굳게 지킬 것을 명하고, 한편 각도에 명하여 원군을 신속하게 파견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급박한 전시 상황에서 독전어사 정뇌경은 남한산성의 동장대(東將臺)에서 남장대(南將臺)에 이르는 지역을 관장하여 순시하면서 군사 작전을 펴고 전황을 왕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동료 독전어사 윤집은 서장대(西將臺)에서 북장대(北將臺)에 이르는 지역을 관장하며 정뇌경과 협조하였다.

남한산성으로 피란 온 지 5일째 되는 12월 19일, 정뇌경은 관할 지역을 돌아 본 뒤 인조에게 성곽 방어 상황과 작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⁴

- 남격대(南擊臺)와 동문이 적의 공격을 가장 받기 쉬운 곳으로 수비가 매우 소홀함. 또한 포루(砲樓)가 있으므로 마땅히 대화기(大火器)를 설치해야 했으나 미리 갖추지 못하여 갑자기 적이 침범해 온다면 난을 피하기 어려움. 서북쪽은 지형이 험하고 절벽이기 때문에 급한 곳이 아님으로 군사를 다른 곳으로 돌려쓰는 것이 좋겠음.
- 누각에 포병을 충원하였으나 수가 너무 적음. 하나의 누각을 견고하게 수비하려면 적어도 400명은 있어야 함.
- 식품으로 장(醬) 8말은 있어야 군사들에게 고루 나누어 줄 수 있음.
- 금일 전사한 병사가 4명임. 적 기마병 20여 기가 갑자기 쳐들어옴.
- 능철(菱鐵:마름쇠, 끝이 뾰족한 서너 개의 발을 가진 쇠못)이 적의 기마병을 막는데 훌륭한 병기로써 말이 달릴 때 한 마리가 넘어지면 뒤따르는 다른 말이 넘어져 모든 말들이 다리를 절게 될 것임.

4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12월 19일 己丑조

이틀 후 12월 21일에는 왕에게 다시 상황 보고를 하고 물자와 무기 등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 성의 동남쪽이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니 유능한 장수를 각 성첩(城堞)에 배치하여 주기 바람.
- 망월대(望月臺) 건너편에서 적과 교전하였는데 적병이 몇 명 죽었는지 모르겠음.
- 적의 뒤를 추격하여 성을 나간 병사들이 적에게 만약 포위된다면 성 위의 포수들이 구할 수 있음.
- 동문 아래에 있는 마을에 적의 대군이 진을 치고 성 건너편을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 매우 수상쩍은데, 우리의 성이 낮고 땅바닥이 평평하여 적의 침입을 받기 쉬운 곳임. 적이 성 위를 향해 화살을 쏘면서 허점을 이용해 진입할 것이니 장막을 치고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됨.
- 지뢰포(地雷砲)가 적의 침입을 막는 데에 매우 좋은데, 없다면 빈 궤짝을 사용하여 땅에 묻어두면 적이 반드시 의심하여 감히 진격해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 용렬한 장수를 신속하게 바꾸어 주기 바람.

정뇌경은 문신이었지만 잠시 병조 좌랑을 역임한 경험도 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지역을 순시하며 성곽의 지형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을 막기 위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치밀하게 구상하였다. 성곽의 동남쪽이 가장 취약한 곳이라 하면서 포루에 포를 설치하고 포수를 크게 충원해야 한다고 왕에게 요청하였고, 성 주변에 마름쇠를 늘어놓아 적의 기마병에 손상을 입히자는 의견과 지뢰를 묻어 적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되 지뢰가 없다면 빈 궤짝이라도 묻어 위장하여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적이 화살 공격을 하며 성을 쉽게 오르지 못하도록 장막을 쳐 차단하자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장수의 부족함을 매우 걱정하였고, 용렬한 장수는 시급히 교체할 것을 요청하였다.

성을 포위하고 있는 청군에 비하여 군사와 병기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 전황은 갈수록 아군에게 불리하였고, 각 도에 요청한 군은 신속하게 도착하지 못하였다. 또한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화의를 강요하며 수시로 공격하기 때문에 성에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웠다. 매우 불리한 전황에서도 인조를 비롯한 척화파는 끝까지 결전해야 된다는 각오로 방에 임하였다. 그러나 산성의 전시 조정은 여전히 최명길을 중심으로 한 주화파와 김상헌을 중심으로 한 척화파로 분열되어 알력이 심하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청군과의 화의 교섭은 계속 이루어졌으나 청군의 무리한 요구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1637년) 1월 13일, 주화파의 의도대로 청국에 신하의 예를 갖춘다는 칭신(稱臣)의 국서(國書)를 청군에 보내니 청군은 왕이 성을 나와 항복하고 척화를 주장한 사람들을 잡아 보내라고 강요하였다. 이때 정온(鄭蘊)·이명

웅(李命雄)·김상헌(金尙憲)·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윤황(尹煌)·윤문거(尹文舉) 등은 척화를 부르짖으며 스스로 적진에 나가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이렇게 전시 조정이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1월 22일 왕실 가족들이 피난해 있는 강화(江華)마저 함락되자 전의를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청에 신하의 예를 갖추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볼모로 심양에 보내기로 하는 등 일방적인 화의 요구를 들어주고, 1월 30일 왕과 세자, 대신들이 삼전도(三田渡)에 나아가 청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는 치욕을 당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볼모로 청국에 보내야 했다. 호종할 신하를 물색하였으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정뇌경이 자청하였다. 『심양일기(瀋陽日記)』에 따르면, 2월 5일 남한산성을 출발하여 4월 10일 청의 수도 심양에 도착할 때까지 배종한 관리는 정뇌경 등 18명이었다.⁵ 이때 정뇌경의 직함은 왕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시강원(侍講院)의 문학(文學)이었다. 이후 정뇌경은 1739년 4월 18일 심양에서 처형당할 때까지 2년 2개월 동안 심양의 조선 관소(館所)에서 근무하였고, 그 사이 1637년 12월 소현세자의 명으로 본국 조정에 세자 대신 신년 문안차 일시 귀국하였다가 이듬해 3월 다시 심양으로 돌아갔다.

심양에서의 세자 교육과 정명수 제거 계획⁶

세자를 호종하며 심양으로 가는 도중 3월 15일, 의주 부윤 임경업(林慶業)으로부터 심양에서 삼학사의 한 사람인 홍익한(洪翼漢)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4월 19일 심양에서 윤집과 오달제의 처형을 직접 목격하였다. 친구 오달제의 시신을 손수 수습하려 하는데 당시 조선 출신 청국 역관으로서 악명 높은 정명수(鄭命壽)의

5 『심양일기』 瀋陽人來陪從秩에 따르면 세자를 호종하여 심양까지 간 사람은 다음과 같다. 文宰로 南以雄·朴翥·朴漢, 武宰로 李起等, 侍講院에서 李命雄·閔應協·李時楷·鄭雷卿·李禎, 朔衛司에서 徐擇履·金漢一·許德·成遠, 宣傳官으로 邊宥·魏山寶·具整, 醫官으로 鄭楠壽·柳達 등 19명이다.

6 심양의 조선 관소에서 보인 정뇌경의 근무 태도와 정명수 일당 제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필자의 논문, 「雲溪 鄭雷卿의 殉國에 관한 일고찰」(『문명연지』 제19집, 한국문명학회, 2007) 참조.

7 정명수는 본시 평안도 은산현(殷山縣)의 관청 노비였다. 광해군 10년 명나라가 후금을 정벌하기 위하여 조선에 원병을 청하자 조선 조정에서 강홍립(姜弘立)을 도원수로 삼아 출정케 하였을 때 정명수도 출정군으로 참여하였다가 강홍립이 청군에 항복하자 포로로 잡혔다.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같은 관노(官奴)였던 김돌시(金玆屎)와 함께 청나라 말을 배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청국의 통역으로 활동하였다. 조선말과 청국말의 통역관으로 활동한 이들은 관직과 뇌물 등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등 조선 조정과 심양의 관소를 몹시 괴롭혔다.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오달제의 집에 보내는 편지에서 “시운(時運)이 이와 같아 오랑캐의 포로가 되었으니 저도 머지않아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⁸라 하였듯이, 이때 그는 자신에게 다가올 최후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었다.

심양에서 정뇌경이 맡은 임무는 시강원 관리로서 관소에 머물고 있는 세자의 교육과 관소에서 쓰이는 보급품의 출입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그는 특히 물자 절약에 매우 엄격하였다. 세자라 하더라도 사사로이 소유하여 부당하게 쓰지 못하게 하였다. 더불어 동료나 하인들이 몸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엄하게 꾸짖어 경계하였기 때문에 모두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다. 세자를 모시고 갔던 재상 박로(朴魯)가 청의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고 정뇌경은 침을 뱉으면서 천하게 여겼는데, 이와 같은 엄격하고 강직한 태도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하였다.

심양 관소의 시강원에서 세자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그는 청의 장수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 밑에서 활동하던 조선 출신 역관 정명수와 김돌시(金玆屎)의 악행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당시 정명수 일당의 행패는 조선 조정은 물론이고 심양 관소에서도 골치 아픈 존재였다. 조선에 청의 칙사를 동행하여 올 때 횡포를 부린다던가, 뇌물을 거두어들이기 일쑤고, 각종 농간을 부리는 등 못된 짓을 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뇌경은 정명수와 김돌시 일당을 기회를 보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1638년 겨울 정뇌경에게 마침 기회가 왔다. 조선에서 청나라 조정에 바치는 물자 일부를 정명수 일당이 빼돌리는 것을 적발한 것이다. 조선 출신으로 청국 조정에 근무하면서 평소 정명수 일당의 악행을 미워하던 다른 역관들은 관소를 찾아와 관소의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정명수 일당을 절도죄로 청국 정부에 고발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고, 정뇌경은 정명수 일당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 여겼다.

마침 정명수 일당에 감정이 좋지 않던 청나라 역관 하사담(河士淡)이 이들의 비리를 폭로하자 청태종이 정명수 일당을 엄벌하려 하였다. 심양 조선 관소에서도 이때를 이용하여 정명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는데 그 일을 정뇌경이 주도하였다. 정뇌경은 시강원 사서(司書) 김종일(金宗一)과 상의하여 관소의 서리(書吏) 강효원(姜孝元)을 증인의 책임자로 지명하고, 강효원을 불러 정명수 제거에 앞장서 줄 것을 설득하여 강효원이 쾌히 승낙하였다. 이리하여 정뇌경은 강효원을 시켜 정명수 일당의 절도 사건

8 『오학사전(吳學士傳)』 “時運若此 作俘虜庭 早晚一死.”

을 형부(刑部)에 정식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강효원에게는 형부에서 정명수의 절도 사건에 대해 물으면 시강원 관리들이 잘 알고 있다고 답하도록 다짐하면서, 모든 일은 정뇌경 자신과 김종일이 책임질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며칠 뒤 강효원과 맨 처음 고발 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역관 심천로(沈天老)라는 사람이 형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정명수와 김돌시 제거에 앞장선 심양 관소의 관료는 정뇌경과 김종일, 그리고 서리 강효원과 정명수의 악행을 미워하던 몇 명의 역관들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청나라 형부는 1639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정명수와 김돌시를 불러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조선 관소의 관리들로부터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도 하였다. 이때 강효원은 사실대로 말했지만 행동을 같이하기로 약속하였던 사서 김종일이 당초 입장을 바꾸어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또 정명수와 가까이 지내며 내통하는 사이였던 심양 관소의 시강원 세자 빈객(賓客) 신득연(申得淵)과 박로 등 고위 관료는 일이 잘못되면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나아갔다. 오히려 신득연과 박로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면서 정뇌경에게 공연히 문제를 일으킨다고 불평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답변을 들은 청국 형부는 1월 26일 정뇌경과 강효원을 소환하여 다시 조사하였다. 조사를 받고 관소에 돌아온 정뇌경과 강효원은 형부 관리에 의해 관소의 옥에 갇혔다.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소에 있던 관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명수에 대한 비호로 오히려 적발한 사람이 청나라 형부(刑部)로부터 투옥을 당한 것이다.

정명수와 김돌시를 제거하려던 정뇌경의 계획은 실패할 위기에 봉착하였고, 정뇌경은 더욱 외로운 처지가 되었다. 이틈에 정명수는 고발장의 내용을 증빙할 문서를 불태우게 하였고, 형부 관원은 정명수와 김돌시가 착복한 증거도 없고 정뇌경이 직접 본 것도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정뇌경이 두 역관을 무고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나라 형부는 정뇌경을 중죄로 다스릴 것을 통고하고, 세자에게 “세자가 만약 이 음모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선서를 하고 이 사람을 죽이시오”⁹ 하고 협박하였다. 세자가 용골대에게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자, 세자는 본국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단할 수 없음을 내세워 본국 조정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때 신득연과 박로는 정뇌경이 경솔하게 사건을 일으켰다는 요지로 본국의 인조에게 은밀히 보고하였다. 그리하

9 *심양일기, 기묘, 1월 26일. “且曰 世子若不與是謀 則可以立誓 仍殺此人.”

여 정명수 일당을 제거하려 했던 정뇌경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정뇌경 사건을 보고받은 조선 조정은 정뇌경의 구명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 하였으나, 조선 정부에서 정뇌경을 구하려 한다면 유익하지 못할 것이라는 청나라 형부의 위협에 어찌할 방법을 몰랐다. 또한 최명길 등 주화파가 주도하던 정부는 박로의 보고를 믿고 따르는 형편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다. 인조도 어쩔 수 없이 심양 관소에 사신을 보내 정뇌경의 사형을 집행하여도 좋다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정뇌경에 대한 구명 운동은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뇌경 순국의 날

1639년 4월 18일은 정뇌경의 사형 집행일이었다. 용골대와 마부대가 심양 관소의 소현세자와 재신들을 형부로 소환하였다. 세자와 관리들이 돈을 주고라도 정뇌경을 구하려 간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공복(公服)으로 갈아입고 함문(閤門) 아래에서 소현세자에게 하직을 고하며 처형에 임하는 정뇌경의 모습은 오히려 담담하고 침착하였다. 『심양일기』에는 소현세자와 정뇌경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뇌경이) “이제 신은 죽어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라를 욕되게 하고 또한 저하(邸下)에게 격정을 끼쳐드렸으니 신은 죽어도 남은 죄가 있습니다. 이제 영원히 저하를 결별하오니, 청컨대 저하의 모습을 우러러 보며 물러갑니다.”¹⁰ 라고 이별의 인사를 하니 세자가 그의 손을 잡으며, “남한산성을 나오던 날, 유식하다는 대신들은 모두 북행(北行)을 꺼려하였는데, 자네 홀로 앞장서 나를 따라 함께 고생하기를 삼년이요, 내가 배운 것 또한 많았다. 끝까지 함께 하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일이 불행하게 되어 이에 이르렀는데도 내가 재주 없고 지혜가 모자라 결국 사지(死地)에서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 심정을 어찌할 수 없구나. 듣자하니 자네에게 노모와 어린 자식이 있다 하니, 훗날 본국에 돌아가면 보존해 주겠노라. 내 어찌 잊겠느냐?”¹¹ 라 하며 눈물을 흘리자, 정뇌경은 “이렇게 염려해 주시니 신은 죽어도 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¹² 라고 응답하였다. 세자가 술을 주었으나 정뇌경은 사양하였다.

10 『심양일기』 기묘, 4월 18일. “世子引見雷卿入對 達曰 今臣死 非有光 徒以辱國 抑且貽憂於邸下 臣死有餘罪 自此未快邸下 請瞻望清光而退.”

11 『심양일기』 기묘, 4월 18일. “南漢出城之日 有識卿宰 皆憚北行 而子獨挺身從余 共苦三年 受學亦多 擬與終始 事出不幸 遽至於斯 而余無才智短 卒不能脫一人於死地 無以爲心 聞子有若母稚兒 異日東環 思所以保存 余何得忘也.”

12 『심양일기』 기묘, 4월 18일. “念及至此 臣死不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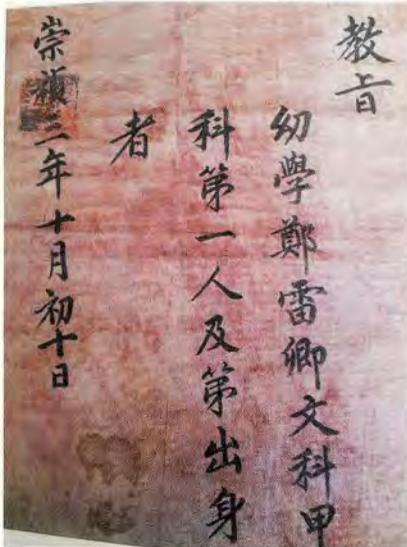


정뇌경 사당 충정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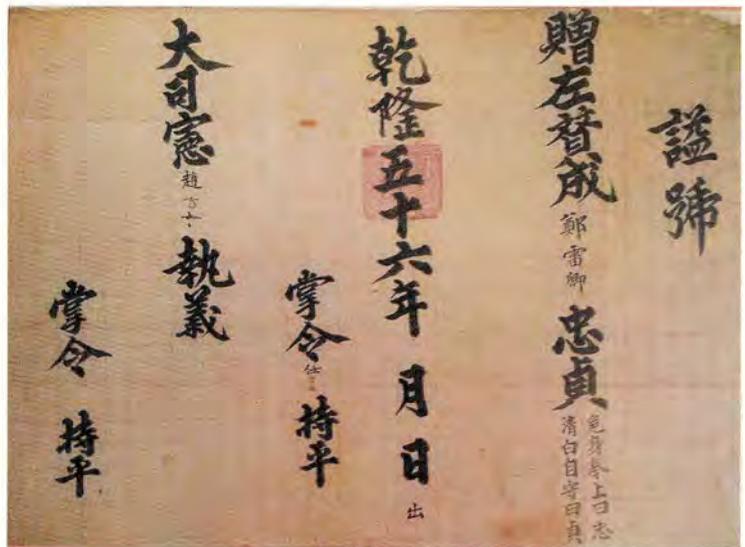
소현세자는 정뇌경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스스로 독약을 마시게 하였으나 이 또한 약기운이 약하여 실패하였다고 한다. 정뇌경은 사형장에 끌려가기에 앞서 동쪽을 향하여 사배(四拜)하고 어머니가 계신 고향을 향하여 재배한 다음, 붓을 들어, “비록 곽자의(郭子儀)의 해를 뚫는 듯한 충성을 품고 있으나 일찍이 복이 없어, 결국 이임보(李林甫)의 언월(偃月) 계책에 떨어졌으니 누가 그 원통함을 풀어 주리오?”¹³라는 24자의 비통한 글을 남겼다. 이 글에 등장하는 곽자의와 이임보는 모두 중국 당나라 사람이다. 곽자의는 무인이었는데 안록산(安祿山)의 난을 평정한 공신으로 정뇌경 자신을 나타내고, 이임보는 간신으로 자기의 언월당(偃月堂)에서 많은 충신들을 해치려는 음모를 하였는데 박로 등의 흉계를 비유하였다 하겠다. 이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정뇌경은 얼굴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13 『운계선생문집』 권2, 묘갈명(尹善道 撰), “難懷子儀貫日之忠 曾無其福 竟墮林甫偃月之計 孰拯其冤.”

14 『심양일기』 기묘, 4월 18일. “令監何 忍殺無罪之人乎.”



문과장원급제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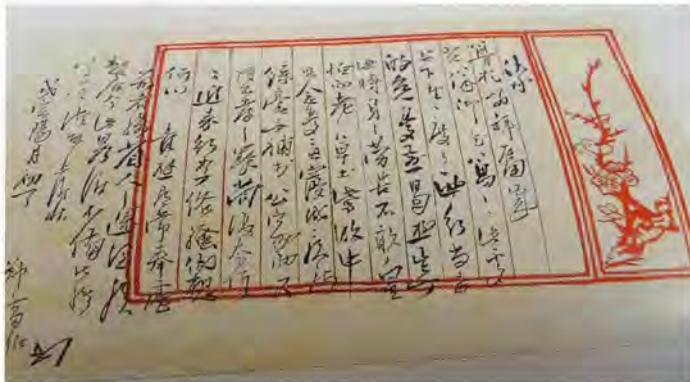


시호 교지

정뇌경의 거사에 행동을 같이 한 서리 강효원은 정뇌경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박로를 보고, “영감은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을 차마 죽입니까?”¹⁴라며 원망하였는데, 이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박로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한편, 박로는 본국의 왕 인조가 정뇌경을 참수하지 말고 목매어 죽이라고 했다는 말을 정명수에게 전했다가 도리어 정명수로부터 질타와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심양 서문 밖 모래사장 사형장에 끌려간 정뇌경과 강효원은 교수형을 받았고, 심천로는 참수형을 당하였다. 정뇌경의 영구는 사형 집행 2일 후인 4월 20일 조선으로 보내졌다.

정뇌경 순국의 평가와 교훈

정뇌경의 순국은 당대는 물론 후대 왕실로부터 충절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았다. 인조는 정뇌경이 처형되었다는 장계(狀啓)를 받고 경기도 광주부에 왕실 능묘로 예정해 두었던 땅을 하사하여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이조 참관을 증직(贈職)하였다. 유족에게는 매월 식량을 지급하도록 하고 윤집·오달제·홍익한 삼학사(三學士)와 동등한 예우를 하도록 명하였다.



정뇌경 친필서찰

1645년 2월, 심양에 볼모로 잡혀간 지 8년 만에 풀려나 귀국한 소현세자는 2개월 뒤에 학질에 걸려 사망하였고, 같은 해 귀국한 봉림대군이 1649년에 즉위하니 그가 곧 효종이다. 효종은 정뇌경의 유족을 남달리 돌보았는데, 그 역시 심양에서 소현세자와 함께 정뇌경의 돈독한 보살핌을 받았고, 그의 순국을 현지에서 목격하였기 때문이었다. 효종은 정뇌경의

아들 정유악(鄭維岳)이 진사 시험에서 장원을 하자, “정뇌경의 죽음을 내가 일찍이 슬프게 생각하였는데 지금 이 아이가 장성한 것을 보니 매우 비통하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¹⁵ 하며 감개무량해 하였다. 참혹했던 심양에서의 고락을 함께 한 것과 정뇌경의 충심,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그의 죽음을 회상하며 말한 것이라 하겠다.

역대 왕조에서도 정뇌경을 잊지 않았다. 숙종은 그를 좌찬성(左贊成)에 다시 증직시켰고, 정조는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충정(忠貞)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리고 정뇌경의 후손을 등용하도록 지시하고, 다음과 같이 그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충정공은 심양 조선 관소의 일개 종사관으로 몸이 국가의 안위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맡은 직무도 조정에서 중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도 아니었다. 이에 그의 동료들과 함께 금새 갔다가 돌아오면 벼슬과 부귀가 굴러 들어올 텐데, 가슴이 미어지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역적을 꼭 없애고자 목숨을 돌보지 않고 계책을 써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죽여 없애려 하였으니 어찌 그리 충성스럽단 말인가? 급기야 비밀이 탄로 났을 때에는 한마디 말로 공손히 사죄하였다면 자기 몸을 보전할 수 있었고 어려운 일도 풀 수 있었을 텐데, 남이는 오직 죽음뿐이요 죽지 않으면 장부가 아니라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굽히지 않았다. 임금과 부모에게 절하고 하직한 뒤 칼날 밟기를 마치 낙원으로 들어가듯 하였으니 어

15 『효종실록』 권9, 효종 3년 10월 임인. “上召見進士壯元鄭維岳 謂承旨李一相曰 鄭雷卿之死 余嘗惻念 今見此兒長成 不勝悲喜.”

16 『정조실록』 권52, 정조 23년 7월 계미. “忠貞 卽質館之一從官 身不佩國家之安危 職不與廊廟之訃謀 爰暨乃僚 旋往旋返 則爵祿富貴 固其倘來 而不耐滿腔之憤 必去反喙之賊 捐棄死生 發謀出慮 欲假手以誅讎 何其忠也 及夫不密而露也 一言遜謝 則其軀可全 其難可釋 而男兒死耳 不死非夫 不撓不屈 拜辭君親 蹈白刃如就樂地 何其義也 嗟嗟孝元.”

쩌면 그렇게 의롭단 말인가? 아. 강효원도 기꺼이 함께 죽었도다.¹⁶

일정한 기간 적당히 무사하게 지내다가 귀국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명수 일당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보인 그의 충의(忠義)와 순국을 극찬한 것이다. 영조 때 정뇌경의 손자 정사효(鄭思孝)가 전라 감사에 재직하면서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을 때, 조정은 후손의 잘못과 정뇌경의 순절을 관련시키지 않았다. 정조는 후손의 잘못으로 조상의 대절(大節)이 묻히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하면서 정뇌경의 봉사손(奉祀孫)에게 벼슬을 내리도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후대의 신하들 역시 당색을 떠나 정뇌경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당대 정뇌경을 잘 알고 있던 윤선도(尹善道)는 정뇌경의 신의와 청렴 강직함을 칭찬하였고, 송시열(宋時烈)은 정명수 일당을 제거하려던 정뇌경의 계획이 비록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성패를 떠나 그의 순절은 후세의 귀감이 된다 하였다. 반대로 정뇌경의 계획에 비협조적이었던 박로 등 관료들에 대해서는 깎아 내려 영원히 후대인의 질타 대상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안정복(安鼎福) 역시 정뇌경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명길 등 주화파 내각의 비굴함을 비판하였다.¹⁷ 요컨대 정뇌경의 충성심과 강직함, 동료애와 신뢰에 바탕 한 희생정신은 당쟁이 치열하던 조선 후기의 왕실이나 신료 사회 모두에게 당색을 떠나 귀감이 되었던 것이다.

정뇌경이 심양 관소에서 보인 정의감과 동료애,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직무 태도와 멸사봉공(滅私奉公)은 예나 지금이나 공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지녀야 할 기본정신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신(保身)과 사리(私利)에 어두웠던 공직자는 후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비판 대상이 되어 왔다. 나라를 괴롭히는 악당을 제거하려는 정뇌경의 계획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심양 관소 재신들이 어찌하여 후대인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오늘날 나랏일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강세구 | 문학박사, 역사학

17 이상 윤선도·송시열·안정복의 평가는 『윤계선생문집』 권2, 부록, 묘갈명 및 묘지명 참조

선비 정신의 표본, 오달제



묵매도

오달제(吳達濟, 1609~1637)는 조선중기의 문신(文臣)으로 1609년(광해군 1)에 태어나 1637년(인조 15)에 만주의 심양(瀋陽)에서 조선 선비의 절의(節義)를 지키다가 순절(殉節)한 충신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광해군이 집권하여 간신(奸臣) 정인홍(鄭仁弘)·임사홍(任士洪)과 이이첨(李爾瞻)을 곁에 두고, 아버지 선조의 계비(繼妃)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출(廢黜)하여 서궁(西宮)으로 내쫓았으며, 자신의 이복동생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강화도로 귀양 보낸 후 방에 가두고 증살(蒸殺)하는 끔찍한 사건이 연달았다. 또한 북쪽의 여진족(女眞族)이 강성해진데 대해 위협을 느끼고 명나라와 금나라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국정을 떠던 시절이었다.

이런 광해군의 폭정을 보다 못한 이귀(李貴)·김류(金瑬)·김자점(金自點)·최명길(崔鳴吉) 등의 서인(西人) 세력들을 비롯한 소외된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능양군(綾陽君)을 국왕으로 옹립한 인조반정(仁祖反正)을

도모하였다.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강화 교동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면서 서인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반정의 명분은 패륜(悖倫)을 저지른 것 외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해준 명나라와의 의리를 배반하고, 오랑캐인 만주의 여진족이 세운 후금(後金)과 거래하는 것은 만고에 있을 수 없는 비정(秕政)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오달제는 어려서 백부(伯父) 오윤겸(吳允謙)으로부터 성리학(性理學)을 접하여 대명의리(對明義理)와 조선 선비 정신을 몸에 익히며 자랐다.

오달제의 가계와 출사

오달제의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계휘(季輝). 호는 추담(秋潭)이다. 광해군이 즉위한 1609년에 아버지 여주 목사 오윤해(吳允諧)와 최 씨 부인 사이의 3남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조부 오희문(吳希文)은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을 닦은 사족(士族)으로서 당시 신망 받던 선비들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및 조존성(趙存性) 등과 교류하고 지냈다. 임진왜란 때 전란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9년 3개월간 피난 생활을 하면서 전란에서 겪은 사실들을 세밀히 기록하여 『쇄미록(鎖尾錄)』을 남겼다. 이 기록물은 임진왜란 중에 겪은 사실들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국보 제1096호로 지정되었다. 오희문의 장남은 오윤겸(吳允謙)으로 인조 때 영의정을 역임한 사람이고, 차남이 오달제의 부친 오윤해이다. 오윤겸은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성리학의 대가이기도 하였다.

오달제는 백부 오윤겸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1625년(인조 3) 17세에 신득연(申得淵)의 딸 고령 신씨와 혼인하였으나 1633년 병으로 죽었으며, 1년 뒤인 26세에 현감 남식(南弼)의 딸 의령 남씨와 재혼하였다. 장인 남식은 숙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남구만(南九萬)의 부친이며, 오달제의 부인 남 씨는 남구만의 고모이다. 그의 백형(伯兄)은 오달승(吳達升)으로 참의(參議)를 지냈으며, 그의 중형(仲兄)은 젊어서 요절하였다. 그는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기로 유명하였으며, 효자로도 소문이 자자하였다.

오달제는 19세인 1627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26세 되던 해인 1634년에는 별시문과(別試文科)에서 장원급제하였으며, 부인 남 씨와 혼인하는 크나 큰 기쁨을 누렸다. 관례에 따라 성균관 전적(典籍)에 제수(除授)되었고, 이어 병조 좌랑·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사서(司書)·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등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쳤다. 1636년에는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이 되었다.

조선의 정세와 조정의 갈라진 공론

조선의 대명의리와 정묘호란

이 시기의 조선은 명나라만을 종주국으로 인정하며, 임진왜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대명의리(對明義理)를 내세워, 북쪽의 오랑캐가 세운 신흥국인 후금(後金)과 친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더구나 인조는 반정의 명분에 따라 대명의리와 후금배척(後金排斥) 정책을 펼쳤기에 조선과 후금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후금은 조선을 점거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다만 그들의 야망인 명나라를 정복하려는 목적을 이루려면 배후에 있는 조선과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어 장애물을 없애야 했다. 따라서 조선에 대하여는 항시 강화(講和)를 제의하였으나 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후금의 개국자인 누루하치가 죽고, 그의 여러 아들 중에서 주전론자인 홍타이지[皇太極]가 뒤를 이어 수반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627년 1월에 후금은 아민(阿敏)으로 하여금 3만의 대군을 이끌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범하는 정묘호란이 발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조는 도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파천(播遷)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묘호란은 3개월간의 협상 끝에 강화가 이루어져 후금과 조선은 형제지국(兄弟之國)이 되기로 하였고, 후금의 군대는 철수했으며,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할 때 요청이 있으면 1만 명의 군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후금과의 강화는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것이었다.

후금의 군대가 철수한 후에도 조선 조정은 제반 약속 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았다. 형제지국의 맹약은 맺었지만 이를 대단히 불쾌하게 여겼다. 비록 후금의 군사력 앞에 굴복하여 그들의 화의 조건을 받아들였으나, 그들과 형제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 정치에 구현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조선 조정의 신료들과 사림(士林)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이었던 것이다. 절치부심(切齒腐心) 복수하여야 한다고 외쳤지만 조정의 신료들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즉 척화파(斥和派)와 주화파(主和派)였다. 하루속히 우리의 군사력을 길러 그들의 재침이 있으면 격퇴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것이 척화파였고,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 그들과 화의하자는 것이 주화파였다.

그런데 반정 공신들이 광해군을 폐위한 명분이 광해가 명나라를 배반하고 오랑캐인 후금과 내통하며 섬긴 배신자라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주화론자들의 입지는 좁았다. 결국 반정의 명분에 따라 척화파의 주장이 국가의 기본 정책이 되었고, 후금과의 외교 관계에서는 충돌이 잦아지게 되었다. 후금은 조선에 대하여 명나라에 대한 사대(事大)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그들의 국서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들의 국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국왕은 백성의 아버지인데, 백성으로 하여금 병화(兵禍)에 시달리게 하고, 오직 명나라만을 믿어 우리의 원수가 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다시 우리와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1633년 이래로 조선과 후금은 갈등이 심화되었다. 후금이 요구한 개시무역(開市貿易)은 끝났고, 조선은 후금의 요구에 사사건건 핑계를 대며 거절하였으며, 후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해 4월에 후금은 요동 앞 바다 섬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모문룡(毛文龍)의 예하 부대들을 항복시켜 명나라 진격의 성가신 세력들을 일소하였다.

조선의 역대 왕조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이념적으로는 정통 왕조에 대한 사대(事大)만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특히 유교 이념의 지배가 강화된 조선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는 이런 이념에 바탕을 두고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을 실시하여 명나라에 대하여는 임진왜란의 의리와 함께 사대관계(事大關係)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과의 관계는 단절 하다시피 하였다. 조선의 이와 같은 외교 정책은 후금으로 하여금 침략의 구실을 주었다. 결국 후금의 왕위를 계승한 홍타이지가 국호(國號)를 대청(大清)으로 바꾼 후, 조선에 대하여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오직 청나라에만 사대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1635년 12월 초에 인조비(仁祖妃) 인열왕후의 상을 당하자 후금은 조문 사신으로 마부대(馬夫臺)를 보내면서 국서(國書)를 지참시켰다. 그러나 인조는 국상(國喪)을 핑계로 접견을 피했다. 그들의 국서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몽골의 왕과 태후가 왕자 및 온 나라 병사와 백성을 이끌고 귀의하였고, 명나라 장수 셋이서 바다를 건너 귀부(歸附) 해왔으며, 동부의 바닷가 나라도 만여 병사와 함께 항복하여 서북의 천하 절반을 모아 하나로 통일하여 위력이 더해 날로 융성하니, 바야흐로 이러한 경사(慶事)를 기뻐하고 축하하여 극진히 공경해야 할 것이요.

이로 인해 조선 조정에서는 척화(斥和)나 화의(和議)나를 놓고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 조선이 종주(宗主)로 삼고 있는 명나라와 동등하게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삼는다는 것은 천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척화론자들의 주장이었다. 결국 청나라와 화의를 맺어 병란(兵亂)을 피하기보다 차라리 싸우다 멸망하는 것이 낫다는 척화파의 의견이 공론(公論)으로 결말이 났다. 즉 청나라에 대하여 사대의 예를 행하는 것은 유교의 명분론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당시 조선 조정의 확고한 신념은 배금정책이었다. 그렇다고 조선의 군사력이 청나라의 공격력을 막아 내기에 충분하였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조선 조정은 국방력을 키우는데 전력을 기울이고자 온갖 정책을 세워 시행하고자 하였다. 수어청(守禦廳)을 창설하고 어영청(御營廳)을 증강하였으며,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예산을 증액하여 군사력을 키우도록 하였다. 그러나 바닥 난 재정과 거듭된 흉년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조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의 침입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놓고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되었다. 하나는 적의 침투로 예상되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주요 요새(要塞)인 의주(義州)·안주(安州)·평양·황주·평산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화도와 남한산성을 최후의 저항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처음에는 후자의 방안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나중에 평안도·황해도 지방의 주요 산성을 방어선으로 하는 방안이 받아들여져 산성들을 수축하고 병력을 집중 배치하였다.

결국 홍타이지(청 태종)가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후 청과 조선의 관계가 군주와 신하의 상하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청나라의 요구와 이에 대한 조선의 강력한 반발이 정면충돌하였다. 그 전까지의 정세는 청과 명 사이의 전쟁이 주축이고, 조선은 부차적 요인에 불과했다. 그런데 압록강 주변 요동지방이 전쟁 무대가 되면서 조선이 급속하게 말려들어가게 된 것이다. 당시 명나라는 내정이 허약할 대로 허약해졌지만 요동도사 모문룡의 끈질긴 저항으로 요동에서 청과의 대치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청으로서는 요동 정벌이 급선무로 부각됐고, 이 시점에서 조선은 눈엣가시였다. 청은 이미 전부터 전선(戰線)이 중국 전체로 확장되고 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차례에 걸쳐 조선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를 거절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정묘호란 때의 화의 조약을 깨는 것이었다. 이런 양국 간의 긴장은 요동 정벌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청은 이제 강성해진 군사력을 배경으로 태도를 한층 강화

시켜 지난 고려 때 몽골이 그랬듯이 조선에게 전면적인 사대를 요구해왔다. 요동을 정벌하고 이어서 명나라 본토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배후의 불안 요소인 조선을 완전히 제압해두어야 했다.

척화나 주화나

홍타이지가 수반의 자리를 계승한 후금은 군사력을 더욱 키워 만주 일대를 완전 평정하였으며, 내몽골까지 점령한 후 명나라의 북경을 공격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군비를 충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자 정묘호란의 화약 조건을 내세워 조선에 군비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갔다. 조선 조정은 평안도 방면의 각 성을 보수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임경업(林慶業)을 의주산성(義州山城)에 배치하는 등 압록강 연안의 산성들을 지키게 하였다.

1635년 후금은 조선에 대하여 형제지국의 관계를 군신지의(君臣之義)로 고칠 것과 황금 100만량, 전마(戰馬) 3000필과 정병(精兵) 3만 명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 조정의 공론은 결사 항전하여 나라가 망하더라도 오랑캐에게 또다시 수모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1636년 이른 봄에 후금은 대규모 사절단을 조선에 보내왔다.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臺)를 대표로 최근에 귀순한 내몽골의 대장 7명과 명나라에서 항복한 장수 98명이었다. 그들은 친서라는 것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는 후금이 대청(大清)으로 국호를 바꾸었고, 홍타이지가 관온인성화제(寬溫仁聖皇帝)의 존호를 썼으며, 조선 국왕도 앞으로 홍타이지를 황제로 모셔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조정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상소가 빗발쳤다. 연일 조정회의(朝廷會議)를 거듭한 끝에 결사항전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인조는 그들을 접견하지도 않았다.

후금의 사신이 돌아가고 그해 3월 초하루 인조는 8도에 선전유문(宣戰論文)을 내려 후금과 결전(決戰)할 의사를 굳혔다. 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정묘호란(丁卯胡亂)을 당하여 부득이 오랑캐와 정묘화약(丁卯和約)을 했던 바, 오랑캐의 욕구(慾求)가 한이 없어서 공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는 참으로 우리나라에 전에 없던 치욕이다. 그러나 치욕을 참고, 통한을 건디면서 장차 한번 기운차게 일어나 이 치욕을 씻기를 생각함이 어찌 끝이 있는가.

지금 오랑캐는 방자하게 세력을 뻗치고, 감히 황제라 칭하기를 떠들면서 서로 의논한다는 핑계로 갑자기 편지를 보내왔다. 이 어찌 우리나라의 임금과 신하로서 차마 들어 줄 수 있겠는가. 이에 강약과 존망의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오직 올바른 의로 결단을 내려 그 서신을 뿌리치고 받지 않았다. 호차(胡差) 등이 여러 날 요청을 거듭했으나 끝끝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내고 돌아가게 되었다.

서울 장안의 남녀들은 전쟁의 참화가 눈앞에 박두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오랑캐를 뿌리치고 거절한 일을 통쾌히 여기고 있다. 만약 팔도의 백성들이 조정에서 내린 이 공명정대한 조치와 긴급하고 절박한 시기가 닥쳐왔음을 알게 되면, 소문만 듣고도 격동하고 분발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원수를 갚으려 나설 것이니,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신분이 귀하거나 천하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충의(忠義)로운 선비는 각기 있는 책략을 다 하고, 용감한 사람은 종군을 자원하여 다 함께 어려운 난국을 구제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

그러나 조선 조정의 공론은 청나라와 화의하자는 주화론(主和論)과 오랑캐와는 어떤 명분으로도 화의할 수 없으며 명나라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척화론(斥和論)으로 나뉘면서 분열은 점점 심화되어갔다.

척화론자 오달제

조선 조정의 결전론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논리 정연한 방책은 정온(鄭蘊)의 상소문이었다. 그는 압록강을 건너올 지점을 거점으로 기마병(騎馬兵)이 통과 할 장소에 조총(鳥銃) 포수를 수천 명 좌우로 진을 쳐서 포수와 사수(射手)를 배치하고, 적의 기병이 돌진하여 오면, 맨 앞의 조총수가 일제히 발포하여 전진을 막고, 뒤에 사수로 하여금 활을 쏘아 적병을 죽이고 또 다시 화약을 장전한 조총수들이 일제히 사격하는 방법으로 적을 막을 수 있다고 건의 하였다. 한편 조정의 주화파 수장격인 최명길은 결전에 앞서 한 번 더 심양에 사신을 보내 그들의 속내를 파악해 보자고 하였다. 이에 오달제는 홍문관(弘文館)의 수찬(修撰)으로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최명길을 반박하는 상소를 올렸다. 오달제는 척화론자로, 당시 나이는 28세에 불과하였으나 신념만은 누구 못지않게 강하였다.

"지금 오랑캐에 사람을 보내는 일은 크게 불가한 바가 있습니다. 교활한 오랑캐가 창궐해 더욱 방자하게 공갈을 치고 제멋대로 황제라 칭하며 감히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으니, 혈기(血氣)가 있는 자라면 누군들 마음 아프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하늘이 성충(聖衷)을 계도하여 홍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오랑캐의 사신(使臣)을 준엄하게 배척한 다음 팔도에 포고(布告)하니 사기(士氣)가 배가(倍加)되고, 명나라에 전주하니 의성이 충분히 들리었으며, 칙사가 광립하고 장유(漿諭)가 돈독하니, 온 나라 전역이 눈을 씻고 서로 하례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요즈음 여기저기서 이론이 생겨나 정담을 칭탁하여 사신을 보내고 책유를 핑계하여 서신을 통하였습시다. 이에 모책(謀策)이 불량하여 의리가 막히고 떠도는 소문이 자자하여 인심이 이미 흠어졌으며, 비방하는 의논이 흉흉하여 국사가 장차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미처 살피지 못하신 것입니까? 지금 의논드리는 지는 때와 형편에 따라 둘러대어 일을 칭탁하고, 이해로 움직여서 위로는 전하를 현혹시키고, 아래로는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계략을 현란(眩亂)시켜, 반드시 다시 화친을 닦아 구차스럽게 편안하기를 도모하고자 하니, 아, 너무 심합니다. 대체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강책(自彊策)을 강구하지 않고, 오로지 고식적(姑息的)인 것만 힘쓰며 의리를 돌보지 않고 치욕을 달게 여기면, 위로 명조(明朝)를 섬김에 어떻게 변명하며, 아래로 신민(臣民)에 입함에 어떻게 충성을 권하겠습니까? 만세에 기롱(欺弄)을 기칠 뿐, 목전의 급함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니, 득실의 기미를 어찌 지혜로운 자라야 알겠습니까. 인심이 분노하여 허물을 위에 돌리고, 사기(士氣)가 쇠약해져 목숨을 바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니,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신민에게 충의(忠義)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경에 이른 후에는 의논한 자의 살을 씹어 먹더라도 유익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 봄 화친을 끊은 것은 천하의 대의이니 우리가 먼저 끊지 않으면 어찌 죽히 의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리어 사람을 보내고 서찰을 통하여 먼저 끊지 않은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참역(僭逆)한 오랑캐는 참으로 당연히 우리 스스로 먼저 끊어야 할 것인데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기에 이처럼 꼭 변명하고자 하십니까? 구차한 거조는 차마 말할 수 없고, 묘당(廟堂)의 성산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차사를 보내는 것은 본디 간첩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간첩을 행하는 일을 중지하였은즉 다시 무슨 명분을 빌리겠습니까? 본의가 서신을 통하는 데 있으면서 반드시 겉으로 가리고자 하니, 이처럼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역관(譯官)을 보내고 서신을 통한다는 명을 속히 중지하여 나라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소서." 하니, 인조가 답하기를, "격서(檄書)를 보내어 적정을 탐색하는 것은 해로운 것이 없으니 그대들은 자세히 살피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즉 오달제는 최명길의 위로는 임금의 귀를 미혹하고, 공론으로 결정된 척화라는 국가시책을 제멋대로 바꾸어 후금과 화친을 맺자는 것이라 격렬히 반대하며 그와 원한을 갖게 되었다. 오달제의 상소에 대하여 인조는 아직 나이가 젊어 판단력이 부족한 소치이니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타이르는 조로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언관(言官)의 직책인 홍문관의 수찬으로서 자기의 상소가 가납(嘉納)되지 않았다고 하여 물러설 오달제가 아니었다. 얼마 후에 다시 상소를 올렸다.

“지난번 최명길이 사신을 보내어 서신을 통하지는 의논을 화의를 거절한 후에 발론(發論)했고, 또 삼사(三司)의 공론이 이미 제기되었는데도 오히려 국가의 사체(事體)는 생각지 않고, 상의 의중만 믿고서 경연(經筵) 석상에서 등대할 날 감히 황당한 말을 진달하여 위로는 성상(聖上)의 귀를 현혹시키고 공의를 견제하였으며, 심지어는 대론(臺論)이 제기되었더라도 한편으로 사신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 한 마디의 말이 나라를 망친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인가 봅니다. 그 말의 전도됨이 몹시 해괴

합니다. 옥당(玉堂)이 대면하여 책망하고 중론이 격분하여 일어나기까지 하였으니, 최명길은 의당 황공해 하고 위축되어 물의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어거늘, 오히려 태연하게 차자(筈子)를 올려 이치에 어긋나는 논리를 다시 전개하여 도리어 강화하는 일이 끊기기라도 할까 두려워하면서 의리가 어떠한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대각(臺閣)의 의논은 체면이 몹시 중한 것입니다. 비록 대신의 지위에 있더라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고 사직하여 불안한 뜻을 보이는 것인데, 최명길은 어떤 사람이기에 유독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처럼 극도에 이른단 말입니까? 방자하고 거리낌 없는 죄를 바로잡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이 이런 의향을 홍문관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여러 번 발론하였으나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발론했으나 견제가 이와 같으니 신을 파직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답하지 않았다.

이어 하교(下敎)하기를, “대체로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만 책망하는 것은 옳지만, 만약 경중(輕重)을 살피지 않고 또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틈타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하는 것은 몹시 옳지 못한 것이다. 관윤(判尹) 최명길은 일품(一品) 중신(重臣)으로 사직(社稷)에 공이 있는 사람이다. 그의 말이 설사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절대로 멸시하고 욕을 해서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젓비린내 나는 어린 사람마저 모욕을 주니, 오늘날 국가 풍습은 과연 한심스럽다 하겠다. 오달제를 우선 파직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과 사헌부(司憲府)가 함께,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도록 주청하였으나, 왕이 끝내 듣지 않았다.

1636년 10월 마침내 인조에 의해서 문과에서 선발된 장원급제자 오달제는 최명길을 논박하였다는 죄목으로 파직을 당하게 되었다. 최명길의 주화론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홍문관에는 오달제의 선배로 정뇌경(鄭雷卿)과 윤집(尹集)이 교리로 있었다. 윤집도 척화론자이어서 오달제와 함께 파직 당하였다.

병자호란의 발발

청의 침공과 남한산성으로의 파천

청태종 홍타이지는 조선을 평화적으로 제압하기는 틀렸다고 판단하여 1636년(병자년) 12월 초에 병력 12만 명을 심양으로 집결시켰다. 조선에 대한 선전포고문에서, “너희들이 성안에서 방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대로(大路)를 따라 한양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통고하고, 기병부대를 앞세워 얼어붙은 압록강을 침범하여왔다. 그들은 조선의 방어책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작전을 세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부대를

편성하여 공격해 왔다. 12월 2일 맨 먼저 심양을 출발한 마부대(馬夫臺)가 이끄는 기마병 6,000기가 선두에 서고, 좌익군과 우익군 4만의 기병이 뒤따랐다. 당시의 기마병은 현재의 기갑부대와 같아서 보병으로서는 감히 방어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들의 호언대로 의주성을 지키고 있던 의주 부윤(義州府尹) 임경업(林慶業)은 청나라 기병들이 의주성을 지나쳐 대로를 타고 남으로 향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청나라 군사가 의주를 지나 남으로 향하고 있다는 장계(狀啓)만 겨우 보냈을 뿐이었다.

마부대의 군사는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주야로 달려 한양에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목을 차단하려 하였다. 청태종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뒤따라 한양을 향해 진격하였다. 12월 8일 청군은 압록강을 건넜으나, 조선 조정에서는 12월 12일에야 임경업의 장계로 청나라 군대의 침략 소식을 처음으로 접했다. 12월 14일 개성유수(開成留守)의 장계로 청군이 이미 개성을 통과한 것을 알게 되자 조정은 당황하였고, 강화도로 피신하기로 한 인조는 우선 비빈(妃嬪)들과 봉림대군(鳳林大君) 및 원손(元孫), 신료들의 가족들을 우의정 김상용을 책임자로 하여 강화도로 보냈다. 이어 그 날 오후에 백관들과 더불어 강화도로 출발한 인조는 남대문을 나서서 얼마 가지 못하고 급보를 받았는데, 청군의 선봉 마부대의 기마부대가 이미 김포에 도달하여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조는 할 수 없이 도성(都城)으로 돌아와 남대문에서 한탄을 하였다. 도성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청군이 벌써 임진강을 건넜다는 전갈이 오자, 황급히 수구문을 빠져나와 송파나루를 거쳐 남한산성 서문으로 향하였다.

날씨는 춥고, 눈도 쌓여 한밤중에야 겨우 성 안에 들어설 수 있었다. 성 안에는 1만 2,000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불안했던 인조는 다음 날 새벽에 다시 강화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추운 날씨에 길은 얼어붙었고 인조가 탄 말은 넘어지고 말았다. 인조는 하는 수 없이 말에서 내려 걸어가려 했으나 넘어져 발을 다치면서 성 안으로 돌아와 행궁에서 최후의 결전을 마음먹고 군사를 동서남북 장대(將臺)에 배치하였다.

오달제의 입성과 산성에서의 항전

오달제는 지난 봄 척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최명길을 파직하라는 상소를 여러 번 올렸다가 도리어 10월에 파직당하여 산반(散班)으로 있던 중 청군의 침입으로 말미암

아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남한산성으로 달려갔다. 구국의 일념으로 임금을 보좌하겠다는 뜻을 어머니에게 말씀 드렸다. 혼인 한지 2년이 채 안된 터라 부인 의령 남씨와의 작별도 아쉬웠으나, 이미 결심을 굳힌 터라 부인에게 모친의 봉양을 당부하였다. 지금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게다가 그 당시 부인의 뱃속에서는 오달제의 첫 아기가 자라고 있었기에 어머니와 부인과의 작별은 더욱 아쉬웠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남한산성에 도착한 오달제는 인조로부터 가상하다는 말과 함께 독전어사(督戰御使)에 제수되어 윤집(閔集) 및 다른 언관(言官)들과 함께 각 장대에 배치되었다.

처음에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최후까지 항전하여 청군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동서 남북 장대에 군사를 배치하여 입전태세를 강화하였다. 젊은 척화신(斥和臣)들을 독전어사로 임명하여 군율을 다스리게 하고, 무기의 효율적인 배치와 군량의 부족을 인식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청나라 군사들이 성을 공격하였으나 번번이 패퇴하였고,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였으나 성벽을 넘지는 못하였다. 그만큼 남한산성은 천연의 요새였다. 삼전도에서 청군을 진두지휘하던 청태종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의 최종 목표인 명나라 공격을 눈앞에 두고, 조선을 제압하는데 군사력을 소비하게 되자 휘하 장수들에게 총공격을 내리는 한편으로 화의를 서두르는 양면 작전을 구사했다. 또한 강화도를 공격하여 비빈들과 왕자를 포로로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청태종은 조선을 침략하면 한양에 도착하는 즉시 인조의 항복을 받고 전쟁을 끝낼 줄 알았으나 의외로 시간과 병력을 소모하고 있으니 답답하였다.

인조의 항복과 화의의 성립

김류(金鑾)와 최명길 등이 앞서서 청군과 화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오달제는 울분을 참지 못하였다. 그는 윤집과 더불어 '화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끝까지 싸워서 버티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협상을 해야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반면 화의론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자 하여 청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척화신들은 최후의 결전을 하고나서 협상을 하자고 요청하였다.

인조는 전국 각도 관찰사들에게 근왕병을 속히 보내 왕을 구출하라는 납서(蠟書)를 보냈으나 근왕군은 소식이 없었다. 이윽고 허완과 민영이 이끌고 온 영남의 근왕



남한산성 서문 전투도

군이 광주 쌍령에서 패했다는 소식과 충청·호남의 군사들이 험천(險川)에서 패주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오니, 성내의 장수들마저 사기가 떨어져 속히 청나라와 화친하여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형편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여전히 최명길과 김상헌(金尙憲)이 맞서서 주화냐 척화냐를 놓고 논박(論駁)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던 중 강화도가 적에게 함락되어 비빈과 왕자들이 포로가 되어 성 밑에 끌려오고, 성에 있던 군량이 바닥나면서 군사들이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지경에 다다르면서 인조는 마침내 청나라에 항복할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청태종의 화의 조건은, 조선이 청나라의 완전한 속국이 되는 것이었기에 그 치욕은 형언 할 수가 없었다. 그 중에서 부대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조정에서 그동안 강력히 척화를 주장한 신료들을 청군 진영으로 압송하라는 것이었다. 최명길과 김류(金瑬)는 척화신을 대표하여 압송할 신료들의 명단을 인조에게 상달하였는데, 그들이 왕에게 제출한 신료들은 11명이었다. 예조 판서 김상헌과 이조 참판 정온(鄭蘊)을 비롯하여 김수현(金壽賢), 김익희(金益熙), 정뇌경(鄭雷卿), 이행우(李行佑),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 윤황(尹煌), 홍탁(洪琢) 등이었다. 그러나 인조는 척화 신료들을 사지(死地)로 보내는 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거절하였다. 결국 척화신 중에서 당시 평양 서윤으로 있던 홍익한(洪翼漢)은 청군이 철수하면서 평양에서 압송하기

로 하였고, 홍익한 외에 2명 만 더 보내기로 하고 화의가 성립되었다. 조정에서는 두 명을 누구로 보낼 것이냐를 놓고 어전에서 숙의하였고, 김상헌과 정온이 자진해서 가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모든 신료들이 원로대신(元老大臣)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남한산성의 한을 품고 북행하는 오달제

오달제와 윤집은 화의 조건인 척화신의 압송에 관해 의논하여 '우리 젊은 두 사람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며 연명으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묘당(廟堂)이 전후에 걸쳐 화친을 배척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수(自首)하고 가게 하도록 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진실로 군부(君父)의 위급함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조정에 있는 어느 제신(諸臣)인들 감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 상소를 올려 최명길의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바로 더욱 드러나게 화친을 배척한 것입니다. 오랑캐 진영에 가서 한 번 칼날을 받음으로써 교활한 오랑캐의 요청을 막도록 하소서. 다만 듣건대 묘당의 의논이 신들로 하여금 짐승 같은 자들에게 사죄(謝罪)시키려 한다고 하니, 묘당의 뜻 역시 슬프기만 합니다. 신들에게는 이미 사죄할 것이 없고 또 명을 받든 신하도 아닌데, 어떻게 오랑캐들과 수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상소 내용을 보면, 오달제와 윤집이 스스로 잡혀가 한 목숨을 바침으로써 오랑캐(청나라)의 욕된 요구를 더 이상 없도록 막으려는 것이지, 척화한 신하로서 그들과의 화친을 배척한 것을 사죄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자기들이 그동안 주장한 오랑캐와의 화친을 반대한 신념과 지조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오달제와 윤집 두 신료를 심양으로 압송하도록 하였다.

최명길(崔鳴吉)과 이영달(李英達)을 파견하여 국서(國書)를 가지고 오랑캐 진영에 보내면서, 화친을 배척한 신하인 오달제(吳達濟)와 윤집을 압송(押送)하게 되었다. 오달제와 윤집이 하직 인사를 하자, 인조가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그대들의 식견이 알다고 하지만 그 원래의 의도를 살펴보면 본래 나라를 그르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날 마침내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오열(嗚咽)하였다.

윤집이 아뢰기를, "이러한 시기를 당하여 진실로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만 번 죽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구구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 인조가 이르기를, "그대들이

나를 임금이라고 여겨 외로운 성에 따라 들어왔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오달제가 아뢰기를, “신은 자결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는데, 이제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하니, 인조가 다시 이르기를,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목이 메어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오달제가 아뢰기를, “신들이 죽는 것이야 애석할 것이 없지만, 단지 전하께서 성에서 나가시게 된 것을 망극하게 여길 뿐입니다. 신하된 자들이 이런 때에 죽지 않고 장차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니, “그대들의 뜻은 군상(君上)으로 하여금 정도(正道)를 지키게 하려고 한 것인데, 일이 여기에 이르렀다. 그대들에게 부모와 처자가 있는가?” 하였다.

윤집이 아뢰기를, “신은 아들 셋이 있는데, 모두 남양(南陽)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건대 부사(府使)가 적을 만나 몰락하였다고 하니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오달제가 아뢰기를, “신은 단지 70세 된 노모가 있고, 불행히도 아직 자식은 없사오나, 전하께서 하문 하시니, 신은 숨기지 못하고 여쭙는 바, 지금 복중(腹中)에 일점혈육(一點血肉)이 있사옵나이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참혹하고 참혹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윤집이 아뢰기를, “신들은 떠나갑시다만, 전하께서 만약 세자와 함께 나가신다면 성 안이 무너져 흩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이 실로 염려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세자를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함께 나가지 마소서.” 하니, 인조가 이르기를, “장차 죽을 곳에 가면서도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는 말을 하는가. 그대들이 죄 없이 죽을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다,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성에서 나간 뒤에 국가의 존망 역시 단정할 수는 없다만, 만일 온전하게 된다면 그대들의 늙은 아버지와 처자는 마땅히 돌보아 주겠다. 모르겠다만 그대들의 늙은 아버지의 연세는 얼마이며, 그대들의 나이는 또 얼마인가?” 하였다.

오달제가 아뢰기를, “제 어미의 나이는 무진생(戊辰生) 70세이고, 신의 나이는 무신생(戊申生) 29세 이옵니다.” 하고, 윤집이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단지 조모가 있는데 나이는 지금 77세입니다. 신의 나이는 정미생(丁未生) 32세입니다.” 하고, 드디어 절하고 하직하려 하니, 인조가 이르기를, “앉아라.” 하고,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술을 대접하게 하였다.

승지가 아뢰기를, “사신이 벌써 문에 나와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니, 인조가 이르기를, “어찌 이와 같이 급박하게 재촉하는가?” 하였다.

두 신하가 술을 다 마시고 아뢰기를, “시간이 이미 늦었습니다. 하직하고 떠날까 합니다.” 하니, 인조가 눈물을 흘리며 이르기를, “나라를 위하여 몸을 소중히 하도록 하라. 혹시라도 다행히 살아서 돌아 온다면 그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하자, 오달제가 아뢰기를, “신이 나라를 위하여 죽을 곳으로 나아가니 조금도 유감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 전날 밤 오달제의 형 달승(達升)이 찾아와 울면서 아우에게 이르기를, “오랑캐가 찾는 사람은 지난봄에 척화를 극렬하게 논의한 신하들을 압송하라는 것이지,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하자 오달제는 이르기를, “비록 내가 으뜸으로 척화를 논의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미 중신을 맹렬히 공격(攻斥)하였고, 특히 섬기는 임금이 굴욕을 당하면 신하는 옹당 죽어야 하는 것은 내가 흠족하게 생각하는 바인데, 오늘날 어찌 구차하게 살기를 피하겠습니까? 남아가 한번 죽는데, 죽을 곳을 얻은 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뒷일은 형님에게 모두 맡기오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형도 그 뜻을 말리지 못하였다. 달승이 말하기를, “우리 형제의 영결이 오늘밤을 남겨두고 있을 뿐이니, 내일은 어떻게 서로 이별을 한단 말인가? 또 어떻게 집에 가서 노모와 새 계수(弟嫂)를 본단 말인가? 이 밤이 새기 전에 뒷일을 처리해야 할 것일세.” 하자, 오달제가 나무를 깎아 조그마한 목패(木牌)를 만들어 허리에 차면서, “내가 오랑캐 진영에 이르면, 기필코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 시신(屍身)을 수습할 때 신표(信標)로 삼으십시오.” 하였다.

1월 29일 아침 오달제의 형 달승이 관원들에게 부탁하기를, “내 아우가 산성에 들어올 때 마필(馬匹)이 없어서 거의 맨발로 걸어서 들어와서 발이 모두 부르터 걸음도 잘못 걷는 형편이니, 제발 오랑캐 진영으로 마지막 가는 길을 차마 걸려 보내지는 못하겠으니, 원컨대 한 필의 말을 얻어 타고 가게 해주시오.”라고 애걸하였다. 옆에서 듣고 있던 조정 신료들이 모두 애처로워 눈물을 흘렸다. 최명길 이들을 데리고 서문으로 나가는데, 삼사(三司)의 오달제 동료들이 서문 밖까지 나와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였다. 그러나 오달제는 신색의 변함이 없었으며 태연자약(泰然自若)하였다.

최명길 이 두 사람을 이끌고 청나라 진영에 나아가니, 청태종이 그들의 결박을 풀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최명길 등을 불러 자리를 내리고 크게 대접할 기구를 올리게 하면서 초구(招裘) 1습(襲)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최명길 등이 이것을 입고 네 번 절하며 받았다고 한다. 척화신 두 사람을 압송하여 온 공으로 받은 것이다. 오달제와 윤집은 청나라 군사들이 철군하는 뒤를 쫓아 심양의 사지(死地)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 오달제는 청나라 병사의 후진(後陣)에서 한 장수에게 이끌리어 북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한강의 양화나루를 건너면서 서찰 한 통을 형 오달승에게 인편을 이용해 보냈다.

국사(國事)가 이 지경인데 사사로운 정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난리에 집안 식구들이 별로 없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심정은 어서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제가 잡혀 와서 용골대를 만나 대화해 보니, 많이들 죽인다고 겁을 주며 말하더라. 그 후 오랑캐 진영에 머물면서 겪은 고초는 형언 할 수가 없습니다. 심양에 가면 오래도록 붙잡고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도움이 있다면 어찌 살아서 돌아가 서로 만나 볼 날이 없겠습니까. ……

26세에 대과(大科)에서 장원급제한 수재(秀才)로서 2년 만에 홍문관 수찬(修撰)에 올라 앞날이 창창한 젊은 선비였던 그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나라를 평온하게 하며, 조정의 척화했던 동지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칭해서 사지로 끌려가면서 형에게 가족의 안부를 묻는 애처로운 사연을 보면, 그의 절의(節義) 정신과 함께 노모를 생각하는 지극한 효심, 그리고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오달제가 평양 대동강 가에 이르러 어느 촌가에 유숙할 때 주인에게서 겨우 종이 한 장을 얻어 모친과 형, 그리고 부

인에게 부치는 시를 지어 주인에게 평양 감영에 보내달라고 청했는데, 승정원을 통하여 그의 집에 도착한 시가 전해오고 있다.

□ 모친에게 부친 시

風塵南北各浮萍	난리 속 남북으로 부평처럼 흩어졌으니
誰謂相分有此行	이처럼 헤어져 갈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別日兩兒同拜母	어머님 헤어질 때 두 아들 함께 절했는데
來時一子獨趨庭	올 때는 한 아들만 홀로 뜰에 들어서겠네
絕裾己負三遷教	불효자식 옷깃 끊고 나왔으니, 삼천지교(三遷之教) 저버렸고
泣線空悲寸草情	소리 없이 우시는 큰 슬픔 애틀한 모정이로다.
關塞道修西景暮	변방의 길은 멀고 저녁 해 저무는데
此生何路更歸寧	이승에서 어느 길로 다시 문후 드리리까?

□ 형에게 보낸 시

南漢當時就死身	남한산성 무너진 날 죽었어야 할 몸인데
楚囚猶作未歸臣	적에게 볼모되어 아직도 못 돌아간 신하라오
西來幾酒思兄淚	심양 오며 형 생각에 몇 번이나 눈물 뿌렸던고
東望遙隣憶弟人	동녘을 바라보니 아우 그럴 형이 가련하네.
魂逐塞鴻悲隻影	넋은 변방 기러기 쫓는데 외딴 그림자 서럽고
夢驚池草惜殘春	꿈속에서 놀라 깨니 연못가 새싹 가는 봄 아쉬워하네.
想當彩服趨庭日	새 옷 입고 마당에 나아가 뛰놀던 생각하니
忍作何辭慰老親	늙으신 어머님께 무슨 말로 위로할까

□ 부인 남씨(南氏)에게 보낸 시

琴瑟恩情重	부부의 깊은 은정 중하기도 하건만
相逢未二蒼	서로 만난 지 두 돌이 못 되었소
今成萬里別	이제는 만 리밖에 헤어져 있으니
虛負百年期	백년가약이 헛되어 졌구려.
地闊書難寄	땅 넓고 길이 멀어 편지조차 부치기 어렵고
山長夢亦遲	산도 길고 멀어 꿈에서조차 만나기 어렵구려.
吾生未可卜	내 생사는 점칠 수 없으니
須護服中兒	모름지기 뱃속의 아이나 잘 보호해 주오.

심양에서의 최후

용골대는 심양에 도착한 후 시강원(侍講院)의 재신들을 참석시켜 놓고, 오달제와 윤집을 소리 질러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5~6차례 걸쳐 힐문하였으나 그때마다 항변하며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꾸짖었다. 재신들도 두 번 세 번 권하여 타 일렀으나 듣지 않으니, 용골대가 끝내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드디어 부하들을 시켜 단단히 결박하여 끌어냈다. 오달제는 뒤돌아보며 용골대를 꾸짖었다. 이날 오달제와 윤집을 서문 밖으로 끌고 갔는데, 그곳은 바로 청나라의 사형을 집행하는 곳이었다. 오달제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마침 소현세자를 배중하여 시강원 문학으로 심양에 막 도착해 있던 동료 정뇌경(鄭雷卿)이 역관을 통하여 시신이냐마 수습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청나라 형관(刑官)은 끝내 들어주지 않아 수습하지 못하고 말았다. 『인조실록』 1637년 4월 19일에 실려 있는 오달제와 윤집의 최후 순절 정황을 기록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집과 오달제는 청나라 병사의 후진(後陣)에 있어서 이달 15일이야 심양에 도착하였다. 19일에 용골대가 재신과 강관을 이문(內門)에 불러들여 두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황제의 말로 묻기를, “그대들이 화친을 단절하지는 의논을 앞장서 외쳐 두 나라의 틈이 생기게 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중하다. 죽여야 하겠지만 특별히 인명이 지중하여 살려주고자 하니 너희들이 처자를 거느리고 이곳에 들어와서 살겠는가?” 하니, 윤집이 대답하기를, “난리 이후에 처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으니, 천천히 들어보고 처신하겠습니다.” 하였고, 달제는 대답하기를, “내가 참고 여기까지 온 것은 만에 하나라도 살아서 돌아가면 우리 임금과 노모를 다시 보려는 것이었다.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속히 나를 죽여라.” 하니, 용골대가 말하기를, “저것이 황제가 살려주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항거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이제는 다시 용서할 수 없다.” 하였다.

재신 박황(朴潢)과 궁관(宮官) 이명웅(李命雄)이 말하기를, “나이 젊은 사람이라 다만 임금과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만 간절하여 함부로 생각하였던 것을 말한 것이니 아무쪼록 그를 용서해 주시오.” 하면서, 간절히 부탁해 하지 않았다. 박황이 이어 뒤돌아보고 달제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유독 서서(徐庶)의 일을 듣지 못하였는가. 그대의 노친에게 그대가 살아 있다는 말을 듣게 하는 것이 비록 이역(異域)에 있다 하더라도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하니, 달제가 대답하지 않고 다만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호인(胡人)이 죽시 묶여다가 서문 밖에서 죽었다. 시체를 수렴하려고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오달제가 끌려가는 도중에 시(詩)를 지어 그의 노모와 형에게 부쳤는데, 그 절구(絶句) 1수에 이르기를,

孤臣義正心無作	외로운 신하 의리 바르니 부끄럽지 않고
聖主恩深死亦輕	임금님 은혜 깊어 죽음 또한 가벼워라
最是此生無限慟	가장 이 생애에서 한없이 슬픈 것은
北堂虛負倚門情	홀로 계신 어머니님 두고 가는 거라오

하였는데, 이 글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정뇌경(鄭雷卿)은 오달제의 본가로 보낸 서찰에서 “수찬(修撰) 오공(吳公)은 지난 4월 19일 심양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이렇듯 원통하고, 참혹한 일이 있습니까. 살아서는 과감히 직간(直諫)하였고, 죽어서는 인(仁)을 이루었으니, 깊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노친(老親)과 아내의 가슴에 칼을 찔른 듯한 아픔을 어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시운(時運)이 이러하여 오랑캐의 포로가 되어 잡혀 왔는데,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있습니다. 죽을 때 이 친구처럼 창명(彰明)한 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나중에 죽는 사람이 무엇을 깨달을 것이며, 도리어 앞서 죽은 사람이 속이 답답할 것입니다. 피눈물이 앞을 가려 글을 더 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정뇌경은 나이가 오달제보다 두 살 많고, 오달제의 부인 남 씨와는 이종(姨從)간이다. 그는 홍문관 교리로 있으면서 호란이 끝나자 남한산성에서부터 소현세자가 볼모로 심양에 올 때 자청하여 문학으로 배종해 와서 시강원(侍講院) 필선(弼善)으로 질관(質館)에 있었다.

오달제의 인품과 사상

추담(秋譚) 오달제는 성격이 관후(寬厚)하고 충신(忠信)하며 단정하고 방직(方直)하였다. 평상시에는 온순하고 공손하여 말을 잘 못하는 듯하지만, 나라의 이해와 정령의 득실을 논할 때에는 사기가 격양(激昂)하여 회피하는 일이 없으므로 듣는 자가 위축되었다. 성품은 매우 효성스럽고 우애가 돈독하였으며, 평소 언행이 모두 여기에서 근본 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효제(孝悌)의 마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곤 하였다. 죽음을 앞당겨 압송되는 죄인 아닌 죄인의 처지에 있었으나, 극단적인 슬픔에 빠져들지 않고 늠름하였으며, 오로지 임금의 신하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또 지아비로서의 범상치 않은 고뇌(苦惱)를 복행하며 세편의 시에 실어 보낸 것으로 그의 인품을 알 수가 있다.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표본인 '반듯한 의리'에 살고자 했던 대표적인 조선의 선비였다. 그는 성리학에 바탕을 둔 선비로서 국가관과 의리 정신이 투철한 지식층의 모범이었다. 청태종은 그들의 정신을 꺾어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에 조선의 강직한 대명 의리론자들이 자기를 황제로 인정했다는 결과를 얻고자 하였으나 오달제는 끝내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였다. 당시 조선의 선비들을 대신하여 무력(武力)에는 굴복하였으나 투철한 선비 정신까지는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교훈을 청태종에게 각인시켜 준 것이었다.

청태종은 무력으로 잠시 조선을 정복했지만 민족혼만은 정복 할 수 없었다. 만약 삼학사가 그 당시에 청 태종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였다면, 청은 조선을 더욱 무시하고 나약한 약소민족으로 치부하였을 것이다. 청태종은 오달제를 비롯한 삼학사를 개별적으로 신문(訊問)하면서 다른 척화신의 이름을 대면 살려주겠다고 꼬드겼으나, 삼학사는 끝까지 자기들만이 척화에 앞장섰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이들의 인간성과 조선 선비의 끈고 바른 의리 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 삼학사의 심양 순절(殉節)은 당시의 조선은 물론이요, 청나라에까지 커다란 사건이었다. 위로는 군신(君臣)으로부터 아래로는 필부(匹夫)에 이르기까지 대의(大義)가 그대로 살아 있다면서, 온 백성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었고, 삼학사의 절의를 깊게 흠모(欽慕)토록 하였다. 조선에 삼강오륜(三綱五倫)의 고절(孤節)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었고, 그 명성이 천추에 길이 빛내지기를 바랬던 것이다. 앞날의 영화가 보장되어 있었던 젊은 신료로서, 혼인한지 2년도 안된 신랑으로서, 일신의 영화만을 생각했다면 자진하여 청군 진영으로 끌려갔겠는가? 그러므로 그를 현창(顯彰)하는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후세에 이르도록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고의 세월을 살다 간 부인 의령 남 씨

오달제의 부인 남 씨에게 부군의 부음(訃音)이 전해진 것은 한참 뒤였다. 백형 오달승이 심양으로부터 전해온 패옥(佩玉)과 임금으로부터 장원급제하여 하사받은 황금낭(黃錦囊)을 열어보니, 형에게 부친 편지와 부인 남 씨에게 부치는 언문 서찰(諺文書札)이 있었다. 그러나 오달승이 제수(弟嫂)인 남 씨의 산월(産月)이 임박했으므로

비밀로 하고 말하지 않았고, 초혼(招魂)과 제사도 다른 곳에서 지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 부인 남 씨는 딸을 낳았으나 돌이 채 못 되어 요사(夭死)하고 말았으며, 1641년(인조 19)에야 비로소 자신의 부군이 심양에서 순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주를 만들어 사당에 안치하고 남 씨에게 황금냥과 패옥을 전하니, 부인은 생을 마칠 때까지 품



오달제 묘

속에 간직하고 살았다. 한편, 부음을 전해들은 오달제의 부인 남 씨는 주야로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독약을 마셨으나 집안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면하였다. 또한 조정에서는 매월 녹봉을 내렸지만 부인이 슬퍼하며 이를 한 톨도 먹지 않고 부군의 제사에 제수(祭需)로만 썼다.

1653년(효종 4) 문중에서 오달제의 후사(後嗣)로 22세의 도현(道玄)을 양자로 들였고, 조정에서 특별히 순릉(順陵) 참봉에 제수하였다. 그러나 1671년(현종 12) 양자가 악질에 걸렸고, 남 씨 부인은 친자식처럼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였으나 효험이 없어 그해 4월 18일에 죽고 말았다. 이에 부인은 평생 의지하며 살려고 하였던 양자마저 죽자 크나큰 충격을 받아, '너를 구하지 못한 내가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라고 탄식하며 식음을 전폐하였다. 이에 오달승과 온 집안사람이 백방으로 권하고 말렸으나 끝내 듣지 않고 입을 꼭 다문 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 양자 도현이 죽은 뒤 보름만인 5월 4일에 5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운명하기 전에 별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시숙(媿叔)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집안은 손이 완전히 끊겼으니, 후사를 세워 제사를 맡아 이어가도록 주선 할 사람은 시숙뿐이니, 잘 부탁 합니다."라고 하였다. 원래 양자 도현에게 아들이 있었으나 그도 6세의 어린 나이에 죽어 대가 끊겼던 것이다.

한편, 삼학사 중 홍익한(洪翼漢)과 윤집(尹集)은 의관(衣冠)을 매장하고 허묘를 만들어 장례를 치렀으나, 오달제의 경우 부인 남 씨가 예가 아니라고 하면서 허묘 쓰기를 반대하여 묘가 없었다. 때문에 남 씨가 별세하자 오달제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신

씨 묘소 옆에 나란히 묘를 썼다. 그리고 남 씨가 생전에 품고 살았던 패옥과 황금냥은 1684년(숙종 10)에 두 부인 묘 뒤편에 봉분도 없이 묻었다. 그러다가 1705년에 오달제를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하고, 정려(旌閭)하면서 봉분(封墳)을 만들었다. 후에 다시 도현의 양자로 형 달승의 손자 수일(遂一)을 사손(嗣孫)으로 입적 하였다. 오달제의 묘소는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선영에 있으며, 용인시 향토문화유산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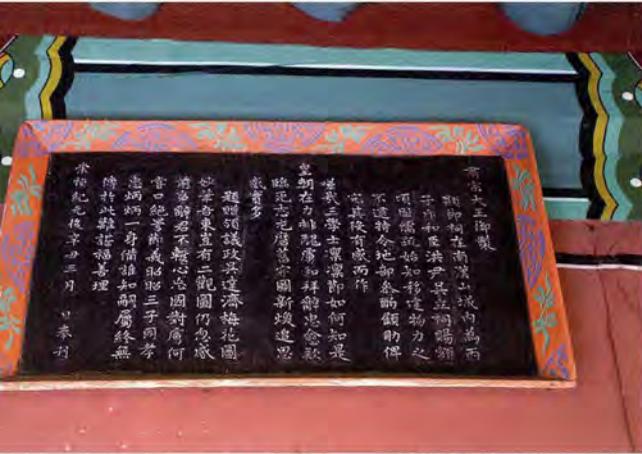
현절사와 오달제

남한산성 안에 있는 현절사(顯節祠)는 당초에 병자호란 삼학사의 순절을 현창하고 제향하기 위하여 1688년에 왕실에서 광주 유수(廣州留守) 이세백(李世百)에게 명하여 삼신사(三臣祠)라는 사우명(祠宇名)으로 건립한 것이다. 삼학사인 홍익한·윤집·오달제의 위패를 봉안하고, 광주 유수가 춘추로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이때 건립한 사우는 넉넉지 못한 재정으로 초라하고 비좁을 뿐만 아니라 음지에 세워져서 10여 년이 지나자 붕괴되었다. 이에 광주의 유림들이 상소하여 1711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移建)하고 공조(工曹)로 하여금 물자를 공급하게 하여 새로이 지었다. 또한 묘당(廟堂)의 건의를 받아들여 병자호란 당시 척화에 앞장섰던 예조 판서 김상헌과 이조 참판 정온의 위패를 추가 배향하였다.

역대 왕조는 거듭하여 삼학사를 증직(贈職)하였다. 1686년에 시호(諡號)를 내리고 정려(旌閭)하였으며, 모두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하였다. 삼학사와 김상헌, 정온의 시호와 증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절사에 모신 5위의 시호와 증직 내용

성명	호	생전 관직	시호	증직
오달제(吳達濟)	추담(秋譚)	홍문관 수찬	충렬(忠烈)	영의정
홍익한(洪翼漢)	화포(花圃)	사헌부 장령	충정(忠正)	영의정
윤 집(尹 集)	임계(林溪)	홍문관 교리	충정(忠貞)	영의정
김상헌(金尙憲)	청음(淸陰)	의정부 좌의정	문정(文正)	영의정
정 온(鄭 蘊)	동계(桐溪)	이조 참판	문간(文簡)	이조 판서



현질사 편액 뒤쪽에 걸려 있는 숙종대왕 어제



현질사현판

오달제는 평소 묵매(墨梅)를 즐겨 그렸는데 그의 매화도(梅花圖) 한 폭이 전해지고 있다. 그는 매화를 그리면서 마음을 끈고, 굳게 단련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숙종은 그의 그림을 대궐 안에 걸어두고 즐겨 감상했으며, 어제(御製) 시를 넣어주었다.

숙종은 사우명(祠宇名)을 삼신사에서 현질사로 바꾸게 하고 사액(賜額)하였는데, 현판(懸板)의 큰 글씨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의 친필이다. 현재 현질사에는 숙종이 직접 글을 지어 하사한 어제시판(御製詩板)이 걸려있는데 시판의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슬프도다. 삼학사여 늙름한 그 절의
오로지 황조(皇朝)가 있음만을 알았기에
힘을 다해 오랑캐와 화친을 배척했네.
하직 인사말에서도 충성은 더욱 참되었고
죽을 고비에 임해서도 그 뜻 더욱 굳건했도다.
옛 사우를 다시 고쳐짓고 빛내려함에
그대들 돌이켜 생각하니 감회가 실로 많도다.

증 영의정 오달제의 매화도(梅花圖)에 제(題)하노라

이렇듯 절묘한 필법(筆法)의 그림이 동방(東方)에 또 있을까
그림을 보고 있노라니 홀연히 옛일이 생각나도다.



현절사

임금과 작별하고 떠날 때 나라 걱정 잊지 않았고
오랑캐를 대하여 꾸짖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그 절의(節義)는 밝고 밝아 세 사람이 똑같았구나.
밝은 효도와 충성심은 일신(一身)에서만 빛났을 뿐
후사(後嗣)가 전해짐이 없을 줄 누가 알았으랴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하늘의 이치도 믿기 어렵구나.

현절사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10-1번지이다. 현절사의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정면 각 칸에는 2개의 여담이문이 달려있다. 부속 건물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각 3칸이다. 사우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향의례는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2호에 지정되었다. 매년 음력 9월 10일에 제향을 받들고 있으며, 초헌관은 광주 시장이다. 현절사에는 도유사(都有司) 외에 10명의 유사(有司)가 있어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봉심 분향하고 있으며, 제향을 주관하고 있다.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충렬공유고』, 『삼학사전』, 『연려실기술』, 『현절사지』, 『남한일기』, 『중정남한지』, 『국조인물고』

박광운 | 광주시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비운의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헌

허난설헌의 가계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의 본관은 양천(陽川), 본명은 초희(楚姬), 자는 경변(景樊). 호는 난설헌이다. 조선 최고의 여류시인으로 유고집 『난설헌집(蘭雪軒集)』이 있다.

허씨(許氏) 성(姓)의 연원은 가락국(駕洛國)의 시조인 김수로왕(金首露王)의 왕비(王妃)인 보주태후(普州太后) 허황옥(許黃玉)에 두고 있다. 부계를 따르는 것이 상례이나 인도에서 온 왕비가 자신의 성이 없어지는 것을 서운해 하자 수로왕이 일부 아들로 하여금 허씨 성을 잇게 허락했다. 허씨는 현재 양천(陽川)·태인(泰仁)·하양(河陽)·김해(金海) 4본이 관향으로 되어 있는데, 허난설헌의 가문인 양천 허씨는 허황옥의 30세 손인 허선문(許宣文)을 시조로 하고 있다.

허선문은 공암현(孔巖縣, 현 서울 양천구와 김포 일대)에서 대농으로 많은 재물과 곡식을 비축하고 있었는데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후백제 견훤(甄萱)을 정벌할 때 군량이 떨어져 곤경에 처하게 되자 많은 군량을 바쳐 고려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에 왕건은 그를 고려 개국 벽상공신 공암촌주(高麗開國 壁上功臣 孔巖村主)에 봉하고 공암 땅을 하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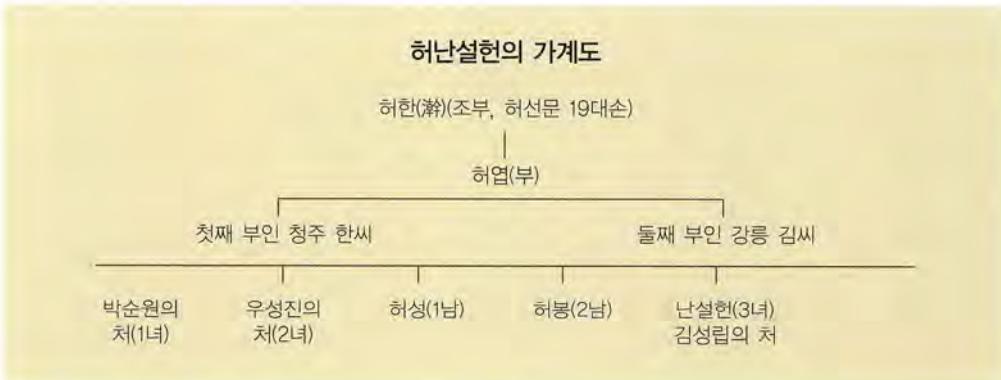
양천 허문(陽川許門)은 고려와 조선조를 통해 정승(政丞) 16인, 중추원사(中樞院使) 6인, 학사(學士) 9인, 호당(湖當)과 청백리(淸白吏) 각 6인, 공신 9인, 봉군(封君) 36인 등을 비롯하여 많은 훌륭한 인물을 배출했다. 형제 정승에다 청백리로 이름난 충정공(忠貞公) 허종(許宗)과 문정공(文貞公) 허침(許琛), 대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초당공(草堂公) 허엽(許曄)과 허성(許箴), 허봉(許篈), 허균(許筠), 허난설헌(許蘭雪軒), 불멸의 명저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편찬한 동방의 의성(醫聖) 양평군(陽平君) 허준(許俊), 높은 학문으로 정승에 오른 부원당(負暄堂) 허옥(許頊)과 묵재공(默齋公) 허적(許積),

그리고 학문과 문장, 서예에 뛰어나고 유림으로부터 청의의 사범 도덕군자로 숭앙받는 문정공(文正公) 허목(許穆) 등은 모두 허씨 문중을 빛낸 공암의 후손들이다.

허난설현의 아버지 허엽은 1517년(중종 12)~1580년(선조 13) 때의 인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시조로부터 20세손이다. 자는 대휘(大輝), 호는 초당(草堂),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허엽은 화담 서경덕(徐敬德)과 퇴계 이황의 제자였으며, 청렴결백한 대학자로 정3품인 대사간(大司諫)을 거쳐 대사헌(大司憲)에까지 올랐다. 경상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동서분당 때 동인(東人)의 영수가 된 인물이다. 청백리에 등록되었고, 개성 화곡서원(花谷書院)에 배향되었다.

허난설현보다 15세 위였던 큰오빠 허성(許箴, 1548~1612)은 이조·병조 판서까지 지냈고, 작은오빠 허봉(許葑, 1551~1588)은 강직한 성격으로 임금에게 직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학자로 이조 판서와 홍문관 전한(典翰)을 지냈다. 허난설현보다 12세 위로 천재적 재능을 지닌 문장가였으며 난설현에게 많은 문학적 가르침을 주었다. 동생 허균(許筠, 1569~1618)은 허난설현보다 여섯 살 아래로 형조·예조 판서를 지냈다. 매우 총명하고 지식이 막힘이 없었으며 개혁 의식이 뚜렷했다. 허균은 봉건적 사회제도의 개혁을 부르짖은 소설 『홍길동전(洪吉童傳)』의 작자이며, 후일 혁명을 준비하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50세에 처형당했다.

허씨 5문장으로 알려진 허엽, 허성, 허봉, 허난설현, 허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당대를 주름잡던 뛰어난 문장가였다. 허엽, 허성, 허봉, 허균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수정산 기슭에 모여 있고 허난설현만 남편 김성립과 합장되지 못한 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그의 두 아들과 나란히 묻혀있다. 1986년 9월, 경기도 기념물 제90호로 지정되었다.



허난설현의 생애



허난설현 초상화

허난설현은 1563년(명종 18)에 태어나서 15세에 안동 김씨 김성립(金誠立)과 결혼하여 살다가 1589년(선조 22) 3월 19일, 27세로 사망했다. 27년의 짧은 생애에 213수의 한시를 남겼으며, 동생 허균의 도움으로 사후 조선조 최초의 여성시집 『난설현 집』을 남기게 되었다. 동양 3국의 최고 여류시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명성을 얻었다.

허난설현은 문한가(文翰家)로 유명한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용모가 아름답고 천품이 뛰어났다. 어려서부터 오빠와 동생 사이에서 어깨 너머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엔 동생 허균과 함께 이달(李達)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8세에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樑文)」을 지어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초희라는 이름을 장성해서까지 사용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허균의 『학산초담(鶴山樵談)』에 “난설, 이름은 초희이며 자는 경번”이라고 기록되었다. ‘희’는 쌀 2,000석의 봉록을 받는 관직명이기도 한 걸로 보아 여성 관직을 동경해서 지었다고 보는 설이 있다. ‘경번’이라는 자는 허난설현 자신이 중국에서 예부터 전해져온 여선(女仙)인 번부인(樊夫人)을 사모하여 지은 것이라는 설이 있다. 난설현이라는 호의 유래는 직접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고 다만 난초(蘭)의 이미지와 눈(雪)의 이미지에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속세를 떠나 신선(神仙)의 세계로 가고자 한 시 「유선시(遊仙詩)」, 「망선요(望仙謠)」, 「동선요(洞仙謠)」와 여성적인 섬세한 감각으로 자아낸 시 「추천가(鞦韆歌)」, 「빈녀음(貧女吟)」, 「곡자(哭子)」, 「견흥(遣興)」 등이 있다. 그녀의 작품 일부를 허균이 명(明)나라의 시인 주지번(朱之蕃)에게 주어 중국에서 『난설현집(蘭雪軒集)』이 간행됨으로써 격찬을 받았고, 1711년(숙종 37)에는 일본에서도 분다이야 지로[文台屋次郎]에 의해 간행되어 널리 애송되었다.

유년기(1~7세, 1563~1569)

허난설현이 살았던 시기는 임진왜란(1592년)이 일어나기 직전의 조선 중기로서 당시 조선의 정세는, 정치적으로 연산군 이후 명종에 이르는 4대 사화(四大士禍)와 훈구(勳舊)·사림(士林) 세력 간의 정쟁으로 인한 중앙 정계의 혼란, 선조 즉위 이후 사림 세력의 득세로 인하여 격화된 봉당정치 등으로 정상적인 정치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허씨 5문장가는 그만큼 당파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할 수 있다.

허난설현은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1563년 강릉 사천 외조부 댁에서 초당공(草堂公) 허엽을 아버지로, 예조 참판을 역임한 애일당(愛日堂) 김광철(金光轍)의 딸 김씨를 어머니로 하여 셋째 딸로 태어났다. 허엽은 첫째 부인 청주 한씨에게서 1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허성(許箴)으로 이조 판서를 역임했다. 허엽은 한씨 부인과 사별한 후 김씨 부인과 재혼하여 2남 1녀를 두었는데, 허봉·허난설현·허균이 그들이다.

허난설현은 어린 시절 강릉 초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녀들을 강릉에 두고 이듬해 경주 부윤이 되어 떠나게 되자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7세 무렵 서울 건천동으로 옮겼다.

어려서는 당대의 석학인 아버지와 오빠 허봉에게 문학적 감화를 많이 받았다. 오빠는 물론 동생 허균과도 우애가 돈독했는데, 특히 12세나 위였던 허봉은 그녀의 삶과 문학 여러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허봉은 여동생의 천부적 재능을 알아보고 여성에게 정식으로 글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였음에도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배려해 주었다. 이처럼 학문적·예술적 분위기가 넘치는 좋은 집안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간의 우애로 안락하고 평안한 유년기를 보냈다.

수학기(8~14세, 1570~1576)

천부적인 글재주를 지닌 허난설현의 시문학 수학기는 여신동이라고 칭찬받으며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을 썼던 8세 이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라 할 수 있다. 결혼 전까지 동생 허균의 시 창작을 지도하며 자신도 열정적으로 창작 수련에 몰두했다. 그녀의 천재성은 시뿐 아니라 그림에서도 드러났는데 오빠 허봉은 동생의 이러한 능력을 높게 보고 가르침을 주었다. 난설현이 11세 때 허봉은 친시에 문과 급제하여 이듬해 휴가를 받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으므로 집안에서 오빠에게 글을 배우는 천

재일우의 기회를 얻었다. 이때 난설현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맞이했으며 많은 시들을 썼다. 여덟 살 때 지은 「쌍벽재」, 아홉 살 때 지은 「금전화」, 열 살 때 지은 「일십제작」과 바둑 두는 것을 보고 쓴 「관기십제작」 등은 미래의 훌륭한 시인으로서의 새싹이 어떻게 싹터가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아버지와 오빠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문학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그녀는 문학 외에 역사도 공부하여 역사 인식에 눈 뜰 수 있었다. 그러한 연유로 전쟁을 예감하고, 짓밟힌 민중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전쟁 이야기가 들어있는 「출세곡」, 「새하곡」 등 여인으로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들의 시를 쓰기도 했다.

허난설현이 이처럼 재능을 발휘하게 된 데는 오빠 허봉의 영향이 매우 컸다. 허봉은 당쟁에 휘말려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이때 남매가 서신으로 시를 주고받을 만큼 사이가 각별했다. 「기하곡(寄荷谷)」, 「송하곡적갑산(送荷谷謫甲山)」은 오빠 허봉을 위해 쓴 시들이다.

한편, 허봉은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로, 1547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었는데 이때 이미 명나라 문인 등계달(藤季達)과 교류했으며, 그의 「거산역시(居山驛詩)」를 읽어 본 선조는 ‘시를 짓는 법이 모름지기 이와 같아야 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이처럼 훌륭한 오빠가 있었기에 집안에서 배운 글 솜씨로, 겨우 여덟 살의 나이에 썼다고는 믿기 어려운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을 지을 수 있었다.

낙화기(15~27세, 1577~1589)

허난설현은 15세 무렵 한 살 위인 안동 김씨 김성립(金誠立, 1562~1592)과 혼인을 했다. 그의 시 「강남곡」에 “어찌 알았으리 나이 열다섯 살에, 조롱받는 사내에게 시 집갈 줄이야”라는 내용으로 그리 추정된다. 그녀가 사망하기 전 10여 년은 정한(情恨)으로 점철된 때라고 볼 수 있다. 소녀 시절의 행복과 달리 시집살이는 불행의 시작이었다.

안동 김씨는 5대에 걸쳐 계속 문과에 급제한 문벌로 허씨 가문에 비견할 정도로 뛰어난 문벌이었다. 김성립의 조부 김홍도는 전시(殿試)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시아버지 김침(金瞻)도 문과에 급제하고, 호당(鶴岡)재주 있는 문신으로 임금의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곳에 선발되었으며, 시어머니는 이조 판서 송기수(宋騏壽)의 딸이었다. 그의 남편인 김성립은 자는 여견(汝見), 호는 서당(西堂)이다. 결혼 후 급제를 하지 못하다가 아내 허난설현이 사망하던 1589년, 28세 때 생원으로 기축(己



허난설현 아이들의 묘



허난설현 묘 전경

丑) 증광시(增廣試)의 문과에 병과(丙科) 20등으로 급제했으며, 홍문관 정자(正字)가 되었다. 그는 허난설현을 잃고 군사감정 홍세찬의 딸과 재혼하였으나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임신왜란 때 전사하였다.

허난설현이 김성립과 결혼하게 된 동기는 아버지 허엽과 시아버지 김침이 사가독서(賜家讀書)를 하는 등 사이가 각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부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당시 국내 정세의 부패와 잦은 왜변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정서적 불안감으로 무능한 관리들의 행태를 격하게 풍자하던 김성립은 친구들을 좋아하여 과거시험 준비를 하면서 밖으로 돌았다. 더구나 그는 과거 준비를 위해 강가에 집을 따로 지어서 생활하였고, 그로 인해 아내와 멀어지게 되었다. 남편의 이런 외도를 며느리의 탓으로 생각한 시어머니는 난설현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허난설현과 김성립 슬하에는 남매가 있었는데 설상가상 아이들이 연이어 죽는 등 불행은 계속되었다. 친정 또한 당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던 때여서 허난설현은 극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동생 허균은 이런 누이의 삶을 『학산초담』을 통하여 “아, 살아서는 부부금슬이 좋지 못했고, 죽어서는 제사를 받들 자식이 없으니, 옥이 깨진 원통함이 한이 없다.”라고 쓰고 있다.

허난설현은 그의 시에서 조선조 여성으로서 어쩔 수없이 겪어야 했던 고통, 남편의 외도와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야기된 어려움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의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난설현 허씨는 정자 김성립의 아내인데, 근대의 규수 가운데 으뜸이다. 일찍 요절하였지만 그 시집이 세상에 간행되었다. 평생토록 부부가 금슬이 좋지 않아서 이런 까닭으로 원망이 많았으니, 그로 인하여 지은 것이 채련곡이다.”라고 하였다. 난설현은 이런 현실적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유선시를 유독 많이 지었는데, 유선시에 등장하는 배경은 모두가 설화나 신화 등 상상의 나라이다. 그 상상의 나라 속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과 열정을 불살랐다고 볼 수 있다.

허난설현의 문학세계

허난설현은 한국문학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선조 봉건사회제도 속에서 여성문학이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시 213수를 남겼고, 규방시가 일반적으로 표현했던 주제로부터 벗어나 상상의 세계 속에서 다양한 시제들을 다루었다. 그는 섬세한 필치로 여성 특유의 감상을 노래하여 애상적인 독특한 시세계를 이룩하였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의 시를 모두 불살라 달라고 유언했으나 허균이 그의 시를 모아 중국 시인 주지번에게 주었고, 『난설현집』으로 간행되었다. 난설현의 시는 중국 여러 책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까지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난설현집』이 편찬된 10년 후에 허균이 역적의 죄명으로 죽음을 맞게 되자, 허균의 글들이 불태워지고 그의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시절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난설현의 시는 허균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시를 표절해서 완성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당연히 허난설현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평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명작으로 평하고 유명세를 타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당황했으



중국 시인 주지번이 허난설현의 시를 모아엮은 『난설현집』

면서도 사대부들은 여성이 시를 쓰고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비난했다. 조선의 뛰어난 문장가로 선각자라 할 수 있는 연암 박지원조차도 『열하일기(熱河日記)』에서 “규중여인이 시를 짓는다는 것이 원래부터 좋은 일이 아니다. 조선의 한 여자 이름이 중국에까지 퍼졌으니 대단히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인들은 일찍이 이름이나 자를 찾아볼 수 없으니 난설현의 호 하나만으로 과분한 일이다. 후에 재능 있는 여자들이 이를 밝혀 경계의 거울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다.

17세기 초에 시작된 표절 논쟁은 지금까지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허균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자 그의 가문을 폄하한데서 기인한 매도라는 설이 대부분이다. 허균은 그의 시집 『학산초담』을 통해 난설현의 시를 설명하면서 “이 시들은 유몽득이 체를 본받았지만, 오히려 그보다 맑고 뛰어났다. 또한 「유선시」 백 편을 지었는데, 모두 광경순의 남긴 뜻을 이어 받았지만, 조오빈과 같은 무리들이 따라오지 못했다. 작은 형님과 이익지까지도 누님의 시를 흉내 내었지만, 모두들 누님의 울타리 안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누님은 참으로 하늘 선녀의 글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말 할만하다.”라고 했으며, 서애 유성룡은 허균이 부탁해서 쓰게 된 발문에 “이상하다. 부인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허씨 집안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라고 쓰고 잘 보관하여 후세에 길이 전할 것을 권하며 허난설현의 시를 높이 평가했다. 이 외에도 중국 시인 주지번은 “규방의 여인으로서 문장을 짓는다는 것은 역시 천지와 산천의 신령스런 기운이 뭉쳐진 것이니, 역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티끌 나부끼고 나부껴 뺄어나면서도 화사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뼈대가 뚜렷하다.”며 선녀 쌍성과 비경에 버금간다고 극찬하였다. 역시 중국 시인 양유년도 『난설현집』 서문에 “퍼 놓고 외우니 슬프나 마음 상치 않고, 즐거우나 음란치 않은 소리는 옛 시가 다시 빛을 발하는듯 하고, 세속 밖에서 초연하게 나부끼는 것 같은 느낌은 진실로 인간 세상에 흔한 바가 아니다.”라고 평하였다.

허난설현은 세 가지 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요, 두 번째는 남편 김성립과 결혼한 것이고, 세 번째는 조선 땅에 태어난 것이다. 그만큼 허난설현은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 따라서 파격적인 시가 많고 주제가 다양하며,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들이 많다. 허난설현은 그 시대에 여성의 주제 의식을 추구한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난설현 시를 연구한 업적이 많은 장정룡은 『허난설현 평전』에서 난설현의 시문 내

용과 소재적 특징, 문학사적 위치 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첫째, 난설현의 시는 중국 당대의 시풍과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으며 중국의 악부들과도 유사하다. 특히 이백의 시가 난설현 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악부 시는 한나라 때부터 성행하여 성당(盛唐)에 이르러 널리 퍼졌는데 난설현 작품에서 다양하게 보인다. 둘째, 소재적인 측면에서 도교의 신선세계, 궁중, 변방, 가정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난설현은 시를 통해 현실의 고통이나 이상의 괴리를 탈피하고자 선계와 관련된 시를 많이 남겼다. 당대 유교적 질서가 중시 되는 바 그곳에서 시인의 자유정신을 구하고, 여성적 자아의식을 발현하였다. …… 셋째, 시어를 분석해보면 난설현 시의 중심어는 슬픈 공감어인 것이 210수 중 192회이고, 선계의 패물이 빈도수에 있어 316회인데 이중에서 옥(玉) 88회를 포함하여 옥과 같은 뜻의 경(瓊)과 요(瑤)를 다하면 134회나 사용되었다.

그의 시는 신선사상이 투영된 「유선사(遊仙詞)」 87수가 있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계의 동경, 신선 찬양, 선인상 칭송, 선인과의 교유 등으로 현실세계를 신선세계로 환치시켜 문학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궁중사를 읊은 「궁사(宮詞)」도 20수나 되는데 모두 칠언절구로 규방의 처지를 은유로 표현하기도 했고, 여성 궁인들을 통해 자아의 모습을 투영시키기도 했다.

오빠 허봉의 귀양살이와 남편 김성립의 외도로 인해 변방의 생활모습을 묘사한 변방 시가 18수나 된다. 또 가난한 여인의 정한으로 자신을 표현한 「빈녀음(貧女吟)」이 있고, 허봉에게 보낸 시도 8수나 된다. 『난설현집』에는 오언고시 15수, 칠언고시 8수, 오언율시 8수, 칠언율시 13수, 오언절구 24수, 칠언절구 142수를 싣고 부록으로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과 「한정일첩」, 「몽유광상시서」와 「오언고시」 1수가 실려 있다.

난설현은 이 외에도 수많은 시 창작으로 비통한 자신의 처지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탁월하게 승화시켜 특유의 문학세계관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본인의 유언에 따라 불살라지고 허균에 의해 복원되거나 발견된 213수가 전해진다.

허난설현의 주요 작품

鞦韆詞(추천사)

隣家女伴鞦韆遷(린가여반경추천)

結帶蟠市學半仙(결대반시학반선)

그네뛰기

이웃집 벗님네와 내기 그네를 뛰었지요.

띠를 매고 수건 두르니 마치 선녀가 된 것 같았어요.

風送綵繩天上去(풍송채승천상거) 바람차며 채색 그네 하늘로 날아오르니
佩聲時落錄楊煙(패성시낙녹양연) 조리개소리 땡그랑 푸른 버들엔 아지랑이 피어나네요.

采蓮曲(채연곡)

秋淨長湖碧玉流(추정장호벽옥류)
荷花深處繫蘭舟(하화심처계난주)
逢郎隔水投蓮子(봉랑격수투연자)
遙被人知半日羞(요피인지반일수)

연밭 따는 노래

가을 호수 맑고 푸른 물 구슬 같아
연꽃 핀 깊은 곳에 목란 배 매었지
임을 만나 물 건너 연밭 따 던지고는
행여 누가 보았을까 한나절 부끄러워

閨怨(규원)

錦帶羅裙積淚痕(금대나군적루흔)
一年芳草恨王孫(일년방초한왕손)
瑤箏彈盡江南曲(요쟁탄진강남곡)
雨打梨花畫掩門(우타이화주엄문)

비단 띠 비단 치마에 눈물자국 겹쳤으니
해마다 봄풀을 보며 왕손을 원망해서랍니다.
아쟁을 끌어다 강남곡을 끝까지 타고나자
빗줄기가 배꽃을 쳐서 낮에도 단 앓답니다.

秋恨(추한)

絳紗遙隔夜燈紅(강사요격야등홍)
夢覺羅衾一半空(몽각라금일반공)
霜冷玉籠鸚鵡語(상냉옥농앵무어)
滿階梧葉落西風(만계오엽낙서풍)

붉은 비단으로 가린 창에 등잔불 붉게 타는데
꿈 깨어보니 비단 이불이 절반 비어 있네요.
서리 차가운 새장에선 앵무새가 지저귀고
섬돌에는 오동잎이 서풍에 가득 떨어졌네요.

感愚(감우)

盈盈窓下蘭 枝葉何芬芳(영영창하란 지엽하분분)
西風一被拂 零落悲秋霜(서풍일피불 영락비추상)
秀色縱凋悴 清香終不死(수색종조취 청향종불폐)
感物傷我心 涕淚沾衣袂(감물상아심 체루침의매)

하늘거리는 창가의 난초 가지와 잎 그리도 향그
럽더니
가을바람 잎새에 한번 스치고 가자 슬프게도 찬
서리에 다 시들었네
빼어난 그 모습은 기울어져도 맑은 향기만은 끝
내 죽지 않아
그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져 눈물이 흘러
옷소매를 적시네

哭子(곡자)

去年喪愛女(거년상애녀)
今年喪愛子(금년상애자)
哀哀廣陵¹土(애애광릉토)

지난해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이여

1 廣州의 다른 이름.

雙墳相對起(쌍분상대기)	두 무덤 나란히 마주하고 있구나
蕭蕭白楊風(소소백양풍)	백양나무 가지 위 바람 쓸쓸히 불고
鬼火明松楸(귀화명송추)	도깨비 불빛만 무덤 위에 번뜩이는데
紙錢招汝魄(지전초여백)	지전을 살라 너희들 혼백 부르고
玄酒奠汝丘(현주전여구)	무덤 앞에 맹물 한 잔 부어놓는다
應知弟兄魂(응지제형혼)	가연은 남매의 외로운 영혼
夜夜相追遊(야야상추유)	밤마다 서로 만나 놀고 있으려나
縱有腹中孩(종유복중해)	뱃속에는 어린이 들었건만
安可冀長成(안가기장성)	어떻게 무사히 기를 수 있을까
浪吟黃臺詞(낭금황대사)	하염없이 슬픈 노래 읊조리면서
血泣悲吞聲(혈읍비탄성)	피눈물로 슬픔을 삼키누나

宮詞(궁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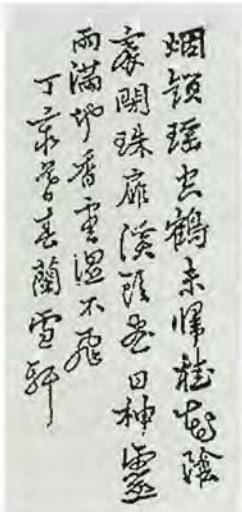
紅羅袂裏建溪茶(홍라복과건계차)	다홍 보자기에다 건계산 차를 싸서
侍女封緘結出花(시녀봉함결출화)	시녀가 봉함하여 꽃으로 맺음하네
斜押紫泥書勅字(사압자니서래자)	비스듬히 인주를 찍어 칙자를 누르고는
內官分送大臣家(내관분송대신가)	내관들이 대신 댁으로 나누어 보내네

遊仙詞(유선사) 1

星影沈溪月露霑(성영심계월로젖)	별 그림자 계곡에 잠기고 달 이슬 촉촉한데
手授裙帶立環簷(수수군대입경첨)	손으로 치마 끈 만지며 추녀 끝에 섰네
丹陵羽客辭歸去(단릉우객사귀거)	단릉이 신선을 하직하고 돌아오려 고 하니
自下珊瑚一桁簾(자하산호일연렴)	스스로 산호 한 꾸러미를 내려주셨 네

夢遊廣桑山詩(몽유광상산시)

碧海侵瑤海(벽해침요해)	푸른 바다는 구슬 바다에 스며들고
靑鸞依彩鸞(청난의채난)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 기대누나
芙蓉三九朶(부용삼구타)	스물일곱 송이 아름다운 연꽃 늘어져
紅墮月霜寒(홍타월상한)	달빛 찬 서리에 붉게 떨어지누나



허난설현 친필 시 유선사

관련 문화재

난설현시집목판초간본(蘭雪軒詩集木板初刊本)

지정사항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4호

지정일 : 1998년 9월 5일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3139번길 24(죽헌동)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난설현시집』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시인 허난설현이 남긴 210여 수의 작품을 모은 시문집으로, 동생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이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책의 간행 기록이 없어서 언제 발간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허균의 발문으로 보아 1608년(선조 41)으로 추정된다.

허난설현묘(許蘭雪軒墓)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90호

지정일 : 1986년 9월 7일

소재지 :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29-5

허난설현의 묘는 현재의 위치에서 약 500m 우측에 있었으나 1985년 현 위치로 이전되었다. 문인석을 제외한 묘비·장명등·상석·망주석·돌레석은 근래에 만들어졌다. 묘비의 비문은 이승녕이 지은 것이며, 묘의 우측에는 1985년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에서 세운 시비(詩碑)가 서있다. 시비에는 허난설현의 「곡자시(哭子詩)」가 새겨져 있으며 시의 대상인 두 자녀의 무덤이 허난설현 봉분 좌측 전면에 나란히 있다.



「허난설현 시비」

강릉 이광노 가옥 : 허난설헌 생가

지정사항 : 강원도 문화재자료 59호

지정일 : 1981년 1월 17일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난설헌로 193번길

허난설헌이 태어난 곳이자 그의 아버지 허엽이 살던 집으로 지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허난설헌 생가로 부르기도 하지만 문화재의 정식 명칭은 '강릉 이광노 가옥'이다.

행랑채의 솟을대문을 지나 사랑마당을 거치면 ㄱ자형의 본채가 있다. 본채는 사랑채와 안채로 구분하고 그 사이에는 광을 배치하였다. 안채는 앞면 5칸·옆면 2칸 규모의 건물로 부엌과 방, 마루로 되어 있는데 건물 앞뒤로도 칸을 구분한 겹집 형태이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솟을대문과 협문을 두고 공간을 구획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후원과 사랑마당은 한국 전통의 정원 형태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갖가지 화초와 나무들이 잘 정돈되어 있다.

관련 문헌 자료

문헌 자료

- “허난설헌의 시는 근대 규수(閨秀)들 가운데 제일 위이다. 그러나 참의(參議) 홍경신(洪慶臣)은 정랑(正郎) 허적과 한집안 사람처럼 지내는 사이였는데 평소 ‘난설헌의 시는 2~3편을 제외하고는 다 위작이고, 백옥루상량문도 그 아우 균(筠)이 사인(詞人) 이재영(李再榮)과 합작한 것이다.’ 했다.” — 이수광 『지봉유설(芝峰類說)』
- 『난설헌집』에 고인(古人)의 글이 절반 이상이나 전편으로 수록되었는데, 이는 그의 아우 균이 세상에서 미처 보지 못한 시들을 표절 투입시켜 그 이름을 퍼뜨렸다.” — 신희 『상촌집(象村集)』

- 누님의 시문은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들이다. 유선시(遺仙詩)를 즐겨지었는데, 시어가 모두 맑고 깨끗하여 음식을 익혀 먹는 속인으로는 미칠 수가 없다. 문(文)도 우뚝하고 기이한데 사륙문(四六文)이 가장 좋다. 백옥루상량문이 세상에 전한다. 중형이 일찍이 “경번의 재주는 배워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모두가 이 태백(李太白)과 이장길(李長吉)의 유음(遺音)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아, 살아서는 부부금슬이 좋지 못했고, 죽어서는 제사를 받들 자식이 없으니, 옥이 깨진 원통함이 한이 없다. — 허균 『학산초담』
- 지금 전하는 난설현 집은 그 친정의 건연에 있는 약간 유고인 바 그가 돌아간 뒤 18년이 되든 해 명의 사신 주지번, 양유년 등이 이 유고를 얻어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 간행 성행하였고 — 이병기 『조선명인전』 하
- 허경번은 조선 명종 18년, 호 초당, 본관 양천인 허엽과 강릉 김씨 슬하에서 강릉 초당리 외조부 댁에서 태어나니 신사임당과 함께 강릉의 두 여류이다. — 황재균 『한국고전여류시연구』
- 소재적인 측면에서 도교의 신선세계, 궁중, 변방, 가정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난설현은 시를 통해 현실의 고통이나 이상의 괴리를 탈피하고자 선계와 관련된 시를 많이 남겼다. 당대 유교적 질서가 중시 되는 바 그곳에서 시인의 자유정신을 구하고, 여성적 자아의식을 발현하였다. — 장정룡 『허난설현 평전』

관련 설화와 전설

사천 애일당 집터의 잉태 설화

허난설현이 태어난 애일당은 사천면 하평마을 언덕에 있었는데 외조부 김광철이 살았던 집이다. 판교리라는 곳에 가면 김씨판인데, 이설당과 애일당의 두 명당지가 있다. 그중 하나인 애일당에는 형 김광철과 그의 동생 김광진이 살았다. 김광철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이 있었는데 사위를 보았으나 참판택의 명기(名氣)가 외손에게로

갈까봐 딸과 동침을 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설당이 잔치를 치르게 되어 딸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딸을 찾으니 실내부인이 딸이 하혈을 해서 집으로 보냈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후 “네 뱃속에는 옥동자가 들었을 터이니 몸조심 잘 해라”라고 일러두었다. 열 달이 지나 옥동자를 낳았는데 그가 하곡 허봉이다. 하평마을은 허봉의 호를 따서 그리 부르게 된 것이다. 연이어 딸과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난설현과 교산이다. 이들은 모두 명당지에서 태어나 대문장가가 되었다.

초당 땃골 집터이야기

땃골이란 호칭은 현남면 지금의 영양에 속해 있는 현남면 죽리를 일컫는다. 대나무가 있어서 땃골이라고 한다. 그런데 난설현의 할머니가 그곳에서 시집왔기 때문에 택호를 땃골이라 하여 땃골집이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이 집터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 해서 경포 갯물보다 수면이 낮았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물이 차지 않았다. 그만큼 땃골터가 명당이어서 명현이 난다.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국이라 허씨 5문장이 났다고 한다.

허난설현 묘에 관한 설화

난설현은 15세에 안동 김씨 김성립과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고,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시를 잘 짓는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 친절은 가세가 기울었으며, 자식을 연이어 들썩이나 잃은 난설현은 봉건적인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가 가득해졌다.

어느 날 꿈에 광상산에 오르게 되었다. 오색 보물들이 온통 산을 덮었으며, 폭포는 옥구슬을 굴리며 흘러내렸고, 난새와 학과 공작이 춤을 추며 날았다. 그러나 연못의 연꽃은 서리를 맞아 시들어버렸다. 선녀들이 나와서 영접을 하고 선인들은 신선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그녀에게 아름다운 시 한 수를 청해 듣기를 원했다. 한 구절을 읊으니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하였는데, 갑자기 부용꽃 스물일곱 송이가 떨어져내렸다. 그녀는 얼마 후 「몽유광상산」이란 시를 쓰고 세상을 떠났다. 죽음을 예견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꿈속의 광상산(초월읍 지월리)에 묻히게 되었다.

>> 허난설현 연보

- 1563(명종 18) 1세, 강릉 초당 생가에서 허엽의 삼남 삼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남.
 1570(선조 3) 8세,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을 지어 신동 소리 들음.
 1577(선조 10) 15세, 김성립과 혼인.
 1585(선조 17) 23세,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시 「몽유광상산」을 지음.
 1589(선조 22) 27세, 짧은 나이로 세상을 하직함. 유해는 초월읍 지월리 경수산에 묻힘.
 1590(선조 23) 11월, 동생 허균이 친정에 흠어져 있던 난설현의 시와 자신이 암기하고 있던 것을 모아서 『난설현집』 초고를 만들고, 유성룡에게 서문을 받음.
 1598(선조 31) 정유재란 때 명나라에서 원정 온 문인 오명제에게 허균이 난설현의 시 200여 편을 보여줌. 이 시가 『조선시선』, 『열조시선』 등에 실림.
 1606(선조 39) 3월 27일, 허균이 중국 사신 주지번, 양유년 등에게 난설현의 시를 모아서 전해줌으로써 『난설현집』이 중국에서 간행됨.
 1607(선조 40) 4월, 허균이 『난설현집』을 목판본으로 출판. 발문은 태안 피향당에서 지음.
 1711(숙종 37) 일본에서 분다이야 지로베이에 의하여 『난설현집』이 간행됨.

>> 참고문헌

『양천허씨』 족보.

강릉시, 『허씨 오문장가 한시 국역집』, 2000.

김성남, 『허난설현』, 동문선, 2003.

장정룡, 『허난설현 평전』, 새문사, 2007.

광주문화원, 『너른고을 옛이야기』, 2008.

광주시사편찬위원회, 『광주시사』, 2010.

경기문화재단, 『한시로 읽는 경기』, 2011.

최문희, 『허난설현』, 다산북스, 2011.

문화재청(<http://www.cha.go.kr/>).

양천허씨대종회(<http://www.heo.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교산·난설현 선양회(<http://www.hongkildong.or.kr/>).

역사 고증에 철저한 실학자, 안정복

안정복이 살아온 길과 인간상



순암집



하학지남 안정복 저

가계와 살아온 흔적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庵)·한산병은(漢山病隱)·우이자(虞夷子)·상헌(橡軒). 시호는 문숙(文肅). 충청도 제천현(堤川縣) 유원(俞院) 마을에서 안극(安極)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선대로부터 남인에 속하였고, 태어날 당시 조부 안서우(安瑞羽)가 남인 학자 권유(權愈)의 문인으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있었다. 4살 때 서울 건천동 외가에, 6살 때 전라도 영광 월산에, 9살 때 다시 서울 남정동에 올라와 살았다. 14살 때 조부가 경상도 울산부사로 전임되자 가족이 모두 울산으로 이사하였고, 1년 뒤 조부가 관직을 사임하고 전라도 무주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함에 따라 안정복도 그 곳에서 10년간량 살았다. 1735년(영조 11) 24살 때 조부가 별세하자 이듬해 온 가족이 경기도 광주부 경안면 덕곡(현 광주시 중대동 텃골) 선영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여생을 마쳤다.

덕곡에 이사한 안정복은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주경야독하였다. 27살 때 『임관정요(臨官政要)』 초



안정복이 강학했던 이택재

고를, 29살 때 『하학지남(下學指南)』과 『정전설(井田說)』을, 30살 때 『내범(內範)』을 저술하였다. 33살 때에는 서울에서 실학자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증손 유발(柳發)을 만나 유형원이 저술한 『반계수록(磻溪隧錄)』 등을 접하면서 그의 실학을 익히게 되었다. 1746년 35살이 되던 해 안산(安山)의 성호(星湖) 이익(李瀾)을 찾아가 문하생으로 받아주기를 청하여 성호문인이 됨으로써, 그동안 독학으로 일관해 온 그의 학문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다. 38살 때 동몽교관(童蒙敎官)을 거쳐 그해 만령전(萬寧殿) 참봉을 제수받았다. 이어 40살 때 의영고(義盈庫) 봉사(奉事), 41살 때 정릉(靖陵) 직장(直長), 42살 때 귀후서(歸厚署) 별제(別提), 1754년 43살 때 사헌부 감찰(監察)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1754년 아버지 안극의 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덕곡 향리로 돌아와 이후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매진하였다. 이때 성호의 부탁으로 집필하던 『이지수어(李子粹語)』와 『임관정요』를 완성하였으며, 1760년에는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역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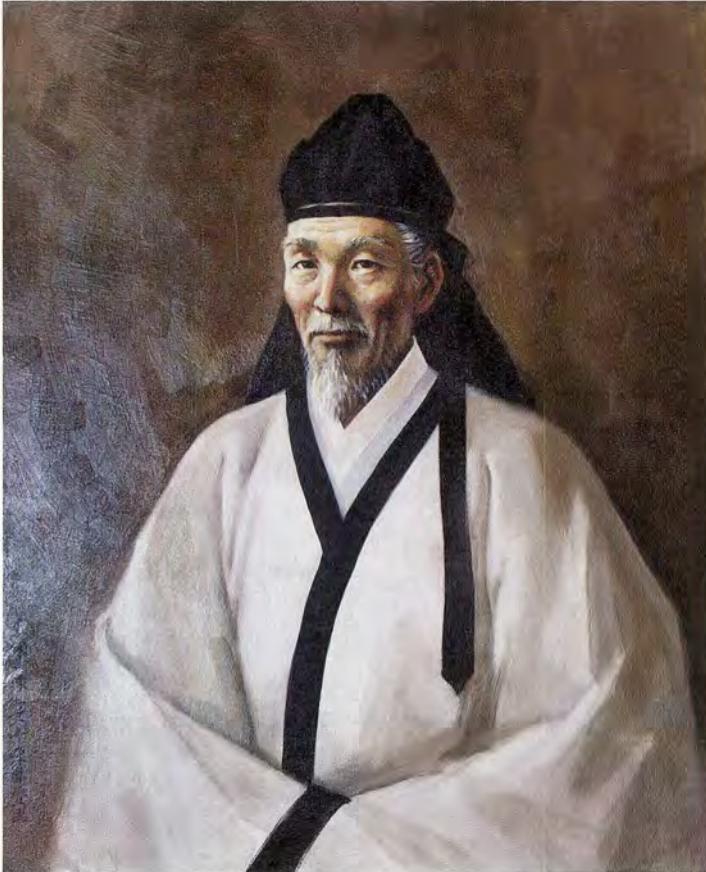
『동사강목(東史綱目)』 초고를 집필했다. 2년 후인 51살 때 성호의 저서 『성호사설(星湖僊說)』을 『성호사설유선(星湖僊說類選)』으로 다시 정리하였고, 56살 때에는 조선 역사서 『열조통기(列朝通紀)』를 저술하였다. 61살에 세자 교육기관인 익위사(翊衛司) 익찬(翊贊)에 임명되어 서연(書筵)에 8차례 참여하였고, 65살에는 충청도 목천(木川) 현감에 임명되어 2년 6개월 재임하는 동안 장빙고(藏氷庫)·방역소(防役所)·사마소(司馬所)를 설치하는 등 여러 치적을 남겼다. 이어 1781년(정조 5) 70살 때 정조의 명에 따라 『동사강목』을 조정에 올렸으며, 72살에 돈녕부(敦寧府) 주부(主簿)에 나아갔고, 같은 해 장릉령(長陵令)과 헌릉령(獻陵令)에 제수되어 수개월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귀가하였다. 73살 때 의빈(儀賓) 도사(都事)와 익위사 익찬에 잠시 나아갔으나 이후에는 노령과 병환으로 조정의 부름이 있어도 나아가지 않거나, 나아가더라도 곧 사임하고 돌아왔다.

노년기의 안정복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성호학파를 이끌어가는 원로로서 당시 성호학파의 일부 젊은 학자들이 천주교에 심취함에 따라 안정복은 정부의 박해를 예견하고 이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안정복을 멀리함에 따라 성호학파가 분열되는 위기에 봉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780년대 노년기 안정복은 천주교를 주된 대상으로 적극적인 벽위 노선을 걸었는데, 천주교를 비판하는 글 「천학문답(天學問答)」도 이때 쓴 것이다. 일생을 자주 혼절하는 중병 때문에 세 번의 유서를 남길 정도로 병고에 시달렸으며, 말년에는 천주교와 관련된 성호학파 젊은 이들에 대한 설득 잡업도 포기해야 하면서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다.

1789년 78살 되던 해, 조정에서는 그의 학덕을 높이 평가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품계를 높여 주었고, 6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어 7월 다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광성군(廣成君)에 봉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791년 7월 20일,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801년(순조 1) 9월 자헌대부(資憲大夫) 의정부좌참찬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議政府左參贊兼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都總管) 광성군(廣成君)을 추증받고, 1871년(고종 8) 3월 문숙공(文肅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학자적 기풍과 검소한 인품

안정복은 학자적인 기풍과 서민적인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왕성한 독서광이었다. 책 살 돈이 없으면 빌려 읽으면서 주야로 베끼고 스스로 제본하여 장서를 만들어 수십 년 동안 만든 책이 천 권이 넘었고, 그 책을 모두 읽어 슬쩍 보기만 하여도 그



안정복

내용을 짐작하였다고 한다. 특히 역사학을 매우 좋아하였고 시작(詩作)과 같은 글짓기는 즐겨하지 않았다. 그는 정조가 세자로 있을 때 “제왕의 학문은 글짓기를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라고 교육하였고, 글짓기가 아무리 정교하여도 실학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또한 직언(直言)을 잘 하였다. 상대방의 언행에 못마땅한 점이 보이거나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지적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성호학파의 젊은 학자 가운데 재능 있는 인물로 지목되던 권철신(權哲身)과 이기양(李基讓)이 안정복을 멀리하였던 원인 가운데에는 그들의 단점을 서슴없이 지적하는 직설적

1 『順菴集』 순암선생행장. “先生因奏曰 帝王之學 固不以文辭爲貴.”

성격 탓도 있었다. 더불어 그는 아침을 매우 혐오하였으며, 역사를 쓸 때에는 사실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활은 매우 검소하였다. 손수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그에 맞게 하였고[量入爲出(양입위출)], 집을 짓고 분수에 맞는 일을 하면서 즐긴다는 뜻의 '분의당(分誼堂)'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또 자신이 죽으면 부고를 돌리지 말고, 수의도 입던 것을 빨아 쓰도록 유언하였다. 그는 과거를 통한 영달이나 명예를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빈곤편지의 명예 같은 것은 본시 자신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그 밖에도 안정복은 자신의 몸가짐이나 학문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남들이 억지로 자기에게 '학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였다. 직선적이며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성격이면서도 자신을 찾는 문하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하였다. 권철신이나 이기양 등이 천주교 문제로 자신을 멀리하였을 때, 이들을 천주교로부터 손을 떼게 하려 했던 것도 조정의 박해로부터 문하생들을 지키기 위한 애정 때문이었다. 목천 현감으로 재직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녹봉을 줄여 굶주린 백성을 진휼할 정도로 애민 정신도 깊은 목민관이었다.²

성호문인 안정복과 성호학파

성호문인이 된 안정복과 성호의 가르침

전라도 무주에서 경기도 광주로 이사 온 안정복은 10년 동안 스승 없이 주경야독으로 독학하였으며, 실학자 유형원의 저술을 접하여 읽고 유형원의 실학사상을 익혔다. 그러나 독학에 따른 학문적 한계에 부딪치자, 1746년(영조 22) 10월 안산군 첨성리의 성호 이익(李瀾)을 찾아가 문하생으로 받아주기를 청하였다. 방문 첫날 이익과 안정복은 밤늦도록 여러 경전에 대한 학문 토론을 하였는데, 이익은 안정복에게 자득

²안정복의 생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필자의 저서 『순암 안정복의 동시강목 연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23-42쪽 참고.

(自得)을 통한 공부 방법을 비롯하여, 의문을 갖고 지식을 쌓아 실천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를 하였다. 이 첫 방문을 계기로 안정복은 성호문인이 되었다. 이후 만남보다는 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익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호학파의 멤버가 됨으로써 다른 성호문인들과 학문 교류를 하며 그 폭을 넓혀 갔다. 그동안 독학하며 갈고 닦아온 학문이 정착하는 계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익과 안정복의 만남은 1746년 10월 17일을 비롯하여 1747년 9월, 1748년 12월, 1751년 7월 등 모두 네 번에 지나지 않았다. 스승과 제자 관계이지만 가르침과 배움은 모두 편지를 통하여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안정복이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보내면 이익이 글로 답하는 형식을 갖추어 수백 통이 오갔다. 사제시간이 되었지만 안산을 왕래하며 수업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독서를 하거나 집필을 하다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편지로 질의를 하였던 것이다.

1746년부터 1763년까지 약 17년 동안 안정복이 이익에게서 받은 가르침은 다양하다. 각종 예론(禮論)을 비롯하여 경전의 분석, 『동사강목』 집필에 따른 역사 고증, 성리학 토론,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서학(西學)의 분석과 비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의견 교환이 있었고, 선배 성호문인 윤동규(尹東奎)나 이병휴(李秉休)와도 빈번한 학문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동사강목』 집필 때에는 역사 분야에 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익과 안정복은 학문적 성격도 비슷하였다. 이익은 본시 공맹(孔孟)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실천하는 것을 실학으로 여겼다. 안정복 또한 성호문인이 되기 전부터 실천을 중시한 경전 공부를 중시하였다. 요컨대 하학(下學)에 매진하여自得(自得)하고 실천하는 학문을 하는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익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첫째, 성리학에 매진하기 보다는 경전 공부에 충실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익은 본시 하학을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실학(實學)이라 하였고, 처음부터 성리학에 매진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익의 가르침은 이미 하학공부가 몸에 밴 안정복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 둘째, 이익의 성리학을 배웠다. 안정복은 일찍이 주자(朱子)의 『성리대전(性理大全)』으로 성리학을 공부하였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익이 저술한 『사칠신편(四七新編)』을 읽고 성리학에 대한 자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안정복은 성리학을 공부하면서도 스승 이익처럼 젊은이들이 성리학에 매진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셋째, 역사학과 역사 인식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본시 성호 이익도 종래

우리나라 역사서에 불만이 많아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착수하지 못하다가 안정복이 강목필법(綱目筆法)으로 우리 역사를 다시 써야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적극적으로 찬동하였다. 『동사강목』의 범례(凡例)와 본편의 체제, 고증에 이르기까지 안정복은 이익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이익은 자신은 물론이고 문인 윤동규(尹東奎)나 이병휴(李秉休) 등에게도 안정복의 『동사강목』 집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고대사와 옛 북방 강역에 관한 고증에서 이익은 물론 동료 성호문인의 도움이 컸으며, 고증 내용이 풍부한 이익의 저서 『성호사설』을 크게 활용하였다. 넷째, 예론(禮論)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예론은 이익이 매우 중시한 학문 분야로써 안정복이 처음 그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앞으로 깊이 연구해 볼 것을 권하였다. 당대 성호문인들이나 그 후 성호학통의 학자들이 관심이 많던 학문 분야이다. 특히 가례(家禮)에 관한 질의응답이 많았다. 다섯째, 서학(西學) 인식 또한 큰 영향을 받았다. 안정복 역시 서학 서적을 읽고 비판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천주교 서적을 읽고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이익의 열린 학문 태도는 안정복의 신사조에 대한 시야를 보다 넓게 해주었다. 끝으로 현실 개혁 의식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성호사설』과 『곽우록』에 나타난 이익의 현실 개혁 인식은 안정복이 『동사강목』 사론(史論)을 통하여 주장한 현실 개혁과 목민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침서로 쓴 『임관정요』에서 크게 활용되었다.

성호문인으로서의 활동

성호학파는 성호 이익과 학문을 교류하거나 그의 학문을 따르던 학자들로 이루어진 학파를 말한다. 당대에는 주로 근기지방 남인 학자들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영남이나 호서지방 학자들도 적지 않게 안산의 성호 이익을 방문하여 학문 교류를 하였다. 특히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영남지방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성호문인이 된 안정복은 윤동규·신후담·이병휴와 함께 성호학파를 이끄는 중심 멤버로 활동하였다. 이들 성호학파의 주요 멤버 가운데 가장 늦게 성호문인이 되었지만 이익으로부터 학문적 재질을 인정받아 성호학파의 학문을 대표하는 학자로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이익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언행을 모아 스스로 초고한 『도동록(道東錄)』을 안정복에게 편차 정리하도록 하여 『이지수어(李子粹語)』라는 이름으로 완성하였고,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쓰겠다는 의사를 보였을 때 쾌히 찬동하였던 것이다.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이익 자신도 적극적으로 집필을 도왔고, 문인들에게도 도와

주도록 당부하였다. 비록 『동사강목』을 안정복 개인이 집필하지만, 이익은 자신과 성호학파를 대변하는 역사서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선배 성호문인이었던 윤동규와 이병휴는 이익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안정복의 집필에 협조하였고, 안정복은 수시로 이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집필에 많은 자문을 받았다. 이처럼 성호학파 여러 학자들이 집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동사강목』은 사실상 성호학파를 대변하는 역사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안정복은 성호문인으로서 성호학파를 대표하는 학자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1763년 성호가 타계한 뒤에는 이병휴가 주관하던 성호유고 정리에도 윤동규와 함께 참여하였다.

안정복은 성호학파의 결속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성호문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는 조정자적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성호학파를 실질적으로 이끌던 윤동규와 이병휴가 성리논쟁을 벌이거나 성호유고 정리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는 중간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도록 회유함으로써 갈등 없는 성호학파 운용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윤동규와 이병휴는 각각 안정복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안정복은 성호학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윤동규·이병휴와 함께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이익이 타계한 뒤 이들은 성호학파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1770년 무렵 노년기에 접어들자 앞으로 성호학파를 이끌어갈 후계자 양성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병휴·윤동규·안정복 등 원로 성호문인들은 이전부터 권철신과 이기양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성호 이익도 생전에 권철신을 재능 있는 인재로 평가한 바 있었다. 이병휴와 윤동규는 이들을 성호학파를 이끌어 갈 인물로 키울 것을 안정복에게 부탁하였다. 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안정복으로부터 수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정복이 이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안정복은 윤동규와 이병휴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맡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이들 젊은 학자들과 화합이 되지 못하였다. 조선 주자학 사회에서 이단시되던 양명학(陽明學)과 천주교 등에 관심이 많던 이들이 정통 유학을 고집하는 안정복의 권고를 수용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멀리하였던 것이다.

1773년과 1776년에 윤동규와 이병휴가 각각 타계한 후, 1780년대 들어 상황은 더욱 나빠져 갔다. 젊은이들의 천주교에 대한 강한 관심과 이를 막으려는 안정복의 만류는 점차 성호학파의 분열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더욱이 천주교 박해가 가시화 되면서 이를 예견한 안정복의 초조함은 더해갔다. 따라서 노년기 안정복은 천주교 문제로 분열

된 성호학파 유지를 위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벽위(闢衛) 사상을 더욱 고수하는 한편, 자신의 문하생들을 단속하며 성호학통을 지키는데 주력하였다.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하학에 기본적인 안정복 실학

하학(下學)은 경전에 있는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성현의 가르침을 익히고 실천하는 유학을 말한다. 효(孝)와 예(禮)가 중심이 되는 윤리적 차원의 유학으로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사고(思考) 체계가 요구되고 갑론을박하며 결론이 나기 어려운 성리학(性理學)과는 거리가 있다. 안정복은 학문의 기본을 바로 이 하학에 두고 있었다. 그는 이기론(理氣論)을 이해하는 것은 얽히고설킨 털이나 실 오라기 뭉치를 푸는 것과 같이 어렵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먼 것에 힘쓰고 가까운 것을 소홀히 하는 폐단이 참으로 가소롭다.”고 비판하였다. 더 나아가 이기논쟁을 기생이 예(禮)를 논하는 것과 같다고 혹평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는 뛰어난 선현(先賢)들도 깨닫지 못했던 이기론 공부에 몰두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소용되는 하학에 전념하라고 가르쳤다.

그가 이와 같이 강조한 하학은 효와 예가 핵심인 공맹의 가르침을 익혀 가정과 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몸소 실천을 하면서 터득하고 상달(上達)하여 성인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다. 효와 예를 익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이 하학이 바로 안정복 실학의 기본이고 출발이었다.

이렇게 윤리에 기초한 그의 실천 실학은 일상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는 실사(實事)와 당시 고통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실학사상으로 적용 확대되어 나아갔다. 그가 『동사강목』이나 『임관정요』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현실 비판과 개혁을 주장하였던 것도 기본적으로는 하학에 바탕 한 실학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천주교 비판

안정복은 이마두(利瑪竇, 마테오리치)가 지은 『천주실의(天主實義)』를 비롯한 천주교 서적을 읽고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냈다. 그의 초기 서학 인식을 보면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지리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유학자의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부정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살아서 천주를 섬기는가의 여부로 천대(天臺)의 심판에 따라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는 천주의 교리와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는 천주교를 사람이 죽은 뒤 내세에 영혼이 천당에 오를 것인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늘의 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가르침이라 하면서, 현세의 선악에 따라 천당이나 지옥에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현세만을 인정하는 유학의 일원적(一元的) 세계관으로 현세와 내세의 존재를 인정하는 천주교의 이원적(二元的) 세계관을 부정하는 비판이라 하겠다.

그는 1780년대 성호학파의 젊은이들이 천주교를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신앙으로써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자, 지금까지 천주교에 대한 학문 이론적 비판에서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천주교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호학파가 분열 상태에 놓여있는 데다가 당파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인의 정치적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고, 조정의 박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주교에 발을 들여놓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안정복과 혈연, 지연, 학연으로 가까운 사람이 많다는 점도 그를 고민스럽게 하였다. 권철신의 동생 권일신(權日身)은 안정복의 사위인데 장인에게 천주교 입교를 권면할 정도로 천주교는 그의 집안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1780년대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천주교 비판의 글 「천학문답(天學問答)」을 지어 돌려 읽도록 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인간이 하늘을 섬기는 일은 유교에도 있으며, 천주교를 불교의 찌꺼기 이론으로써 내세를 위한 가르침으로 현세 인간의 윤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지창조나 아담과 이브의 인류조상설은 이치에 맞지 않고, 성경은 대개 신성한 사람이 나타나면 만들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한마디로 그의 천주교 비판 수단은 기본적으로 내세를 부정하는 유학자의 합리주의적 현세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말년에 행해진 그의 천주교 비판과 배척은 철저한 대외 벽위사상으로 승화되어 그의 후학들에게 전승되었다. 안정복의 수제자 황덕일(黃德壹)과 황덕길(黃德吉) 형제

는 스승의 천주교 배척 사상을 그대로 이어 받음은 물론 그들의 문하생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하였다. 안정복 계열 성호학통은 20세기 초까지도 철저하게 사승(師承)을 통하여 벽위사상을 이어갔다는 특징이 있다.³

안정복의 역사 인식과 『동사강목』 편찬

안정복의 역사학과 역사 인식

안정복은 역사를 군주와 신하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치 기록이라 하면서 권선징악(勸善懲惡)과 교훈(敎訓)을 매우 중시하였다. 역사가는 불의(不義)에 흔들리지 않고 거짓 없이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는 직서주의(直書主義)를 강조하였다. 또한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정통(正統) 체계를 세우고 옳고 그름을 바로잡으며, 강역(疆域)을 분명하게 하고, 고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대의명분(大義名分)에 입각한 도덕을 중시하는 역사관을 지니고 있었는데, '절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역사가의 제일 중요한 도리'라 할 정도로 신하의 충절을 중시하였다. 또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적으로 보았고, 중국을 겨냥한 자주意識이 강하였다.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오랑캐처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중국도 대륙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이고 중국은 중국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독자적인 한국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를 볼 때에는 사건의 성공 여부, 즉 성패(成敗)에 따라 성공하는 측의 편을 들어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패했다라도 의리 여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역사 고증에 철저하였고, 강한 실지회복(失地回復) 의식을 나타냈으며, 우리나라의 옛 강역을 지도로 그려 『동사강목』 앞머리에 붙일 정도로 지리를 중요시하였다.

『동사강목』에 나타난 그의 역사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철저한 역사 고증을 들 수 있다. 그가 역사 고증을 철저하게 요구한 것은 종래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잘못된 기록이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동사강목』을 쓸 때 고증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동사강목』 뒤에 있는 부록은 대부분 '고

3 그 밖에 『동사강목』과 관련한 내용은 필자의 저서 『순암 안정복의 동사강목 연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참고.

이(考異)'라는 방법을 통하여 고증한 내용을 붙여놓은 것이다. 조선시대 역사서 가운데 『동사강목』만큼 고증이 철저한 역사서도 찾아보기 드물다.



동사강목

둘째, 강목체(綱目體) 역사 서술과 역사지리(歷史地理)의 접목을 들 수 있다. 강목체 역사 서술은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역사 서술 방법인

데, 이는 중국 송나라의 주희(朱熹)가 사마광(司馬光)이 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강목체(綱目體)로 다시 재판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서 활용한 서술 방법이다. 역사 사실의 기록을 근간이 되는 강(綱)과 강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목(目)으로 나누어 쓰던 역사 서술 방법이다. 역사지리는 지리 연구를 통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써 조선 후기 실학풍이 유행되던 시기에 역사학자들 사이에 우리나라 옛 강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활용되었다. 안정복은 역사지리를 중요시한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다. 『동사강목』은 편년 형식을 갖춘 강목체 역사서로 역사지리가 크게 활용되었는데, 많은 지리 고증을 하여 「지리고(地理考)」라는 이름으로 부록에 넣었다.

셋째, 한국사의 정통 체계를 확립하여 『동사강목』을 편찬하였다.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확립한 한국사 정통 체계는 '단군조선 → 기자조선 → 마한 → 삼국(정통 없음) → 문무왕 9년(신라가 삼국통일을 완료한 해) 이후의 신라 → 태조 19년(신라가 망한 해) 이후의 고려 → 조선이다. 위만조선과 한사군(漢四郡)은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한(馬韓)을 정통으로 삼아 이에 부속시켰다. 마한정통론(馬韓正統論)은 『동사강목』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단군조선을 정통의 첫머리로 삼아 중국의 요순 시대와 나란히 함으로써 우리 한국사의 체계를 중국과 대등하게 하려는 안정복의 자주적 역사 인식이 돋보인다.

넷째, 사론(史論)이 강화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론은 역사가가 역사를 편찬하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나타내는 글을 말한다. 『동사강목』에

안(按)으로 시작되는 630여 개의 사론을 제시하였는데, 조선 전후기를 통하여 역사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론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역사가가 사실 기록에만 치중하고 자신의 견해를 감추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대체로 역사가들이 인물 평가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안정복은 의리(義理) 여부와 관련하여 거침 없이 시비를 가려 칭찬과 비판을 분명히 하였다. 안정복은 사실 기록 중심의 전통 역사학이 역사가의 해석과 평가가 중시되는 근대 역사학으로 이행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역사학자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동사강목』 편찬을 통하여 역사학과 실학사상을 잘 조화시켰다. 『동사강목』 사론을 통하여 현실 모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슴없이 제시하였다. 사론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현실 개혁을 주장하는 논리로 사용하였다. 현실 개혁과 관련한 사론을 쓰면서 실학자 유형원(柳馨遠)과 이익의 현실 개혁에 관한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실학사상이 안정복의 역사학과 접목되게 했던 것이다.

『동사강목』 편찬과 주요 사론

『동사강목』의 초고는 대략 1756년경에 시작하여 1760년에 이루어졌다. 스승 성호 이익의 지도아래 윤동규와 이병휴 등 성호문인들의 협조로 안정복이 집필하였는데, 편년강목체로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쓴 통사서(通史書)이다. 수권(首卷) 1권, 본편 17권, 부록 2권 등 모두 20권으로 편제되었는데, 본편은 각 권마다 상하(上下)로 나뉘어져 있다.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편찬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종래 우리나라 역사서의 서술 내용과 방법 등에 잘못이 많다는 불만 때문이었다. 편찬의 기본 방향은 철저한 고증, 우리 역사의 정통 체계 확립, 찬탈 행위에 대한 엄한 성토, 엄정하게 시비를 가리는 일, 신하의 충절에 대한 칭찬, 역대 법과 제도에 대한 상세한 밝힘, 강목필법의 준수 등으로 집약된다.

『동사강목』 사론에서 안정복이 중요하게 다룬 문제 가운데 현실 개혁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첫째, 과거제의 도입과 실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글짓기 중심의 과거

를 시무책(時務策)이나 경전(經典) 중심으로 바꾸고, 재능과 지역을 고려한 천거(薦舉)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둘째, 형법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죄의 경중에 따라 엄격한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고문을 근절하며, 연좌제(連坐制)를 없애고, 뇌물수수죄는 엄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민관계에 있어서 처벌보다는 사전 교화(教化) 위주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셋째, 본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을 위해 설치하여 봄에 곡식을 대여했다가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환곡(還穀) 제도가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전락되었다고 보아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 대신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여 스스로 가난을 헤어나게 하는 목적아래 위로는 상평창(常平倉)을 개선하고 아래로는 각 향리에서 사창(社倉)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해방(海防)과 변방 강화 등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대륙으로는 중국이나 북방민족으로부터, 바다로는 일본의 침입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의 침입을 막으려면 수군(水軍)을 증강하여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고, 육지와 섬을 잇는 경보 체제를 강화하여 적의 침입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해방(海防)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이나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으려면 변방의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변방에 나무를 심어 생울타리를 만들어 적군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요소에 병거(兵車, 전차를 말함)를 설치하자고 하였다. 더불어 예부터 무(武)를 업신여기고 문(文)을 높이는 숭문(崇文) 풍조를 지양하고, 국방력 강화에 힘쓰며 요새지를 확보하여 구축하고, 주변국의 정세를 파악하고 정보도 수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에는 무를 숭상하여 매우 강한 나라였는데 신라 때 당나라의 화려한 문화에 빠져 무력이 약화된 이후 고려 때 과거제 실시 이후 숭문억무(崇文抑武) 정책 때문에 국력이 극도로 약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노비천적(奴婢賤籍)의 혁파와 문벌타파를 주장하였다. 먼저 노비의 세습을 명문화한 노비 문서를 폐지하되, 혹 죄를 지어 노비가 되더라도 본인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한편 각종 신분적 혜택을 누려오던 양반 문벌의 존재를 부정하고 낮은 계층의 신분적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려 하였다.

이상과 같이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통하여 나타낸 현실 개혁 의식은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이나 『곽우록』과 같은 실학서의 영향을 많이 받

았다. 다시 말하면 유형원과 이익의 실학사상이 안정복의 『동사강목』 사론에 용해되어 나왔던 것이다.⁴

광주와 실학자 안정복

안정복 계열 성호학통은 안정복의 뒤를 이은 후학들에 의하여 20세기까지 전승되어 왔다. 안정복 → 황덕길 → 허전(許傳)으로 이어진 안정복 계열 성호학통은 19세기에는 근기지방에서 영남지방으로 확산되어 18세기 성호학파의 대표적인 성호학통이 되었다. 이 학통은 안정복이 주장하였듯이 학문적으로는 하학을 중시하였고, 사상적으로는 천주교를 강하게 배척하는 등 벽위사상이 강하였으며, 대체로 내치(內治)의 강화와 온건 개혁적 성향을 보였다.

광주는 18세기 성호학파의 주요 인물들이 활동하던 곳이다. 이익은 물론이고 안정복을 비롯하여 성호학파 젊은 학자들을 이끌던 권철신과 그를 따르던 정약전(丁若銓)·정약중(丁若鍾)·정약용(丁若鏞) 형제, 이벽(李穡) 등이 모두 광주에 연고를 두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광주의 천진암(天真菴)은 성호학파 젊은이들이 강학하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이고, 천주교 수용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던 주역들은 당시 성호학파의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양반 신분이었지만 천주교의 평등사상을 수용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조선의 전통사회를 해체하고 근대화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광주 실학의 특징과 궁지라 여겨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당시 광주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이들 실학자들로부터 무엇을 교훈삼아야 할 것인가? 실학자들은 당대에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선구적인 지식인들이었다. 특히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의 삶을 구하기 위하여 지혜를 동원하고, 조정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현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조선 후기 선현들의 실학사상으로부터 많은 교

⁴안정복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필자의 저서 『순암 안정복의 사상과 학문 세계』(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참고.

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광주 실학은 온건과 혁신을 함께 갖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비교적 온건 개혁을 주장한 안정복의 실학과 조선 전통 사회구조 변혁의 씨앗을 뿌리며 신분 타파를 이끌어온 성호학과 젊은이들의 실학사상은 우리에게 혜안(慧眼)을 줄 것이다. 조선 후기와 같은 어



안정복 묘

려웠던 시기는 우리 역사의 흐름에서 수없이 등장한다. 그 때마다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선구적 지식인이 등장하여 헤쳐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었다. 우리는 그런 선구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어느 시대이건 어려움에 처한 역사적 전환기에는 그 시대를 헤쳐 나아갈 실학풍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19세기 말 조국 근대화에 적합한 학문이 있을 수 있고, 20세기 말 온 나라가 외환위기에 처하여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타개하기에 적절한 학문이 있을 수 있다. 18세기 광주에 피어난 광주 실학은 오늘을 살아가는 광주 시민이나 행정기관에게 앞으로 광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광주 발전에 필요한 시민정신을 갖는데 등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광주 시민이 광주실학 정신을 계승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 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⁵

강세구 | 문학박사, 역사학

⁵ 강세구, 『광주와 실학』, (광주문화원, 2005), 289쪽.

시대의 격랑과 운양 김윤식의 삶



운양 김윤식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순경(洵卿). 호는 운양(雲養) 또는 소천(蘇川)이라고도 했다. ‘운양’은 육구몽의 시 「초인 십영(樵人十詠)」 중 ‘초자(樵子)’라는 시의 “생자 창애변(生自蒼崖邊) 능암백운양(能諳白雲養)”²에서 가져온 것이고, ‘소천’은 광주(廣州) ‘귀천(歸川)’의 다른 이름이어서 자호(自號)³한 것이다.

선생의 본관은 청풍김씨(淸風金氏)다. 1835년 (현종 1) 을미년(乙未年) 음력 10월 3일⁴ 두포(荳浦)의 집에서 아버지 좌찬성 김익태(金益泰)와 어머니 전주 이씨(全州李氏) 사이에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김윤식의 9대조는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내면서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했던 김육(金堉)이다.

선생은 구한말 격변기에 외교 업무를 맡아 동분서주하며 위국제생(爲國濟生)⁵하고자 하였다. 세간에서는 친일의 멍에를 씌워 폄훼(貶毀)⁶하는 이들도 있으나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이 글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선생의 출생지를 고구(考

1 초자(樵子): 나무꾼.

2 생자창애변(生自蒼崖邊) 능암백운양(能諳白雲養): “깊은 산골에 태어나 산가에서 땀나무하며 시를 읊조리네.” 주에 운(雲)은 산가(山家), 양(養)은 땀나무가 자라는 땅이라고 했다. 『운양집』 권일 「귀천기속시(歸川紀俗詩)」 20수 중 ‘추동지교예시수선(秋冬之交柴輪船)’에 인용되어 있다. 양근에서 마을 주민들이 땀나무를 베어 지계에 지고 가서 배에 싣고 돈이나 다른 물건과 교환하던 것을 보고 쓴 시다.

3 스스로의 호로 삼음.

4 『운양집』 3권 시월삼일생조(十月三日生朝): 시월 삼일 아침에 태어남.

5 위국제생(爲國濟生):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구제함.

6 폄훼(貶毀): 남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허물어뜨림.

究)⁷해 보고, 격변기에 나라의 중임을 맡아 애썼던 생애와 경술국치(庚戌國恥) 당시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사실(史實)을 변정(辨正)⁸해 보고자 한다.

탄생지 제설(諸說)에 대한 관견(管見)⁹

김윤식의 탄생지에 대해 몇 가지 설이 있어서 이 문제는 상세한 논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운양집(雲養集)』은 그가 직접 편찬해 간행한 문집이고, 『음청사(陰晴史)』와 『속음청사(續陰晴史)』는 선생이 직접 기록한 일기로서 그의 탄생지와 유년기의 불운하고 궁핍한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정선의 「암구정도」(『경교명승첩』, 18세기)

1. 『운양집』 「증 정부인(貞夫人) 청풍 김씨 언행록」: “우리 삼남매는 옛날 두호에 살았다(吾姊第三人 昔居荳湖).” 정부인 청풍 김씨는 운양 선생의 12살 손위 만누님이다.
2. 『운양집』 「숙부청은군가장(叔父淸恩君家狀)」: “숙부(金益鼎(김익정))는 순조 계해 7월 14일 두호의 사의정(四宜亭)에서 태어났다(純祖癸亥七月十四日 公生于豆湖之四宜亭).”
3. 『운양집』 「어두릉제우(與斗陵諸友) 동주발두포공부(同舟發荳浦共賦)」 주(注): “우리 집은 옛날에 두포에 살았는데 (내가) 아홉 살 때 양근¹⁰으로 옮겨 (숙부 댁에) 얹혀살았다(余家舊居荳浦 九歲移寓楊根). 두포 동쪽에 암구정이 있었다.”¹¹

7 고구(考究): 생각하여 밝힘.

8 변정(辨正): 사리를 따져서 바로 잡음.

9 관견(管見): 자세히 들여다 봄.

10 귀천(歸川)이 광주(廣州)와 양근(楊根) 사이에 있어 잠시 양근으로 불리기도 했다.

11 정선(鄭敾)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에 실려 있는 「암구정도(狎鷗亭圖)」를 통해 개발되기 전의 두포 풍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현대 1차 아파트 안에 암구정지(狎鷗亭址)라는 안내 표지 옆 74동을 암구정이 있던 자리로 추정하는 설이 있다. 雲養 선생의 아드님이 기록했다는 家乘에는 ‘荳毛浦에서 태어났다’는 기록도 있는데, 지금의 옥수동(玉水洞)이다.

4. 「與斗陵諸友同舟發荳浦共賦(여두릉제우동주발두포공부)」

水氣微涼早送秋 물도 조금 차가우니 때 이른 가을
連宵風雨滯歸舟 먹구름 비바람 떠나가는 배 위에 머무네
頻聞兩岸鐘聲發 자주 들리는 것 양안의 종소리
僅辨長洲荳點浮 먼 물줄기 끝 두포는 가물가물 점같이 떴네
獻賦他年同蜀郡 부를 지어 바침은 훗날 촉군과 같을지니
異鄉幾歲憶眉州 타향에서 얼마나 여러 해 미주¹²를 그렸던가
吾生慣與沙鷗狎 나 태어난 곳 낮익은 압구의 모래밭
輕舫曾無宦海愁 가벼운 배에는 벼슬길 근심도 없다네

4번의 시는 두포에서 배를 타고 두릉(斗陵)으로 가면서 지은 시다. 『운양집』 1권에 실려 있는 「귀천기속시(歸川紀俗詩)」에 보면 ‘나의 부모님께서 사시던 곳과는 물줄기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을 뿐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김윤식의 선대가 터를 잡고 살아온 귀천(歸川)을 두릉이라고도 부른 것으로 보인다.¹³

“먼 물줄기 끝 두포는 가물가물 점같이 떴네”와 “나 태어난 곳 낮익은 구압의 모래밭”은 그가 압구정리에서 태어났음을 직접 밝힌 기록이다. 김윤식의 일기 『속음청사』 건양원년(建陽元年) 조에는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 당시 (김홍집 내각의 외무대신에서) 면직(免職)되었는데, 이때 친아파(親俄派-친러시아파) 이범진(李範晉) 등이 김홍집 내각의 여러 대신을 명성황후 시해(弑害)의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 그 잔당을 추궁(推窮)하므로 광주 방이리(芳莢里) 농사(農舍)¹⁴로 내려가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광무원년 12월에 제주도로 종신유배(終身流配)를 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몇 가지 기록으로 유추해 보면 운양 선생은 당시의 광주군 연주면 압구정리, 지금의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부근 어딘가에서 태어났고 방이동에 농토와 농사(農舍)가 있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

두포는 한강을 통해 양근(楊根)까지 왕래가 수월했을 것이다. 김윤식의 숙부 또한 양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두포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는데, 후에 선대의 터전인 귀여리(歸歟里)의 종가로 양자(養子)를 갔다. 선생이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귀여리에

12 미주(眉州): 중국 사천성(四川省)에 있는 현(縣) 진(秦)나라 때는 郡蜀(촉군). 『운양집』 「회귀천부(懷歸川賦)」에서 “이번노(李樊老)는 (두릉과 귀천의 산수가) 촉산과 비슷하다.”고 했다.

13 이 시는 『운양집』 1권에 실려 있다. 5권 「승주발우천(乘舟發牛川)」에 “두릉의 강물은 기름 뿌린 듯 매끄러운데(斗陵江水潤油如)”라는 詩句가 있다. 우천, 소천(蘇川), 두릉(杜陵) 등은 모두 귀천의 다른 명칭이다.

14 논밭 한 옆에 농사를 짓기 위해 지은 집.

서 출생하였다.”고 한 기록은 그의 선대가 대대로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때문이고, 귀여리는 그가 아홉 살에 숙부 댁으로 옮겨가서 성장한 선향(先鄉)이다.

『운양집』 7권에는 “나는 두호(荳湖)의 물가에서 태어났으며, 귀천(歸川)에서 자랐다. …… 귀천은 나의 향리(鄉里)이며, 양근과 광주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만든 『신구대조(新舊對照)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람(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覽)』에는 압구정리(狎鷗亭里)가 광주군(廣州郡) 언주면(州面)에 속해 있고, 귀여리(歸歟里)는 광주군 구천면(九川面)에 속해 있다.

『운양집』 「유사(遺事)」에 김윤식의 조부와 선고(先考)¹⁵를 모두 ‘증 대제학 부군(贈大提學府君)’이라 한 것으로 보아 선생이 영달(榮達)¹⁶한 후 추증(追贈)된 것으로 보인다. “부군께서 젊으셨을 때 가운이 극도로 기울어 상사(喪事)라도 치르고 나면 집안의 모든 가산(家産)을 씻어내 간 것 같았다.”¹⁷고 부친 생존 때의 가세를 기록했다. 『운양집』 「증 정부인 청풍 김씨 언행록」에도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세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부인(夫人)의 아버지는 익태(益泰)인데 증 이조 판서(贈吏曹判書)시다. 어머니는 전주 이씨신대 학생 인성(寅成)의 따님이다. 계미년(癸未年) 12월 27일에 부인이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정대(正大)하고 장중(莊重)하여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하고 상냥했다. 이때 집안 형편이 가난해 헤지고 터진 옷을 입었으며, 입에 풀칠할 조강(槽糠)¹⁸조차 넉넉지 못했다. 부모님을 곁에서 모심에 늘 즐거워하여 군색(窘塞)¹⁹함이 없는 것 같았으며, 몸은 외설스런 장난을 하지 않았고, 입으로는 남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윤식의 만누이는 1840년(현종 6) 경자년(庚子年)에 도현(道軒)李大植(李大植)에게 시집갔으나 아직 친정에 있던 1842년 임인년(壬寅年) 봄에 모친이 돌림병에 걸렸다. 만누이는 손가락을 베어 어머니께 피를 드시게 했으나 효험 없이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해 겨울에 부친까지 돌아가셔서 세 남매는 의지할 데 없는 고애자(孤哀子)²⁰가 되었다.

15 先考: 죽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는 先妣라고 한다.

16 영달(榮達): 높은 지위에 올라 귀하게 됨.

17 『雲養集』 卷之十三 「遺事」 중 「先考」條.

18 조강(槽糠): 술지게미와 겨. 거친 음식.

19 군색(窘塞): 집안이 가난하여 답답함.

20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식은 孤, 어머니를 잃은 자식은 哀, 父母俱沒이시면 孤哀子라고 한다.

유년기의 학업

김윤식은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이듬해 숙부 덕이 있는 귀천(歸川)으로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5~6세 때 부친으로부터 한문 공부를 시작했는데 부친이 그의 명민(明敏)함을 보고 아우인 김익정(金益鼎)에게 당부했다는 기록이 있다.

늬으막에 내가 태어나자 5, 6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께서는 『상서(尙書)』²¹ 『우공(禹貢)』 편과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장구(章句)』 상(上)의 '곡속장(穀棘章)', 주홍사의 『천자문(千字文)』 등을 가르쳐 주셔서 늘 외우고 다녔다. 아버지께서는 무척 기뻐하여 항상 동생인 청은군에게 말했다. '우리 집 안에 향화(香火)²²를 맡길 아이는 다만 이 아이뿐인데 강가에서 무역하는 것으로는 우리 후손을 기를 수 없다. 네가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서 여러 조카와 이 아이가 같이 독서하여 여럿에게 성취가 있게 해 주기 바란다.' 임인년(壬寅年) 봄과 겨울에 나는 하늘에 죄를 얻어 부모상(父母喪)을 만났으니 오호! 슬프다. 계묘년(癸卯年) 봄에 부모님 영가(靈駕)²³를 모시고 두 누이와 여종 오목이를 데리고 숙부 모께서 사시는 귀천으로 갔다. 숙부모께서는 우리 남매를 당신의 자식보다 더 아끼며 살펴 주셨다. 삼십이 넘을 때까지 숙부모 슬하에서 보살핌을 받았으니 배풀어주시는 은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숙부 김익정은 음직(蔭職)인 현릉원(顯隆園)²⁴ 참봉에서 서원 현감(西原縣監)²⁵을 지냈다. 그의 장남 김원식(金元植)은 철종 때 형조 판서를 지냈고, 차남 김만식(金晩植)은 1882년(고종 19)에 부사(副使) 겸 전권부관(全權副官)의 자격으로 수신사 박영효(朴泳孝)를 수행해 일본에 다녀왔으며, 김윤식과 함께 귀천시사(歸川詩社)를 만들어 문예 활동을 하였다. 여러 아들의 영달로 김익정은 훗날 청은군(淸恩君)에 봉해 졌다.

김윤식은 아홉 살 되던 1843년(헌종 9 봄에 귀천의 숙부 덕으로 가면서부터 14세까지 다섯 명의 사촌 형제들과 김상필(金尙弼) 밑에서 공부했다.

선생의 성은 김씨요, 휘(諱)는 상필(尙弼)이며, 자(字)는 우보(佑甫), 소산(小山)은 호다. 김씨 선대는 경주에서 나왔는데 후에 진천(鎭川)에 터를 잡고 살았다. 선생이 젊어서 공부할 때 재주는 같이 공부하는 학동들이 따르지 못했다. 겨우 약관의 나이에 진사가 되었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부모를 봉양할

21 『상서(尙書)』: 『서경(書經)』의 다른 명칭.

22 제사를 잇는 것. 곧 뒤를 잇는 자손.

23 영가(靈駕): 혼, 신주(神主).

24 현릉원(顯隆園): 사도세자의 능.

25 서원(西原): 지금은 충북 청주시에 속해 있다.

수 없었다. 나의 숙부 청은공께서 귀천(歸川)으로 모셔와 가숙(家塾)을 열고 나와 사촌 형제들이 가르침을 받게 했다. …… 선생은 『예기(禮記)』와 『춘추좌전(春秋左傳)』, 『사기(史記)』 등을 좋아하셨고, 시는 도연명(陶淵明)과 두보(杜甫)의 시를 좋아하셨다. 송독(誦讀)하실 때마다 약주를 드신 후 고문(古文)이나 사부(詞賦)를 읊으셨다. 마음이 흡족한 대목에 이르면 갑자기 격하게 시나 사부를 읊으셨는데 글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절로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성품은 간결하고 맑아서 잡기(雜技)²⁶는 즐기지 않으셨고, 머호러운(힘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남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먼저 행하신 후 글을 배우게 하셨는데 말씀이 효계충신(孝悌忠信) 등의 고사(故事)에 이르면 갑자기 틈을 주지 않으셔서 듣는 사람도 지루함을 잊을 정도였다. 매번 나를 깨우쳐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으니, 모름지기 배우기를 힘쓰고 스스로 분발(奮發)하여 너의 도(道) 세울 것을 생각하고 힘써야 한다. 어찌 다른 아이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며 이로써 만족하겠느냐?’ 라고 하셨다. …… 내가 아홉 살이었을 때 입학하여 열네 살 때 스승님이 돌아가시니 몽매(蒙昧)함을 지날 때이나, 아직 그 배움을 다 연마하지 못한 때였다.

5~6세 때 부친에게서 이미 『상서』 우공편과 『맹자-양혜왕장구』상의 ‘곡속장’, 주홍사의 『천자문』 등 기초를 배운 김윤식이 학문에 가장 민감할 나이에 5년간이나 김상필 같은 분을 만나 『예기』, 『춘추좌전』, 『사기』 등을 가르침 받은 것은 예의 근본과 중국 고대사(古代史)를 속속들이 배운 것이므로 평생의 길잡이가 되었을 것이다.

학문과 교유

선생은 열여섯 살 때 한양에 와서 유신환(俞莘煥)의 문하(門下)에 들어가 학문에 정진했다. 유신환은 당대의 거유(巨儒)로 조선말 성리학의 대가였다. 그는 전의 현감(全義縣監)일 때 가림주구(苛斂誅求)의 민폐를 없애고 유학의 학풍을 일으키는 데 힘썼으나, 관찰사의 모함으로 홍천에 유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면서 후진을 양성하는 데 힘써 김윤식을 비롯하여 서응순(徐應淳)·김락현(金洛鉉)·윤치조(尹致祖)·남정철(南廷哲) 등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민씨 척족(戚族)인 민태호(閔台鎬)·민규호(閔奎鎬)·민영목(閔泳穆) 등을 비롯해 이조 판서를 지낸 윤병정(尹秉鼎)과 대제학을 지낸 한장석(韓章錫) 등도 문생이었다. 김윤

26 잡기(雜技): 장기나 투전과 같은 놀이.

식의 인맥과 학문, 환로(宦路)의 인맥은 여기서 만난 동학(同學)들과 형성되었다.

유신환 문하에서의 수학(修學)은 김윤식이 유학자로서의 정신을 확립하는 기간이었다. 유신환이 죽은 후에는 박규수(朴珪壽) 문하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유신환 문하의 문생들과 박규수 문생들은 평생 선생과 학문을 이끌어주고 교류하는 벗이 되었다. 선생은 『운양집』 5권에서 평생 사우(師友)로 열 사람을 꼽고 추모시(追慕詩)를 지었는데, 박규수·유신환·서응순·이응진(李應辰)·이연익(李淵翼)·김홍집(金弘集)·어윤중(魚允中)·박선수(朴瑄壽)·이건창(李建昌)²⁷·홍계훈(洪啓薰) 등이다. 그 중 박규수·유신환·김홍집을 위해 지은 칠언율시(七言律詩)를 소개한다.

「고 우의정 환재선생 박규수(故右議政環齋先生朴珪壽)」

堯舜君民早自期	요순의 임금과 백성은 일찍이 기약했지 ²⁸
茅廬當日許驅馳	오두막에서 만난 그날 임금위해 몸바치길
欲追殊遇忘身瘁	임금의 뜻 좇고자 몸의 병도 잊었으니
誰知陰功奠國危	누가 알리오 나라 안정시킨 숨은 공로를
大手文章雲漢決	뛰어난 문장은 은하수처럼 넘치고
滿腔忠孝日星垂	가슴 가득한 충효는 해와 별에 드리웠네
艱虞時事公知否	지금 시사(時事)가 어려운 것 공께서는 아실까
痛哭西州一詠詩	통곡하며 서주에서 영결시(永訣詩)를 읊노라

「증 도헌 풍서선생 유신환(贈都憲風棲先生俞莘煥)」

池堂春水接眞源	지당의 봄물은 진원 ²⁹ 에 닿아 있고
一點衝燈照破昏	한 개의 등불 ³⁰ 은 네거리 어둠을 밝히누나
德藝入齋治術備	덕과 재주 타고난 몸 치세술(治世術)도 갖췄으니
風聲百世薄夫敦	명성은 오랜 동안 세상에 도타웁네
窮居陋巷恒憂國	가난하여 누향에 살면서도 언제나 나라 걱정
當路諸公盡及門	당세의 여러 선비 문하에 모였었네
絳帳絃歌今寂寞	강당의 현가 소리 지금은 적막한데
白頭猶誦書紳言	흰머리 돌려 서신(書紳: 옛 글)을 읊조리네 ³¹

27 이견창(李建昌): 우리나라 강화학파(江華學派)의 마지막 학맥을 이었으며, 정인보(鄭寅普)의 스승이다.

28 익종(翼宗, 1809)~1830): 순조의 아드님. 익종은 대리청정(代理聽政) 할 때 자주 미행(微行)을 했다. 하루는 자하동(紫霞洞)에 이르러 어떤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여 갑자기 그의 집을 방문하니 그 선비는 박규수였다. 익종은 "그대가 글 읽기를 좋아하니 장차 그대를 기용하리라"고 약속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29 지당(池堂): 유신환이 살던 초당(草堂) 앞에 작은 못이 있어 그 초가를 지당이라고 했다 함. 진원(眞淵)은 철학적 용어로서 인간 본성을 말한다.

30 스승인 유신환이 난세(亂世)에 세상의 등불이 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봄.

31 서신(書紳): 성현(聖賢)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큰 띠에 적어 둔 글. 『논어(論語)』 「위 영공(衛靈公)」 편에 '자장서제신(子張書諸紳)·자장이 공자의 말씀을 예복의 여러 띠에 적었다'는 내용이 있다.

「고 총리대신 도원 김홍집(故總理大臣道園金弘集)」

安危元不計身全	안위는 본시 내 한 몸 안전을 헤아리지 않았고
祗有丹心不負天	단심은 다만 하늘을 등지지 않는데 있었거니
經術通明西漢相	경세(經世)의 술책은 서한(西漢)의 장량(張良)에 통했고
風流蕭灑曲江仙	풍류는 소쇄하여 곡강의 신선을 닮았네
孤忠已許申生孝	외로운 충심은 이미 신생의 효를 받아들였는데 ³²
直筆何傷趙盾賢	동호(董狐)의 직필은 어찌 조돈 ³³ 같은 현인을 폄훼했나
碧血千秋應不滅	선생의 벽혈(碧血) ³⁴ 은 천추에도 소멸치 않고 옹하리니
精光夜夜燭笺躔	성망(聲望)은 밤마다 기성(箕星) ³⁵ 되어 촛불처럼 빛나리

김윤식은 김상필의 문하에서 기초 한문을 익혔고, 유신환의 문하에서 좀 더 근원적인 학문을 접하면서 여러 문생을 사귀었다. 박규수 문하에서는 북학(北學)을 접하면서 실학(實學)의 경세(經世)에 눈뜨게 되었다. 선생은 열심히 닦은 학문을 기초로 환로(宦路)³⁶에서 이상(理想)의 실현을 위해 힘써보기도 했지만 학식이 높다 해도 그것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기는 지난(至難)한 것이었다. 이에 김윤식은 1870년(고종 7) 경오년(庚午年) 겨울에 「팔가섭필(八家涉筆)」이라는 평문(評文)을 쓰게 된다. 여기에는 한문(韓文) 16편, 유문(柳文) 14편, 구양문(歐陽文) 17편, 노소문(老蘇文) 10편, 동파문(東坡文) 17편, 영빈문(穎濱文) 12편, 남풍문(南豐文) 6편, 형공문(荊公文) 6편 등의 글을 읽고 쓴 평문이 수록되어 있다.³⁷

나는 14, 5세 때부터 당송(唐宋) 팔대가(八大家)의 문장이 좋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후 20여 년 동안은 질병과 안정되지 못한 생활 때문에 읽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 경오년 겨울 집에 있으면서 할 일 없이

32 김윤식 선생의 주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이가 공에게 피할 것을 권하자 공은 「서명(西銘)의 신생(申生) 이야기들 예로 들며 말했다. 나는 일찍이 가슴 속에 마음먹은 바가 있으니 지금 구차히 도망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신생은 춘추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의 세자로 서모(庶母)의 모함에 빠졌으나 도망치지 않고 죽음을 당했다.

33 춘추시대 진(晉) 영공(靈公)은 폭군이었는데 정경(正卿) 조돈(趙盾)이 이를 자주 간하자, 이를 귀찮게 여겨 자객을 보내 그를 죽이게 했다. 그러나 조돈의 집에 숨어든 자객은 몰래 그의 모습과 인품을 보고 반해서 나무에 머리를 찢어 자결했다. 다음에는 술자리로 유인해 그를 죽이려 했지만 조돈은 미리 알고 도망쳐서 국경을 넘지 않고 머물렀는데, 그 때 조친(趙穿)이 영공을 시해했다는 말을 듣고는 돌아왔다. 그런데 태사 동호(董狐)가 ‘조돈이 그 군주를 시해했다.’고 적었다. 조돈이 항의하자, 동호가 말했다. “공이 군주님을 시해하지는 않았으나 대감은 정경으로서 국내에 있었고, 또 조정에 돌아와서는 범인을 처벌하지도 않았습시다. 그러므로 대감께서 시해한 것입니다.” 조돈은 이 말을 듣고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34 한울 품은 피는 천년을 푸르려 변치 않는다고 함. 공자의 음악 스승인 장홍(襄弘)이 간신배의 참언으로 죄 없이 죽었는데 3년 후에 무덤을 파보니 피가 모두 푸른 구슬로 변해 있었다는 고사(故事)가 있다. *한혈천년도중벽(恨血千年土中碧) - 당나라 이하(李賀) 추래(秋來).

35 기성(箕星): 별의 이름. 이십필수의 하나. 동방의 별에 속하며, 풍백신(風伯神)을 상징하기도 한다.

36 환로(宦路): 벼슬길.

37 한문(韓文): 당(唐) 한유(韓愈)의 글, 유문(柳文): 당 유원종(柳宗元)의 글, 구양문(歐陽文): 송(宋) 구양수(歐陽修)의 글, 노소문(老蘇文): 송 소순(蘇洵-소동파의 아버지)의 글, 동파문(東坡文): 송 소식(蘇軾)의 글, 영빈문(穎濱文): 송 소철(蘇轍-소동파의 아우)의 글, 남풍문(南豐文): 송 증공(曾鞏)의 글, 형공문(荊公文): 송 왕안석(王安石)의 글.

밤낮으로 가아(家兒)를 가르치던 중 문득 종이를 펼쳐 놓고 작자의 의취(意趣)와 호오(好惡) 취사(取捨)를 적어 보니 나의 지난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내가 아는 것도 더 나아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다. 산가(山家)에 다른 이들이 일찍 잠들면 밤늦도록 홀로 앉아 매 한 권씩을 읽었는데 읽는 동안 문득 감흥이 일기도 하고 생각되는 바가 있기도 하여 붓 가는 대로 쓰고, 쓴 후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곤 했다.

김윤식은 이와 같이 학문에 정진하며 터득한 경세관(經世觀)을 1885년에 한양의 개항(開港)과 교역에 관한 사견(私見)을 문답식으로 적은 「한성개잔사의(漢城開棧私議)」와 경세론을 적은 「십육사의(十六私議)」라는 사론(私論)을 쓰게 된다. 「십육사의」는 인재 추천에서부터 인재 양성, 양병(養兵), 상세(商稅), 혁진(革鎭) 등 총 16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나이 장년(壯年)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경세철학을 문장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선생은 관리로서 뿐만 아니라 문장으로도 이름을 날렸다. 귀천시사(歸川詩社)와 장동시사(壯洞詩社)를 결성해 당대의 명유(名儒), 명문장가(名文章家)들과 시회(詩會)를 열고 교류(交遊)하였다. 귀천시사는 사촌형인 김만식(金晩植) 등과 함께 운영해 나간 시사였고, 장동시사는 민태호(閔台鎬)를 비롯해 이응진(李應辰) 등 유신환의 제자 20여 명과 만든 시사였는데 시인묵객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운양선생 연보

김윤식이 처음 환로(宦路)에 나선 것은 31세 때인 1865년 초시(初試)에 합격해 건릉(乾陵)³⁸ 참봉이 되면서 부터였다. 그의 행적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이 많지만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는 잘못 알려진 것도 많아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에 연보 아래에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조선 총독과 일본 내각에 보낸 「대일본장서(對日本長書)」와 그의 일기 『속음청사(續陰晴史)』의 내용 중 경술국치(庚戌國恥) 당시의 내용 및 「대일본장서」 재판 기록을 번역해 선생에 대한 오해를 변정(辨正)하고자 한다.

38 건릉(乾陵): 정종(正宗)의 능. *정종을 정조(正祖)라 하는 것은 잘못.

- 1835년(乙未年) 음력 10월 3일 두포(苧浦) 집에서 좌찬성 청풍 김공(淸風金公) 익태(益泰)와 어머니 전주 이씨 사이 삼남매 중 막내로 출생.
- 1865년(31세) 초시(初試) 입격(入格). 건릉 참봉.
- 1872년(38세)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 1874년(40세) 문과 급제.
- 1879년(45세) 영선사(領選使)가 되어 중국 천진(天津)에 감.
- 1882년(48세) 임오군란(壬午軍亂) 때 청나라 군대와 귀국. 군란 평정 후 신설된 군국사무아문(軍國事務衙門)과 통상교섭사무아문(通商交涉事務衙門)의 협판(協辦)이 됨.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를 겸직(兼職)하고 강화에 진무영(鎭撫營)을 설치하여 신식 군대 800여 명을 양성.
- 1884년(50세) 갑신정변(甲申政變) 발생. 원세개(袁世凱)의 원군(援軍)으로 김옥균(金玉均) 등 급진 개혁파 축출(逐出).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됨.
- 1885년(52세) 1884년에 체결된 조로수호통상조약에 의해 유발된 1885년 영국의 거문도 사건(巨文島事件) 점령을 외교적으로 해결함.
- 1887년(53세) 민왕후(閔王后)의 친(親) 러시아 정책에 반대, 민영익(閔泳翊)과 대원군 옹립을 모의하다가 왕후의 미움을 사서 충남 당진군 면천면(沔川面) 성하리(城下里)에 유배됨.
- 1895년(61세) 왜인(倭人)의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弒害) 후 김홍집(金弘集) 내각의 외무대신이 됨.
- 1896년(62세)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김홍집이 살해당한 후 김홍집 내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검색이 심해지자 방이리(芳莪里) 농사(農舍)³⁹에서 소일.
- 1897년(63세) 12월 20일 고종(高宗)의 명으로 제주도에 종신(終身) 유배.
- 1901년(67세) 천주교 신자 토벌사건으로 1901년 전라도 지도(智島)로 이배(移配).
- 1907년(73세) 송병준(宋秉畷)의 탄원(歎願)으로 유배에서 풀려난 후 대한제국 중추원(中樞院) 의장에 발탁됨.
- 1910년(76세) 8월 22일 경술국치(庚戌國恥) 직전 열린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 일본에의 합병(合併)을 주장하는 이완용(李完用)에 맞서 '불가불가(不可不可)'라고 울부짖으며 반대의견 개진(開陳). 여러 대신은 모두 침묵.
- 1910년(76세) 10월 1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에 선출되었으나 거절하고 두문불출함.
- 1910년(76세) 10월 7일 자작(子爵) 작위(爵位) 수여(授與) 결정.
- 1910년(76세) 10월 10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과 자작 작위 사직 청원. 아울러 은사금(恩賜金)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진정(陳情)함. 당일 '군신(君臣)의 의(義)가 다를 수 없다'는 순종(純宗) 황제의 서면(書面) 칙유(勅諭)와 강권(強勸)으로 부득이 봉승(奉承)함. 당일 저녁 고종과 순종의 명을 받은 전 농무대신 조중응(趙重應)이 밤늦게 와서 채족, 영수증을 받아 감. 후손들에게 전해오는 구전(口傳)에는 '연로(年老)한 선생이 피곤하여 깜빡 조는 사이 조중응이 인장을 찍어갔다.'고 하는데 선생은 초심(初心)을 크게 어겼다는 생각에 "이 일을 어찌단 말인가(大違初心 此何人斯)" 하며 밤새 뒤척여 잠을 이루지 못함.

39 본택(本宅)은 종로 계동(桂洞)에 있었고, 방이리 농사에는 측실(側室)과 측실에서 낳은 딸이 살았다. 측실과 딸은 선생이 제주도로 유배를 떠난 직후바로 계동 본가로 갔다는 기록이 『속음정사(續陰晴史)』 1897년 음력 12월 1일 조(條)에 있다.

- 1912년(78세) 6월 28일 칭병(稱病)하며 진단서(診斷書)를 첨부하여 중추원 부의장 사직 청원서를 보냄.
- 1912년(78세) 8월 11일 중추원 부의장 사직청(辭職請) 허면(許免). 이완용이 대행.
- 1913년(79세) 6월 27일 『운양집』 16권 석판(石板) 시간(始刊).
- 1914년(80세) 8월 25일 『운양집』 16권 230질(帙) 완간(完刊).
- 1915년(81세) 4월 20일 일본 동경의 상야공원 제국학사원(上野公園帝國學士院) 회원으로 추천됨.
5월 9일 학사원(學士院) 시상식 참석 요청을 거절. 7월 5일 동경 상야공원에서 이왕 직사무관(李王職事務官) 고희경(高羲敬)이 대리 수상(受賞).
- 1916년(82세) 7월 28일 경학원(經學院) 대제학(大提學)에 선출됨.
- 1916년(82세) 9월 12일 대종교(大倮敎) 나철(羅喆)의 부음(訃音)에 충격. 나철의 본명은 나인영(羅寅永)인데 선생과는 십 수 년 간 방이리 농사와 제주 등에서 함께 고생한 애제자(愛弟子)이자 동지임.
- 1919년(85세) 1월 21일 고종 승하(昇遐). 조선총독부 관리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고종의 시호(諡號)를 '한국황제(韓國皇帝)로 해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일본인들은 '전한국(前韓國)으로 할 것을 고집하여 성공치 못하고 '고종대왕(高宗大王)'으로 결정됨. 이듬해 4월에서야 조선총독부도 황제 묘호(廟號) 사용을 승인하여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로 결정됨.

亂稿。手自校勘。刪其大半。
仿古人今集之志。詩則今
段為集。文則繫之以年。編
為十卷。六卷時一披閱。恍
然如重履其境。復觀其人。
亦足慰當年離索之懷。其
工拙不須問也。編摩既成。
將離絮棗。或曰。以圖不朽。
何不渴者。文作家之文。而
弁於卷首乎。余曰。序者。所
以敘其事也。古之為序書。
序皆發明作者之意而已。

不然。則作古自述其著作
之由。若司馬遷揚雄之自
序是也。若唐人作序。自皇
甫澄始。澄序左思三都賦。
而見重於時。自是為文者
必先序於人。大率皆贊美
之辭。不足見重。今以渴其
贊美之辭乎。將使我顏。懼
怩而心不寧矣。於渴其。既
釐之辭乎。於吾心。必不
悅。何以揚文。為哉。癸丑夏
五日。雲養老人序并書。

『운양집』에 실린 김윤식의 친필 자서(自序)

- 1919년(85세) 3월 1일 탑동공원(塔洞公園)에서 대한제국 독립만세 운동 시작.
- 1919년(85세) 3월 28일 선생과 이용직(李容植)은 조선총독부와 일본 내각에 조선의 독립 승인을 요구하는 「대일본장서(對日本長書)」를 보냄.
- 1919년(85세) 7월 24일 최종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음.
- 1920년(86세) 11월 17일 대종교(大倮敎) 회장에 선출됨.
- 1922년(88세) 1월 21일 봉익동(鳳翼洞) 자택에서 별세.

경술국치 당시의 행적과 「대일본장서」를 통한 독립청원

경술국치 직전에 순종 황제가 소집한 어전회의에서 김윤식이 일제의 조선 병탄(併呑) 음모에 대하여 “불가불가(不可不可)”라고 했다는 기록을 두고 ‘불가불(不可不)가(可)-아니할 수 없으니 찬성한다.’고 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를 친일파로 몰아가려는 이념론자들의 억단(臆斷)이다. 김윤식이 직접 기록한 『속음청사(續陰晴史)』의 융희4년(隆熙四年) 8월 22일부터 며칠간의 일기를 살펴보면 일제의 병탄에 선생 홀로 분명하고 극렬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開陳)했음을 알 수 있다.

『속음청사(續陰晴史)』 1910년 8월 22일

오늘은 흥왕(興王)⁴⁰의 생신이어서 손님들이 많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런데 창덕궁(순종 황제)께서 흥왕과 나를 부르시는 명령이 있어 황급히 집에 돌아와 조복(朝服)으로 갈아입고 창덕궁에 들어가 폐하를 알현하였다.⁴¹ 각 대관들이 먼저 와서 모여 있었는데 요즈음 운위(云謂)되던 일에 대해 폐하께서 하문(下問)하시니 여러 신하들은 서로 돌아보며 얼굴색이 변했다. 흥왕이 ‘망극하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총리대신⁴²이 “정세가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안됩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다른 대신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속음청사』 1910년 8월 31일

흐리고 비가 왔는데 밤이 되니 큰 비가 와서 마치 물을 퍼붓는 것 같다. 집안이 강을 이룰 정도인데 새지 않는 곳이 없다. 내 병은 어제와 같다. 근일에 시호(諡號)를 주는데 가자(加資)⁴³된 이가 몇 천 명인지 모른다. 궁내부(宮內府) 내각(內閣)에는 ‘벼슬을 두고 어지럽게 다루는 것이 저자거리와 같다.’ 하니 탄식할 일이다. …… 대동학교생(大東學校學生) 한 사람이 과일 가게에서 과도(果刀)를 빌려 자경(自剄)⁴⁴해 죽었다. 또한 정산군수(定山郡守)가 나라일에 큰 변고(變故)가 있음을 듣고 자결했다고 하니 이는 뜻밖의 성품(性稟)이 드러난 것이요, 열혈남이라 하겠으나 그 성명은 듣지 못했다.

『속음청사』 1910년 9월 1일

일본 칙사 이나바(稻葉)가 창덕궁에 이르러 책봉식을 행하고, 또 덕수궁에 이르러 의식을 행했다. 창덕궁(순종)께서는 어가(御駕)를 통감부(統監府) 칙사들이 있는 곳으로 돌게 하여 사례하셨다. “천지

40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 경술국치 후 이희(李熙)로 개명(改名).

41 “처음에는 이재면(李載冕)을 부르라고 했는데 순종이 다시 그곳에 누가 같이 있더냐?’ 하문(下問)하시고, ‘운양(雲養) 대감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운양 선생까지 부르셨다.”는 口傳이 후손들에게 전해온다.

42 당시의 총리대신은 이완용(李完用)이었다.

43 가자(加資): 정삼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인 당상관(堂上官)으로 품계를 올려 주는 것.

44 자경(自剄): 스스로 목을 찢어 죽는 것.

가 뒤집혔다. 오호! 슬프다.” 괴산(槐山) 출신의 금산(錦山) 군수 홍범식(洪範植)이 이 소식을 듣고 자결하여 이로써 스스로 ‘자정(自靖)의 의(義)’⁴⁵를 다했으니, 살아있는 이들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성주 군수 또한 의를 지켜 순국했다고 한다.

『음청사』와 『속음청사』는 김윤식이 직접 기록한 내용이므로 다른 기록보다 정확할 것이다. 위 기록으로써 ‘아니 할 수 없으니 찬성한다’고 했다는 것은, 역사 기록조차 제대로 해독해 읽어본 적 없는 이들의 무책임한 억측임을 명징(明徵)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선생이 「대일본장서」를 조선 총독과 일본 내각에 보낸 다음날 취조 검사 가와무라(河村)에게 답변한 내용에서 다시 확인된다.

경술년(庚戌年) 합병(合併)의 번고(變故)를 당해 나는 우리 임금의 부르심으로 입궐하여 ‘합병이 불가하다는 것을 극렬하게 진정(陳情)했는데 어찌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하는가? 시세(時勢)가 이미 기울어 나는 이때부터 대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지 십년, 오늘에 이르렀다. 당시 어전회의에 참석한 내각의 모든 사람이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총독 또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체 이를 숨기고 세상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였으니 어찌 묵연(默然)히 장래의 순리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⁴⁶

1910년 8월 22일 오후, 어전회의 참석자는 총리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조중응(趙重應), 탁지부대신 고영희(高永禧), 법무대신 이재곤(李載崑), 왕족 대표 이재면(李載冕), 대한제국 중추원 의장 김윤식(金允植), 궁내대신 민병석(閔丙奭), 시종원경 윤덕영(尹德榮), 시종무관 이병무(李秉武) 등이었고 별실에는 윤택영(尹澤榮)⁴⁷과 총독부에서 파견된 구니와케 쇼타로(國分象太郎)와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차관이 대기하고 있었다.

학부대신 강암(剛庵) 이용직(李容植)은 오전에 이완용, 박제순, 고영희, 조중응 등이 조선 총독 데라우치의 명령을 받아 소집한 내각회의에 참석했으나 처음부터 일한 병합(日韓併合)에 목적을 두고 개최된 회의 분위기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열린 어전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전회의에서 병합에 반대한 김윤

45 자정지의(自靖之義): 순국(殉國)하여 신하로서의 의(義)를 지키는 것.

46 『속음청사(續陰晴史)』하1971.3.20, 국사편찬위원회-탑구당) 1919년 3월 29일자, p.493

47 윤택영: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의 아버지. *순정효황후는 경술국치 직전 열린 어전회의에서 이완용 등이 순종 황제에게 국권(國權)을 빼앗아 왜인들에게 넘기려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저지하고자 치마 속에 옥새(玉璽)를 감추고 내놓지 않았다. 숙부인 윤덕영이 강제로 빼앗아 조약문(條約文)에 옥새를 찍었다.

식과 이용직 두 분은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했고, 이런 연유로 훗날 「대일본장서」에 연서(連署)를 하게 된 것이다.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는 정교(鄭喬) 선생이 1864년부터 1910년까지 47년간 자신이 직접 보고 듣거나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엮어낸 책인데, 김윤식과 관련하여 1910년 8월 29일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경술국치를 앞둔 어전회의 분위기를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에 앞서 8월 22일 저녁 때 통감부(統監府)의 여러 관리(官吏), 이완용(李完用) 등 각 대신과 시종원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 중추원 의장 김윤식(金允植)이 창덕궁(昌德宮)에 모였다. 6시 경 이완용과 윤덕영이 두 조칙을 내놓고 어새(御璽)를 찍으라고 황제를 핍박하니, 황제께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김윤식이 홀로 말했다. '생각컨대 우리 한국은 폐하 한분의 한국이 아니니, 다른 사람에게 양여(讓與)하는 것을 가변이 논할 수 없습니다.' 이완용과 윤덕영은 일본 관리들의 지휘를 받아 김윤식과 여러 사람을 쫓아내고 마침내 황제의 어새를 가져다 찍었다. 일본인들은 어새를 찍은 후 어새를 통감부로 가지고 갔다.⁴⁸

어느 출판사에서 낸 『대한계년사』 번역서에는 '핍제압어새(逼帝押御璽), 제부지소위(帝不知所爲)'를 "옥새를 찍으라고 황제를 몰아세웠다. 황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순종 황제를 모욕한 것이다. 순종은 그렇게 바보 황제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세자 시절 모후(母后)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왜인들이 모후를 서인(庶人)으로 만들려 할 때 "차라리 사위(辭位)하겠다."는 결단으로 왜인들의 의도를 포기시키기도 했다. 원문을 잘못 번역해 순종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 황제로 만들어 버렸으니 참으로 참람(僭濫)되고 무책임하다.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의 『대한제국 황실 비사(大韓帝國皇室秘史)』에 의하면 "(어전회의에서) 누군가가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치욕을 당하니 신하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인들의 감시가 삼엄한 어전회의에서 목숨을 내놓고 유일하게 울부짖으며 합병을 반대한 김윤식의 행적은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불가불가(不可不可)'라는 한 구절을 두고 분분했던 이견(異見)은 이로써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부기(附記)하는 『속음청사』의 「대일본

48 『대한계년사』(1971. 3. 20. 국사편찬위원회 발행, 탐구당 편.) 하권 1910년 8월 29일, p.412.

장서」 내용과 재판 과정에서 일본인 검사와의 문답에서 더 명징하게 드러난다.

「대일본장서」를 읽어보면 김윤식은 당당하게 조선 독립의 환인(還認)⁴⁹을 주장하며, 때로는 천리(天理)로 일본인들을 강력히 겁박(劫迫)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금(古金)의 인의(仁義)를 들어 달래기도 하면서 조선 독립 인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경술국치 당시 어전회의에서 자신만이 이완용에 맞서 합병에 극력 반대했음에도 세간(世間)의 오해로 인해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홀로 울분을 삭여야 했던 마음을 거침없이 토로하고 있다.

먼저 「대일본장서」를 읽고, 다음에 그의 일기인 『속음청사』의 체포 과정과 재판 기록을 신는다. 「대일본장서」의 원문만을 신되, 번역문을 앞에 신고 원문을 붙인다.

「대일본장서」(기미년 3·1 운동 때)

도(道)가 귀하여 시대를 따를 때 정치는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 있으나, (지금)은 도가 시대를 따르지 않으니 도가 아니며, 정치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니 훌륭한 정치도 아닙니다. 일한(日韓)이 합병⁵⁰된 지 십년 동안 부요(富饒)함을 일으키고 폐습을 버려서 비록 다소 개량된 점은 있으나 아직 백성을 편안히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거리에 커지면서 만백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열흘이 내에 전국에 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부인과 어린이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어 서로 팔짱을 끼고 싸워 일어날 것이니, 앞에서 앞서지도 끊임없이 뒤를 이을 것이며, 죽고 사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니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원망이 있는 것이니, 마음속에 쌓아두고서도 감히 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백성들도 하루아침에 그 기운을 토해낼 것이며, 그렇게 되면 마치 황하의 물처럼 도도하고 탕탕하게 흘러넘쳐서 한 번 가더라도 다시 닦쳐올 기세이며, 인심이 화동(和同)하는 정세를 어찌 천심(天心)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오늘 일을 진정시키는 길은, (민심을)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면 더 사나워질 것이요, 너그럽게 한다면 말로써 가르쳐 다독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두렵고 꺼려하는 바가 없어지게 되면서 분노는 그칠 날이 없게 되어, (당신들이) 사나우면 백성들을 잡아들여 죽이려 할 것이고, 장차 (독립운동은) 더 격렬해 지면서 죽이는 것으로는 당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면, 마침내 좋은 계획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독립운동에 나선 백성이 바라는 바는 조선 본래에 있던 것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니, 남의 노예가 된 부끄러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선 백성이) 가진 것이라고는 빈주먹과 (독립을 외치는) 헛바다 하나뿐이나 패악한 뜻이 아님은 알 수 있습니다. 어진 군자는 마땅한 바를 긍휼(矜恤)히

49 환인(還認): 되돌려 인정함.

50 합병(合併): 일제(日帝) 침탈기(侵奪期)에는 어쩔 수 없이 '합병'이라 했다라도 지금은 '합병'이라 하면 안된다. 대학 교수 중에도 '한일합방'이나 '한일합병'이라는 말을 쓰는 이가 있다. 우리가 일본을 병탄(併呑)했다면 '한일합방'이나 '한일합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나 국치(國恥)를 당한 우리는 결코 써서는 안되고,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 해야 한다.

용서하면서 받아들임이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체포되는 사람이 서로 뒤를 잇고 옥에 갇힌 사람이 넘친다고 하니 채찍을 휘두르고 매를 쳐서 족쇄를 채운다 해도 모두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무기를 쓴다고 하면 주검이 서로를 베개 삼아 쌓일 것이니 그 광경은 참혹하고 슬퍼서(사람으로서) 차마 듣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군(郡)과 현(縣)의 소요는 더 심하게 될 것이니, 어찌 근본이 아닌 것으로 아직 풀지 못한 사태를 좇아 해결할 수 있겠으며, 변고(變故)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설령 군중을 선동하는 자를 보이는 대로 죽인다 해도 다만 얼굴을 바꿀지언정 마음까지 바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는 백이면 백 모두가 독립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 있으니 방 안에서 홀로 외치는 사람은 몇 백만 명인지 알 수 없으며 또 그 백성들을 모두 찾아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대저 인명은 풀잎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맹자(孟子)가 제(齊)나라 선왕(宣王)에게 이르되, “연(燕)나라 백성이 기뻐하면 연나라를 취하되, 취하면서 연나라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취하지 마십시오.”⁵¹라고 하였으나 제나라 왕은 맹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마침내 심히 부끄러운 말을 들었으니 이와 같이 앞에 가던 수레가 엎어지면 이를 귀감(龜鑑)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저 시운(時運)이라는 것은 성인(聖人)이라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천심의 향배(向背)는 백성에게서 경험(經驗)하는 것이며, 백성을 불안하게 하면서 그 강토를 가진 자는 예로부터 아직 있던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렵고 혹독한 때를 만났으며, 높고 이둔하며 부끄러움도 모른 채 이미 병합 초기에 작위(爵位)와 관직(官職)을 받아 얼굴을 바꾼 지 오래입니다만, 지금 같은 때에 무고한 백성과 함께 물과 불속에 들어갈지라도 차마 거짓됨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또한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독립을 부르짖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 의람(猥越)됨을 피하지 않고 속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하께 바라건대 이 서장(書狀)을 천황 폐하와 의회, 내각의 여러 대신께도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해결책은 변설로 가르쳐 되돌리거나 위력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위로 천시(天時)를 따르고 아래로는 백성의 정황(情況)을 살펴서 일본 스스로 먼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며, 이로써 공정(公正)한 의(義)를 천하에 확연히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날 일본이 각국에 약조(約條)한 것을 두루 알리며, 또한 법에 어긋남이 없음을 각국이 양해(諒解)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한다면, 달이 해를 삼켰던 것을 다시 회복함과 같아서 광명(光明)의 덕스러움이 팔방에 비치는 것이니 누가 감히 우러르고 찬송(讚頌)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문을 닫고 살면서 병들어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나 감히 추요(薺薺) : 자기 문장에 대한 겸칭)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말씀을 살펴주시면 참으로 억만 백성의 행복일 것이며, 저희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죄는 저희들 한 몸에 있습니다. 늙어서 죽을 날이 머지않은 저희는 백성을 위해 명을 청하는 것이니 죽은들 또한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병석에 누워 혼미(昏迷)하여 말도 조리(條

51 『맹자(孟子)·양혜왕(梁惠王)』: 제나라가 연나라를 쳐서 이겼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혹 과인이 연나라를 취하지 말아야 할까요, 취해야 할까요? 만승의 나라로써 만승의 나라를 50일 만에 이겼으니 사람의 힘으로 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취하는 것이 어떨까요?” 맹자가 대답했다. “연나라를 취하면서 그 백성이 기뻐하면 취하십시오. 옛 사람도 이렇게 한 것이 있으니 바로 무왕입니다. 취하시되 연나라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취하지 마십시오. 옛 사람도 이와 같이 한 적이 있으니 바로 문왕입니다.” 그러나 선왕이 연나라를 쳐서 병탄하려 하자 천하의 제후들이 제나라를 치러했다. 선왕은 할 수 없이 연왕을 세우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理) 있게 할 줄 모르오니 오로지 각하께서 깊이 살펴 사랑(恕諒)해 주시기 바라며, 초초(草草)히 예(禮)를 다 갖추지 못합니다.

김윤식
이용직

내각 총리대신 원경(內閣總理大臣原敬) 각하

「對日本長書(己未三·一運動時)

道貴隨時, 政在安民, 道不隨時, 非達道也, 政不安民, 非善政也. 日韓合併, 于茲十年, 興利祛弊, 雖有多少改良, 未可謂之安民也. 近者獨立之聲, 日唱于街, 而萬衆同聲和之, 旬日之內, 全國波動. 至於婦人孺子, 亦皆掖腕爭奮, 前仆後繼, 不顧死生, 此曷故焉. 意必有忍痛含冤, 積中而不敢發者, 一朝吐氣, 如決黃河之水, 滔滔湯湯, 有一往返之勢, 雖云大同之與情, 豈非天耶? 今日鎮定之道, 非寬則猛, 寬則說諭慰撫, 將無所畏憚而息鬪無日, 猛則芟夷撲滅, 將愈增激烈而不可勝誅. 若不解決根本, 終無善策矣. 今羣動之民, 其所願者, 欲復舊有之物, 而得免奴隸之恥也. 其所持者, 空拳單說, 表白其冤鬱之情也, 其無悖惡之志, 斷可知也. 仁人君子, 所宜矜恕而涵宥者也. 比聞逮捕相屬, 囹圄充溢, 鞭笞之下, 鎗鎖之中, 往往不得其死. 又或使用武器, 積屍相枕, 情狀慘怛, 有不忍聞, 然而列郡騷擾, 愈往愈甚, 豈非根本未解從事, 無勦之故歟? 假使群動者, 隨現誅戮, 只能革面而不能革心. 人人心中, 皆百獨立二字, 暗室獨唱者, 不知幾百萬人, 又可盡搜而殺之乎? 夫人命非可以草管視也. 昔孟子謂齊宣王曰, 取之而燕民悅則取之, 取之而燕民不悅則勿取, 齊王不能用, 終有甚慙之語, 此足爲前車之鑒也. 夫時者, 聖人之所不能遠也, 天心之向背, 驗之於民, 民不安而能保有其疆土者, 自古未之有也. 僕等, 遭時艱劇, 老頑無恥, 既受爵拜官併合之初, 而革面久矣. 今當此會無辜赤子, 入於水火之中, 不忍嚙視. 僕等, 亦暗室獨唱者中一人也, 不避猥越, 披瀝肝膽. 幸望閣下, 將此事狀, 轉達天陛, 議及于內閣諸公, 目今解決之策, 非說諭之所可回, 威力之所可服. 惟在上順天時, 下察民情, 自日本先認朝鮮獨立, 以示廓然大公之義於天下. 遍告于前日有約各國, 各國諒亦無不充準, 夫如是則與日月之食而復更, 光明之德, 照映八表, 孰敢不瞻仰而讚頌哉. 僕等, 閉戶調疴, 不識世情, 敢陳芻蕘. 言之探也, 實爲億萬民之幸福也, 言不見探, 罪在僕等一身. 僕等, 景迫桑榆, 爲民請命, 死亦何恨. 病枕昏慣, 言不知裁, 惟閣下, 深察而恕諒之, 草草不備.

金允植
李容稷

內閣總理大臣原敬 閣下

「대일본장서」와 관련된 『속음청사』의 관련 기록

(1919. 3. 28.)

소요가 날마다 심해진다. 어제는 경성(京城)의 각 동이 함께 움직였는데, (왜경의) 칼날에 죽은 사람이 셋이라 하며, 독도²⁰에서는 죽음을 당한 사람이 여덟 명이나 되고, 다친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 없어 그 참상(慘狀)이 극에 달했다. 나는 강암(剛庵) 이용직(李容植)과 서로 논의하여 총독부와 일본 정부에 장서(長書)를 보냈다. 국민을 가궁(可矜)히 여겨 설론(說論)이 아닌 위력으로 제압해서는 안 되

며 마땅히 시의(時宜)를 따라 우리 독립을 인정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인지라 화가 반드시 내 몸에 미칠 것을 알거니와 근심할 틈조차 없을 것이다.

(1919. 3. 29.)

이른 아침에 옛 경무관(警務官) 연수(然壽)가 왔다. 총독에게 보낸 「대일본장서(對日本長書)」 때문인데, 이른바 장서(長書)로 민심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법무와 경무부에서 30여명이 왔는데 검사가와 무라(河村)가 대면(對面)하여 선동한 까닭을 힐문했다.

“우리나라는 4천년 독립국이며 역사가 초연(超然)한데 하루아침에 남의 노예가 되었으니 어찌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없겠는가. 이제 민심이 일제히 분기(奮起)하여 생사를 돌보지 않고 앞에서 쓰러지면 뒤에서 엎어져 피를 흘리며 하늘을 부르는 정황(情況)이 참으로 불쌍한 까닭에 총독부에 장서를 보내 진정(鑑定)시킬 도를 말한 것이니 본래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죄로 삼는다면 그 죄는 나에게 있으며 백성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은 것이니 죽음 또한 달게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온 세상에 널리 퍼뜨렸으며, 아울러 동경에 있는 일본 내각과 여러 신문사에까지 보냈으니 어찌 선동하고자 한 까닭이라 하지 않겠는가?”

“내 말은 당당하게 정의로운 것이니 어찌 숨겨서 우물쭈물 하리오? 온 세상에 공표(公表)한 것은 내 마음도 백성과 한가지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미 마음이 이와 같다면 당초 합병시에 어찌 한 마디도 이의(異意)를 말하지 못했는가?”

“경술년 합병의 변고(變故)를 당해 나는 우리 임금의 부르심으로 입결하여 ‘합병이 불가하다는 것을 극렬하게 진정(陳情)했는데 어찌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하는가? 시세(時勢)가 이미 기울어 나는 이때부터 대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지 십년 만에, 오늘에 이르렀다. 당시 어전회의에 참석한 내각의 모든 사람이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총독 또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체 이를 숨기고 세상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였으니 어찌 묵연(默然)히 장래의 순리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찌 작위를 받았는가?”

“그 때 작위를 준다는 설이 있기에 나는 놀랍고 괴이(怪異)하게 여겨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총독에게 서신을 보내 ‘나라(朝鮮)에 죄를 짓고 공(功)도 없으니 작위를 받지 않겠다고 맹서하였으나 총독의 답장을 받지 못했고, 홀연 덕수궁(德壽宮-高宗)의 칙사 조민희(趙民熙)와 창덕궁(昌德宮-純宗)의 칙사 민병석(閔丙奭)이 두 분의 어명(御命)을 가지고 왔으며, 아울러 창덕궁의 유지(諭旨)가 있었었는데, ‘군신(君臣)은 한 몸이니 다를 수 없다. 내가 이미 이왕(李王)에 봉해졌는데 경(卿)이 홀로 작위를 받지 않으니, 내 마음이 심히 불안하다.’ 고 하셨다. 두 사람의 칙사는 두 분 임금께서 이 일로 몹시 근심하여 수리를 들지 않으시는데 까지 이르시어 칙사가 돌아와 복명(復命)하기 전에는 음식도 올리지 말라는 전교(傳敎)가 계셨다하여 우리들은 칙사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없었다. 오정(午正) 때부터 밤늦도록 두 칙사가 강권(強勸)하며 압박하였다. 처음에는 차라리 죽으리라 마음먹고, 비록 우리 임금의 명이 있더라도 작위를 받지 않으리라 했지만 마지막에는 두 분 군주의 엄명(嚴命)

52 독도: 지금의 성동구 성수동(聖水洞), 광진구 자양동(紫陽洞), 구의동(九宜洞) 일대이다.

으로 재촉하는지라 부득이 승낙하였다. 나는 진실로 우리 임금의 명을 받아 작위를 받았고, 귀국의 조정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대가 이와 같이 결심했다면 어찌 백이(伯夷)와 숙제(叔弟)의 채미행(採薇行)⁵³을 본받지 않았는가?”

“백이와 숙제는 고대의 성인(聖人)이니 내 어찌 감히 그분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비록 그렇더라도 의로움을 좇는 것은 성현과 다르지 않으며 각기 그 뜻을 좇아 행할 뿐이니 하필 채미행을 좇아야만 옳다하겠는가?”

“만약 독립이 인정된다면 독립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내 말은, 천리(天理)와 인정상(人情上)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일의 성부(成否)는 국민대회를 기다려 공의(公議)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일이니 나 한 사람이 천단(擅斷)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傳『논어』)에 이르기를, ‘십실지읍(十室之邑)에도 반드시 충신(忠信)이 있을 것이다.’⁵⁴라고 했는데 이천만 백성의 지혜를 모으면 어찌 독립의 길이 없겠는가?”

통역자가 나를 비롯했는데 이외의 자질한 질문은 다 기록하지 않는다. 우리 집 안과 밖의 상룡(箱籠)⁵⁵을 모두 수색하니 서책이며 간독(簡牘) 등이 방안에 낭자하게 흩어졌는데 그 중 일기 두 권과 문고(文稿) 두 권, 장서(長書) 초안(草案) 수삼매를 가지고 돌아갔다. 오늘 왔던 사람 중 「대일본장서」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잡혀갔다. 종질(從姪) 유정(裕定)· 아들 유문(裕問)· 손자 기수(麒壽)· 내종(內從) 이범우(李範佑)· 외종(外從) 서정순(徐貞淳)· 족질(族姪) 유응(裕膺)· 족인(族人) 익경(益慶)· 고병식(高炳植)· 이계태(李啓泰) 등은 모두 손을 묶인 채 끌려갔다. 이완구(李皖求)· 김택룡(金澤龍)· 이의성(李意性) 등은 장서와 관련되었다는 혐의(嫌疑)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문간(門間)과 방을 모두 잠가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순검(巡檢)을 자주 돌았으며, 앞문과 뒷문에 모두 파수(把守)가 있어서 물샷틈이 없었다. 오로지 엄검(嚴儼)과 흥태(興太), 순악(順岳)은 잡혀가지 않았으나, 여종만이 하루 한 번 저자에 가서 식물(食物) 사오는 것만 허락되었다. 「대일본장서」에 이용직(李容植)도 함께 서명을 한 까닭에 그의 집도 오늘 우리 집과 같은 풍파를 만났고, 이태(李台)⁵⁶ 또한 감옥으로 잡혀갔다고 한다.

(1919. 6. 7.)

오후에 법원의 검사와 서기, 통역 등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예심(豫審)을 하러 갈 것인데 재판소에 도착하여 심문에 대답할 근거가 되겠는가.”

내가 대답했다. “다리에 힘이 없고, 앉아 있는 것도 숨이 차니 법정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수도 있다.”

검사가 말했다. “비록 이곳은 법정 밖이지만 여기서 예심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

검사는 나이의 거주지, 번지, 출생지 등을 묻고 또 말했다. “지난번 진정서(대일본장서(對日本長書))는 피고가 직접 쓴 것인가?”

53 채미행(採薇行):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首陽山)에서 고사리를 캐먹으며 지절(志節)을 지킨 고사(故事).

54 『논어(論語)』공야장(公冶長) 편에 공자께서 말씀 하셨다. “열 집 밖에 없는 마을이라도 반드시 충신은 있을 것이나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

55 상룡(箱籠): 서책을 보관해 둔 상자.

56 이태(李台): 이용직(李容植)을 친근하게 높여 부른 말.

“그렇다.”

“이용직(李容植)과 같이 찬(撰)한 것인가?”

“내가 초안(草案)을 만들고, 이용직 판서도 동의(同議)하여 서명한 것이다.”

“이용직은 어느 날 왔었는가?”

“날짜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지난번에 (당신들이) 수거해 간 일기책 중에 적어 놓았으니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초안을 만든 후 기수(麒壽)가 정서(正書) 했는가?”

“그렇다.”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다. 다만 찾아와서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었고, 그들은 읽어본 후 돌아갔다.”

“널리 퍼뜨린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의 마음이 백성과 같은 뜻임을 표명하고자 한 것이다.”

“무지(無知)한 백성이 이런 사상(思想)을 나타낸다면 대관(大官)된 이가 급하게 해야 하거늘 반대로 (독립운동에) 조력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탄심은 곧 천심이다. 하늘이 주신 기회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는 내가 밝히고자 했던 나의 심사(心事)이며, 홀로 동정한 것이 아니다. 경술년(庚戌年) 합병 때 내가 극력 반대한 것은 당시 이전회의에 입시(入侍)했던 대신들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일체 입을 닫고 그 사실을 가려버려서, 나만 홀로 누명을 쓴 채 밖에서는 시끄러운 비방(誹謗)이 들끓고, 나를 가리켜 나라를 팔아먹은 국적(國賊)이라고 중구식금(衆口鑠金)⁵⁷하여 씹어대니, 1910년 이래 이 같은 통분(痛憤)을 안고 말 한마디 할 기회조차 없이 은인자중(隱忍自重)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 당시 어찌 글로써 스스로를 해명하지 못했는가?”

“비록 공허하게 변명의 말을 한다고 해도 누가 그 말을 믿어 주리오. 부끄러움이 없으니 마음을 어루만지며 문을 닫고 내 본분을 지켰다.”

“작위(子爵)의 작위를 받고 은사금(恩賜金)⁵⁸을 받은 것은 특전(特典)이니 마땅히 국가(일본)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작위를 받지 않고자 했다면 어찌하여 고사(固辭)해 환납(還納)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며, 이제 와서 홀연히 반대하는가?”

“작위를 받고, 은사금을 받은 은의(恩誼)에는 비록 감사하나 이는 한 개인의 감은(感恩)이요, 지금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거국적 공의(公議)거늘 어찌 개인적 감은으로 나라의 공의를 폐할 수 있겠는가? 또 당시 작위를 받은 일은 지난번 심문 때 말했거니와 작위를 받는 것은 본래 내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작위를 받지 않고자 하여 총독에게 고사하는 글을 보내 수작(受爵)이 하지 않겠다는 뜻을 말했으나 총독에게서는 답이 없었고, 덕수궁(德壽宮-고종)과 창덕궁(昌德宮-순종) 두 분께서 칙지(勅旨)를 보내사 간곡한 유지(諭旨)로 당부하시는지라 부득이 받게 된 것이다. 이 또한 우리 임금의 명을 받들어 작위를 받은 것이니, 귀국 조정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아는 이는 알고 모르는 이

57 중구식금(衆口鑠金):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일 수 있다는 故事.

58 김윤식 선생은 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는 모르거니와, 이를 두고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작위를 받았다고 지금까지도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있다. 또 근일(近日)에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글을 전파한 사람들이 내가 유림(儒林)의 대표가 되어 도장을 찍었다고 하거니와 이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데도 수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파되어 국민포고서(國民布告書)에까지 올라가서, 옛날에는 참방(讒謗)을 당하고 지금은 추노(醜奴)⁵⁹라는 비방이 내 한 몸에 모이고 있으니 백개의 입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마침내 독립청원서로써 총독부와 동경의 일본 내각, 각 보도기관 등에 진정(陳情)하여 널리 퍼뜨리고, 내 심사(心事)를 밝힌 것이다. 만약 이로써 선동죄가 된다면 비록 나에게 죄가 없더라도 또한 달게 벌을 받고 피하지 않을 것이다.”

“군자는 혐의(嫌疑)를 피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느 책에 나오는가?”

“『논어』에 나온다.”⁶⁰

“『논어』에는 이와 같은 말이 없다. 난리(亂離)를 당해 구차히 피함이 없다는 말은 있거니와 이것은 군자는 의(義)를 위해 혐의를 멀리한다는 뜻인데, 군자가 혐의를 피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어찌하여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고사리 캐던 일을 본받지 않는가?”

(이 문답은 이미 3월 28일 초심 때와 같으므로 생략함)

“피고는 최남선(崔南善)을 이는가?”

“알고 있다.”

“최남선과는 얼마나 왕래했는가?”

“이 사람은 일이 많은 사람이다. 세시(歲時)에 한두 번 왕래가 있었다.”

“말한 바가 있는가?”

“독립선언서에 서명해 줄 것을 청했는데 나는 ‘이 사안(事案)에 그대와 뜻이 같으나 가볍게 움직일 수 없다. 현재 나라도 없고, 정부도 없으니 누구를 위해 선언하는 것인가? 때가 너무 이르니 나는 참섭(參涉)하지 않으려 한다.’ 고 했는데 이후에는 다시 왕래가 없었다.”

“손병희(孫秉熙)의 선언서를 피고가 옳다했는가?”

“손병희와는 길이 같지 않아서 처음에는 얼굴을 알지 못했으나 이번 거국적(舉國的) 동정(同情)에 나 또한 그것이 틀렸다고 배척하지 않는다.”

.....

“동경의 여러 신문사에 모두 실린 것은 피고가 부탁한 것인가?”

“그렇다. 널리 알리고자 했을 뿐이다.”

“당신의 말처럼 독립이 인정된다면 이씨왕조(李氏王朝)를 다시 받들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이 일은 나라 백성들의 공의(公議)에 부쳐서 결정해야 할 일이며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우

59 추노(醜奴): 더러운 노예.

60 『논어-공야장(公冶長)』 공자께서 현명한 남용(南容)을 형의 사위로 삼고, 그보다 재주가 못한 공야장을 사위로 삼은 일을 누구도 비방하자 정자(程子)께서 말씀하셨다. “이로써 성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보통사람은 혐의를 피하지만 다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公正하시니 어찌 혐의를 피할 일이 있으리오. ... 혐의를 피하는 일은 賢者도 하지 않는 일이거늘 하물며 聖人이리오.” * 聖人은 嫌疑 받을 일음 아에 만들지 않는다는 뜻. 『고문진보(古文眞寶)』 섭이중(聶夷中)의 시에 “군자는 미연에 방지하여, 혐의가 있는 곳에 있지 않으신다네. ... (君子防未然 不處嫌疑間)” 라는 내용이 있다.

리 임금을 다시 모실 수 있다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국호(國號)를 정하고 정부를 세워 창덕궁(昌德宮)을 모셔서 이조(李朝)의 국맥(國脈)을 잇는 일은 먼저 귀국으로부터 승인이 있고, 각 국에 통지한다면 각국이 일찍이 우리 정부와 더불어 맺은 조약이 있으니 반드시 반대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된다면 이씨(李氏)의 신민(臣民)된 자 누가 감히 다른 의견이 있으리오. 소욕은 자연스럽게 진정되고 비록 독립을 하더라도 이곳에 있는 귀국의 중추원은 진실로 전과 같을 것이다. 이로부터 동양의 세력은 공고해질 것이며, 평화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니 계획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인데 어찌 귀국은 이를 듣지 않고 반대로 죄가 있다 하니, 어찌 훗날의 후회가 없겠는가.”

심문이 끝나고 서약서 한 장을 내주며 도장을 찍으라 하는데 문답(問答) 기록에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검사가 일어나지 않은 채 또 말했다. “더 물을 일이 있으면 마땅히 다시 와서 심문할 것이다.” 오후 1시에 잠시 쉬고, 오후 4시에 (심문을) 마쳤다. 서기가 책상에 앉아 빠르게 썼는데 대략 십수매 분량이었고, 세밀하기가 파리 머리 같아서 그 상세함을 알 수 있다.

이후 김윤식과 이용직은 1919년 7월 11일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아들 김유문은 징역 1년, 손자 김기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920년 4월 29일 왕세자 가례(嘉禮) 때에 김윤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고, 이용직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풀렸다.

결론

김윤식은 1865년 12월 말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음청사(陰晴史)』에는 1881년 9월 1일부터 1883년 8월 25일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고, 『속음청사(續陰晴史)』에는 1887년 5월 29일부터 1921년 12월 31일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또 『추보음청사(追補陰晴史)』에는 누락된 일들을 보충하여 적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성실한 선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거의 매일 빼먹지 않고 쓴 그의 일기는 개인사(個人史)이면서, 나라가 쇠망(衰亡)해 가는 격동기의 근세사 기록이기도 하다.

본고(本稿)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술국치 어전회의에서 유일하게 이완용에 맞서서 “안됩니다.”라고 극렬하게 반대하며 울부짖은 사람이 운양 김윤식이었음을 『속음청사』와 정교(鄭喬)의 『대한계년사』 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운양 선생이 1919년 3월 28일 조선 총독과 동경의 일본 내각에 보낸 「대일본장서」에 의한 재판 기록을 통해, 친일 누명을 쓰고도 아무 말 못한 채 두문불출해야 했던 처지와 정황도

애국지사 구연영

구연영의 가계와 생애



독립운동가 구연영

구연영(具然英, 1864~1907)의 본관은 능성(綾城). 호는 춘경(春景). 1864년(고종 1) 6월 20일 부친 구철조(具哲祖)의 셋째 아들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대한제국기에 국권 회복을 위한 항일 투쟁에서 무력으로 항거하다가 힘의 열세를 직시하고 국력 배양을 중심으로 한 항일 투쟁으로 전환하여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였던 의병장으로, 애국지사이자 민족의 선각자이다.

능성 구씨의 시조인 고려문괴삼한삼중대광검교상장군(高麗文魁三韓三重大匡檢校上將軍)을 지낸 구존유(具存裕)의 24세손으로, 선대는 고려 때부터 조정에서 무인의 관직으로 활동하였다. 선조 때 이후로 그의 집안이 실촌면(현 곤지암읍) 삼리에서 대대로 거주하였

다. 구연영의 호가 춘경(春景)이어서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구춘경(Ku Chun-Kyeng)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어릴 때의 성장 기록은 없으나 한문 수학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짐작되며, 18세 전에 변씨(후에 세례 받고 美禮란 이름을 얻음)와 결혼하여 네 아들을 두었다.

구연영은 한때 대한제국의 관리로 몸담았으나 부패한 조정에서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고 통분을 금치 못하여 관직을 버리고 당시의 애국지사들과 교류하며 구국 운동을 위해 헌신할 뜻을 품게 되었다.

20여 세 때 선향인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에 정착하여 10여 년간 가업에 종사하면서 당시 서울에 있던 김하락(金河洛)·조성학(趙性學)·김태원(金泰元)·신용

희(申龍熙) 등을 비롯하여 이천(利川)에 있던 화포군(火砲軍) 도영장(都領長) 방춘식(方春植) 등과 친교를 맺었다.

훗날 경기도 의병은 이천이 중심이 되어 남한산성을 점거하고, 제천의 유인석 의병과 함께 중부 지역 의병 운동을 주장하였는데, 이천 의병의 주동 인물들이 구연영·김하락·김태원·조성학·신용희 등이었으며, 무반가문 출신의 구연영이 중군장이 되어 핵심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의 집안이 대대로 거주한 광주 지역은 국난 극복사에 있어 상징적인 장소인 남한산성이 있으며,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에서 이어져 온 인맥으로 임진왜란 때부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항일 투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였던 지역이다.

일본은 청일 전쟁(1894~1895)에서 승리하여 조선을 단독 지배하고자 하였으나 삼국간섭(러시아·독일·프랑스의 공동 간섭)으로 어렵게 되자 야만적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斷髮令) 공포를 통해 이를 강제로 시행하고자 하였다.¹

이러한 일본의 야만적 침략에 맞서 각지에서 우국지사들이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의 봉기는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지만 구연영이 주로 활동했던 경기 동남지역이 가장 활발하였다. 구연영은 1895년(고종 32) 12월 단발령이 내려지자 1896년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의병 활동뿐만 아니라 이후 종교 구국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결국 장남 구정서와 함께 순국하였다.

의병장 구연영의 의병 항쟁

출생 시기의 국내외 정세

구연영이 태어난 1864년은 조선 왕조사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기였다. 고종에 앞서 재위했던 순조·헌종·철종 연간은 왕이 어리거나 우매하여 외척의 세도 정치를 불러왔고, 왕권의 추락으로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은 삼정의 문

¹ 강창일, 「러일의 각축」, 『한국사』 41, 2000, 28-30쪽.

란 등으로 빈곤을 면치 못했고 부패한 관리들에게 계속적인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1863년 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고종의 즉위가 있었다.

그러나 왕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압도적인 화력의 신무기로 무장한 서구 열강은 물론 청나라와 일본까지 가세한 제국주의 소용돌이에서 조선은 스스로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주변 열강들의 힘을 빌려 힘의 균형을 유지하였으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고, 조선에 대한 독력 지배를 이루기 위해 일제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진 정책으로 일관해 온 제정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² 러시아는 독일·프랑스와 함께 이를 반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관철시켰다. 이 삼국간섭을 계기로 조선 정부는 친러 정책으로 전환하여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 반면 삼국간섭으로 주도권을 빼앗긴 일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을 가속화했다.³

항일 의병 항쟁의 거점이 된 경기 지역

경기 지역은 전국적 교통망의 요지로서 각 지방으로부터 정보 교환이 용이해 선도적인 항일 운동 전개가 가능하여 의병 항쟁이나 3·1운동 때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서울에 인접한 이점으로 일제가 점거한 통감부나 조선총독부에 대한 공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896년 봉기한 민승천(閔承天)·김하락 등의 남한산성 의병이 서울 공격 작전을 계획하는 등 주요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경기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서울과 인접한 문화의 중심지였기에 의병 항쟁을 계승한 폭넓은 항일 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운동의 사상적 생산기지가 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독립운동 지도자를 배출하였다.⁴

한편, 광주와 인접 지역에서 일어났던 의병의 주류는, 갑오변란에 반발하여 의병 항쟁을 위해 지평(砥平)에서 모병 활동을 전개한 안승우(安承禹)를 중심으로 하는 지평 의병과 을미사변과 단발령 공포를 계기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항전한 구연영·

2 김상기, 『한말 의병연구』, 일조각, 1997.

3 독립기념관, 『경기 남부 항일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1쪽.

4 독립기념관, 『경기 남부 항일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0쪽.



구연영 의병전적지

김하락 의병진이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의병 활동에서 광주 지역의 항일 인맥을 살펴볼 수 있다.

항일 의병사에 길이 빛날 전투

구연영의 의병 편성

광주 지역에서의 의병 활동은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성인 한양으로 단시간 내에 진입이 가능하여 의병의 취약점인 병력의 노출을 피할 수 있었고, 전쟁 중 세가 불리할 때는 퇴각하기가 용이했다. 이러한 이점은 구한말에도 이어졌다. 경기 남부 지역은 조정이 위치한 한양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대한제국기 일제의 침략 행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항일 독립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고 그들을 몰아내고자 각 지역에서는 무장 의군이 일어났으며, 일제가 설치해 놓은 시설을 파괴하거나 일본군을 습격하였다. 이들을 항일 의병

이라고 한다. 의병은 189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의병 항쟁은 1895년 12월 30일 단발령이 공포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신체발부수지부모'라는 유교 관습을 따르던 조선의 유림들에게 상투를 자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불효였다. 결국 받아들이기 힘든 단발령이 공포되자 명성황후 시해로 인해 부분적으로 일고 있던 의병의 기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기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단발령이 공포된 후 의병 부대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가 조직됐던 것이다.

'이천수창의소' 의병진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김하락·구연영·조성학·김태원·신용희 등인데, 이들은 거의(擧義)에 나서기 이전에는 모두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중 단발령 소식을 듣고 다음날인 12월 31일에 이천으로 이동하여 의병 활동에 착수하였다. 이들이 이천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이천군 화포군 도영장 방춘식이란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방춘식은 위의 다섯 사람 중 광주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던 구연영과는 이전부터 면식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하락 일행은 이천에 도착하자 우선 방춘식을 방문하여 의병 활동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고, 방춘식은 이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천에서 병사를 모으는 데 있어 방춘식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방춘식은 포군 100여 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고, 김하락을 위시한 다섯 사람은 이들을 분담, 인솔하여 의병 모집에 착수하였다. 구연영은 양근(楊根)·지평(砥平)으로, 조성학은 광주(廣州)로, 김태원은 안성(安城)으로, 신용희는 음죽(陰竹)으로 각각 출발하였고, 김하락은 이현(梨峴)에 남아 총지휘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천 지역 관포군들의 지원에 힘입어 의병 모집은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구연영은 양근·지평에서 300여 명을, 조성학은 광주산성(남한산성)의 별패진 포군 300여 명을, 신용희는 음죽·죽산(竹山)에서 화포군 300여 명을 모집해 왔고, 김태원은 안성에 들어가 이미 거의(擧義)해 있던 민승천(閔承天)과 합세하기로 약속하였다.

의병 전투사의 첫 승리 백현 전투

1896년 1월 17일 의병진의 결성이 마무리 되었을 무렵 일본군 수비대 소속 보병 100여 명이 이천으로 공격해왔다. 이때 의병진에서는 복병 전술로 대항할 것을 계획하였

고, 조성학·김태원·김귀성·신용희 등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백현을 중심으로 야산에 매복하면서 일본군 수비대를 기다렸다. 1월 18일 일본군이 도착하자 조성학의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전투 상황을 김하락은 『진중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른 아침에 조성학은 적을 맞아들어 두 시간 가량 격전을 하다가 갑자기 쇄복을 울리며 퇴군하여 백현으로 향해 달아나니 적병이 고함을 치며 뒤를 쫓아와 백현 아래 당도하였다. 그때 문득 대포소리가 울리며 구연영은 전면을 가로막고 김귀성·신용희는 산 중턱으로부터 쏟아져 내리고, 조성학은 적의 갈 길을 차단하여 사방에서 협격하니 적은 포위망 속에 빠져서 진퇴의 길이 없었다. 나는 군사를 지휘하여 엄습하였는데, 적병의 죽은 자가 수십 명이었고 우리 군사는 한 사람도 상한 자가 없었다. 한참동안 무찌르다 보니 날은 이미 저물어 초생달은 서쪽 하늘에 떠있는데…… 이윽고 달은 지고 저녁 10시 경이 되자 적은 한 가닥 길을 찾아 암암리에 돌아갔다. 좌우의 우리 군사는 밤새도록 뒤를 쫓아 광주 장항 장터에 도착하였다. 바로 초닷새날 새벽이었다.

의병진은 첫 전투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상대로 낮밤을 계속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고 후퇴하는 일본군을 추격해 완전히 섬멸하는 쾌거를 올렸다. 일본군 수비대 180여 명이 출동하여 불과 2~3명만이 살아 돌아갔다고 하는데, 기록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의병진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백현 전투에서의 대대적인 승리는 전기 의병 항쟁 사상 최초의 대규모 승리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백현 전투 이전에도 산발적인 격돌은 있었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승리는 없었다. 특히 백현 전투에서의 승리는 의병 봉기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현에서의 혈전

이현 전투는 이천수창의소 의병진이 벌인 두 번째 전투이다. 백현에서 참패했던 일본군 수비대는 1896년 2월 12일 약 2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재차 이천으로 공격해 왔다. 이때 김태원은 1초(哨)군을 거느리고 최전방에서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이는 역할을 맡았고, 조성학은 원적산(圓寂山)에서, 구연영은 1초군을 거느리고 이현 동구에서, 신용희와 심종만은 각각 1초군을 거느리고 김태원의 후방에서 복병하고 있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고 쌍방이 모두 물러나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었다.

다음날 새벽에 다시 접전이 시작됐는데, 마침 의병진을 향해 서북풍이 불고 눈보라가 일어 전세는 의병진에게 지극히 불리하였다. 결국 눈보라를 등진 일본군이 일시에 공격하자 의병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지라 싸움을 포기한 채 흩어졌다. 당시의 치열했던 상황을 『진중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30일(음력-인용자) 새벽녘에 적병이 또 와서 공격하므로 여러 장수들이 힘을 모아 전진하여 두어 시간 동안 큰 싸움을 벌였는데 10시 정각에 이르러 서북풍이 크게 불어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이윽고 큰 눈이 사뭇 내려 지척을 분별하기 어려웠다. 이때 적의 군사는 서북을 등지고 동남을 향하고 우리 군사는 동남을 등지고 서북을 향한 까닭에 풍설이 얼굴에 드러서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뜰 수 없게 하므로 여러 군사가 수족을 놀릴 수 없어 다만 빈총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져 목숨을 유지키로 하니 형세 매우 창황하여 부득이 군사를 거두어 본진으로 돌아왔다.

이현 전투의 패배로 인한 손실은 이천수창의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군은 의병을 토벌한다는 명분 아래 의병뿐 아니라 이현 마을 전체를 무자비하게 초토화시켰다. 전기 의병사에서 일본군의 대표적인 만행의 하나로 1896년 4월 2일 안동을 초토화시켰던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앞서 이미 이현에서 안동에 못지않은 만행을 일본군이 저질렀던 것이다.

남한산성에서의 서울 진공 시도

이현 전투의 패배로 이천수창의소 조직이 크게 와해된 후 김하락은 다시 의병 활동의 재정비에 나섰다. 그는 먼저 2월 14일 여주의 심상희를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였고, 심상희로부터 병사 500여 명을 지원받아 돌아왔다. 이어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흩어졌던 구연영·신용희·전귀석·민승천을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다시 약 2,000여 명의 병사들이 모집되었다. 남한산성 연합 의병진은 천혜의 요새지 남한산성을 점령하고, 풍부한 군수 물자를 갖추었으며, 그 위에 1,600여 명의 병력도 구성되어 바야흐로 일본군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형세가 되었다. 한편 경상도 등지에서 기병한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은 3,000여 명의 의병 부대를 지휘하여 평해·울진·영해 등지에서 큰 전과를 올린 바 있고, 영천의 정용기 의병 부대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이 시기의 의병 운동은 국권 침탈을 목표로 했던 을사조약 체결에 분격, 국권 회복이라는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며 일제 침략자와 친일 매국 관료를 응징하는 데 주력하였다.

대중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가운데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장이 출현하여 독자적으로 부대를 지휘했고, 집중과 분산에 의한 게릴라 무장 활동으로 큰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일본의 일간지들도 남한산성 의병의 동향에 대해 연일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크게 당황한 것은 일본군 수비대였다. 그들은 고종을 위협하여 '이미 두 나라는 호의를 강론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백성으로 하여금 의병을 일으켜 우리를 해롭게 하니 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누차 의병 토벌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결국 일제는 친일 관리들을 위협하여 관군 500여 명을 앞세우고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3월 5일 첫 전투가 벌어졌다. 1차 전투는 의병진이 일방적인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 2~3일간 의병과 관군 간에는 산발적인 접촉이 있었으나 대체로 의병진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남한산성 연합 의병진의 서울 진공 계획은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 의병진의 급작스런 함락으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남한산성 의병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군에 비해 우세한 형세에 있었기 때문에 함락 과정에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

선각자 구연영의 전도 활동

항일 투쟁의 새로운 모색

우리 조상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각 지역에서 의군이 봉기하여 항전하였으나 일제 침략군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새롭게 모색된 방략이 바로 애국계몽운동이다. 이는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일제에게 국권을 침탈당하자 민족의 위기를 느낀 뜻있는 인사들이 국권 회복을 위해 광범위하게 전개한 운동이었다. 애국지사들은 일제에게 힘과 실력이 부족해서 국권의 일부를 빼앗겼으므로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않는 한 국권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민족의 배양된 힘과 실력으로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애국계몽운동은 국권 회복을 위한 각종 실력양성운동이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

으며, 다방면에 걸쳐 전개되었다. 특히 애국계몽운동가들은 국권회복과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반일정치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여 을사조약 반대운동과 고종 양위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1905년 이후 대한자강회와 신민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애국계몽운동가와 단체들이 국내외에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천하였는데, 우선 교육구국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에 자극을 준 것은 대한자강회의 의무교육운동이었다. 대한자강회는 약육강식·적자생존의 엄혹한 국제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명과 문명의 고도화가 약자를 강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문명 교육·실업 교육·애국 교육을 펼쳐 능력 있는 국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교육자강론을 폈다. 대한자강회의 이러한 주장에 민중들은 절대적으로 호응하여 자발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등 활발하게 교육 구국 운동을 전개하였다.

언론을 통한 민족계몽운동도 신문과 각종 학회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양기탁·신채호 등 신민회의 중요 인사들이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활약하였으며, 일제의 침략 정책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영국인 베델(Ernest T. Bethell)이 양기탁과 합작으로 경영했던 관계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배일사상을 고취할 수 있었다. 이 신문은 이완용과 일진회의 매국 행위를 폭로·규탄하고 항일 의병 운동 및 민족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과 민족 자본 육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기독교 선택과 독립운동 방략 변화

의병 운동을 통한 민족 구원의 의지가 좌절된 후 귀향한 구연영이 새로운 힘의 정체로 접근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 1894년 동학운동 이후 청일 전쟁, 을미 의병을 겪으면서 민중은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그들에게 피난처의 하나로 교회가 등장하였다.

선교사를 배경으로 한 기독교는 동학도, 청·일 양국 군대도, 조선 정부도 침범할 수 없는 치외법권이자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민중의 눈에 비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1895~1896년 피난을 가는 일반인들까지도 자기 재산을 교회에 맡길 정도로 교회는 민중의 보호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결국 생활 보호 수단을 위한 기독교 입신증가라는 결과를 빚었다. 실제 감리교의 경우 1895년 당시 교인수가 956명이었던 것이 1897년에는 2년 사이에 2,888명으로 3배의 증가를 보였다.

구연영이 자진하여 상동교회의 스크랜톤(M. F. Scranton)을 찾은 동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교사들이 구연영이 입신한 후 3년이나 지나 세

례를 주고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구속의 은총을 강조하는 선교사들과 교회를 민족 운동의 매개체로 삼으려는 구연영 사이의 갈등은 3년 동안의 매서인(賣書人) 활동과 상동교회 전덕기(당시 속장)를 중심한 엽윗청년회 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구연영은 6개월의 공백기를 거친 후 스스로 기독교계의 입신을 결단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신앙적 결단 이라기보다는 신앙 외적인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중 전도사가 된 최초의 의병장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자마자 105인 사건을 날조하여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1915년에는 '포교 규칙'과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제정하는 등 종교에 대한 탄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모두 19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교 규칙'에서 종교는 신도(神道)·불교·기독교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칙에 의하면, 포교사는 조선총독부에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했다. 또한 교회·설교소·강의소 등을 설립하고 폐지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요건이 맞지 않을 때는 조선 총독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기독교도 이러한 규칙에 따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교회의 사경회·부흥회·기도회·예배모임 등을 감시·방해하고, 출판물에 대한 검열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 이후 교회는 전국적인 연결망을 형성하였다. 동시에 해외에서도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하여 국내외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장로교회는 1907년 7명의 한국인 목사, 53명의 장로, 989개의 교회, 1만 9000명의 세례 교인, 7만 명의 신도 등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로회(獨老會)를 조직하였다. 이어 1911년 전국에 노회를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1912년 총회를 창립하였다. 장로교회는 1911년에서 1912년 사이에 2,000개 이상의 예배 처소, 14만 명의 회집, 650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등 급속하게 교세 확



순국기념비

장을 하였다.

이 무렵 구연영도 과거 의병 동지였던 차회춘·전무호 등에게 권유하여 기독교인이 되게 한 후 함께 광주·이천 지역을 돌며 전도하여 곳곳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덕평을 효시로 궁평(도척면 궁평리)·노루목(도척면 노곡리)·오천(이천시 마장면)·오향(실촌면 오향리) 등지에 교회가 속속 설립되었으며, 1902년 이천 계삭회가 설립될 당시 이천·광주·여주 지역에는 24개 교회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1,092명의 신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눈에 띄는 교회 설립과 교인 증가 외에도 구연영의 내적 변화가 전도인으로서의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민중 체험'이었다. 그리하여 전도인 체험을 통해 그는 민중 구원이 곧 민족 운동의 기본임을 깨닫게 되었다.

구연영 부자의 순국

1899년 3월 세례를 받은 후 3년 동안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성경책을 파는 매서인(賣書人) 기간을 거치면서 '의병장 구연영'은 '전도인 구연영'이 되었고, 척사위정(斥邪爲正)을 신봉했던 '유생(儒生)'에서 민중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가 민족 운동의 한 방편으로 선택했던 기독교는 오히려 이제 그를 전도인으로 선택하여 보다 철저한 봉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구연영은 전도사가 되어 이천읍 교회를 비롯한 19개 교회 1,302명의 교인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구연영이 맡은 지역은 그가 6년 전 을미의병 때 의병장으로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녔던 지역이다. 그는 이제 칼 대신 성경을 들고, 피의 복수대신 십자가의 구원을 외치며 순화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구연영이 민족 운동과는 완전히 결별한 교회 전도사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기독교를 통해 오히려 승화된 형태의 민족 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 민중 자신이 민족 문제를 심각하게 이해할 때 민족 운동은 보다 강력한 힘을 얻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맡은 구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기독교 복음과 함께 민족의 현실을 계몽하는 강연을 하였다.

특히 1904년 일제의 괴뢰 단체로 설립된 일진회(一進會)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그의 단골 강연 주제였다. 일진회의 내막에 숨겨진 일제의 조선 침략 정책을 폭로하였으며, 우선 눈에 띄는 경제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교회 조직을 통해 국채 보상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아들 구정서와 함께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국회를 조직

하였는데, 이러한 민중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인물로는 장춘명·고시영·안경진·박종석·김제안·원용한·한창섭·함동의·안석희·정기영·박성현 등이 있었다.

한편, 일진회는 대한제국기의 대표적인 친일 단체로 1904년 8월에 송병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일본에 망명해 있던 송병준은 1904년 4월 명목상 주한 일본군의 군사 통역이지만 조선 안에 친일 단체를 설립 하라는 일본의 비밀 지령을 받고 귀국했다. 이어 자신과 같은 임무를 띠고 조선에 머물고 있던 가무치(加藤知常)의 자문을 받으며 친일 고위 관료들과 독립협회 출신 친일 인사들과 접촉하며 세력을 모았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집회 결사 엄금령을 내림으로써 한일 강제 병탄에 커다란 공을 세웠던 일진회마저도 그해 9월 12일 10여 개 단체와 함께 강제 해산되었다.

구연영은 잦은 일진회 규탄 강연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주목을 받던 중에 서사(書士)로 있던 이용주의 밀고로 아들 구정서와 함께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 그리고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결국 이천 장터에서 미루나무에 묶인 채 아들과 함께 총살당하였다. 그때가 1907년 8월 24일(음력 7월 16일) 구연영의 나이 44세, 아들의 나이 25세였다. 1963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이 추서되었다.



순국기념비

이상근 | 전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사실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원 전국협의회 회장

정암 이종훈의 생애와 민족운동

실촌면 유여리에서 출생하다



정암 이종훈

이종훈(李鍾勳, 1856~1931)의 본관은 광주(廣州). 처음 이름은 종구(鍾球). 자는 진호(振浩). 천도교의 도호는 정암(正菴). 1856년(철종 7) 병진년 2월 19일(음)에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유여리(柳餘里)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이우재(李禹載)와 어머니 선산 김씨의 삼형제 중 둘째이다. 그가 태어난 유여리는 한강으로 흐르는 경안천의 지류인 곤지암천이 마을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많아 버드나무골로 불리다가 '버드라리[柳餘里]'라고 하였다. 1915년 일제가 행정

구역을 개편할 때 이웃의 절골[寺洞]과 합하여 유사리(柳寺里)가 되었다.

이종훈이 태어난 시기는 밖으로는 서양이 동양을 지배한다는 '서세동점(西勢東漸)', 안으로는 봉건체제가 무너지는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다. 그가 태어난 지 4년 후에는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이 경주에서 창도되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는 이종훈으로 하여금 격랑의 삶을 겪게 하는 시대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성품은 '천성온유인자 재아희(天性溫柔仁慈 在兒孀)'라 하여 따뜻하고 부드럽고 어질고 자애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다. 즉 온유하고 인자하였다. 또한 언행일치(言行一致)와 대인접물(待人接物, 남과 접촉하여 사귀)에 철저하여 종교가다운 모습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일에 처하여도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본래 성정이 강직하

여 한 번 굳게 정한 뜻이라면 변한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강직하였다.

이종훈은 어려서 글 잘하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10세 때부터 14세가 될 때까지 한학을 배웠다. 그러나 학문에는 뜻이 없어 폐공(廢工)하고 7~8년간 우유도일(優遊度日) 즉, 유랑 생활을 하였다. 21세에 이르러 실촌면 사동 능곡의 한 산을 사들여 진철점(眞鐵店)을 직영하였지만 4년 만에 폐점하고, 다시 설월리(지금의 곤지암읍 봉현리)에서 강순심과 수철점(水鐵店)을 동업하였지만 3년 만에 폐업하였다.

이처럼 7년간 철점을 경영하다가 결국 실패한 이종훈은 서울로 올라갔다. 판윤 이원회(李元會)의 주선으로 해영 별군관이라는 관직에 임명되었지만 불만족으로 사직하였다. 그가 사직한 것은 한말 부패한 관직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86년(고종 23) 7월 인천으로 하거하여 만석동 북송포리에서 선상 객주로 부를 축적하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4년 만에 객주 생활을 폐하였다. 이후 함흥으로 이주하였지만 북청, 정평, 영흥 등지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고향으로 돌아와 한동안 금전대차영업(金錢貸借營業)을 하였다.

동학에 입도하다

이종훈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때는 1893년으로, 이 시기 동학은 사회 변혁을 지향하던 때였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왔던 동학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1892년 공주와 삼례에서 두 차례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동학교단은 1893년 들어 광화문 앞에서 다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더욱이 광화문 교조신원운동을 겪으면서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목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동학교단은 그해 3월 10일 충북 보은 장내리에서 ‘척왜양창의운동’을 전개하면서 반외세 반제국의 기치를 내걸었다. 성리학 사상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동학은 이 시기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위해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하는 사회 변혁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마침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던 이종훈은 광화문 교조신원운동 직전인 1893년 1월 17일 동학에 입도하였다. 그가 동학에 입도한 배경은 동학의 사상, 즉 ‘시천주(侍天主)의 평등사상’, ‘척양척왜(斥洋斥倭)의 민족주체사상’, ‘유무상자의 평등사상’, ‘후천개벽의 혁세사상’에 공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동학(東學)의 사회 변혁 사상

이 그로 하여금 동학에 입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종훈 역시 철점(鐵店)을 운영하면서 동학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를 접하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동학에 입도한 이종훈은 우선 고향인 광주에서 포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광주뿐만 아니라 지평, 여주, 이천, 충주, 음죽, 안성 등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까지 포교하였다. 이러한 포교 활동으로 이종훈은 동학혁명 당시 광주에서 기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손병희의 핵심적인 참모 역을 맡게 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이어 광화문에서 전개된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였거나 참관하였을 것으로 본다. 광화문 교조신원운동은 1893년 2월 8일 전개되었는데, 이종훈이 동학에 입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더욱이 그가 활동하던 지역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참관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종훈은 동학에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핵심지도부로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광화문 교조신원운동에는 핵심 지도부 외에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 참여하였는데, 멀리 지방에 있는 교인보다는 서울 인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와 충청도지역의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수원지역 동학교인들이었다. 이종훈 역시 핵심 지도부는 아니었지만 일반 교인으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광화문 교조신원운동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한 동학교단은 그해 3월 10일 충청북도 보은군 장내리에서 척왜양의 기치를 내세우고 대규모의 시위를 개최하였다. 보은 척왜양창의 운동에는 전국 각지의 동학 교인들이 집결하였는데, 이종훈도 광주지역 동학교인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취어』에 의하면, 크고 작은 깃발을 내세워 참가한 지역을 표기하였는데, 광주지역 동학교인들은 ‘광의(廣義)’라고 표기한 깃발을 걸었다. 또한 “광주 사람 수백 명이 돈 네 바리를 실어왔다”라고 하여, 기부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보은 척왜양창의 운동에서 광주지역 동학교인들을 지도하였던 인물이 바로 이종훈이다. 「천도교 장로 이종훈씨 약력」에 따르면 “(癸巳) 三月 報恩帳內都會時 捐馬二頭 金八百”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종훈이 말 두 필과 800냥을 의연한 것으로, 보은 척왜양창의 운동에서의 역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종훈은 보은 척왜양창의 운동을 통해 동학교단의 핵심 지도부로 성장하게 되었다.

반봉건 반외세 동학혁명에 참가하다

1894년 1월 10일 전라북도 정읍 고부에서 첫 기포를 한 동학군은 3월 20일 무장 기포(起包), 3월 25일 백산대회, 5월 11일 황토현전투를 거쳐 5월 30일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조선정부와 화약(和約)을 체결한 동학군은 호남지역 각 군에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 민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해 8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동학군은 반외세 반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총기포를 하였다. 9월 18일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에 따라 호남지역 동학군은 전주 삼례에서, 경기도와 호서지역 동학군은 각지에서 기포한 후 보은 장내로 향하였다. 광주 일대를 관할하던 이종훈은 곧바로 기포를 준비하였다. 권병덕의 『갑오동학란』에는 이종훈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종훈, 이용구는 각처에 두령을 연락하여 일어나니, 흥병기 신수집 임학선은 여주에서, 홍재길 신재련은 충주에서, 임명준 정경수는 안성에서, 고계당은 양지에서, 이근풍 전규석 전일진은 이천에서, 신재연은 양근에서, 김태열 이재연은 지평에서, 염세환은 광주에서, 이화경 임순호는 원주에서, 윤면호는 횡성에서, 심상현 오창섭은 흥천에서 일어나서 모두 충주 황산으로 회집하니 회중이 수십만 인에 달하고……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을 전달받은 이종훈은 자신의 관할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와 여주, 양지, 지평, 이천 등지에 함께 기포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권유에 따라 경기도 서남부지역의 동학군은 일제히 기포하였다. 이때 기포한 동학군은 이종훈의 지도 아래 충주 외서촌 황산에 집결한 동학군에 합류하였다. 황산에는 이종훈이 이끄는 동학군 외에 이용구의 충청도 북서부지역과 강원도 남서부지역 동학군이 집결하였다.

황산에 동학군이 집결하자 정부에서는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선유사 정경원을 파견하였다. 정경원은 포군 500여 명을 이끌고 충주 사창리에 머물렀다. 황산과 사창리의 거리는 불과 1리 정도였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종훈은 이용구와 함께 정경원을 만나 담판을 시도하였다. 이종훈과 이용구는 “동일한 신민으로서 국사 급업(岌業)의 때를 당하여 자상상해(自相狀害)함이 만부타당(萬不한妥當)한 의(意)”를 설명하였다. 이에 정경원은 이를 수용하고 군사를 물린 후 10리 밖으로 퇴각하였다. 이와 같은 이종훈의 적극적인 활동은 그로 하여금 동학혁명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황산에서 10여 일 머무른 동학군은 다음 집결지인 보은 장내로 가던 중 괴산관아

를 점령하였다. 10월 6일 보은을 목표로 남하하던 이종훈이 이끄는 동학군의 첫 목표는 보은으로 가는 길목의 괴산관아였다. 이종훈은 괴산관아를 점령하기 위해 청천에 모여 있던 동학군과 연합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당시 청천에는 괴산과 청주지역의 동학군이 집결해 있었다. 괴산관아를 점령하려는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괴산관아에서 동학접주를 처형한 것에 대한 보복이고, 다른 하나는 무기와 식량의 확보였다. 괴산지역 동학군은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가 있기 전 무기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괴산관아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이에 괴산관아는 동학접주 백창수와 우제관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괴산 관아를 점령하다

괴산에서 동학접주가 처형당하자 이종훈이 이끄는 동학군과 청산의 동학군이 연합하여 괴산관아 점령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정보를 입수한 가흥병참부는 10월 2일 하라다[原田常八] 소위의 지휘 아래 일본군 27명을 괴산에 출동시켜 동학군의 동향을 정탐하였다. 별다른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일본군은 동학군이 주둔하고 있던 당동까지 척후병을 보냈다. 읍내에서 15리 정도 떨어져 있던 애재에 머물고 있던 동학군은 일본군과 조우, 전투가 시작되었다. 일본군이 보고한 당시의 전투상황은 다음과 같다.

11월 2일 괴산 지방에서 동학당이 봉기해서 괴산 군수를 공격하려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므로 같은 날 오전 10시 4분 충주를 출발, 오후 7시 30분 괴산에 도착하여 그곳의 정세를 탐색했다. 그날 밤은 이렇다 할 만한 일이 없었다. 다음 날 3일 오전 8시부터 일등군조(一等軍曹) 田島武臣·上等兵 宇佐美久次郎 2명에게 조선인 복장을 시켜 척후병으로 唐洞(동학당 근거지) 쪽으로 가게 했더니, 괴산으로부터 15리인 곳에서 적을 만났다고 급보해 왔다. 그래서 原田 少尉가 부하 병졸을 이끌고 그곳으로 출장, 장교 이하 27명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原田 少尉가 지휘하여 정면을 맡고, 또 하나는 田島 軍曹가 지휘하여 좌측을 우회하여 중간부를 쳤다. 적 진영은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쌍방이 모두 좋은 성과를 올렸지만 아무래도 동학도의 인원이 3만 정도나 되어 도저히 지탱할 수 없었다. 특히 우리의 탄약이 금방 고갈되려 하므로, 노획한 물품에 불을 지르고 일시 괴산으로 철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동학도가 전투를 벌임과 동시에 셋길로 괴산에 들어와 불을 질러 연기와 불길에 충진하였다. 적은 무리가 많은 것을 의지하여 괴산을 지키고 우리 부대는 사면을 적에게 돌려주었지만 한쪽의 血路를 열어 같은 날 4일 오후 3시 15분 충주까지 철수하였다.

우리 병사 즉사자는 上等兵 酒向芳五郎 1명, 부상자 原因 少尉의 3명, 적의 사상자는 200여 명이었다. 우리 부대 부상자는 可興에 입원시켰지만 중상자는 없었다. 전투는 오전 11시 30분에 개시해서 오후 4시 30분에 끝났다. 적군은 어제 저녁 괴산 지방에서 野營하고 오늘 이곳 兵站部를 습격할 염려가 있으므로 척후를 내서 가흥에 원병을 청했다.

이종훈과 이용구가 이끄는 동학군은 괴산관아를 점거하기 위해 애재에 머물고 있었는데, 정찰 중이던 일본군과 만나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4명의 사상자를 내고 충주로 퇴각하였다. 동학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데, 100~200명이었다. 일본군을 격퇴한 동학군은 곧바로 괴산관아를 점령하였다. 괴산 군수가 보고한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0월 초6일에 이르러 동학군 수만 명이 양쪽 길로 나누어 경내에 어지럽게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일본병사 25명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온 동학군들은 일본병사를 보고 대적하였고, 남쪽에서 온 동학군은 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대적하니(동학군이) 많고 읍의 사람이 적어서 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 싸움이 불리하고 북쪽에서도 또한 패하여 일본 병사 1명이 죽고 읍의 관속 및 부락민 중에 죽은 자가 11명이나 됩니다. 창에 맞은 중상자가 30여 명이고 읍 아래 5개 동네의 민가가 불에 탔는데 탄 집이 모두 5백여 호가 되었습니다. 관아의 각 건물도 모두 부서지고 오직 객사만 우뚝 남았습니다. 무기 집기 문부 등이 모두 불에 탔고 환곡 40석 공전 8천여 금을 잃었습니다.

괴산관아를 점령한 동학군은 객사를 제외한 모든 건물과 서류를 불태웠다. 뿐만 아니라 민가 500여 호가 불에 타는 피해도 있었다. 특히 민가가 불에 탄 것은 괴산접주 서모가 괴산군민들에게 타살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서접주의 13세 된 아들이 아버지의 복수로 민가에 불을 지른 것이다.

중군장으로 우금치 전투에 참가하다

괴산관아를 점령한 동학군은 무기와 식량을 확보한 후 청주 청천으로 향하였다. 이곳에서 손천민 등과 합류한 후 보은 장내에 도착하였다. 보은 장내에 집결한 경기 지역과 호서지역 동학군은 손병희를 정점으로 대오를 정비하였는데, 이종훈은 중군을 맡아 호남지역 동학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논산으로 출발하였다. 논산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한 동학군은 공주를 점령하기 위해 우금치 일대에서 관군 및 일본

군의 연합부대와 10여 차례의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때 이종훈은 손병희의 중군장으로 우금치 전투에 참가하여 생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우수한 화력에 동학군은 패배하였다. 이후 동학군은 경천-논산-여산-익산-전주-원평-태인-고부-백산-정읍-장성으로 퇴각하였다. 이 퇴각 과정에서 이종훈이 함께 하였고, 원평과 태인 등지에서 관군과 14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다.

장성에서 전봉준의 호남지역 동학군과 결별한 호서지역 동학군은 의암 손병희와 이종훈의 지휘 아래 무주-임실-영동 용산-청산-보은으로 북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종훈이 지휘하는 동학군은 영동 용산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청산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의 계속된 추격에 동학군은 보은 북실에서 대규모의 전투를 하였지만 결국 대패하고 음성 되자니까지 후퇴하였다. 그러나 되자니에서도 관군에 패하자 의암 손병희는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던 동학군을 해산하였다. 이때까지 이종훈도 함께 하였다. 이후 이종훈은 동학의 최고책임자인 해월 최시형을 보필하였다. 특히 최시형이 1898년 체포되어 서소문감옥에 있을 때 모든 옥바라지를 도맡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시신을 수습하여 경기도 광주군 송파에 안장하였다.

동학혁명의 실패와 스승으로 모셨던 해월 최시형의 죽음은 이종훈으로 하여금 종교적 신념을 보다 철저하게 심화시켰다. 최시형을 무사히 안장한 이종훈은 1889년 8월 쌀 4두를 마련하여 홍천군 수유산에서 백일기도에 몰입하였다. 이후 종교 활동에 전념하던 이종훈은 1904년 들어 문명개화운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동학교단을 책임지고 있던 손병희는 관의 체포령을 피해 일본에 망명 중이었다.

근대문명운동을 주도하다

손병희는 근대화된 일본의 현실을 목도하고 조선에서 문명개화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904년 2월 손병희는 국내의 이종훈, 박인호, 홍병기 등 40여 명을 일본으로 불러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동학교단은 비밀리에 대동회(大同會)를 조직하였다. 이어 4월에 박인호와 홍병기를 일본으로 다시 불러 '흑의단발' 토록 하였다. 이는 '세계문명에의 참여와 단결을 통한 회원 심지의 일치' 때문이었다. 개화된 근대문명을 수용하고 동학혁명 이후 해이해졌던 교인들의 마음을 다지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에 따라 7월에 이종훈을 비롯하여 박인호, 홍병기 등과 모화관 산방에 모여 대동회의 회명을 중립회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중립회가 동학세력임을 간

파한 정부는 동학을 다시금 탄압하였다. 중립회 조직이 여의치 않자 손병희는 회명을 진보회로 다시 개명하였다.

동학교인은 전국 각지에서 진보회를 조직하고 흑의단발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으로 동학교인들의 희생이 늘어나자 진보회를 이끌던 이용구는 송병준과 윤시병 등이 조직한 일진회와 통합하였다. 그런데 일진회의 친일 행위로 동학교단이 친일종교로 지탄을 받음에 따라 손병희는 1905년 12월 24일 동학을 천도교로 전환하였다. 천도교로의 전환은 근대적 종교로서의 틀을 갖추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손병희는 '퇴회신교'를 명분으로 동학교인들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천도교로 귀의하기를 권고하였다. 권력욕에 지향하였던 인물들은 비록 친일이라도 일진회에 남아있었지만 대부분의 동학교인들은 천도교로 돌아왔다. 이종훈 역시 천도교에 귀의하였다. 손병희는 1906년 2월 26일 천도교중앙총부를 조직하고 교단 조직을 정비하였다. 천도교중앙총부 조직 당시 도집(都隸)으로 선임된 이종훈은 이후 현기사 고문과원, 서용관장, 현기사장, 고문, 천주, 현기사 해양과원, 성도사, 직무도사장, 대종사장, 장로 등의 주요 원주직을 맡아 종교인으로 활동하였다.

1910년 8월 29일 일제 강점 직후 친일단체였던 일진회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단체들이 해산을 당하였고, 그나마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은 종교단체였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천도교는 일제의 침략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각국 공사관에 발송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천도교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비밀결사가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였다.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는 1912년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과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보성사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912년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적지 않기 때문에 농어민을 포섭하여 민중운동을 전개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이종훈과 임예환은 농민과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일제는 강점 직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는데, 농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뒤따르던 상황이었다. 이종훈이 20여일 동안 농민의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농민의 80%가 배일(排日)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종훈은 우선 경기지방의 농민을 상대로 시위운동을 일으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범 신생활운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비정치성을 띠고, 그리고 표면적인 활동인 신생활운동으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취지문, 결의문, 행동강령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최 당일 전날인 7월 14일 종로경찰서에 압수당하여 무산되었다.

신생활운동을 전개하다

신생활운동이 무산되자 이종훈, 이종일 등과 보성사 직원들은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운동은 천도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불교와 연합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여 한용운, 백용성, 이능화 등 불교계 인사와 접촉하였다. 그렇지만 한용운은 민생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여 참여를 거절하였다. 이에 이종훈 등은 천도교 단독으로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1912년 10월 31일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본부를 보성사에 두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정하였다. 총재 손병희, 회장 이종일, 부회장 김홍규, 제1분과위원장 권동진, 제2분과위원장 오세창, 제3분과위원장 이종훈, 그밖에 보성사 직원이었던 장효근, 신영구와 훗날 민족대표로 서명하였던 임예환, 박준승 등이 적극 참여하였다. 민족문화수호운동은 일제의 신생활운동이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도교단을 중심으로 비밀결사의 형태로 전개됐다. 또한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만주에서 이상룡 등이 조직한 부민단과 같이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올라온 교인들을 설득하는 한편 지방조직을 강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비밀결사 신민회가 발각되는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지방조직은 뜻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는 민족문화수호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천도교인을 대상으로 강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차적으로 1913년 5월 7일 보성사에서 이종일을 강사로 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1914년 4월 29일 교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족문화 수호의 의의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강사는 이종훈이었는데, 강연 도중 한국인 형사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종훈은 앞으로 이와 같은 강연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풀려났다. 이후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는 표면적인 활동을 없애고 철저하게 비밀결사로 활동하였다.

1914년 8월 들어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천도교단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독립의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비밀결사로 천도구국단을 조직하였다. 천도구국단의 중추적 역할은 민중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종훈은 천도구국단의 임원으로는 선임되지 못하였지만 여전히 참여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1916년 2월 들어 국제정세를 교환하는 자리에 이종훈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구정객을 만나는 등 실제로 활동하였다.

3·1운동 민족대표로 서명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1916년 2월 20일 이종훈, 이종일, 장효근, 김홍규, 박준승 등은 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당시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이종일·필자주) 지금 전쟁도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오. 우리가 지금 일본의 패전만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대로 방관 상태로만 있을 수는 없으니 원로급 인사들을 찾아가 우리 민족운동의 선봉이 되어 달라고 청원하면 어떻겠소.” 하니, 이종훈 동덕이 “좋은 의견이오. 조희연, 고영희 등 구정객들이 작년 금년 초에 계속 작고하니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을 써서 우리 민족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옆에 있던 김홍규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원로들과 접촉함이 어떻겠소. 나는 한규설 어른을 찾아가 협의해 볼 것이오.”

이종일이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구정객을 앞세워 민중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자, 이종훈이 적극 찬성하였다. 함께 있던 김홍규도 한규설을 접촉하겠다는 동의에 이종훈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상재를 만나 민중운동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신영구는 윤용구, 장효근은 김윤식, 홍병기는 박영효, 이종일은 남정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종훈은 이상재를 만난 결과 “천도교 측에서 나선다면 나는 기독교들을 동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종훈을 비롯하여 이종일, 김홍규 등은 천도교의 단독적인 민중운동보다는 각 세력 모두가 참여하는 ‘민족연합전선’을 민중운동의 방략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연합전선의 인식은 3·1독립만세운동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3·1운동에 앞서 천도교단은 구정객 및 친일 인물들의 동참과 기독교, 불교를 비롯하여 전 민족이 참여하는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준비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3·1운동은 이미 1916년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다.

민중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종일은 김홍규와 함께 손병희를 찾아가 민중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간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손병희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고, 이종훈을 비롯하여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과 협의하여 민중운동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이종훈, 이종일, 권동진, 오세창, 최린, 그리고 천도구국단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천도교 내에서 나용환, 김완규, 양한묵 등 동지를 획득해 나갔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원칙 14개조를 공식화하는 한편, 리투아니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체코·유고·폴란드 등이 민족자주권을 선언하자 다시 민중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18년 5월 5일 손병희·이종훈·권동진·오세창·최린·이종일 등은 모임을 갖고 민중운동 3대 원칙인 대중화·일원화·비폭력화에 의해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3대 원칙은 식민지 조선이 이미 독립을 선언한 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한 것이다. 여기서 3대 원칙, 즉 대중화는 각계각층의 민중을 동원하는 것, 일원화는 여러 계층의 독립운동 계획을 하나로 대동 통합하는 것, 비폭력화는 동학혁명의 경험에서 얻은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민중운동의 방법이 정해지자 '무오독립시위운동'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거사일을 9월 9일로 정하였다. 이는 그해 8월 초 일본 본토에서 '쌀 소동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이를 수습하는데 신경을 쓸 때 시위운동을 전개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시위운동의 준비로 독립선언서를 이종일과 최남선에게 각각 작성케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최남선의 독립선언서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무오독립시위운동은 뜻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첫째는 최남선의 독립선언서가 완성되지 못하였고, 둘째는 원로 교섭 지연과 자금 부족, 셋째는 민중 동원의 미성숙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만주에서도 독립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종일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위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에 앞으로 전개할 민중시위는 앞서 결정한 3대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1919년 1월 22일 고종이 승하하자 이종일은 민중시위의 만세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최적기로 보았다. 고종의 죽음이 일제의 독살설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반일감정이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외적으로는 러시아혁명의 성공과 민족자결주의 원칙 등으로 약소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기운이 확산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외적으로 민중시위에 적절한 때를 맞아 천도교는 만세시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앞서 계획하였던 구 관료의 접촉, 기독교계와 불교계, 그리고 학생계와의 연합전선 형성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손병희의 최측근이었던 이종훈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연합전선으로 만세운동이 한창 무르익던 2월 20일 권동진의 집에서 민족대표로 천도교 15인, 기독교 15인, 불교 2인 등 32명이 결정되었다. 천도교는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 동안 민족대표를 선정하였는데, 손병희를 비롯

하여 이종훈·홍병기·권동진·오세창·최린·박준승·이종일·김완규·홍기조·나용환·나인협·임예환·양한묵·권병덕 등 15명이 선정되었다. 이종훈은 장로로서 민족대표에 선정되었다. 신문과정에서 이종훈은 오세창과 권동진의 권유로 민족대표에 참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묵암비망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종훈은 민족문화수호운동과 천도구국단 결성시기부터 이미 3·1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월 28일 손병희의 집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28인과 함께 일본 경찰에 피체되었다.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다

민족대표로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이종훈은 일제로부터의 신문 과정에서도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 본일(3월 1일-필자주) 회합한 목적은 무엇인가.

답: 조선을 독립할 목적이기 때문에 나도 찬성하고 회합하였다.

문: 독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조선민족이 자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독립하려고 하였다.

문: 피고는 어찌서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가.

답: 그것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자주독립운동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 피고는 금후에도 또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답: 그렇다. 선생(손병희-필자주)이 그 계획을 계속한다면 가입할 생각이다.

문: 피고는 조선독립에 대하여 왜 갈망하고 일한합방을 극히 반대하였나.

답: 조선의 민족으로서 어찌 그 맘이 없겠소.

이종훈은 3월 1일 태화관에 모인 목적이 ‘조선 독립’임을, 독립의 목적은 ‘조선 민족의 자유를 찾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조선 독립만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앞으로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종훈이 3·1

운동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제의 식민 통치에 불만이 없다' 라든가 '독립청원을 계획하였다' 라는 답변은 애매모호한 점도 없지 않다. 좀 더 당당하게 밝혔으면 하는 심정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준비한 답변이 아닌가 한다. 이종훈의 이러한 답변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종일과 함께 민중운동을 준비하였으며, 더욱이 동학혁명에 참전하였던 경험으로 볼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무장투쟁을 목적으로 조직된 고려혁명당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민족대표로서의 행동이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이종훈은 경성지방법원의 3차례 신문과 고등법원의 신문을 거쳐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의 옥중 생활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지만 함께 3·1운동을 준비했던 이종일은 “갸웃한 모습을 보여 주어 더욱 마음이 든든”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동학의 민족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동학혁명,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던 민족문화수호운동과 천도구국당의 활동 등 꾸준히 민족운동을 삶의 실천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도교 혁신운동을 이끌다

3·1독립만세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 9개월간 옥중 생활을 마친 이종훈은 1921년 11월 4일 출옥하였다. 그가 출옥하자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인 박인호를 비롯한 주요인물들이 원동 자택으로 찾아와 위로를 하였는데, 이종훈은 “나는 2년의 징역을 살았다 하여도 그동안 9달이나 병감에 누웠었고 오늘도 병감에서 나왔으니까 무엇 징역의 참맛은 알지 못하였소. 거저 한울님의 은혜와 선생의 덕택으로 죽은 몸이 살아나온 것만 다행이요”라고 평온한 마음으로 소회를 밝혔다. 이는 그가 민족대표 33인 중 최고령자로서 건강상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하더라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3·1운동 이후 이종훈은 천도교 개혁과 비밀결사에 참여하였다. 천도교단은 3·1운동으로 손병희, 최린, 이종훈 등 대부부의 교단지도부가 일경에 피체됨에 따라 신진 지도부로 대체하였다. 이들은 주로 청년들로 당시 문화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3년 동안의 원로 지도자 공백으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갈등이 내재되었다. 이 과정에서 오지영, 최동희 등을 중심으로 교단의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을 흔히 '혁신세력' 이라고 한다.

민족대표로 참여했다가 수감되어 3년의 옥고를 마친 후 교단으로 복귀한 이종훈 등 원로 지도자들 대부분은 혁신세력을 지지하였다. 원로들이 혁신세력에 참여한 것은 자신들이 교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당시 교단을 이끌고 있던 정광조가 원로들을 경원시하고 소홀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또한 혁신세력의 입장에서도 원로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정광조 중심의 교단은 원로를 중심으로 교체되었다. 이때 이종훈은 1922년 1월 17일자로 종법원 종법사 겸 경기도 교구순회 책임자로 선임되었다. 그렇지만 교단은 여전히 보수와 혁신의 갈등으로 대립하였고, 더욱이 1922년 4월 신병으로 가출옥 중이던 손병희가 구관제의 부활을 선언함에 따라 그 갈등은 첨예화되었다. 이에 교단은 손병희의 뜻에 따라 구관제를 부활하였고, 그동안 혁신세력을 지지하였던 대부분의 원로들도 보수세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종훈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혁신세력과 함께 하였다. 이로 인해 이종훈은 불온한 문서를 배포하여 교단의 체면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홍병기, 오지영, 정계완 등과 함께 1922년 5월 12일자로 교적에서 제명되었다. 그러나 1개월 후인 6월 13일에 제명을 취소함에 따라 교적은 다시 회복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손병희가 죽고 교단의 책임자 박인호가 사임하면서 교단은 통합을 모색하였다. 보수와 혁신 양측은 교인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종훈은 개혁세력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교섭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혁신세력은 1922년 12월 말경 천도교연합회를 조직하여 별립하였다. 혁신세력을 지지하였던 이종훈은 천도교연합회에 참여하지 않고 천도교단에 합류하였다. 이는 그가 교단의 개혁운동을 지지하거나 주도하였지만 교단을 별립하는 데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와 함께 활동하였던 홍병기, 그리고 손병희와의 인척 관계 등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홍병기는 여주 출신으로 동학혁명을 비롯하여 갑신개화운동, 3·1운동 등에 이종훈과 생사를 함께 하였고, 손병희의 장녀가 이종훈의 장남과 결혼함으로써 둘은 사돈관계였던 것이다. 또한 정광조 역시 손병희의 사위로서 인척 관계에 포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그가 천도교와 별립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종훈은 혁신세력이 별립한 천도교연합회와 결별한 후 천도교단의 화합을 위해 '평화경고식'을 주도하였다. 평화경고식은 그동안의 갈등에서 중립적 또는 혁신세력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로써 3·1운동 직후 전개되었던 교단혁신운동은 일단락되었다. 이종훈은 교단혁신운동을 주도하였지만 결국 보수세력의 천도교단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장로로 활동하였던 원로지도자의 예우와 교리장구 및 교무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강도사에 선임되었다. 이어서 1923년 5월 28일부터 7월 22일까지 2개월여 간 원산 등 북선 일대와 북간도 용정, 국자가, 두도구, 동불사 등지를 순회하면서 교무를 시찰하였다. 또한 교단 갈등의 봉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계(敬啓)를 발표할 때 원로교인으로 참여하였다.

고려혁명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다

이종훈은 혁신운동에 참여하는 동안 혁신세력이 전개하였던 비밀결사에 참여하였다. 혁신세력의 핵심 인물 중의 한 명인 최동희(崔東羲)는 3·1운동 이후 천도교의 민족운동론으로 무장투쟁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가 무장투쟁론을 주장하였던 것은 동학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일제의 식민 체제에서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제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교단을 이끌던 정광조는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최동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20년 8월 21일 최완(崔浣), 이근호(李根鎬)와 함께 무장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어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최동희는 여전히 무장투쟁론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던 최동희는 천도교 혁신운동을 주도하면서 1922년 7월 14일 비밀결사로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고려혁명위원회에 참여한 인물들은 대부분 천도교의 혁신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었다. 이종훈은 고려혁명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1924년 4월 5일 고려혁명위원회가 천도교 최고비상혁명위원회로 재조직될 때 이종훈은 사성위원장을 맡았다. 고려혁명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이종훈, 위원장 홍병기, 부위원장 최동희, 비서 송헌, 외교부장 최동희(겸직), 해외조직부장 이동락, 해외선전부장 김광희, 해내조직부장 이동구, 해내선전부장 김봉국, 재정부장 박봉운, 위원 김치보·강창선·김홍중·강도희·김문벽·이동욱·강



이종훈 선생 묘

명혁·김병식·손두성 등이다.

구성원 중 최동희, 김광희, 김홍중, 강도희, 이동락 등은 민족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 중이었다. 이들은 정의부, 형평사와 연대하여 1926년 4월 5일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였다.

이종훈도 그의 약력에 의하면 “출옥한 후 중국 포덕에 뜻을 두고 수차 북간도 용정에 가서 포교에 노력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려혁명위원회와 고려혁명당의 활동과 맞물려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종훈은 비록 고령이지만 고려혁명위원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포교라는 명목으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종훈은 국내에 있을 때는 정양을 하기도 하였다. 노구를 이끌고 만주에서 활동하던 이종훈은 귀국한 지 1개월 만인 1931년 5월 2일 76세를 일기로 환원하였다.

» 참고문헌

- 「광주이씨대동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묵암비망록』, 『순무선봉진등록』, 『신인간』, 『이종훈선생수기』, 『천도교회사초고』, 『천도교회월보』
-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 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 애국동지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956.
- 이병현,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 최린, 『자서전』, 『한국사상』 4, 1962.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986.
- 고려서림(영인), 『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총서』 4, 1992.
- 최정간, 『해월 최시형가의 사람들』, 웅진출판사, 1994.
-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
- 성주현, 『일생을 교회와 민족에 바친 정암 이종훈』, 『신인간』 573, 1998.
- 성남문화원,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 제8회 학술회의 자료집, 2003.
- 박환, 『잊혀진 혁명가 정이형』, 새미, 2004.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 2007.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 2007.
-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 『천도교의 민족운동연구』, 선인, 2007.
- 신영우, 『동학농민전쟁기 보은 일대와 북실전투』, 『보은 중국 동학유적』,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3회, 2010.
- 조성운, 『正庵 李鍾勳의 국내에서의 민족운동』, 『송실사학』 25, 송실사학회, 2010.
- 성남문화원,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연구』, 제15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0.
- 「균암 임동호씨 약력」, 「권동진 신문조서」, 「이종훈 심문조서」
- 권병덕, 『갑오동학난』, 1935.
- 성주현, 『일제강점기 만주지역 천도교인의 민족운동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신영우, 「균암장 임동호씨 약력」,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한국사연구, 2010.

성주현 | 문학박사, 역사학

민주주의의 큰 별, 신익희

여는 글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 1894~1956)는 광주가 낳은 위대한 지도자로 너른고을 '廣州(광주)'의 희망이며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상징이며 우상이다. 그의 일생(一生) 일대(一代)는 한국의 항일운동사요, 민족해방사이며, 건국운동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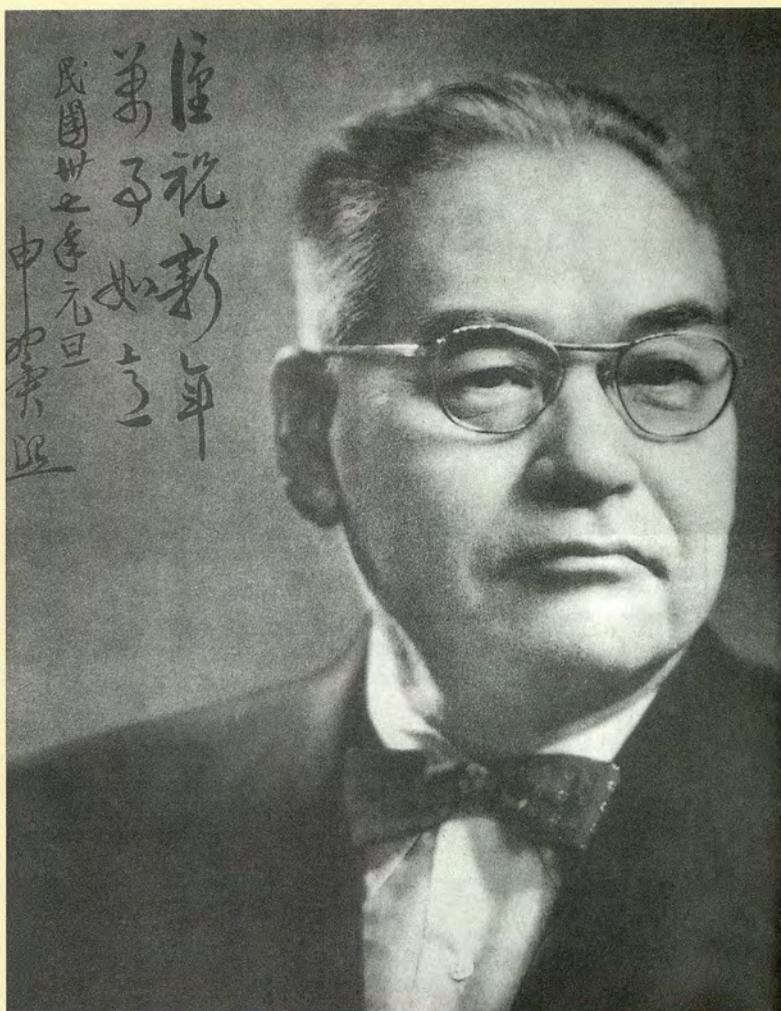
신익희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기억되는 이유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자신의 신념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히 수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고통 받는 민중들과 호흡하고 개인적인 편안함 대신 조국과 민족을 가슴깊이 새기는 일생을 살았다.

그는 언행(言行)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일찍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투하였고, 해방된 조국에서는 나라의 건국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건국 후 혼란 속에서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백성 속으로 들어가 고통을 함께했다. 이런 가슴 넓은 품성과 인간성, 그리고 탁월한 정치력과 신념, 사명감과 애국심이 지극히 진실 되고 간절했기에 해공의 신념에 감동을 받는 이들이 많았고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인물이 되었다.

금장산과 무갑산, 그리고 남한산의 정기를 받다

해공의 탄생과 가계

1894년 7월 11일 해시(亥時),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67번지, 해공 신익희는 사마루 마을 평산 신씨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평산 신씨 가문은 광주 일대에서 서향



해공 신익희



신익희 생가

세가(書香世家)라는 영예로운 별칭으로 불리는 명문가였다. 문벌이 화려한 집안은 아니나 대대로 관직과 문한(文翰)을 계승하여 내려온 선비 가문이라고 볼 수 있다. 평산 신씨는 소론계에 속한다. 8대조 성천 부사 신여석(申汝楫)은 소론계 인사들과 함께 인현왕후 폐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7대조 신탁(申琢)은 소론의 기수 이경석의 외손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는 주자성리학에 이의를 제기한 경학사상가 박세당(朴世堂)과 각별했다. 6대조 신택하(申宅夏)는 박세당과 최석정에게서 배웠는데, 문과에 급제한 다음 승정원 우부승지를 지내면서 집권 노론파와 대립하였다. 5대조 신성(申晟)은 사마시를 거쳐 의영고(義盈庫) 주부(主簿)를 지냈다. 이는 해공의 선조들이 관직을 통해 가산을 증식하거나 세도가에게 의탁하는 치욕스러운 삶을 극력 경계하고 오로지 청렴과 은일을 추구하는 선비적인 삶을 살았음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한편, 가세의 회복을 위해 신익희의 고조부 신대우(申大羽)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신대우와 그 세 아들이 관계에 진출하여 다시 가문의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신익희는 신단(申檀)과 동래 정씨 정경량(鄭敬良) 사이에서 7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정경량은 1867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경기도 양평에서 성장한 후 광주 서하리에 사는 신단과 결혼했다.



남한산초등학교 교정의 신익희 흉상

신익희의 생애에 크게 영향을 미친 선조들을 꼽으라면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한 부류는 신승겸(申崇謙)과 신립(申砮)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 해공이 독립사상과 애국사상을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다른 한 부류는 어린 시절의 해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고조부 신대우와 증조부 신단 및 백형 신규희를 비롯한 형제들이다. 해공이 일평생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투철하게 전개해나갈 수 있었던 강력한 에너지는 이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신승겸은 대구 팔공산에서 고려 태조 왕건을 위해 왕건과 같은 복장을 하고 싸우다 대신 전몰함으로써 충절의 상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은

인물이다. 그는 궁예 말년에 거사를 일으켜 궁예를 폐하고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 왕조의 개국공신이 되어 신(申)씨 가문의 시조(始祖)로 추앙 받고 있다.

남한산초등학교에서의 수학

신익희는 부모님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백형(伯兄)인 신규희에게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백형은 가숙(家塾)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인물이다. 신익희는 열두 살 되던 봄에 당시 광주군청 소재지였던 남한산성의 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하면서 극난과 자존의 성지인 남한산(南漢山)의 특별한 기(氣)를 받으며 자랐다. 15세에 신학문을 배우면서 더 넓은 세계에서 청운의 뜻을 키우기 위해 서울로 상경, 그 후 관립 한성외국어학교 영어과에서 수학했다.

일본 유학과 교육계몽 활동

1910년 관립 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1911년 참판의 딸 이명희와 결혼한 뒤 딸 신정완(申貞婉)과 아들 신하균(申河均)을 낳았다. 1911년 9월, 나라와 겨레를 위해 배워야겠다는 신념에서 신희의 단꿈을 떨치고 일본 동경유학을 결행해 다른 대학보다 비교적 자유분방하고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이 적은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한국 유학생들과 학우회를 조직하여 총무·평의회장(評議會長) 등 임원을 맡았으며,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을 발간하고 학생운동을 하며 견문을 넓혀갔다. 1917년 귀국 후에는 서울 중등학교와 보성전문대학에서 비교헌법, 국제공법 등을 가르치며 명 강의로 인기를 끌었다.

시대적 사명, 민족독립운동

3·1독립만세운동과 해외로의 망명

신익희는 구국의 대열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점점 악독해지는 일제의 무단정치를 수수방관할 수 없어 동지들을 규합하여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민족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때마침 미국의 윌슨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여 피압박 민족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해공은 당시의 지도자들 중에서 임규, 최린, 송진우, 최남선, 정노식, 나경석, 원홍섭 등의 동지들과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민중 봉기할 것을 논의하고, 천도교의 교주 손병희를 찾았다. 손병희는 “일찍이 우리가 동학운동은 실패했으나 민족이 왜놈에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오, 내 기꺼이 죽음을 택하리니 그대들은 모사(謀事)만 잘 하시오.”라며 동참을 수락했다.

독립운동을 대중화(大衆化), 일원화(一元化), 비폭력화(非暴力化)로 결행한다는 3원칙에 따라 3·1독립선언은 거족적인 호응을 얻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으며, 급기야 한반도가 만세의 외침으로 들끓게 되었다. 48인을 중심으로 한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대표 29명이 서울 인사동 태화관(泰和館)에서 독립 선언식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한용운(韓龍雲)이 독립선언 식사(式辭)를 하고 독립만세 삼창을 제창하였다. 같은 시각, 파고다 공원에서 출발한 만세 인파는 종로에서 광교, 덕수궁 앞, 남대문 등지를 돌아 서울역 서소문으로 향하고 수만 군중이 비폭력, 평화적, 거족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19년 3월 중순 26세의 청년 신익희도 자주와 독립, 자유와 해방, 조국의 광복과 세계평화를 반드시 쟁취하고 돌아오겠다는 각오로 망명길에 올랐다. 그로부터 1945년 광복을 맞고 환국할 때까지 26년간 그는 파란만장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써가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켰다. 그리고 절대독립, 절대평등을 외치며 광복군 창설에 주력하였다.

독립운동 활동사

초기의 독립운동(1919-1932)

1918년 11월말 신익희는 여러 동지들과 의논한 끝에 중국으로 건너가기로 했다. 그가 중국행을 결정한 것은 해외 단체와 동포들에게 국내에서의 독립선언 움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우리의 독립운동은 처음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군사행동으로 결말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주지역의 민족 운동가들을 만나본 다음 상해로 이동하였다. 한 달 반 정도 지난 후 천린, 북경, 심양을 거쳐 환국하였다. 이듬해 3월 2일 해공은 일본 경찰의 검문을 면하기 위해 상주(喪主)복장을 하고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3월 5일 서울역에서 시작된 제2차 만세시위에 깊이 가담했다. 이어 3월 14일 일본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다시 중국 망명길에 올랐으며, 3월 19일 중국 상해에 도착하여 이때부터 오랜 해외 망명 생활이 시작되었다.

신익희는 상해에서 신규식, 한진교, 민충식, 박은식, 여운형, 조동호 등 먼저 도착한 선후배 독립지사들과 임시정부라는 독립운동의 통합적인 기구조직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그러던 중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김도연, 백관수, 최근우, 이광수, 김마리아

등 한국인 남녀 유학생들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이광수가 초안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는 신문을 보고 감격하였다. 이광수 등은 신익희와 막역한 동지이자 교우였다. 그들의 행동에 해공은 국내외적으로 독립운동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단일화된 독립운동기구 창설을 역설하였다. 해공은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동지를 모아 3·1독립운동을 획책하였으나 이미 이때 나이 24-25세로서 청년기를 지나고 있었다. 1919년에 전국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기획하고 그 전 겨울에 나는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연락할 사명을 띠고 해외로 나갔었다.

1923년 이후부터 1941년 사이에는 임시정부 직할의 임무 수행에서 벗어나 중국일대에서 중국인 동지와 함께 항일 투쟁을 과감히 펼쳤다. 이때부터 신익희의 애국심과 활동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중기의 독립운동(1932~1940)

11월 28일 제24회 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신익희는 이동녕, 김구와 함께 국무위원으로 선출된다. 임시정부는 그 동안 상해 거주 단체의 도산(조직 의견 분열) 등으로 빚어진 침체와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1932년에 결행한 이봉창, 윤봉길 두 의사의 직탄의거(直彈義擧)의 결과로 1932년부터 임시정부의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다. 이런 외중에서도 신익희는 중국 내 우수한 항일 독립운동단체와 함께 끈질긴 조국애로 항일 투쟁대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

1938년 김규식, 김원봉 등과 함께 조선의용대를 결성하여 꾸이린 등지에서 무장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중국 군대와 연계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하며 독립 투쟁을 하였다. 이동시기의 임시정부는 각 지역을 전전하는 힘겨운 시기를 겪었으나 치창에 이르러 그 독립 의지와 민족 대동단결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추진해나갔다. 비록 임시정부의 터줏대감 이동녕(李東寧)이 서거하는 슬픔을 겪었으나 충칭(重慶)에서의 공세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의 기틀이 되었다고 본다.

완숙기의 독립운동(1940~1945)

1940년 3월 13일 원로 독립투쟁가 이동녕을 국장으로 떠나보내고 1940년 9월 장개석(蔣介石) 총통이 임시 수도로 체류하고 있던 충칭으로 들어갔다. 장개석 총통의 주선으로 충칭시내 토쿄에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였다. 정착과 안정을 찾게 된 임시정부는 1944년 6월 11일 한인교포의 보건생계사업비 식량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인생활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국내외 전시 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40년 5월 충칭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한국광복군의 설립을 추진, 군대를 통한 자주적인 조국 광복을 꾀하였다. 또한 임시정부의 정식 승인을 국제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전선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1943년 3월 1일에는 제24회 3·1혁명 기념식을 가지는 등 세계 각국에 결사 독립의지를 보이면서 5월 9일에는 중국 정부와 전쟁 후의 한국 독립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 등 독립운동의 전개가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신익희는 1944년 4월의 제36회 의정원에서 가결된 헌법 개정에 따라 5월 8일자로 국무위원 내무부장에 선임되면서 위상이 확고해진다. 이에 따라 충칭시기 5년 중 말기에 가서 그는 내무업무를 주로 하며 우리 동포와 임시정부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 더욱 열성을 기울일 수 있었다. 또한 공산당의 교란 책동을 억제하고 통일된 자주적 민주공화정부를 건설하려고 신명을 바쳤다. 한마디로 광복을 전후하여 운명하기까지 개인 소유의 거처도 마땅치 않아 풍찬노숙하며 오로지 독립운동에 신명을 바치다가 환국한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는 순수한 나라 사랑의 집념을 보여주었으며, 민주공화제의 기초를 닦은 큰 동량으로서 온 국민의 기대와 선망과 승모의 대상이 되었다.

해방과 대한민국의 건국

해방의 감격과 해공의 환국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8월 초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파죽지세로 몰아붙였다. 마침내 일본의 침탈야욕에 종지부를 찍는 원폭(原爆)의 굉음이 히

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터지자마자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 선포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다. 1945년 8월 15일이었다.

신익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긴 객지의 망명생활은 끝났다. 자, 이제 우리 중국옷을 벗고 한시바삐 서둘러 우리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자. 이제부터는 우리 손으로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하는 큰 문제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동지들을 붙잡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3개월 여 지난 1945년 12월 1일 초저녁, 신익희는 충청(중경) 임시정부 요원 2진을 인솔하고 군산 옥구공항에 도착했다. 트랩을 내려와 26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기는 극적인 순간에 복받치는 설움을 달랠 길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던 해공은 비행장 활주로의 흙을 한 움큼 덩석 집어 입을 맞추었다. 함께 트랩을 내린 동지들도 땅에 엎드려 입 맞추며 소리 내어 울었다.

한편, 신익희가 고국에 돌아왔을 무렵 국내의 정세는 건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비록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나 광복의 날을 맞이했으나 또 다른 시련이 앞에 가로놓여있었다. 민족해방의 감격 속에서 국토는 양단되고 사상은 좌우로 분열되었다. 부단한 개혁 의지의 노력을 해온 신익희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남한만의 단독정부라도 세워 혼란을 막고 민주화와 자유화에 신명을 바치기로 했다. 그리하여 1946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에 취임하고 자주독립 수립은 반공 반탁으로 건국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입법부의 수장이 되다

신익희는 신생 대한민국을 세워 나감에 있어 교육사업과 언론기관의 필요성을 느끼며 우선 신생 조국의 건설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동량(棟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46년 국민대학을 설립하고 초대 학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언론의 기능이 정치적 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좌경화하는 자유신문사를 인수, 자유민주국민으로서의 자질 향상, 계몽에 앞장섰다.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제1공화국이 탄생된다. 이승만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 신익희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 김병로를 대법원장으로 하는 제1공화국이 수립된 것이다. 세계 만천하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어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는 46대 6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정식 승인하였다.

3·1운동 정신으로

해방과 정부수립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자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948년 9월 9일,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때만 해도 남북 각각의 정부 수립이 60년을 넘는 지금까지 분단으로 고착이 돼 갈라질 것을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체제에 의한 남북의 인위적 분단은 불과 2년 만에 6·25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 초기 탱크를 앞세운 북한의 기습에 밀려 1951년 제32주년 3·1절 기념식을 부산에서 맞이한 신익희는 통한을 금할 길 없어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념사를 했다.

…… 우리가 3·1운동 당시에는 오직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순결하고 숭고한 이상으로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어 우리 민족이 자주하는 독립 국가를 세우려는 생각으로 전 국민이 통일되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비운에 빠져있는가. 이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경계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3·1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익희는 첫째는 민족중심주의, 둘째는 민주주의 실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여러 사람의 일을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여러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한다'라는데 귀착했기 때문이었다.

해공의 정치철학

해공의 민주주의론

신익희의 정치사상은 '민족주의', '평화주의', '애민주의'에 근간을 두었다. 그는 민주주의란 우리 인류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큰 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 시대는 파시즘과 독재의 물결이 기승을 부릴 때인데, 민주주의를 대로(大路), 대도(大道)를 생각하며 정치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51년 3·1절 기념사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발전 단계에 옮겨 맞는 한 개의 수단이요 방식이며 고정된 공식이나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현하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문화적 민주주의 등으로 나누어 모든 부문, 모든 영역에 특권적 존재와 비대중적인 요소를 숙청하고 인류는 참으로 인류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행각한다.¹



한강백사장

해공은 민주국가란 법치주의와 대의 정치를 정통성의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선출된 국민대표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에의 출마

신익희는 '사사오입'이라는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대통령 후보를 수락하였다. 갖은 관권 탄압에도 불구하고 1956년 4월 서울 수송초등학교 3만 명의 인파와 대구 수성천 강연회 20만 명의 인파 앞에서 "못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포효했다. 이어 5월 3일 서울 한강 백사장 유세에서 당시 서울 인구의 1/3에 육박하는 30만~40만 명이 참집한 그야말로 인산인해의 민심을 보고 국민들은 위대한 민권시대의 개막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사상을 불확실성과 애매함의 연속이라고 하듯 어느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5월 5일 새벽 5시 25분 호남선 열차를 타고 용안을 지나 함열로 가는 도중 열차 안에서 신익희는 미치 손 쓸 사이도 없이 쓰러져 유명을 달리했다. 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몸과 마음을

¹ 신창현, 「1951년 해공의 3.1절 기념사」.



해공 장례행렬

바친 그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다. 이날은 우리나라의 큰 별이 떨어진 날이요, 국민의 희망이 참담히 무너져버린 날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근대 역사상, '하루가 가장 긴 날'로 기억될 지도 모른다. 하늘도 통곡하는 듯 억수같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신익희의 유해를 실은 열차가 서

울역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학생과 시민의 반정부·반독재 시위로 평가받고 있는 '경무대 앞 의거'는 그의 죽음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서울역에서부터 해공의 유해를 경호하며 뒤따르던 학생과 청년, 시민들이 그의 유해를 경무대에 안치하자고 주장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제지당하자 흥분한 군중들은 점점 동요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경찰이 드디어 군중을 향하여 발포하기 시작했고, 군중들은 오히려 더욱 격렬히 경무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700여 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국민장 인수된 장례

5월 23일, 수많은 국민의 애도 속에 신익희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져 서울 백운대를 병풍삼아 우이동 아늑한 유택에 안장되었다. 지금도 매년 5월 5일 서거 일에는 광주시민 수십 명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광주문화원 주관으로 묘소에 참배를 다녀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7월 11일(양력) 해공 탄신일에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원 주관으로 많은 시민이 탄신기념제를 거행하며 해공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한편, 정부도 신익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또 광주시 초월읍의 생가는 1992년 12월 31일 경기도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되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종로구 효자동 집은 2005년 2월 11일 서울시 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었다. 게다가 해공 생가 마을을 '해공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가 광주시에서 수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가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겨레를 위하여 절규했던 위대한 정신을 우리는 반드시 이어가고 살려나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온전하고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맺으면서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도 인생 전체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고 본다. 짧은 지면으로 해공 선생의 인생 전체를 조명하는 것은 사실 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정된 지면 내에서 가급적 객관적인 평가에 가깝도록 노력하였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정신적 대통령으로서 민족의 가슴에 살아 현세를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전에 해공이 남긴 발자취는 고향인 광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삶의 지표로, 인생철학의 귀감으로 영원히 새겨질 것으로 믿는다.

선생을 지근거리에서 봤던 몇몇 인사들의 글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람한 거악(巨嶽)이면서 맑은 옥류(玉流)였다고 본다. 서민적 겸허의 미덕(美德)을 갖춘 분으로 대인군자(大人君子)의 풍모를 지닌 정중근엄한 인격체이던 선생은 누구보다도 흔들림 없는 신념의 애국자요 민중의 벗이며 민주이념의 수호자의 표본이었다. — 유치송(柳致松, 해공의 비서, 민주한국당 총재 역임, 해공기념사업회 이사장 역임), 『해공 신익희 일대기』 서문, 1984.

해공은 품위 있는 풍채, 인간미 넘치는 지도자적 성품, 고매하고 탁월한 영도력을 지닌 사람 —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 『해공신익희』(신창현 저, 1989) 추천사.

해공은 민주주의의 희망과 상징이요 민주발전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위대한 애국지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조를 불멸의 귀감으로 거울삼아 국토통일과 민족정기 및 자유민주주의를 훌륭히 이룩할 것을 맹세한다. — 장면(張勉, 전 부통령), 1956년 5월 25일 봉고제(奉古祭) 고유문(告由文).

» 참고문헌

- 신창현, 『해공신익희선생 연설집』, 1953.
 국민대학교 동창회, 『해공신익희선생 연설집』 증보판, 1961.
 5.5 동지회, 『해공신익희 약전』, 1967.
 태주출판사, 『위대한 한국인, 신익희』, 1972.
 해공선생 기념사업회, 『해공 신익희 선생 소전』, 1976.
 신정원, 『해공 그리고 아버지』, 1981.
 유치승, 『해공 신익희 일대기』, 1984.
 광주군지면찬위원회, 『광주군지』, 1990.
 신창현, 『해공 신익희』, 1992.
 구경서, 『신익희 평전』, 2000.
 오영섭 · 이현희 · 정경환, 『해공 신익희 연구』, 2007.
 광주시사편찬위원회, 『광주시사』, 2010.
 광주문화원, 『광주지역 항일독립운동사』, 2011.

남재호 | 광주문화원장

한결 김윤경 선생의 삶과 학문

한결 김윤경(金允經, 1894. 6. 9.~1969. 2. 3)은 광주(廣州)에서 태어난 국어학자다. 광주에는 훌륭한 선현(先賢)이 많지만 근·현대에는 국어학의 대가(大家) 여럿이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김윤경은 조선어의 우수성을 선각(先覺)하여 조선어를 공부하고 조선어학[이하 국어학]의 기초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선생의 학문과 조선어 연구, 인생관 등에 대하여 그가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일생을 개괄(概括)해 보고자 한다. 인용문의 표기나 띄어쓰기는 모두 원문대로 썼다.



한결 김윤경

가풍과 유년기의 한문 공부

김윤경의 본관은 경주(慶州). 호는 한결. 1894년 6월 9일 경기도 광주군 오폐면 고잠리(高岑里) 3통 1호에서 아버지 김정민(金正民)과 어머니 밀양 박씨(密陽朴氏)²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5세 때부터 사숙(私塾)에서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등을 읽으며 한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려서부터 당찬 고집도 있어서 스승

1 1917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잠리(高岑里), 허산리(許山里), 추곡리(楸谷里) 일부를 합쳐 고산리(高山里)로 변경(『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大正六年五月一日 越智唯七 篇).

2 김윤경의 어머니는 광주군 남종면(南終面) 분원리(分院里) 출생이다.

의 말씀이 시원치 않으면 대들기도 했던 모양이다.

나는 열네 살까지(음희 1년, 서기 1907년) 약 10년 동안 글방에서 한문을 배웠는데, 선생으로 모시었던 이는 문중의 할아버지뻘 되시는 김 두석, 동리의 구 선생, 강원도에서 떠들어온 김 천일 씨들이었는데, 김 두석 중조부는 廣州에서만이 아니라, '삼한갑사'라는 칭찬을 듣는 '문장' 이어서, 남의 과거 과목을 대신 지어 주어서 급제를 시킴이 여럿이라 하지마는, 이제 생각하여 보면 그 선생들이 국학에서 무식하였다고 회상된다.

중국의 3산이나 5악 또는 黃水³는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었지마는, 금강산이나 백두산 또는 섬진강이 어디에 있는냐 물으면, 대답이 막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한문에 대하여도 字句나 문맥에 대한 설명뿐이지, 그 전체의 의미는 아무리 물어 보아도 시원한 설명을 들리어 주지 못하였다. 김 천일 선생과는 이 때문에 가르치고 배운다기보다도 싸움판을 벌임이 보통이었다. 대답이 궁한 탓으로 선생은 성을 내어 책대로 책만 두드리고, 나는 답답하여 울음만 터뜨리는 것이었다. 국문에 대하여는 '무식한(한문에) 사람이나 천한 이들이 배우는 것이지, 학자(한학자를 이르는 말)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⁴

제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만큼 아는 것이 없어서 답답한 스승이나 만족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스승에게 대든 제자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로였을 게다.

누구나 그렇듯 김윤경도 어머니에게서 많은 감화를 받았다. 그의 회고에는 모자(母子)가 다정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한 폭의 정겨운 그림이 그려진다.

어머니는 신교육을 받은 일이 없고, 국문도 겨우 읽을 정도에 지나지 못하였으나, 기억력이 좋고 말재주가 많아서 신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 혹은 소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리어 주시었다. 놀부·홍부의 이야기, 심청의 이야기, कु위·팔귀의 이야기, 장화·홍련의 이야기, 춘향전의 이야기, 달과 해가 생긴 내력의 범의 이야기, 암소가 사람의 시조였다는 이야기들은 잊히지 않고 나의 머리에 여태 남아 있다. 어찌 재미가 나든지 잠을 잊고 눈이 뚱구랄게 되어 듣고 있었다. 춘향전 이야기 가운데에 나아오는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출또'(出頭의 변한 말) 직전에 어사가 거지로써 잔치 마당의 한 귀퉁이에서 술상을 받고 읊은 시(詩)는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여 멋지게, 재미있게 이야기하여 주시는지, 이제까지 나도 그 시의 이야기를 외우고 있다. 곧,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소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로구나. 초 눈물이 떨어질 때에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도 높고나(金樽美酒千人血 玉盤佳肴萬姓膏 燭淚落時民淚落 歌聲高處怨聲高)."

훈장이 학생에게 하듯이 어머니도 먼저 한시(漢詩)를 음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를 우리말로 새

3 황수(黃水): 황하(黃河).

4 연세대학교 출판부, 『주시경 전기 그밖』, 『한결 김윤경전집』 7, 1985, 55쪽.

기어 주시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 주심은 나의 선악 판단력을 길러 주심에 큰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⁵

김윤경의 아버지 김정민은 무척 강고(強固)한 성격을 지녔던 것 같다. 김윤경이 신학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떠나던 때를 회상한 내용은 부친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15세 되던 율회 2년(서기 1908년) 4월 4일에, 나는 여태까지 어머니의 사랑 밑에서 10년(5세부터) 동안 배우던 한문(私塾)을 등지고, 신학문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서울로 떠나게 되었다. 이는 아버지께서 기독교를 통하여 서구의 문화와 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이다. 이때 어머니는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인 나를 배웅하려고, 이 동리(당시 고잠리, 지금 광주군 오폭읍 고산리)의 서북쪽에 있는 '고장' 고개라고 부르는 고개 밑까지 따라 오시다가, 내가 고개의 굽이에 기다리었다가 나타났다가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서 바라보시던 그 자태가 여태까지 머리 속에 동상(銅像)처럼 남아 있다. 이러한 광경은 방학 때에 집에 다니어 올 적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었다.

어느 겨울방학에 집에 갔다가 다시 개학날이 되어 서울로 떠날 때의 일이었다. 하루만 묵어간다면 재종의 혼인 잔치를 겪고 갈 수 있겠으나 혼인을 보고 간다면 개학날 하루를 결석하게 되므로 나는 굳이 떠나려고 하였다. 나는 일어날 수 없는 병이 아니면 결석하지 않았으므로, 이날도 굳이 떠나려고 고집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온 동리 사람들과 친척이 다 모여서 먹게 될 잔치의 풍성한 음식을 못 먹어 보냄이 안타까워서, 하루만 묵어가고 강권하시는 것이었다. 옆에서 아버지께서는 잔치 보기 위하여 하루라도 학교에 결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시었다. 아버지신들 자식을 사랑함이 얕어서 그렇게 하심은 아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감정(感情)으로 표현함이요, 아버지는 사랑을 이지(理智)로 표현함이 달랐을 뿐이다.⁶

주시경과의 만남, 신학문에의 개안(開眼)

김윤경이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 그의 부친이 일찍이 기독교 신앙에 눈 뜨면서 비롯되었다. 그의 부친은 전통적인 가문의 가장이었으나 김윤경의 나이 13세 때인 1906년(고종 43), 어느 동네의 기독교 신자에게 사복음(四福音) 및 권과 찬성시(讚聖詩) 책들을 얻어 읽기 시작한 얼마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

5 연세대학교 출판부, 「나의 인생관 그밖」, 『한결 김윤경전집』 6, 1985, 101~102쪽.
6 연세대학교 출판부, 「나의 인생관 그밖」, 『한결 김윤경전집』 6, 1985, 105~106쪽.
7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 13세 되던 광무(光武) 10년 병오(서기 1906년) 1월 12일 내 아버지께서 그때 말로 천주학(天主學)의 열교(裂敎), 곧 신교를 믿게 되시었는데⁸, 이는 당시 시골에 사는 토반(土班)이 남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남에게 까닭 없이 행악을 함을 보시고 “저런 못된 행위 하는 놈을 누르고 억울함을 당하는 가엾은 사람을 건지어낼 도리가 없을까?” 하는 동기에서 천주학이나 열교를 믿으면, 그러한 일을 없이 할 수도 있고, 아니하게 된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근처 어느 동네의 신자에게 가서어서 날권으로 출판된 각색 채색 종이의 겉장으로 싸인 사복음(四福音) 몇 권과 찬성시(讚聖詩) 책들을 얻어다가 놓고 믿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이는 천주학 책이니 너희들은 보지 말아라.” 하시더니, 차차 교리를 깨닫게 되자, 이웃사람에게도 전도하며, 예배소가 정하여지게 될 때에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예배보러 가자고 권하심을 듣게 되었다.

‘전도인’, ‘배서인’ (책을 팔기도 하고 거저 주기도 하면서)이 드나들게 되고, 목사(그때 유대 계통인 ‘미국’ 선교사 ‘피터(Peter)’ 도 때때로 순회하는데, 그들이 오면 우리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유 흥렬(劉興烈)씨라 하는 전도인이 한 번은 집에 와서 아버지와의 이야기 끝에 나를 가리키면서 “저 애는 서울에 보내어 신학문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중학 정도는 될 것입니다.” 하고 권하였다.

나도 신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사숙 선생에 대한 불신임하는 생각에서 보내어 주시면 사양하지는 않겠다 생각되었었다. …… 서울로 가게 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15세 되던 봄에 서울로 오게 되었던 것이다. 중학 정도는 되리라고 권하던 전도인의 말과는 반대로 겨우 소학 상급반에 입학이 허락되어 한 해 남짓 하여 졸업하게 되었던 것이다.⁹

과연 신 학문을 맞본 나는 방학 때에 고향에 가면 스스로 뽐내면서 리학, 수학에 대한 이야기로 동네 사람들에게 계몽 죄담으로 인기를 중¹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신 학문에 대하여 만족과 흥미를 느끼게 되었지만은 그 중에도 가장 귀한 새 감동을 준 것은 이미 말함 같이 중학¹¹에 들어가서 ‘주 시경’¹² 스승에게 들은 말이었다.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글은 가장 과학 조직을 가진 글이지마는, 남들은 이를 칭찬하건만, 우리 자신들은 이를 몰라 보고 천대만 하여 왔다.” 하는 감격은 나로 하여금 이를 추구하기에 변함이 없게 하였다.

나는 수학, 물리학 같은 자연 과학에 더 취미를 가지었었다. 중학을 마칠 때에 자연 과학자가 되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¹³

8 김윤경의 아버지 김정민은 1906년 1월 12일에 세례를 받았고, 어머니는 1909년 음력 2월에 세례를 받았다. 어머니의 세례명은 박라홀(朴羅羅)이다. 김윤경은 1909년 6월 6일 경성(京城) 정동예배당(貞洞禮拜堂)에서 최병헌(崔炳憲)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9 김윤경은 4월 12일에 상경하여 경성(京城) 서부 서강방(西江坊) 창전리(倉前里)에 있는 사립 우산학교(牛山學校)에 입학하였다. 12월 14일 의법학교(懿法學校)로 전학하여 이듬해 7월 9일에 졸업하고, 그 해 9월 1일 의법학교 고등과 1학년에 입학하여 17세 때인 1910년 7월 졸업하였다.

10 衆하게 : 모으게

11 18세 되던 해인 1911년 1월 9일에 남부 상동(尙洞) 교회 구내에 있던 청년학원(靑年學院)에 입학하였다. 당시 교장은 전덕기(全德基) 목사였다(『한결 김윤경전집』 한결 선생 연보, 『한결 글모음』 III(1975. 5. 15. 한결 김윤경 선생 기념사업회) 『국어 연구와 나』에는 “나는 율회 3년(서기 1909년) 9월에 서울 남부 상동(교회 뒤에 있던 전덕기 목사가 교장으로 주관하는 ‘청년학원’에 입학하였다.”고 한 것과 차이가 크다. 『한결 글모음』은 김윤경이 직접 쓴 글을 옮긴 것이므로 정확할 것으로 본다. 『한결 김윤경전집』 한결 선생 연보에도 1910년 7월 4일에 의법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해 9월 1일에 청년학원에 입학했을 개연성이 크다. 연보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12 이때 주시경에게서 한글과 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김윤경을 비롯하여 광주(廣州) 출신 이희승(李熙昇), 울산(蔚山) 출신 최현배(崔鉉培), 북한으로 간 김두봉(金斗奉) 등이 있다.

13 한결 김윤경 선생 기념사업회, 『국어 연구와 나』, 『한결 글모음』 III, 1975, 40~44쪽.

이보다 앞서 김윤경은 14세가 되던 1907년에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慕賢面) 개일리(開日里)에 사는 백락순(白樂舜)의 장녀 白〇〇 여사와 혼인했는데 백씨 부인이 세 살 위였다. 2남 5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장녀와 4녀는 어려서 가슴에 묻어야 했다.

동경의 입교대학교 시절

김윤경은 1913년 3월 28일 청년학원을 졸업하였다. 그해 4월 8일 경남 마산에 있는 창신학교(昌信學校) 고등과 교유(敎諭)¹⁴로 부임하였고, 1917년 3월 24일까지 재직 후 사임하였다. 사임 직후 바로 상경하여 4월 6일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문과 1학년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국어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1922년 3월 24일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가 4년 만에 졸업하지 못하고 한 해 늦게 졸업하게 된 것은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1년 동안 산골로 도망하여 숨어 지냈기 때문이었다. 연희전문학교 시절 선생은 수학(數學)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나는 문과생이지마는 그때 문과에는 생물학(동·식물, 농학, 생리학)·수학(고등 대수, 구면 삼각법)·물리학·지질학·천문학·화학·경제학·부기학 같은 많은 기초 과학(오늘의 교양 과목)이 배정되었었다.

나는 이러한 과목에도 많은 재미를 가지었었다. 수학은 가장 특유의 과목으로서, 평균 99점을 받았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신뢰가 가득찬 가족적 분위기였다. 벨링스¹⁵ 선생은 서양사 시험 문제를 칠판에 써 놓고 나아갔지마는, 우리는 부정직한 일을 생각한 일이 없었다.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던 해 4월 1일에 배화여학교(培花女學校) 교유로 부임하였다가 1926년 3월에 사임하였는데, 이때 3년간의 동경 유학비를 상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해 4월 16일에 동경의 입교대학교(立敎大學校) 문학부 사학과(史學科)에 입학하였으나 선생의 입교대학교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못했다.

14 지금의 교사(敎師)와 같음.

15 벨링스: 변영서(邊永瑞), 연희전문학교 서양사 교수. 본명은 Bliss W. Billings(188~1969).

4259년(서기 1926) 봄에 교편 생활을 버리고, 다시 더 공부하여 보겠다는 욕심으로, 일본 동경(東京)으로 가서 입교대학(立敎大學) 사학과(史學科)에 적(籍)을 두게 되었다.

이같이 동경으로 가게 된 동기에는 자기 불만으로 좀 더 공부하여 보겠다는 욕심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연희 졸업이 왜경이 교원 자격을 인정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무자격 교원이라고 천대함을 벗어나려 함도 그 동기의 한 가지였다.

입교에 들고 난 뒤에 안 일이지마는 대학 사무국에서는, 나의 연희 졸업이 대학 입학 자격을 인정 받기 전 졸업이라는 이유로 선과생(選科生)으로 편입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그때 사학과장이던 고비아사(小林秀雄) 선생은 나에게 고맙게 두 가지를 지도하여 주었다. 그 하나는 '김군의 일 년 동안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이 되면 본과생으로 편입하겠고, 또 교육학에 관한 몇 학점을 따면, 고등학교(전문학교 대학 예과와 동등 자격) 정교원 자격을 얻게 될 것' 이라 함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서양사를 전공하겠다 함은 지극히 힘든 일이어서, 일본 사람으로서 학위를 받은 이가 두 세 사람에게 지나지 못하니 동양사 방향을 택함이 좋겠다.' 함이었다.

이 둘째의 이유로서 동양 사람으로서 서양사를 전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헬라 말, 라틴 말, 그리고 적어도 영·독·불의 말에 능통하여야 하는 어학의 난관과 근본 사료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하여, 이 선생의 지도와 노력으로 본과생이 되었고, 삼 년 뒤에 문학사의 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학위를 받으려면 소정 학점이 찼더라도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입학이 허락되자, 우리 문자에 관한 것으로 논문을 쓰기로 결심하고, 이미 얻어 모은 재료 밖에 재학 중에도 끊임없이 재료를 더 얻어 모았다. 그리하여, 4261년(서기 1928) 여름 방학 동안에 이 얻은 재료를 정리하고 분류하여 체계를 세워서 쓴 것이 곧 「조선 문자의 역사적 고찰」이란 졸업 논문이었다. 200 자 원고지로 10,614 장에 달하는 것이었다.¹⁶

김윤경은 1929년 3월 21일에 입교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전에 재직하던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유로 부임하였는데, 1931년 1월부터 1933년 1월까지 18회에 걸쳐 졸업 논문인 「조선(朝鮮) 문자(文字)의 역사적(歷史的) 고찰(考察)」을 『동광(東光)』지에 연재하다가 『동광』의 휴간으로 중단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논문을 보완하여 1938년 1월 25일에 『조선문자급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를 출간하였다. 그러나 이때 선생은 '동우회(同友會) 사건'¹⁷으로 종로서(鐘路署)에 구금되어 예심(豫審)에 회부된 상태였다.

16 『한결 김윤경전집』 6 「나의 인생관 그 밖」(1985, 2, 20,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444~447, 연세대학교 출판부, 『나의 인생관 그 밖』, 『한결 김』 6, 1985, 2, 20, 444~447쪽.

17 수양동우회(收養同友會): 맨 처음 이광수(李光洙)의 집에 모였던 발기인은 김윤경, 김항주, 김태진, 홍사용 등 열 사람이었다. 독립계몽운동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나 그 의도를 예경이 눈치 채어 1937년 6월부터 1938년 3월에 걸쳐 이광수, 김윤경, 주요한(朱耀翰) 등 181명이 피검(被檢)된 사건. 후술(後述) 참조.

『조선문자급어학사』 간행

『조선문자급어학사』는 김윤경의 여러 저술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 저작물이며, 우리나라 국어학사에 무척 중요한 자료다. 한글로 풀어서 쓰면 『조선 문자와 어학사』이다. 참고로 김윤경 스스로 꼽은 대표적인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조선문자급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 (860 페이지 이상), 4271년(서기 1938) 1월 25일 첫 판, 4287년(서기 1954) 12월 25일 증보 사판, ‘한국문자급어학사(韓國文字及語學史)’ (1015 페이지)로 이름을 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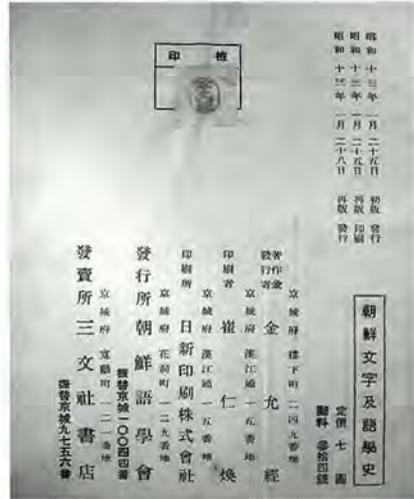
‘어린이 국사’ (243 페이지), 4279년(서기 1946) 6월 5일 첫 판

‘고등 나라 말본’ (224 페이지), 4281년(서기 1948) 7월 10일 첫 판, 4290년(서기 1957) 4월 1일 김인정 3판(252 페이지)

‘중등 나라 말본’ (114 페이지), 4281년(서기 1948) 7월 10일 첫 판, 4290년(서기 1957) 4월 1일 김인정 판(164 페이지)

김윤경의 저작물 중에서도 『조선문자급어학사』는 우리 국어학에 대한 상고(詳考) 논저(論著)가 없을 때에 우리 국어의 계통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밝혔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역사적 연원(淵源)을 고구(考究)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그 때까지 어떤 학자도 이 같은 저서를 낸 이는 없었고, 지금까지도 한국어 전공자라면 꼭 읽어 보아야 할 명저다.

『조선문자급어학사』 초판은 서기 1938년 1월 25일에 발간되었고, 그 3일 후인 1월 28일에 재판본이 간행되었다. 초판이 간행 된지 불과 3일 만에 재판본이 간행된 것은 당시 선생이 ‘동우회 사건’으로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⁸



『조선문자급어학사』의 재판 판권

¹⁸ 끝 부분에 “200 자 원고지로 10,614 장에 달하는 것이었다.”고 하였는데 같은 책 다음 페이지에는 “세번째로 원고를 고치어 쓰기에 손을 댄 것이 서기 1934년 7월 4일이었다. 재료를 얻으면서 틈틈이 쓰기에 4년의 세월이 또 걸리었다. 이번에는 역대 학설의 변천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조선 문자 급 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라 하였다. 분량도 4배나 늘어서 200 자 원고지 2818 장에 달하게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숫자에 오류가 있다. 614 장이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원고에서는 1,614 장이라고 하여 졸업논문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한결 김윤경 선생 기념사업회, 「국어 학자로서 밟아온 길, 『한결 글모음』 III, (1975. 5. 15, 46-49쪽.

『동아일보』기사(1938. 1. 23.)

본국에 돌아와서 배화고등여학교에 봉직하면서 재료를 더 모아 훈민정음 반포 이후로 이에 대한 연구 학설을 주어 모아 보충한 것이 조선 문자 국어학사(200자×10,174 장)였다. 그리하여 단기 4271년(서기 1938) 1월 25일에 이를 처음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나올 때에는 나는 옥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인쇄 교정도 못 하여 잘못 투성이가 되게 되었다. 그 뒤에도 이를 깊고, 더하여 제 4판으로 '한국문자급어학사' (韓國文字及語學史)를 내었다(4287년 12월 25일).

이 책은 1946년에는 진학출판협회(震學出版協會)에서 3판이 발행되었으며, 1954년에는 동국문화사(東國文化社)에서 수정증보 4판이 간행되었다. 초판을 간행한 조선기념도서출판관(朝鮮記念圖書出版館)은 1936년(소화 10) 3월에 각계 명사가 참여해 발기한 단체인데, 이 단체의 첫 사업으로 한결 선생의 노작(勞作)을 발간한 것이다. 조선기념도서출판관 설립 취지는 1938년 1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조선

문자급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의 출판을 알리는 기사와 함께 소개 되었다. 출판비는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애산(愛山) 이인(李仁)이 부모의 갑연(甲宴) 비용을 아껴서 낸 기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이인은 훗날 살던 집을 포함한 전 재산을 한글학회에 기증했는데 지금의 한글회관은 1976년에 그가 출연(出捐)한 3,000만 원의 기금으로 지은 것이다.

『조선문자급어학사』는 언어를 계통적(系統的) 분류와 형태적(形態的) 분류로 나누어 그 특징들을 설명하였다. 김윤경이 명시(明示)한 계통적 분류는 ①인도·게르만어족(語族) ②함·셈어족 ③우랄·알타이어족 ④인도·지나(支那)어족 ⑤말레이·폴리네시아어족 ⑥뽀투어족 ⑦프라비다어족 ⑧아메리카어족 등인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각 언어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형태적 분류에서는 어거스트 쉐라이어(August Schleicher)의 분류법에 따라 ①고립어(孤立語) ②부착어(附着語) ③곡절어(曲折語)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고립어는 '선(善)'의 경우 '좋다' '좋아' '좋은' '착한' '착하게' 등 어떤 경우에도 그 어형(語形)이 변하지 않는 언어이며, 문장 속에서의 위치에 따라 동사,

명사, 형용사 등 어휘의 성질이 구별되는 언어로서 한자와 인디어 등이 이에 속한다. 곡절어(曲折語)는 굴절어(屈折語)라고도 하는데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西歐語)가 이에 속한다. 우리 한국어는 부착어에 속하는데 교착어(膠着語)라고도 한다. 한국어 외에도 일본어나 드라비다어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하면서도 고립어인 한자가 녹아 있으므로 서구(西歐)의 단순한 언어학 이론만으로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가 한국어를 서구의 언어학 이론에 근거해 설명하려다 보니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까닭이다.

문자는 고대의 결승문자(結繩文字)¹⁹에서부터 한자, 범어(梵語)²⁰, 파스파 문자, 몽골 문자, 일본의 신대문자(神代文字), 훈민정음의 ‘정인지(鄭麟趾) 후서(後序)’에 보이는 ‘방고전(倣古篆)’²¹ 등 훈민정음 창제(創制) 이전부터 있어 온 여러 문자학 자료들을 모으고 섭렵하여 체계화하고 한국어의 여러 가지 특성에 관하여 그의 학설을 전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김윤경은 조선 민족의 자주성을 이 책의 저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군 조선의 실재(實在)와 문자의 사용을 비롯하여 부여(扶餘)·고구려·백제·신라 등에도 전해지는 고전(古篆)이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蓋然性)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단군 조선의 실재를 역사로 받아들인 것은 일제 강점기 대부분의 학자가 일제의 ‘단군 조선의 신화화(神話化)’에 경도(傾倒)되어 ‘단군 신화’라고 하던 사회 분위기에서 민족 정체성을 지켜가려는 자주성의 발로(發露)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몇몇 考證學者の 말이라고 權惠奎氏는 支那 古代의 太昊伏羲氏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八卦라는 것도 朝鮮文字와 淵源이 深密하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너무 漠然하니 그만두더라도 抱朴子에 ‘黃帝東到青邱, 過風山, 見紫府先生, 受三皇內文……’ 이라 한 三皇內文은 朝鮮에 古代의 文字가 있었음을 證據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權惠奎氏와 崔鉉培氏도 이른바와 같이 黃帝 때 사람 蒼頡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짓기 시작하였다는 漢字도 三皇內文과 무슨 脈絡이 있다고 推測됩니다.²²

김윤경은 우리나라 전적(典籍)은 물론 중국의 고대 전적 기록을 일일이 조사하여 자기 학설의 타당성을 전개하였다. 단군 조선의 ‘신지(神誌) 비사문(祕詞文)’, 부여의

19 결승문자(結繩文字): 새끼줄 같은 끈에 매듭을 지어 그 크기와 간격으로 뜻을 표시하던 문자.

20 범어(梵語): 고대 인도어(印度語).

21 방고전(倣古篆): 옛 전자(篆字)를 본뜬.

22 연세대학교 출판부, 『조선문자집어학사』, 『한결 김윤경전집』 1, 1985, 2, 20, 45쪽.

‘왕문(王文) 문(文)’ 신라의 ‘각목(刻木) 문(文)’ ‘고구려 문자’ ‘백제 문자’ ‘향찰(鄕札)’ ‘발해 문자’ ‘고려 문자(이두와 구결)’ 등의 전거(典據)를 일일이 명시하며 설명하였다. 그는 중국 기록이 이치에 닿지 않을 때는 다른 전거를 들어 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등 한민족의 자주적 관점에서 시종여일(始終如一) 하였다.

훈민정음 창제(創制)의 배경과 특징, 창제 후의 사용과 연구 기록들을 자료 중심으로 논술하면서 근대의 국문 연구와 현대의 국어 사용에 관해서까지 국어사와 국어학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집성(集成)하였다.

『조선문자국어학사』는 1928년에 입교대학 졸업 논문인 「조선(朝鮮) 문자(文字)의 역사적(歷史的) 고찰(考察)」을 쓴 후에도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수정 보완을 거쳐 10년 만에 조선기념도서출판관의 첫 번째 간행물로 출판된 역저(力著)였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 혹독했던 수난의 세월

김윤경은 구한말에 태어나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動亂)을 겪으며 격동의 시대를 몸으로 맞서며 살았다. 그 시대에 살았던 모두가 그렇겠지만 그의 일생도 고난과 울분을 삭이며 살아야 했던 파란(波瀾)의 생애였다.

김윤경이 일제에 처음 쫓기게 된 것은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일이었다. 이때 그는 연희전문학교 학생이었는데 일본 경찰에 쫓겨 일 년간 고향으로 피신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그는 4년 과정을 5년 만에 졸업하게 된다.

두 번째 겪은 수난은 ‘수양동지회(收養同志會) 사건’ 이었다. 수양동지회는 독립계몽 운동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나 그 의도를 일본 경찰이 눈치 채어 1937년 6월부터 1938년 3월에 걸쳐 이광수(李光洙), 김윤경(金允經), 주요한(朱耀翰) 등 181명이 피검(被檢)된 사건이다. 수양동우회에 관한 그의 기록을 살펴보자.

합병 직전에 국내에서 비밀 단체로 ‘신민회’, 표현 단체로 ‘청년학우회’를 조직한 도산은 미국 샌프랜시스코에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홍사단’을 조직하였거니와(1913. 5.13.), 3·1 운동 때 상해로 온 도산은 상해에서 그 원동 위원부를 설치하여, 박 선제로 이 일을 맡게 하였고, 동경에는 김 항주를 보내어 동지를 모으게 하여, 유억경²³ 이하 동지를 얻게 되었는데, 국내에도 지부를 두어야 하겠다고 하여, 상해에서 입단한 춘원·박 현환에게 이를 부탁한 것이다.

1921년 봄에 춘원과 박 현환이 전후하여 귀국하여 동지를 모았다. 그리하여, 1922년 2월 12일 밤에 당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10.1회 동지들. 앞줄 맨 왼쪽이 김윤경, 한 분 건너 안재홍, 그 옆이 최현배,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이병기. 안재홍 선생이 동석했으므로 광복 직후부터 1950년 6월 사이에 찍은 것으로 보인다.

주동의 춘원 집(당시 신문로 1가 9번지 영혜의원)에 모이며, '수양동지회'를 조직하였다. 그 발기인은 해외에서 돌아온 김 항주·김 태진·박 현환·곽 용주·이 항진과, 국내에서 새로 얻은 동지 김 윤경·김기전·원 달호·홍 사용·강 창기의 열 사람이었다.

춘원은 이 명단에 들지 않았다. 이는 자기 이름이 보이면 발전에 방해될까 염려한다 함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중심인물이었다. …… 그는 말하기를 '독립을 하려면, 유력한 정치가라든지 과학자·의사·교육가·기타 국가를 조직하기에 필요한 인물이 많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제 이런 인물이 얼마나 되는가' 함과 '독립은 소포(小包, 우편물)로 선사받아 될 일이 아니라' 함이 민족을 모욕하고 독립운동을 무시함이라 하여, 몇 청년이 춘원과 《개벽》사에 폭행까지 한 일이 생기었다. 그러나, 춘원의 양심은 가을 바람과 같이 맑았었다(1925. 10. 10.~11. 평양의 '동우구락부'와 합친 뒤 '수양동우회'라고 치었고, '신간회' 시절과 같이 정치 운동이 성행될 때에는 '수양 단체'라고 가볍게 무리에게 방해를 당할까하여 '동우회'라고 고친 것).

사건이 터지게 되자(1937. 6. 7.) 도산 이하 홍사단·동우회 관계자 백 수십 명과 함께 검거되었다. …… 이심 공판에서 춘원은 징역 5년, 김 종덕·박 현환·김 윤경·주요한 들은 각각 징역 4년, 김 동원·김 성업·김 병연·조 명식 들은 각각 징역 3년, 조 병옥은 징역 2년 반, 오 봉빈·송 창근·최 능

23 유억경(俞億敬) : 유길준(俞吉濬)의 아들. 미군정시(美軍政時) 한국측 초대 학무국장(學務局長)을 지냈는데 1947년 11월 8일 급서(急逝)했다.. 원문에 '유억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쇄 과정의 오타(誤打)다.

진·백 영엽·조종완·김찬중·김봉성 등은 각각 징역 2년, 그밖의 24명은 다 각각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았었다. 이같이 춘원은 이 사건에서 최고인 5년 징역의 선고를 받음은 그가 조직의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이다.²⁴

여러 사건 중에서도 김윤경이 겪은 가장 큰 고초는 '조선어학회사건(朝鮮語學會事件)'이었을 것이다.²⁵ 감옥에서 고문을 당한 것보다도 감옥에 있는 아들을 걱정하다가 끝내 아들의 출옥을 보지 못하고 영면(永眠)하신 자당(慈堂)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경이야 오죽 애통했으랴.

나는 불효스럽게도 전후 두 번이나 왜정의 최후 발악에 걸리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듯한 아픔을 끼치어 드리게 된 일이 있다. 첫번은 종로 경찰서를 거치어 서대문 감옥으로 넘어간 '동우회' 사건으로 인한 감옥살이(서기 1937년 6월 7일로 다음 해 7월 29일까지)요, 두 번째는 함경남도 흥원 경찰서를 거치어 함흥 감옥으로 넘어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인한 감옥살이(서기 1942년 10월 1일로 다음 해 9월 18일까지)가 그것이다. ……

경찰서 '유치장'(留置場, 죄인 가두어 두는 곳)이나 감옥소는 찬 마루바닥이라 함을 들으시고, "아이고, 우리 윤경이는 이 추위에 거기(흥원)는 여기(서울)보다도 더 춥다는데, 마룻바닥에서 어찌 자노?" 하시면서, 자기도 일부러 집의 마루에서 주무시어 보기도 하시었고,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밀곱 삶이 밥이나 콩삶이 밥도 배를 채울 수가 없다고 함을 들으시고, 자기도 "밀이나 콩을 삶아 달라" 하여 잡수시어 보기도 하시면서, '늘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시었다' 함도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들어 알았다.

…… 하루 속히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느님께 기도하였으나, 내가 옥에서 놓이어 나아오기 전인 1943년 5월 15일에 그처럼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나라로 가시고 말았다. …… 청량리 정거장에 미중나온 가족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으나, 서로 눈치만 보면서 대답이 없었다. …… 집에 와서 아버지는 반갑게 뵈었으나, 얼마가 지나도 어머니는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어머니는 어디에 가셨나요?" 하고 예사롭게 물었다. 이에 대하여 가족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여야 좋을까를 알지 못하여, 대답이 없을 때에 아버지께서 "5월 15일에 죽었다." 하시는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쓰리고 아픈 사실을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74세(서기 1870. 2. 13~1943. 5. 15.)로 작고하시고, 아버지는 6년 뒤에 82세(서기 1878. 7. 20.~1949. 7. 13.)로 작고하시었다. ……

나의 존경하는 어머니를 임종도 못 하고 여의게 된 것은 나의 일생을 통하여 잊지 못할 철천의 한이다. …… 내가 왜정 박해로 직업을 잃게 된 때라 생활이 극히 궁색하였다. 장사를 모실 일조차 막연하여, 가족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였다고 한다. 친구들도 적지 않았으나, 배일(排日) 사상의

24 한결 김윤경 선생 기념사업회, 「춘원과 수양동맹회」, 『한결 글모음』Ⅲ, 1975. 5. 15, 418~421쪽.

25 1942년 4월 1일 선생은 성신가정여학교(誠信家政女學校) 교유(敎諭)로 부임했으나 10월 1일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피검(被檢)당했다. 불과 5년 전(1937년)에 동우회 사건으로 피검되어 2년간이나 옥고(獄苦)를 겪고 겨우 교육자로 부임하자마자 또 잡혀들어가고를 치르게 된 것이다.

죄로 옥에 갇힌 친구의 집 상사라, 왜정의 주목을 꺼림인지 올 만한 친구들도 오지 않은 이가 많았음을 조객록(弔客錄)을 보아 알 수 있었다.²⁶

선생은 6·25 동란 때도 피난하지 못하여 공산치하에서 몇 달을 불안하게 지내야 했다.

1948년 6월 28일에는 서울이 적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되었다. 문교부의 공문이나, 대통령의 방송(27일 밤 11시까지지도)으로 '염려 말고 안심하여 직장을 지키라' 하는 거듭되는 지시로 안심하였던 나는 28일 아침에야 시국이 뒤집힘을 깨닫게 되었다. 경찰관은 다 도망하여 주재소가 되었고, 국군은 짐차를 나의 집 앞에 던지고, 학생복을 달라 하여 갈아 입고 도망감을 보았기 때문이다. 호국단 학생들은 성화같이 피신하라고 즐랐다. 피신하려고 집을 떠났다.

다음 날이나 적군이 쫓기어 가거든, 되돌아오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친촌 앞 한길에는 시내에서 내밀리는 사람들이 흉수 같았다. 시내에 적군이 들어와서, 서대문 밖 형무소를 열어 놓았다고 말한다. 큰 자부와 손자들이 성내에 있는데, 연락할 시기는 이미 늦어서 마음은 초조하였다. 더욱 군인의 가족인 때문이다. ……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막히고, 적군은 강을 건너 남으로 쫓아왔다.

광주 산골인 고향에 가 숨어서,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광주도 적에게 점령되어, 7월 2일에는 '괴뢰군'이 집뒤집을 하였다. 둘째 아들 아이가 붙잡혔다. 산으로 총살을 하려고 끌고 감을 보고 마음은 타는 듯하였으나, 친행으로 놓이게 왔다. 동네 사람과 가족과 본인의 말(연희학생이란)이 일치하여, 저희가 찾아 쫓으려 하는 군인이나 경관이 아님이 증명되기 때문이었다.

몇 날 뒤에는 다발총을 뽕 빨치산군 몇 명과 내무서 지서 주임이란 자가 동 위원장을 앞세우고, 나를 찾는다고, 아내는 나의 지는 집으로 찾아왔다. 부자를 다 같이 가지는 것이다. '주임'이란 지는 나더러 '연희대학교 총장이라는데 왜 속이었는데?' 하였다. 나는 '나는 속인 일이 없고 속일 줄도 모르오. 총장은 문교부 장관인 백 낙준 박사요, 나는 그의 일을 대신 좀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보아 주던 것 뿐이오.' 하였다. 거짓말하면 총살한다는 위협이었다. 또 집의 아이에게는 전일 괴뢰군에게 의심받던 똑같은 이유로 신분을 묻는 것이었다. 그 애도 먼저와 같은 대답과 동네 사람들의 증언으로 무사함을 얻었으나, 어디 가려면 반드시 보고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나중(9·28 뒤) 서울에 와서 들은 말이거니와, 서울서도 첫날 나의 사택을 뒤지고, 재산은 전부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나와 부자의 숨은 곳을 알리어 달라고 집뒤집을 하였으므로, 그때 서울에 있었다면 죽었거나 납치되어 감에 틀림 없다고 하였다. 그 촌에서 경관이 '치수하면 용서한다'는 속임에 빠져 잡히어 감을 보았고, 나중에 서울에 와서 많은 사람(지도층 인물)이 그같은 방법으로 납치되어 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죄없는 사람을 해하야?'는 생각에 잡히어 가거나 죽을 염려는 없다고 어리석게 믿었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유우엔' 군의 인천 상륙이 좀 늦었다면 나는 '내무서원'에게 잡히어 갔을 것이나 '유우엔' 군이 수원

26 연세대학교 출판부, 『나의 인생관 그밖』, 『한결 김윤경전집』 6, 1985. 2. 20, 106-108쪽.

과 용인을 회복한 고로, 우리 부자는 몰래 용인으로 넘어가서 피하게 되었다.²⁷

이 밖에 많은 기록과 연구 업적이 있지만 지면 제한으로 소할(疏闊)히 정리할 수밖에 없다. 선생의 연보는 『한결 김윤경 전집』과 『한결 글모음』 등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선생의 60세 이후 연보 대강(大綱)만을 기록한다.

>> 김윤경 연보

- 1953. 4.18. 연세대학교 대학원장에 임명됨.
7. 7. 국어심의회 심의위원.
- 1954. 12.25. 『한국문자급어학사(韓國文字及語學史)』 증보 4판 발행.
(『조선문자급어학사』의 제호를 바꾼 증보판이다.)
- 1955. 4.22.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 받음.
7.16.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됨.
- 1960. 8. 1. 대한민국 학술원 중신회원에 선출됨.
- 1962. 2.28. 연세대학교에서 정년퇴임.
- 1962. 7.17. 대한민국 학술원 학술문화발전 공로상 수상.
9.14.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강사.
10.15. 한양대학교 강사.
- 1963. 3. 2. 한양대학교 교수.
8.15. 문화훈장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 서훈.
- 1964. 1.13. 한양대학교 문리대 학장에 임명됨.
4.25. 전국 국어국문학 교수단 이사장에 선출됨.
- 1969. 2. 3. 산업시찰 도중 부산에서 별세.
- 1969. 2. 9. 대한민국 사회장(社會葬)으로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에 안장.

우리나라 국어학계의 거목(巨木)인 한결 선생의 일생을 과문(寡聞)하고 노둔(魯鈍)한 필자가 짧은 지면에 개관(概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필자의 우견(愚見)보다는 선생께서 남기신 기록을 중심으로, 한 치 흐트러짐 없는 생(生)을 살았던 선생의 삶과 학문적 업적을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나마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소이(所以)며, 이 글이 소괄한 기록일 수밖에 없음은 필자의 한계라 하겠다.

선생의 논저와 여러 글을 읽고 글을 쓰는 동안, 한민족의 자존과 정체성에 남다른

27 한결 김윤경 선생 기념사협회, 「6·25와 나의 피난」, 『한결 글모음』 III, 1975. 5. 15, 167-170쪽.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선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기쁨이었으며,
다시 한 번 광주인(廣州人)으로서의 긍지(矜持)와 행복을 느낀 시간이었다.

박광민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연구위원

너른 고을 · 廣州



인물전

역사는
인륜의 거울이란
말이 있다.

역사 속 훌륭한 인물들의 행장이나 업적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여 그 속에서 새로운 인생여정을 다시 꾸며보게 되기도 하고 그들의 위국충절이나 모범적인 행실, 또는 학문탐구에 쏟은 결실로 후세에게 남겨준 학구열 등을 귀감으로 삼고자 인물전을 편찬하기도 한다.